브라운 신부의 지혜

The Wisdom of Father Brown

G.K. 체스터턴 (G.K. Chesterton) (1874–1936)

1914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3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G.K. 체스터턴 (G.K. Chesterton), "The Wisdom of Father Brown" (Cassell & Co. 1914)

저자

G.K. 체스터턴 (G.K. Chesterton) (1874–1936)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223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Qwen3.6-35B-A3B (GB10 로컬) · 검수 Claude Opus 4.8 (검수·교정)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3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체스터턴 특유의 역설적 위트와 아늑한 영국 정서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틴 워드가 제작했다

에게

루시언 올더쇼

목차

1. 글래스 씨의 부재 2. 도적들의 낙원 3. 히르시 박사의 결투 4. 복도의 남자 5. 기계의 실수 6. 카이사르의 머리 7. 보라색 가발 8. 펜드래곤가의 몰락 9. 징의 신 10. 크레이 대령의 샐러드 11. 존 불노이의 기이한 범죄 12. 브라운 신부의 동화

제1장 —— 글래스 씨의 부재

영예로운 범죄학자이자 특정 도덕적 질환의 전문가인 오라이언 후드 박사의 상담실은 스카버러의 해안가를 따라 자리 잡고 있었다. 거대하고 환한 프렌치 윈도우들이 북해를 마치 끝없는 푸른 대리석 벽처럼 비춰냈다. 그런 곳에서는 바다가 마치 푸른 대리석으로 된 낮은 벽지처럼 단조로움을 풍겼다. 사무실 전체가 바다의 그 끔찍할 정도로 깔끔한 질서와 닮은, 또 다른 끔찍한 정돈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후드 박사의 아파트가 사치나, 아니 시적 정취를 배제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제자리에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그들은 제자리를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줬다. 사치는 있었다. 특별한 탁자 위에는 최고급 시가 상자가 여덟에서 열 개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상자는 가장 강한 향의 시가가 벽 쪽, 가장 순한 향의 시가가 창문 쪽에

위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세 가지 종류의 양주를 담은 탕탈스(술병 거치대)가 항상 이 사치의 탁자 위에 놓여 있었는데, 기발한 사람들은 위스키, 브랜디, 럼주 수위가 항상 똑같다고 주장했다.

시적 정취도 있었다. 방의 왼쪽 구석은 영어 고전 전집으로 채워져 있었다. 오른쪽 구석에는 영국과 외국의 생리학 서적들이 즐비했다. 하지만 그 서가에서 초서나 셸리의 책을 한 권 꺼내면, 그 빈 자리는 마치 사람의 앞니가 빠진 것처럼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책들이 결코 읽히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아마도 읽혔겠지만, 그 책들은 마치 옛 성당의 성경들처럼 제자리에 묶여 있는 느낌이 들었다. 후드 박사는 자신의 개인 서고를 마치 공공 도서관처럼 대했다.

이 엄격한 과학적 무형의 질서는 가사와 발라드가 가득한 선반들, 그리고 술과 담배가 놓인 탁자들까지도 적셨다. 그렇다면 전문의의 도서관을 지탱하는 다른 선반들과, 약하거나 요정처럼 섬세한 화학·기계 기구들을 받치는 다른 탁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이교도적인 신성함이 그 이상일 것은 자명하다.

후드 박사는 자신의 아파트를 길게 누비며 거닐었다. 소년들의 지리책에 나오는 말대로라면, 그의 집은 동쪽으로는 북해에 맞닿았고, 서쪽으로는 사회학 및 범죄학 서적으로 가득 채워진 그의 서재가 막아섰다. 그는 화가들이 즐겨 입는 벨벳 옷을 입고 있었으나, 화가 특유의 게으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머리카락은 회색이 많이 섞였지만, 여전히 풍성하고 건강해 보였다. 얼굴은 야위었으나, 생기가 돌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와 그의 방은 모두, 그가 위생적

인 이유만으로 세운 집 옆에 있는 그 거대한 북해처럼, 동시에 엄격하면서도 분주한 분위기를 풍겼다.

운명은 장난기 어린 기분에 사로잡힌 듯, 문을 열고 그 길고 엄격하며 바다에 둘러싸인 방 안으로 한 사람을 들여보냈다. 그 방과 그 방의 주인과는 정반대되는 인물이었다. 짧지만 정중한 호출에 답하듯, 문이 안쪽으로 열리며 방 안으로 한 형체가 비틀비틀 들어섰다. 그는 마치 자신의 모자와 우산을 짐 한 뭉치처럼 다루기 어려워하는 듯했다. 우산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낡은 검은 덩어리였고, 모자는 곡선이 넓은 검은 신부용 모자로, 영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더없이 수수하고 무력한 모습 그 자체였다.

의사는 새로 온 손님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억눌린 놀라움이 서려 있었다. 마치 거대하지만 분명히 해롭지 않은 바다 괴물이 갑자기 방 안으로 기어 들어온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새로 온 이 역시 의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지만 숨이 차 있었다. 그것은 방금 옴니버스에 몸을 꽉 끼워 넣은 뚱뚱한 청소부 아주머니의 특유의 친근한 모습과도 같았다. 사회적 자만감과 몸의 어수선함이 뒤섞인, 풍부하면서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그의 모자가 카펫 위로 툭 떨어졌다. 무거운 우산은 그의 무릎 사이로 쾅 하고 끼어들었다. 그는 한쪽으로는 모자를 줍고, 다른 한쪽으로는 몸을 숙여 우산을 주우려 했다. 하지만 그의 동그란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 이름은 브라운입니다. 실례하십시오. 맥냅 가문의 그 일로 찾아뵈었습니다. 종종 그런 곤경에 빠진 분들을 도와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용서하십시오."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학자가 차가운 어조로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냉정하게 빛났다. "방을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후드 박사입니다. 제 일은 거의 전적으로 문학과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경찰이 극히 난해하고 중요한 사건을 다루다 저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 이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브라운이라는 작은 신부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두 사람이 약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그는 환히 빛나는 이성으로 의자에 기대 앉았다.

후드 박사의 눈썹이 어둡게 찌푸려졌지만, 그 아래로 빛나는 눈빛에는 분노인지, 아니면 재미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래도," 그가 말했다. "나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소."

"보십시오, 그들은 결혼을 원합니다." 신부 모자를 쓴 남자가 말했다. "매기 맥냅과 젊은 토드헌터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소?"

위대한 오라이언 후드 박사의 과학적 승리는 그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다. 어떤 이들은 그의 건강을 잃게 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의 신앙을 잃게 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들이 그를 완전히 무장해제시

키지는 못했다. 그는 여전히 터무니없음에 대한 감각을 간직하고 있었다.

순진한 신부의 마지막 변론이 끝나자, 그의 속 깊은 곳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의사의 자문처럼 아이러니한 태도로 팔걸이 의자에 몸을 던졌다.

"브라운 씨,"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제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받은 지가 정확히 14년 반이 됐습니다. 그때는 런던 시장 주최 만찬에서 프랑스 대통령을 독살하려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당신의 친구인 매기가 그녀의 친구인 토드헌터와 약혼할 만한 적임자인지 아닌지 문제인 것 같군요. 잘 알겠습니다, 브라운 씨. 저는 스포츠맨입니다. 이 건도 맡겠습니다. 프랑스 공화국과 영국 왕께 드렸던 것보다 더 좋은, 아니 14년 더 나은 조언을 맥냅 가문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작은 신부 브라운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진심으로 그를 감사했다. 하지만 그 감사에는 묘한 단순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흡연실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성냥을 건네준 사소한 배려에 감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그가 실제로 감사하고 있던 대상은 큐 왕립식물원의 관장이었기 때문이다. 관장이 네잎클로버를 찾으러 들판까지 자신과 함께 나와 준 데 대해 감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마친 후, 작은 남자는 별다른 쉼표도 없이 곧장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이름이 브라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제가 사제인, 북쪽 끝자락에 있는 작은 가톨릭 교회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교회 앞에는 마을 끝까지 길게 이어진, 마치 방파제처럼 바닷가를 따라 뻗은 골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끝자락, 가장 어지럽게 늘어선 거리 말입니다. 그곳에 제 양 떼 중 한 명인 맥냅 과부가 살고 있습니다. 매우 정직한 분이지만 성미가 좀 급하죠.

그녀는 딸 하나를 두고 있고, 방을 빌려줍니다. 과부와 딸 사이, 그리고 과부와 하숙생들 사이에는 말 많고 할 말이 많습니다. 양쪽 모두 변명할 거리가 많죠.

현재 하숙생은 토드헌터라는 젊은 남자 한 명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하숙생들보다 더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는 집안의 젊은 여주인과 결혼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집안의 젊은 여인은?" 후드 박사는 큰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속으로 크게 웃으며 물었다. "그녀는 무엇을 원하죠?"

"아, 그녀가 그와 결혼하려 하는군요!" 브라운 신부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바로 그 점이 끔찍한 혼란을 부르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수수께끼군요." 후드 박사가 말했다.

"젊은 제임스 토든허터에 대해 말하자면," 성직자가 이어 말했다. "나로서는 그에게 나쁜 평판이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총명하고 갈색빛 피부의 작은 사내다. 원숭이처럼

민첩하고, 배우처럼 수염을 깎아 깔끔하며, 태어날 때부터 궁정인이 된 듯 남을 잘 도와준다. 주머니가 돈으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이지만,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비관적인 성향의 맥냅 부인은 그가 무언가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아마도 다이너마이트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다이너마이트는 아주 조심스럽고 소음 없는 종류일 것이다. 가엾은 그 남자는 하루 중 몇 시간 동안 혼자 문을 잠그고, 잠긴 문 뒤에서 무언가를 연구하곤 한다. 그는 자신의 사생활이 임시적이며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결혼식 전에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이 사람들이 확실히 아는 전부다. 하지만 맥냅 부인에게 들으면 그녀가 확신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무지라는 땅덩어리 위에서는 소문들이 잔디처럼 자라난다는 것을 알지 않는가. 방 안에서 두 목소리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소문도 있다. 하지만 문이 열리면 토든허터는 항상 혼자 있다. 실크 모자를 쓴 키 큰 신비로운 남자가, 황혼 때 모래밭과 작은 뒷마당을 조용히 지나 바다 안개 속에서 나타나 토든허터가 열어둔 창문 옆에서 그와 대화했다는 소문도 있다. 대화는 다툼으로 끝난 듯했다. 토든허터가 격렬하게 창문을 닫자, 모자를 쓴 남자는 다시 바다 안개로 사라졌다. 이 이야기는 가족들이 가장 신비롭게 풀어서 말한다. 하지만 나는 사실 맥냅 부인이 자신의 원래 이야기를 더 선호한다고 생각한다. 즉, '다른 자'(혹은 무언가)가 매일 밤 구석에 있는 큰 상자에서 기어 나온다는 이야기다. 그 상자는 낮 동안 내내 잠겨 있다. 따라서 토든허터의 그 닫힌 문은 '천일야화'의 모든 공상과 괴물들의 문으로 취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사내는 정중한 검은 재킷을 입고, 거실 시계처럼 정확하고 무해하다. 그는 정해진 날에 월세를 내고, 거의 금주인 듯하며, 어린 아이들

에게 끝없이 친절하다. 아이들을 하루 종일 즐겁게 놀아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장녀와도 동등하게 친해졌다는 점이다. 그녀는 내일 그와 함께 교회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거대한 이론에 열정을 쏟는 사람은, 그 이론을 사소한 일상에 적용하는 맛을 항상 즐긴다. 위대한 전문가는 신부의 단순함에 내려와 주셨지만, 그 내려옴이 오히려 과시적인 태도로 이어졌다. 그는 안락의자에 편안하게 몸을 맡긴 채, 약간 정신이 다른 곳에 떠 있는 강연자의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자연의 큰 흐름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초겨울에 한 송이 꽃이 아직 시들지 않았다고 해서, 꽃들이 모두 살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밀물에 젖지 않은 한 개의 자갈이 있다고 해서, 밀물이 밀려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의 눈에는 인간사의 모든 역사가 겨울철 파리의 대량 학살이나 봄철 제비들의 귀환처럼, 집단적인 움직임과 파괴, 그리고 이주들의 연속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의 근원적 사실은 '인종'입니다. 인종이 종교를 낳고, 인종이 법적·도덕적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흔히 켈트인이라 부르는, 야성적이고 세속을 초월하며 소멸해 가는 그 혈통만큼 강력한 사례는 없습니다. 당신의 친구 맥냅 가문이 바로 그 대표적 표본이죠. 키가 작고 피부는 까맣고, 몽상적이며 유동적인 그 피를 이어받은 그들은 어떤 사건이든 초자연적인 설명을 쉽게 받아들이죠.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보여주는, 모든 사건에 대한 초자연적 설명을 여전히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뒤에서는 바다가 울부짖고, 앞에서는 교회에서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평범한 사건들에 기묘한 색채를 입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작은 교구 책임자로서, 두 목소리와 바다에서 온 키 큰 남자에 대한 특정한 이야기로 공포에 빠진 맥냅 부인 한 명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은 마치 전 세계로 흩어진 맥냅 가문 전체를 봅니다. 그들은 종족 전체가 새 떼처럼 고르게 균일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는 수천 개의 집에서 수천 명의 맥냅 부인들이, 친구들의 차 컵에 조금씩 병적인 감정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또한--"

과학자가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밖에서 또 다른, 더 급한 호출이 울려 퍼졌다. 스치듯 지나가는 치마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복도를 급히 지나갔고, 문이 열리자 한 소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급한 탓에 흐트러져 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바람에 날린 금발 머리를 하고 있었으며, 만약 그녀의 광대가 스코틀랜드식 특징처럼 다소 도드라지고 불그스레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완전히 아름다웠을 것이다. 그녀의 변명은 거의 명령처럼 갑작스러웠다.

"말씀 방해해 죄송합니다, 신부님."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브라운 신부를 당장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이건 생과 사를 가르는 문제거든요."

브라운 신부가 어수선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매기?"

"제임스가 살해당했나 봐요." 소녀가 대답했다. 숨이 아직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그 글래스라는 남자가 또 그와 함께 있었어요. 문 너머로 그들의 대화 소리가 또렷이 들렸거든요. 두 가지 다른 목소리였어요. 제임스는 낮게, 그리고 약간 사투리 억양으로 말하거든요. 반면 다른 목소리는 높고 떨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남자 글래스?" 신부는 다소 당혹스러운 듯 되물었다.

"그 이름이 글래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소녀는 참지 못해 재촉했다. "문 너머로 들었어요. 둘이 싸우고 있었죠. 아마 돈 문제였을 거예요. 제임스가 계속 '네, 글래스 씨'라거나 '아니요, 글래스 씨'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두세 개, 글래스 씨'라고도 했고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떠들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걸 왜 그렇게 급하게 하려는지요?" 후드 박사가 물었다. 그는 젊은 여자를 유심히 관찰해 왔다. "글래스 씨와 그의 자금 사정이 어찌 그리도 긴박한 행동을 취하게 만들었단 말인가?"

"문은 도저히 부수지 못했어요." 소녀가 짧게 대답했다. "그래서 뒷마당으로 달려가, 방 안이 보이는 창틀 위로 기어올랐죠. 방 안은 어둡고 텅 빈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제임스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분명히 봤어요. 마취당했거나 질식당한 것처럼 말이죠."

"이건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브라운 신부가 어지러이 놓인 모자와 우산을 주워 들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실 방금 이 분께 당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견은——"

"대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과학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 젊은 여자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켈트 혈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모자를 쓰고 당신과 함께 시내로 산책하러 가겠습니다."

몇 분 후, 세 사람은 맥냅 가의 끝자락을 향해 다가갔다. 산악인처럼 엄숙하고 숨이 찬 걸음걸이를 하는 소녀, 그리고 호랑이처럼 날렵한 속도를 숨긴 듯한 느릿한 우아함을 지닌 범죄학자. 그리고 특색 없는 활기찬 발걸음으로 달리는 신부.

이 마을 가장자리의 풍경은 의사가 암시했던 황량한 정서와 환경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증명하듯 보였다. 해안선을 따라 흩어진 집들은 점점 더 간격을 벌리며 끊어진 줄처럼 늘어섰다. 오후는 일찍 찾아온, 어딘지 불길한 황혼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바다물은 먹물처럼 보랏빛을 띠며 불길한 소리로 웅웅거렸다.

모래사장으로 내려다보는 맥냅 가의 좁은 뒷마당에는, 두 그루의 검고 척박한 나무가 놀란 듯이 손을 들어 올린 악마의 손가락처럼 우뚝 서 있었다. 맥냅 부인이 가느다란 팔을 비슷하게 벌린 채 거리를 내려오며 그들을 맞을 때, 그림자에 가려진 그녀의 거친 얼굴은 그녀 자신도 다소 악마처럼 보였다.

의사와 신부는 그녀의 날카로운 재촉에 거의 답하지 않았다. 맥냅 부인은 딸의 이야기를 반복하며, 자신만의 더 불길한 세부 사항을 덧붙였다. 그녀는 글래스 씨가 살해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토든허터 씨가 살해당했다는 이유로 복수를 맹세했다. 혹은 토든허터 씨가 딸과 결혼하려다 죽지 못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그에게 복수를 맹세하기도 했다.

그들은 집 앞의 좁은 복도를 지나 뒤쪽 손님의 방 문 앞에 이르렀다. 후드 박사는 오랜 형사들이 쓰는 습관처럼, 어깨로 패널을 강하게 밀쳐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그 방은 고요한 참혹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 한순간이라도 그 장면을 본 이라면, 이 방에서 두 사람,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격렬하게 충돌했음을 의심할 여지 없이 알 수 있었다.

게임 도중 갑자기 중단된 듯, 카드들이 테이블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고 바닥에는 날아다니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는 와인 잔 두 개가 채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세 번째 잔은 카펫 위에서 수정 조각처럼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 파편에서 몇 발짝 떨어진 곳에는 긴 칼이나 짧은 검처럼 보이는 것이 놓여 있었다. 날은 곧았으나 손잡이는 장식이 가득하고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뒤쪽 창문으로 들어오는 회색빛만이 둔탁한 칼날에 희미하게 반사되고 있었다. 창밖에는 납빛 바다를 배경으로 검은 나무들만이 드러나 있었다.

방 반대쪽 구석에는 신사의 실크 모자가 구겨져 있었다. 마치 방금 머리에서 벗겨져 떨어뜨린 듯했다. 실제로 그 모자가 아직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 모자 뒤 구석에는 감자 자루처럼 뒹굴어졌지만, 철도 화물 상자처럼 끈으로 단단히 묶인 채 제임스 토든터 씨가 누워 있었다. 그의 입에는 스카프가 막혀 있었고, 팔꿈치와 발목에는 여섯에서 일곱 줄의 밧줄이 매듭지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갈색 눈은 살아 있었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오리온 후드 박사는 잠시 발판 위에서 발을 멈추었다. 그는 소리 없는 폭력의 전모를 한눈에 담았다. 그리고는 곧장 카펫 위를 가로질러 걸었다. 그는 키 큰 실크 모자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아직 묶인 채인 토든터의 머리에 그것을 얹었다.

모자는 그에게 너무 커서, 거의 어깨까지 미끄러져 내려갈 지경이었다.

"글래스 씨의 모자군요." 의사가 모자를 들고 돌아오며 주머니 돋보기로 안쪽을 살피며 말했다. "글래스 씨의 실종과 글래스 씨의 모자가 발견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글래스 씨는 옷차림에 소홀한 사람이 아니다. 이 모자는 스타일리시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비록 새것은 아니지만 체계적으로 빗질하고 광을 내어 관리된 흔적이 역력하다. 늙은 멋쟁이였던 것 같군."

"세상에나!" 맥냅 여사가 외쳤다. "먼저 그 남자 매듭을 풀어주지 않으시겠어요?"

"'늙었다'고 한 것은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확신은 없습니다." 해설자가 이어 말했다. "그 이유를 들으면 다소 억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머리카락은 사람마다 빠지는 정도가 천차만별이지만, 거의 항상 약간씩은 빠지기 마련입니다. 만약 방금 썼던 모자였다면 렌즈로 미세한 머리카락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자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래스 씨가 탈모가 심하거나 대머리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제 맥냅 양이 생생하게 묘사했던, 날카롭고 불평투성이의 목소리를 생각해 봅시다. (참아주십시오, 친애하는 부인,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탈모가 심한 머리와 노년에 흔히 나타나는 분노의 어조를 함께 고려하면, 나이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마도 기력이 왕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틀림없이 키가 컸을 것입니다."

"그가 비단 모자를 쓰고 창문에 나타났다는 이전의 증언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더 정확한 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와인잔은 여기저기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하지만 벽난로 옆 높은 받침대 위에는 그 파편 중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만약 토든터 씨처럼 키가 작은 사람의 손에서 이 잔이 떨어졌다면, 그런 파편이 그 높은 받침대 위에 떨어졌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토든터 씨를 풀어주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술잔들에서 얻는 교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말을 이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글래스라는 남자는 나이가 들어 탈모가 생겼거나 신경이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방탕한 생활 탓일 수도 있습니다. 토든터 씨가 지적받았듯, 그는 조용하고 검소한 신사입니다. 본질적으로 금주주의자죠. 이런 카드와 와인 잔들은 그의 평소 습관과 거리가 멉니다. 특정 손님을 위해 꺼내놓은 것일 뿐이죠.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토든터 씨가 이 와인 세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에 와인 한 병의 흔적조차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들에는 대체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저는 당장 글래스 씨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플라스크에서 따랐을, 어쩌면 고급스러운 브랜디나 위스키를 떠올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남자의, 적어도 그런 유형의 남자에 대한 모습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키가 크고 중년이며, 세련되었지만 다소 닳아 빠진 모습. 분명 도박과 독주를 좋아했고, 아마도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했을지도 모릅니다. 글래스 씨는 사회의 변두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사였을 테니까요."

"잠깐만요," 젊은 여자가 외쳤다. "저 사람을 풀어주러 가게 해 주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를 지를 거예요."

"맥냅 양, 경찰을 급히 부르시는 건 추천하지 않소." 후드 의사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브라운 신부, 당신 무리들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그들을 진정시키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오. 알겠소. 우리는 글래스 씨의 모습과 품격을 어느 정도 보았소. 그렇다면 토든터 씨에 대해 알려진 주요 사실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소. 그는 검소하고, 어느 정도 부유하며, 비밀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오. 분명히 말하오, 이것이 바로 협박당하는 남자의 세 가지 주요 특징이오. 그리고 글래스 씨의 흐릿한 사치, 방탕한 습관, 날카로운 예민함은 바로 그를 협박하는 남자의 확실한 징표라는 것도 분명하오. 우리는 입막음 돈의 비극을 대표하는 두 인물상을 보았소. 한쪽에는 신비로운 비밀을 가진 정중한 남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비밀을 냄새로 알아채는 웨스트엔드의 독수리가 있소. 이 두 남자가 오늘 여기서 만나 주먹다짐과 칼날 같은 무기로 다투었소."

"그 밧줄을 벗기실 거예요?" 소녀가 고집스럽게 물었다.

후드 박사는 실크 모자를 조심스럽게 사이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포로 쪽으로 걸어가 그를 자세히 살폈다. 어깨를 잡아서 살짝 돌려보기도 했지만, 그는 이렇게만 대답했다:

"아니요, 경찰 친구들이 수갑을 들고 올 때까지 이 밧줄로 충분할 겁니다."

브라운 신부는 멍하니 카펫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둥근 얼굴을 들어 올리고 물었다.

"무슨 뜻이오?"

과학자는 카펫 위에 떨어진 특이한 단검검을 들어 올렸다. 그는 그것을 집중해서 살펴보며 대답했다.

"토든터 씨가 묶여 있는 걸 보고, 여러분은 글래스 씨가 그를 묶고 도망쳤다고 단정하십니다. 하지만 그 추론에는 네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친구 글래스처럼 단정하게 차린 신사가, 만약 자의로 떠났다면 왜 모자를 두고 갔을까요?

둘째," 그가 창가로 다가가며 말했다. "이곳이 유일한 출구인데, 안쪽에서 잠겨 있습니다.

셋째, 이 칼끝에는 미세한 피자국이 있지만, 토든터 씨에게는 상처가 없습니다. 글래스 씨가 그 상처를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말입니다.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확률론을 더해 봅시다. 협박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괴수를 죽이려 할 가능성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려 하는 협박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밧줄은요?" 신부가 물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뜨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다소 멍한 감탄이 서려 있었다.

"아, 밧줄이군요." 전문가가 특이한 어조로 말했다. "맥냅 양은 왜 제가 토든터 씨를 밧줄에서 풀어주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셨죠.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풀어주지 않은 이유는, 토든터 씨가 원한다면 언제든 스스로 그 밧줄을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청중이 제각기 다른 어조로 놀라움을 드러냈다.

"토든터 씨의 매듭들을 모두 살펴봤소." 후드가 조용히 되뇌었다. "나는 매듭에 대해 조금 알고 있지. 범죄학의 한 분야라고나 할까. 그가 묶은 모든 매듭은 본인이 직접 풀 수 있는 방식이었어. 만약 진짜 적이 그를 꼼짝 못하게 묶었다면 이런 매듭은 만들지 않았을 거야. 로프 사건 전체가 정교한 속임수였어. 우리가 그를 투쟁의 피해자로 보게 하려는 의도였지. 진짜 희생자는 비참한 글래스였을 뿐이고, 그의 시체는 정원에 숨겨졌거나 굴뚝 안에 끼워져 있을지도 몰라."

다소 침울한 침묵이 흘렀다. 방 안은 어두워지고, 정원의 나무 가지들은 바다의 기운에 상한 듯 유난히 야위고 검게 보였다. 하지만 그 가지들은 마치 창문 쪽으로 다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마치 그것들이 바다 괴물, 즉 크라켄이나 문어처럼 창문 너머로 이 비극의 끝을 보러 바다에서 기어 올라온 꿈틀거리는 폴립인 양 착각할 수도 있었다. 바로 그 끔찍한 모자를 쓴 남자, 즉 이 비극의 악당이자 희생자가 바다에서 기어 올라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공기는 이미 협박의 병적인 기운으로 가득 찼다. 협박은 인간 중에서도 가장 병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다른 범죄를 숨기는 범

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더 어두운 상처 위에 붙인 검은 반창고와도 같다.

작은 가톨릭 신부, 브라운 신부의 얼굴은 평소 만족스럽고 심지어 코믹하기까지 했지만, 갑자기 특이한 찡그림으로 뭉쳐졌다. 그것은 그의 첫 순수함에서 보였던 멍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어떤 아이디어의 싹이 트기 시작할 때 찾아오는, 창조적인 호기심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는 단순하면서도 당황한 어조로 물었다. "토든터가 혼자서 자신을 묶고, 또 혼자서 풀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예루살렘!" 브라운이 갑자기 외쳤다. "혹시 그게 아닐까?"

그는 토끼처럼 방 안을 재빨리 가로질러 달려갔다. 그리고는 사로잡힌 자의 반쯤 가려진 얼굴을, 전에는 없던 열정 어린 눈빛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가 다소 멍청해 보이는 자신의 얼굴을 회중들에게 돌렸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는 어느새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 남자의 얼굴에서 보이지 않나요? 어서, 그의 눈을 보세요!"

교수와 소녀는 그가 응시하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돌렸다. 토든터의 얼굴 아래쪽은 넓은 검은 스카프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지만, 위쪽에서는 무엇인가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 눈이 좀 이상해 보이네요." 젊은 여자가 감정이 북받쳐 외쳤다. "당신들 잔인한 놈들! 이게 그를 아프게 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건 아닌 것 같소." 후드 박사가 말했다. "그 눈매는 확실히 특이한 표정을 짓고 있긴 하지. 하지만 그 가로주름은 오히려 약간의 심리적 이상을 나타내는 것 같소."

"아, 헛소리야!" 브라운 신부가 외쳤다. "저 사람이 웃고 있는 게 안 보이니?"

"웃고 있다니!" 의사가 깜짝 놀라 되물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렇게 웃단 말인가?"

"글쎄요," 브라운 신부가 변명하듯 말했다. "에두르지 않고 말하자면, 그분은 아마 당신을 조롱하고 있는 걸세. 나 역시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 나 자신을 좀 웃어넘기고 싶군."

"이제 뭘 안다는 겁니까?" 후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알겠습니다." 사제가 대답했다. "토든터 씨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요."

그는 방 안을 서성이며 사물 하나하나를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그러곤 곧장 공허한 웃음을 터뜨렸다.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참으로 짜증나는 광경이었다.

그는 모자를 보고는 꽤나 웃었다. 깨진 유리조각을 보고는 더 큰 소리로 웃었다. 하지만 검끝의 피를 보고는 그는 죽음에 이를 듯한 웃음으로 몸을 떨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분을 삭이지 못하는 전문가를 돌아보았다.

"후드 박사," 그가 열정적으로 외쳤다. "당신은 위대한 시인입니다! 당신은 허공에서 창조되지 않은 존재를 불러냈습니다. 단지 사소한 사실들을 캐낸 것보다 훨씬 더 신적인 일이 아닙니까? 오히려 비교해 보면, 그런 사소한 사실들은 평범하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소." 후드 박사는 다소 오만한 어조로 말했다. "내 사실들은 모두 필연적인 것이오. 물론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말이지. 직관, 혹은 시라고 부르고 싶다면 시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허용될 수 있겠소. 다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세부 사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오. 글래스 씨가 부재한 상태에서——"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작은 사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신중하게 말했다. "먼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건, 글래스 씨의 부재입니다. 그는 너무도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그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이어갔다. "글래스 씨만큼이나 완전히 사라진 사람은 세상에 없었겠죠."

"당신은 그가 이 마을에 없다는 뜻인가요?" 의사가 물었다.

"그가 모든 곳에서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브라운 신부가 답했다. "말하자면, 사물의 본성 자체에서조차 그는 결여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문의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참으로 아깝군요."

오리언 후드가 경멸하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요," 그가 말했다. "일백 하나나 되는 다른 증거들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처음 발견한 첫 번째 증거부터 살펴봅시다. 이 방으로 떨어졌을 때 맨 먼저 발에 채인 그 사실부터요. 만약 글래스 씨가 없다면, 이 모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토든터 씨의 것이죠." 브라운 신부가 답했다.

"하지만 그건 그에게 맞지 않아요." 후드가 조급하게 외쳤다. "그가 그것을 쓸 리가 없어요!"

브라운 신부는 알 수 없는 부드러움으로 고개를 저었다.

"내가 그가 그 모자를 써도 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내가 말한 것은 그 모자가 그의 것임을, 혹은 만약 당신이 아주 미묘한 차이점을 고집한다면, 그의 소유인 모자임을 말한 것입니다."

"그 차이의 미묘한 부분은 대체 무엇인가?" 형사학자가 살짝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선생님," 부드럽던 작은 남자가 처음으로 성내며 외쳤다. "가까운 모자 가게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평범한 말에도 '사람의 모자'와 '그 사람의 것인 모자'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자 장수라면," 후드가 반박했다. "새 모자 재고에서 돈을 뽑아낼 수는 있잖습니까. 토든터는 낡은 모자 하나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토끼입니다." 브라운 신부가 곧장 대답했다.

"뭐라고?" 후드 박사가 외쳤다.

"토끼도 있고, 리본도 있고, 사탕도 있고, 금붕어도 있고, 색종이 롤도 있었죠." 신부는 재빨리 말을 이었다. "가짜 밧줄을 찾아냈을 때 그 모든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든터 씨에게 흠집 하나 없으시죠? 하지만 그분 안쪽에는 흠집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토든터 씨 옷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맥냅 부인이 엄숙하게 물었다.

"토든터 씨 옷속이 아니라,"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토든터 씨 몸속을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토든터 씨," 브라운 신부는 평정된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는 프로 마술사로서, 저글러, 복화술사, 그리고 밧줄 마술의 전문가가 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에는 머리카락 자국이 없는데, 이는 조발성 탈모인 글래스 씨가 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자는 그 누구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개의 잔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은, 토든터 씨가 스스로 던지고 받으며 연습하던 저글링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연습 단계라 한 잔을 천장에 부딪혀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있던 자리에는, 그가 직업적 자존심과 의무로 삼아 삼키려던 검이 놓여 있었습니다. 역시 연습 중이었기에, 칼날이 목구멍 안쪽을 살짝 긁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부에 상처를 입게 되었죠. 그의 표정을 보면 그 상처는 심각한 것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또한 다벤포트 형제처럼 밧줄에서 빠져나오는 마술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으로 들이닥쳤을 때, 그는 바로 자신을 해방시키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카드는 카드 마술을 위한 것입니다. 그가 방금 공중으로 카드를 날리는 요령을 연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어지러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계를 숨긴 것이 아니라, 다른 마술사들처럼 비법을 숨긴 것뿐입니다. 하지만 정장을 하고 모자를 쓴 한 무직자가 그의 뒷창을 들여다보았다가, 토든터 씨의 큰 분노에 쫓겨난 일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두 로맨스라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글

래스 씨라는 실크모자 쓴 유령의 그림자가 그의 일생을 가리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던 것이죠."

"그런데 두 목소리는요?" 매기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복화술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브라운 신부가 물었다. "복화술사는 먼저 자신의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고, 이어서 방금 들으신 그 날카롭고 비명 같은, 인위적인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답하곤 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후드 박사는 말을 건넨 작은 남자를 어둡고도 집요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분명히 매우 영리한 분입니다." 그가 말했다. "책 속이라면 이보다 더 잘 꾸며낼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당신에게 설명하지 못한, 글래스 씨의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지요. 맥냅 양은 토든터 씨가 그를 그렇게 불렀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어딘지 모르게 아이처럼 킥킥 웃었다.

"글쎄, 그게 바로 그 바보 같은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바보 같은 부분이지."

그가 말했다.

"여기서 마술을 부리던 친구가 잔을 하나씩 던져 올릴 때, 그는 잡는 순간에 소리를 내어 세었다. 그리고 잡지 못할 때는 그 실패도 소리를

내어 알렸다. 그가 실제로 한 말은 이렇다. '하나, 둘, 셋——잔 하나 놓쳤어, 하나, 둘——잔 하나 놓쳤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했지."

방 안이 잠시 정적에 잠겼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한목소리로 폭소를 터뜨렸다.

그때 구석에 서 있던 인물이 만족스러운 듯, 매듭을 풀던 밧줄들을 힘차게 풀어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는 한 번 허리를 굽혀 인사하더니 방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큼직한 포스터 한 장을 꺼냈다.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인쇄된 그 포스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세계 최고의 마술사, 연체 곡예사, 복화술사, 그리고 인간 캥거루 잘라딘이 월요일 저녁 8시 정각, 스카버러의 엠파이어 파빌리온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리즈의 마술을 선보일 것이다.'

둘. 도둑들의 낙원

가장 독창적인 젊은 투스카니 시인 중 하나인 거장 무스카리는 자신의 애호하는 식당으로 빠르게 걸어들어갔다. 그곳은 지중해를 내려다보았고, 차양이 덮여 있었으며, 작은 레몬나무와 오렌지나무들로 울타리가 쳐져 있었다. 흰 앞치마를 입은 웨이터들은 이미 흰 테이블 위에 이른 아침의 우아한 점심 식탁을 차려 놓은 참이었다. 이 광경은 이미 최고조에 달한 자부심을 한층 더 고조시키는 듯했다.

무스카리는 단테처럼 독수리 코를 하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과 목도리는 어둡고 흐르는 물결처럼 늘어져 있었다. 그는 검은 망토를 두르

고 있었고, 거의 검은 가면을 쓴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는 자신 안에 베네치아식 멜로드라마의 일부를 품고 다녔기 때문이다. 그는 트루바두르가 여전히 주교처럼 뚜렷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자신의 시대에서 허용하는 한, 레이피어와 기타를 들고 돈 후안처럼 세상을 걷는 것에 가장 가까웠다.

그는 항상 검술용 케이스를 챙겨 다녔다. 그 검으로 그는 빛나는 결투들을 많이 치렀다. 만돌린을 위한 전용 케이스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 악기로 그는 휴가를 나온 한 요크셔 은행가의 딸, 에셀 해러게이트 양에게 실제로 연가를 부르기도 했다. 그녀는 매우 정형화된 여성이었다.

그는 사기꾼도 아니었고, 아이도 아니었다. 그는 뜨거운 논리파 라틴인이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그 자체로 존재했다. 그의 시는 다른 사람의 산문만큼이나 솔직했다.

그는 명성이나 와인, 혹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열렬하고 직접적으로 원했다. 북쪽의 흐릿한 이상이나 흐릿한 타협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 더 흐릿한 민족들에게 그의 강렬함은 위험하거나 심지어 범죄처럼 비쳤다.

그는 불이나 바다처럼 너무 단순해서 믿을 수 없었다.

은행가와 그의 아름다운 영국인 딸은 무스카리 식당과 연결된 호텔에 머물고 있었다. 그래서 그곳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인 것이었다. 그러나 방 안을 둘러보는 눈빛 하나로 그는 곧 영국인 일행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식당은 빛나고 있었지만, 아직 비교적 한산한 상태였다. 구석 테이블에서는 두 사제가 수군수군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무스카리(열렬한 가톨릭 신자)는 그들을 까마귀 한 쌍만큼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더 멀리 떨어진 자리, 오렌지가 주렁주렁 달린 난쟁이 나무 뒤에 반쯤 숨겨진 곳에서, 시인과는 정반대의 복장을 한 인물이 일어나 시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인물은 얼룩무늬 체크무늬 트위드 옷을 입고 있었다. 분홍색 넥타이, 날카로운 칼라, 그리고 튀어나온 노란색 부츠가 특징이었다. 그는 마치 '마르게이트의 해리'처럼,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이질적이면서도 평범해 보이도록 연출했다.

하지만 런던 출신의 그 환영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무스카리는 깜짝 놀랐다. 머리가 몸통과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다. 그것은 이탈리아식 머리였다. 부스스하고 피부는 까맣고, 매우 활기찬 모습이었다. 마치 판지처럼 딱딱한 칼라와 우스꽝스러운 분홍색 넥타이 위로 갑자기 솟아올라 있었다.

사실 그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다. 영국식 휴양지의 끔찍한 복장들 사이에서, 그는 잊고 지내던 옛 친구의 얼굴을 알아봤다. 이름은 에자.

그 청년은 대학 시절 천재로 통했다. 겨우 열다섯 살에도 유럽 전역에서 그의 명성이 기대됐다. 하지만 세상에 나온 그는 실패했다. 처음에는 극작가이자 선동가로서 공개적으로, 그 후로는 수년간 배우, 여행상, 중개인, 혹은 기자로서 사적으로 실패했다.

무스카리는 그를 마지막으로 무대 뒤 조명 아래에서 보았다. 그는 그 직업의 흥분들에 너무 잘 적응해 있었고, 결국 도덕적 재앙이 그를 삼켜버렸다고 여겨졌다.

"에자!" 시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가운 놀람으로 손을 흔들며 외쳤다. "무대 뒤 안방에서 너는 수많은 분장을 하고 다녔지. 하지만 영국인처럼 차려입은 너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

에자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이건 영국인의 복장이 아닙니다. 미래의 이탈리아인을 위한 옷이죠."

"그렇다면," 무스카리가 말했다. "저는 과거의 이탈리아인을 선호합니다."

"그건 당신의 옛 잘못이오, 머스카리." 트위드 재킷을 입은 남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탈리아 전체의 잘못이기도 하지. 16세기 우리 토스카나 사람들은 아침을 만들었소. 가장 새로운 강철을, 가장 새로운 조각을, 가장 새로운 화학을 가졌던 사람들이오. 그렇다면 지금 왜 가장 새로운 공장을, 가장 새로운 모터, 가장 새로운 금융, 가장 새로운 옷을 가질 수 없겠소?"

"그들은 가볼 가치가 없으니까요." 무스카리가 대답했다. "이탈리아인을 진정한 의미의 진보주의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똑똑하거든요. 좋은 삶으로 가는 지름길을 아는 사람들은, 새로 지은 복잡하고 긴 길을 결코 택하지 않죠."

"저는요, 마르코니든 단누치오든, 이탈리아의 별은 그분들이라고 봅니다."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그래서 저는 미래주의자가 됐고, 여행 안내원도 됐습니다."

"안내원이요!" 무스카리가 웃으며 외쳤다. "그게 당신의 직업 목록에 실린 마지막 직종이오? 대체 누구를 수행하는 건가?"

"해러게이트라는 이름의 남자와 그의 가족이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이 호텔에 묵고 있는 그 은행가 말입니까?" 시인이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사람입니다." 안내원이 대답했다.

"보수가 괜찮은가요?" 트루바두르가 순진한 듯 물었다.

"그건 내게 이익이 될 거야." 에자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난 좀 특이한 종류의 안내원이거든."

그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는 듯이 말했다. "그에게는 딸이 있고, 아들까지 있다."

"딸은 신성하오." 머스카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음, 인간일 뿐이겠지. 하지만 그의 무해한 성품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 은행가가 나의 주장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나? 하러게이트는 금고에 수백만 파운드를 쌓아 두고 있다. 반면 나

는 주머니에 구멍만 뚫려 있을 뿐이오. 하지만 당신은 감히 말하지 못하오 — 말할 수조차 없소. 그가 나보다 영리하거나, 대담하거나, 심지어 더 활기차다고는 말이지. 그는 영리하지 않아. 눈이 파란 단추처럼 빛나고 있을 뿐이오. 활기차지도 못해. 마비된 사람처럼 의자에서 의자로 기어 다니는 형국이오. 그는 양심적이고 자비로운, 하지만 어리석은 노인이오. 단지 소년이 우표를 모으듯 돈을 모았을 뿐이오. 에자, 당신은 사업에는 너무 강경한 성격이오. 성공하지 못할 거요. 그 많은 돈을 모으려면, 그 돈을 원할 정도로 어리석어야 하니까."

"저도 그 정도 바보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에자가 우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은행가에 대한 당신의 비판은 잠시 멈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가 바로 오고 있으니까요."

거대한 금융가 해러거트가 마침내 방에 들어섰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거구인 노인으로, 삶은 듯 흐릿한 푸른 눈과 흐릿한 회색빛 수염을 하고 있었다. 굽은 등이 없었더라면 그는 대령으로 오해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손에 봉투를 여러 장 쥔 채로 들어섰다.

그의 아들 프랭크는 정말로 훌륭한 청년이었다. 곱슬머리에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리고 활기찬 모습. 하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모든 시선은 평소처럼, 적어도 잠시 동안은 에셀 해러거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금발의 그리스식 머리모습과 새벽녘 하늘 같은 색감은, 마치 신의 얼굴처럼 사파이어 같은 바다 위에 놓여 있는 듯했다.

시인 머스카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마치 무언가를 마시는 듯한 동작이었다. 실제로 그는 마시고 있었으니, 조상들이 빚어낸 '클래식'을. 에자는 그녀를 똑같이 집요하지만 훨씬 더 이해할 수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 자리에서 해러게이트 양은 유난히 빛나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대륙식 여유로운 습관에 젖어, 낯선 무스카리 씨와 심지어 수행원 에자까지도 식탁과 대화에 함께 초대했다.

에델 해롯게이트의 관습적 매너는 그 자체로 완벽함과 화려함을 자랑했다. 아버지의 부를 자랑스러워하고, 유행하는 즐거움을 사랑하는 그녀는 착한 딸이면서 동시에 명백한 바람둥이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모든 면에서 황금빛 같은 선량함을 지니고 있어, 그녀의 자만심은 오히려 사랑스럽게 느껴졌고, 세속적인 명성 또한 신선하고 활기찬 것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다음 주에 도전하려던 산길에 도사린다는 소문의 위험 때문에 한바탕 들떠 있었다. 하지만 그 위험은 바위나 눈사태 같은 것이 아니었다. 더 낭만적인 무언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에셀은 그 아펜니노스의 능선과 고개에 도적들이 여전히 숨어 있다는, 즉 현대 전설 속의 진정한 살인자들이 그곳을 배회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곳은 이탈리아 국왕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도적왕이 통치한다고 해요." 그녀는 여학생 특유의 으스스한 설렘을 담아 외쳤다. "도적왕이 누구냐고요?"

"위대한 인물입니다." 무스카리가 답했다. "당신이 사랑하는 로빈 후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분이죠. 도적의 왕, 몬타노가 처음 이름을 알린 지는 약 십 년 전입니다. 그 무렵 사람들은 이미 산적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의 야생 같은 권력은 조용한 혁명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산골 마을에나 그의 거친 포고문이 못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고, 어느 골짜기마다 총을 든 그의 정병들을 보았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여섯 차례에 걸쳐 그를 몰아내려 했으나, 나폴레옹이라도 된 듯 여섯 번의 결사항전에서 모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의 일은 절대 영국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은행가가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아마도 다른 노선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내원은 그 길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완전히 안전합니다." 안내원이 경멸하는 듯 말했다. "저 길을 스무 번은 넘게 다녔습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쯤 되면 킹이라는 이름의 옛 죄수범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설화가 아니라 해도 역사 속 인물일 뿐이죠. 이제 도적질 따위는 완전히 뿌리 뽑혔습니다."

"절대로 완전히 뿌리 뽑을 수는 없소." 무스카리가 대답했다. "남쪽 사람들에게 무장 봉기는 본능적인 오락거리니까. 우리 농민들은 그들의 산맥과도 같아. 은혜와 푸른 생기가 넘치지만, 그 밑바닥에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지. 인간이 절망의 끝자락에 다다르면 북쪽의 가난한 자들은 술에 빠지지만, 우리 가난한 자들은 단도를 쥐게 되니까."

"시인은 특권을 가졌소." 에자가 비웃는 듯이 말했다. "무스카리 씨가 영국인이었다면, 지금도 완즈워스에서 강도들을 찾아 헤매고 있을 거요. 믿으시오, 이탈리아에서 잡힐 위험은 보스턴에서 머리 가죽이 벗겨질 위험만큼이나 없소."

"그렇다면 그 길을 시도해 보시렵니까?" 하러게이트 씨가 찡그리며 물었다.

"오, 듣기만 해도 끔찍하군요." 소녀가 찬란한 눈빛을 무스카리에게 돌리며 물었다. "정말 그 고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무스카리는 검은 갈기를 뒤로 쓸어넘기며 말했다. "위험한 건 알아요. 내일 건너갈 테니까요."

젊은 하러게이트는 잠시 뒤로 남아 흰 포도주 잔을 비우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미인은 은행가와 안내원, 시인과 함께 자리를 뜨면서 은빛처럼 맑은 조롱을 뿌려댔기 때문이다.

거의 같은 시각, 구석에 앉아 있던 두 사제가 일어섰다. 키가 큰 쪽은 백발의 이탈리아인이었고, 그는 작별 인사를 건넸다. 반면 더 작은 키의 사제는 돌아서서 은행가의 아들을 향해 걸어갔다.

젊은이는 깜짝 놀랐다. 로마 가톨릭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영국인이었던 것이다. 그는 어렴풋이나마 이 남자가 자신의 가톨릭 친구들이 모이는 사교 모임에서 본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냈다. 하지만 남자는 그가 기억을 모으기도 전에 먼저 말을 꺼냈다.

"프랭크 해러게이트 씨라고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소개장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걸 믿고 지나치게 친근하게 굴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전해야 할 이상한 말은 낯선 자의 입에서 나올 때 훨씬 더 잘 전달될 테니까요. 해러게이트 씨, 저는 이 한마디만 남기고 가겠습니다. 큰 슬픔에 빠진 누이를 잘 돌보십시오."

프랭크의 형제적 무심함에도 불구하고, 누이의 빛나고 조소 어린 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는 호텔 정원에서 누이의 웃음소리를 아직도 듣는 것 같았고, 어두운 조언자를 향해 혼란스러운 눈초리로 응시하고 있었다.

"당신은 그 강도들을 말하는 겁니까?" 그가 물었다. 그러고는 자신의 모호한 두려움을 떠올리며 다시 물었다. "아니면 무스카리를 생각하는 겁니까?"

"진정한 슬픔은 그 순간을 앞두고는 결코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다"고 이상한 신부는 말했다. "그것이 찾아왔을 때에만,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다."

그는 곧장 방을 나서 버렸다. 남자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그 뒤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틀 뒤, 그 일행이 탄 마차가 실제로 위태로운 산맥의 비탈길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에자의 경쾌한 위험 부인, 그리고 무스카리의 거침없는 도전에 가려, 이 금융가들은 처음의 결심을 굳건히 지켜나갔다. 무스카리는 자신의 산행 일정을 그들과 맞춰놓았다.

더 놀라운 일은 해안 도시 역에 식당의 작은 사제가 나타난 것이었다. 그는 단지 업무상 중부 지방의 산맥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젊은 해러게이트는 그의 모습을 어제 밤의 신비로운 공포와 경고와 연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마차는 일종의 널찍한 화물마차였다. 현대주의적 재능을 지닌 기사(기사)가 고안한 것이었다. 그는 과학적 활동과 경쾌한 유머로 원정을 장악하고 있었다. 도둑으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공포는 생각과 말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다만 형식적인 절차로 약간의 보호장치를 마련했을 뿐이었다. 기사와 젊은 은행가는 장전된 리볼버를 지녔고, 무스카리는 어린아이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검은 망토 아래에 작은 칼을 매달았다.

그는 사랑스러운 영국 여인 옆으로 날아오르듯 뛰어앉았다. 그녀의 다른쪽에는 브라운이라는 이름의 신부가 앉아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는 침묵을 지키는 성품이었다. 안내원과 부자는 그 뒤에 있는 벤치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무스카리는 높은 기분에 젖어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위기를 느끼고 있었으며, 에텔에게 건넨 그의 말은 그녀가 그를 광인쯤으로 생각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나무가 과수원처럼 빽빽한 절벽들 사이를 오르는 그 기이하고 화려한 등반은, 그녀를 혼자서라도 끌어올렸다. 그녀는 그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고, 도는 해를 머금은 보랏빛으로 터무니없이 빛나는 하늘 아래로 들어갔다.

흰 길은 흰 고양이처럼 기어올랐다. 햇빛이 닿지 않는 절벽 사이를 줄타기하듯 건너갔다. 먼 곶 주위로 매듭을 던지듯 휘감겨 있었다.

그들이 얼마나 높은 곳을 향했든, 사막은 여전히 장미처럼 꽃을 피웠다.

들판은 햇살과 바람에 의해 광택이 났고, 그 색은 물총새와 앵무새, 벌새의 색채로 물들었다. 수백 종의 꽃들이 피어난 빛깔이었다.

영국의 초원과 숲만큼 아름다운 곳도, 스노던과 글렌코의 봉우리나 협곡만큼 위엄 있는 곳도 없다. 하지만 에텔 해러게이트는 남부의 공원이 북쪽의 쪼개진 산봉우리에 기대어 기울어 있는 모습을, 그리고 켄트의 과일들로 가득 찬 글렌코의 협곡을 본 적이 없었다.

여기에는 영국에서 높은 곳과 황야의 풍경에서 연상되는 그 차가움과 황폐함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것은 지진에 의해 균열이 간 모자이크 궁전 같았다. 혹은 다이너마이트에 의해 별들 사이로 날아간 네덜란드의 튤립 정원 같았다.

"비치헤드 절벽 위에 큐 왕립식물원이 있는 것 같아." 에텔이 말했다.

"그건 우리만의 비밀입니다." 그가 말했다. "화산의 비밀이요. 그것은 곧 혁명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사물이 격렬하면서도 동시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당신도 제법 격정적인 분이시네요." 그녀가 그에게 미소 지었다.

"그래도 별 성과는 없군." 그가 인정했다. "만약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나는 미혼이자 바보로 죽게 될 테니까."

"네가 온 것은 내 탓이 아니야."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말했다.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무스카리가 대답했다. "트로이가 무너진 것도 당신의 죄가 아니었으니까요."

말을 나누는 사이, 그들은 거대한 절벽 아래로 들어섰다. 절벽은 특이한 위험을 안고 있는 모퉁이 위로, 마치 날개처럼 넓게 펼쳐져 있었다. 좁은 벼랑길 위에서 드리운 거대한 그림자에 놀란 말들은 불안하게 몸을 움직였다. 운전사는 땅으로 뛰어내려 말의 고삐를 잡았지만, 말들은 통제할 수 없이 날뛰었다. 한 마리의 말이 온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것은 말이 두 발 짐승이 되었을 때의, 거대하고도 위협적인 높이였다. 그 순간의 균형 변화는 충분했다. 온전한 마차는 배가 기울 듯이 옆으로 쓰러져 절벽 아래 수풀 가장자리를 뚫고 추락했다. 무스카리는 에텔을 끌어안았다. 에텔은 그에게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바로 이런 순간들을 위해 그는 살아온 것이었다.

시인의 머리 위를 화려한 산맥이 자줏빛 풍차처럼 빙글빙글 돌던 순간, 그보다 더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나이 들고 무기력한 은행가가 마차 안에서 벌떡 일어나, 기울어지기 전의 마차보다도 먼저 절벽 너머로 뛰어들었다. 첫눈에는 자살처럼 미친 짓으로 보였으나, 두 번째 순간에는 안전 투자만큼 현명한 선택으로 보였다. 요크셔 출신의 남자는 무스카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민첩하고 영리했다. 그는 마치

잔디와 클로버로 특별히 쿠션을 만들어 둔 곳처럼 부드러운 땅에 착지했다.

실은 전원이 조금 더 품위 없는 방식이었을 뿐, 모두 같은 행운을 겪었다. 도로의 급커브 바로 아래에는 오목한 초원이 있었다. 언덕의 길고 늘어져 있는 푸른 옷자락 속의, 마치 녹색 벨벳 주머니 같은 곳이었다. 그들은 모두 그 안으로 굴러떨어졌고, 지장은 거의 없었다. 다만 가장 작은 짐과 심지어 주머니 속 내용물들만이 주변 풀밭에 흩어졌을 뿐이다. 파손된 마차는 여전히 위쪽에 매달려 거친 덤불에 얽혀 있었고, 말들은 고통스럽게 경사면을 내려가고 있었다.

먼저 일어나 앉은 것은 작은 사제였다. 그는 어리석은 놀람이 담긴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였다. 프랭크 해러게이트는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도대체 왜 하필 여기에서 굴러떨어진 걸까?"

그는 주변에 널린 물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자신의 매우 투박한 우산을 주워 들었다. 그 너머로는 머스카리의 머리에서 벗겨진 넓은 솜브레로 모자가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봉인된 사업용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는 주소란을 잠깐 훑어보고는, 그 편지를 옆에 있던 나이 든 해러게이트(아버지)에게 건넸다.

그의 반대쪽에는 풀잎이 반쯤 가린 에텔 양의 양산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길이가 겨우 두 인치쯤 되는 기묘한 작은 유리병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사제는 그 병을 집어 들었다. 그는 재빠르면서도

눈치 채기 힘들게 마개를 따고 냄새를 맡았다. 그러자 그의 육중한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해 버렸다.

"천주여, 구원하소서!" 그가 중얼거렸다. "이게 그녀의 것일 리 없어! 이미 그녀의 슬픔이 찾아온 걸까?" 그는 주머니에 그것을 쑤셔 넣었다. "조금 더 알아볼 때까지는 내가 옳다고 봐요."

그는 소녀를 고통스럽게 바라보았다. 바로 그 순간, 머스카리가 그녀를 꽃들 사이로 들어 올리고 있었다. 머스카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천국에 떨어진 거야. 이건 징표야. 인간은 올라가려다 떨어지지만, 신과 여신들만이 위로 떨어질 수 있거든."

그녀는 온통 색채의 바다 속에서 일어난 듯 떠올랐다. 그 모습은 너무도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광경이었다. 신부는 자신의 의심을 흔들고, 그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어쨌든.' 그가 생각했다. '아마도 독약은 그녀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니면 무스카리의 극적인 꾀 중 하나일 뿐일지도.'

무스카리는 그 부인을 가볍게 일으켜 세웠다. 그는 극적인 자세로 허리를 굽혀 경의를 표했고, 이어 커틀러스를 뽑아 말의 조종줄을 힘껏 베었다. 말들은 허둥지둥 일어나 풀밭 위에 섰지만, 여전히 떨림을 멈추지 못했다.

그가 일을 끝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매우 조용한, 옷차림은 형편없고 햇볕에 그을린 남자가 수풀 사이에서 나타났다. 그는 말의 고삐를 잡았다. 그의 허리띠에는 모양이 기묘한 칼이 차 있었다. 날이 넓고 굽어 있었다. 그 외에는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다만 그가 갑자기, 그리고 소리 없이 나타난 점이 특이할 뿐이었다.

시인은 그에게 자신이 누구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목한 땅속에서 당황하고 놀란 사람들의 모습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그들 바로 아래 턱마루에서 또 한 명의 사내를 발견했다. 그 사내는 피부는 그을리고 옷은 찢겨졌으나, 팔 아래로 짧은 총을 끼고 있었다. 그는 팔꿈치를 잔디 가장자리에 기대고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그는 그들이 떨어졌던 도로 쪽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서는 네 자루의 카빈 총구와 네 장의 갈색 얼굴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빛나지만, 움직이지 않고 굳어 있었다.

"강도들이군!" 무스카리가 기괴할 정도로 경쾌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건 함정이었어. 에자, 마부를 먼저 쏘아주면 우리도 살아나갈 수 있어. 놈들은 여섯 명뿐이야."

"마부," 에자가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쑤셔 넣고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분은 해러게이트 씨의 하인입니다."

"그럼 더더욱 쏴야죠." 시인이 성급하게 외쳤다. "그는 주인을 무너뜨리도록 뇌물을 받은 자니까요. 그럼 여자를 한가운데 세우고, 우리가 저 위의 대열을 돌파합시다. 돌진해서요."

그는 거친 풀과 꽃들이 무성한 곳을 헤치고, 네 자루의 카빈을 향해 두려움 없이 다가갔다. 하지만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이 젊은 해러게이트뿐이라는 것을 알자, 그는 돌아서서 컷라스를 휘두르며 다른 이들을 독려했다.

그때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여전히 풀로 덮인 원형 지대의 한가운데에서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그 안내인이었다. 그의 손은 주머니에 쑥 들어간 채였다. 그리고 저녁 빛살 아래서, 그의 야위고 아이러니한 이탈리아인 얼굴은 점점 더 길어지는 듯했다.

"너는 무스카리, 내가 우리 동창들 중 실패자라고 생각했지. 너는 성공한 자라고 믿었고. 하지만 나는 너보다 더 크게 성공했고, 역사에서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너는 서사시를 써 왔지만, 나는 그 서사시를 몸소 행동으로 살아 왔으니까."

"제발, 제 말 들어요!" 위에서 무스카리가 우렁차게 외쳤다. "당신은 지금 여자 한 명을 구해야 하고, 힘을 합칠 사내 세 명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발 그 자리에 서서 자기 자랑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도대체 당신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저를 몬타노라고 부릅니다." 낯선 안내원이 크게 외쳤다. 목소리는 크고도 울림이 있었다. "나는 도둑들의 왕이다. 너희 모두를 내 여름 궁전으로 환영한다."

그가 말을 끝내자마자, 무장한 다섯 명의 남자가 수풀 사이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총을 쥔 채 그를 향해 서서, 명령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중 한 사람은 큰 종이를 손에 쥐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모두 소풍을 즐기는 이 예쁜 작은 둥지는, 그 아래에 있는 몇몇 동굴들과 함께 '도적들의 낙원'이라 불립니다. 이곳은 제가 이 언덕들에서 가장 주요한 거점이지요. (당신도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이 매의 둥지는 위쪽 도로와 아래쪽 계곡 모두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방어하기 불가능한 요새라기보다는, 아예 눈에 띄지 않는 곳입니다. 저는 주로 여기서 살고 있고, 만약 헌병들이 이곳까지 저를 쫓아온다면, 여기서 죽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방어를 유보하는' 유형의 범인이 아닙니다. 마지막 총알을 아끼는, 더 나은 유형의 범인이지요."

모두 그를 멍하니 바라보며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오직 브라운 신부만 안도하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 속의 작은 약병을 만져보았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가 중얼거렸다. "이쪽이 훨씬 더 타당하군요. 독은 물론 이 강도 두목의 것입니다. 그는 카토처럼 절대 잡히지 않기 위해 그것을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도들의 왕은 여전히 그 위험한 정중함을 잃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남은 일은 단 하나입니다. 저를 모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제가 그들을 대접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것뿐이죠."

그는 잠시 멈추었다.

"인질 몸값에 관한 낡고 기묘한 의식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반드시 지켜야 할 관습이니까요. 게다가 그건 손님 중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의 시선이 브라운 신부와 유명한 무스카리 경을 향했다.

"브라운 신부와 무스카리 경은 내일 새벽에 석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전초기지까지 호송해 드릴 것입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시인과 사제라니. 말솜씨가 단순해서 죄송하지만, 이 두 분은 결코 지갑이 두텁지 않죠. 그리고 그들로부터는 결코 돈을 뜯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이용해 고전 문학에 대한 우리의 존경과 성스러운 교회에 대한 우리의 경의를 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는 만족스럽지 못한 미소를 지으며 잠시 멈췄다. 브라운 신부는 그를 향해 눈을 여러 번 깜빡이며, 갑자기 경청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산적 두목은 부하 산적에게서 큰 종이를 받아 들고는 그것을 훑어보며 계속 말했다.

"내 다른 의도는 이 공문서에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잠시 후 이 문서를 돌려보낼 것이며, 그 후에는 계곡의 모든 마을과 언덕의 모든 교차로에 있는 나무에 게시될 것입니다. 구두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수고는 면하겠습니다.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선포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나는 영국의 백만장자이자 금융계의 거인인 새뮤얼 하러게이트 씨를 납치했다고 발표합니다. 둘째, 그의 소지품에서 이천 파운드 상당의 수표와 채권을 찾아냈으며, 그는 이를 나에게 건넸다고 발표합니다.

이제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순진한 대중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체 없이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즉, 하러게이트 씨가 지금 당장 주머니에서 이천 파운드를 꺼내 내게 건네주길 바랍니다."

은행장은 잔뜩 찌푸린 눈썹 아래로 그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벌개졌고 표정은 시무룩했지만, 어딘가 위축된 기색이 역력했다. 흔들리던 마차에서 뛰어내린 그 도발적인 행동이 그의 마지막 기개를 모두 짜내

버린 듯했다. 아들이나 무스카리가 브리간드의 함정에서 벗어나려 대담하게 움직였을 때, 그는 쩔쩔매는 듯 뒤로 물러서며 주저앉아 있었다.

이제 그의 붉고 떨리는 손이 마지못해 가슴 주머니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브리간드에게 일련의 서류와 봉투 뭉치를 건넸다.

"훌륭하군!" 그 무법자가 유쾌하게 외쳤다. "이쯤 되면 모두 잘 풀리고 있군. 곧 이탈리아 전역에 배포될 내 포고문의 핵심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다. 세 번째 항목은 몸값이다. 하러게이트 가문의 친구들에게서 삼천 파운드의 몸값을 요구한다. 이는 그 가문의 중요성을 너무 낮게 매긴 셈이어서, 그 가문에게는 거의 모욕에 가까운 액수라 확신한다. 이런 가족과 하루 더 함께할 수 있다면, 이 금액의 세 배라도 기꺼이 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돈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쾌한 일에 관한 법적 조항이 문서 끝에 붙어 있다는 점은 숨기지 않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나는 여기에서 숙소와 와인, 시가까지 넉넉히 누리고 있으니, 잠시 동안 '도적들의 낙원'의 향유를 스포츠맨다운 마음으로 환영한다."

그가 말을 잇는 사이, 카빈과 더러운 챙 넓은 모자를 쓴 의심스러운 사내들은 조용히 모여들었다. 그 수가 점점 늘어나자, 결국 무스카리도 자신의 칼질로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가 헛수고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그 소녀는 이미 아버지 곁으로 달려가 달래고 위로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성공에 대해 다소 속물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아버지 자체에 대한 자연스러운 애정이었다. 연인의 비논리처럼, 무스카리는 이 효성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불쾌함을 느꼈다.

그는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은 뒤, 퉁명스러운 기색으로 초록빛 언덕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신부는 그로부터 한두 발짝 떨어진 곳에 앉았다. 그러자 무스카리는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여 날카로운 코를 신부 쪽으로 돌렸다.

"그래," 시인이 날카롭게 말했다. "여전히 나를 너무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 궁금한데, 산맥에는 아직 강도들이 남아 있을까?"

"있을 수도 있죠." 브라운 신부가 단정 짓지 않고 말했다.

"무슨 뜻이오?" 다른 쪽이 날카롭게 물었다.

"제가 말하려는 건,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신부가 대답했다. "에자나 몬타노, 아니면 그의 다른 이름이 뭐든 간에, 그 사람이 도적 노릇을 하는 모습이 안내원 시절보다 더 해독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요?" 동료가 고집스럽게 물었다. "산타 마리아! 그 강도가 분명해 보이지 않나요?"

"세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제는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해안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네 분께서 방을 나가실 때, 선생님과 하러게이트 양이 앞서서 수다를 떨며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반면 은행가와 안내원은 뒤따라 왔는데, 말이 적고 목소리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에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자, 그녀가 좀 재미를 보게 해 줍시다. 그녀에게 내려질 타격이 언제든 그녀를 박살낼 수 있다는 걸 아시죠.'

하러게이트 선생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말에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순간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저는 그녀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녀의 오빠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위험의 성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경고가 산속에서의 이 납치를 가리킨다면, 이는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산속 함정에 그를 유인하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목적인 강도 안내원이, 힌트조차 주면서 자신의 고객을 경고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그 일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니라면, 은행가와 안내원 모두 알고 있으며 하러게이트 양의 머리 위에 드리워진 이 재앙은 대체 무엇입니까?"

"하러게이트 양에게 재앙이요!" 시인이 격렬하게 몸을 일으키며 외쳤다. "설명해 주시오. 계속하십시오."

"모든 수수께끼는 결국 우리 강도 두목에게로 수렴됩니다." 신부는 생각에 잠긴 듯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그는 왜 몸값 요구서에서, 피해자에게서 현장에서 이천 파운드를 털어갔다는 사실을 그토록 강조했을까요? 그 사실은 몸값을 내게 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강도들이 가난하고 절박한 상태라면, 하러게이트의 친구들은 그의 운명을 더 크게 걱정했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현장에서의 약탈이 강조되었고, 심지어 요구서의 첫머리에까지 배치되었습니다. 에자 몬타노는 왜 유럽 전체에, 몸값을 뜯어내기 전에 먼저 주머니를 털었다는 사실을 특별히 알리려 했을까요?"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무스카리가 평소와 달리 자연스럽게 검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깨우쳐 주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도적의 왕에게 제기할 세 번째 이의는 대체 무엇일까요?"

브라운 신부는 여전히 명상에 잠긴 듯 대답했다.

"세 번째 이의는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은행, 즉 강둑입니다. 우리 도적 우편부가 왜 이곳을 자신의 주된 요새이자 도적들의 낙원이라고 부릅니까? 분명히 떨어지기에는 부드러운 곳이고, 바라보기에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가 말한 대로 계곡이나 봉우리에서는 보이지 않아 은신처로 적합하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요새가 아닙니다. 결코 요새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그 어떤 요새보다도 최악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산을 가로지르는 일반 고갯길, 즉 경찰이 가장 많이 지날 법한 장소에서 위로부터 완전히 장악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반 시간 전, 낡은 단발권총 다섯 자루만으로도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보병 한 사분의 일 분대만 있었다면 우리를 절벽 아래로 날려버렸을 것입니다.

이 이상한 풀밭과 꽃이 있는 작은 오솔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요새화된 위치가 아닙니다. 이곳은 다른 무엇인가입니다. 다른 종류의 기이한 중요성,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연히 만들어진 극장이나 자연 그대로의 대기실과도 같고, 어떤 로맨스 희극의 무대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사제의 말이 길어지며, 둔하고 몽롱한 진심 속에 사라져갈 때, 무스카리는 날카롭고 초조한 동물적 감각으로 산중에서 새로운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조차 그에게는 아직 매우 작고 희미했지만, 그는 저녁바람에 말발굽의 맥박 같은 것과 먼 곳에서 들려오는 외침 같은 것이 실려 온다고 단언할 수 있었다.

그 순간, 진동이 아직 미숙한 영국의 귀에 닿기 훨씬 전, 산적 몬타노는 그들 위의 언덕을 뛰어 올라와 부서진 울타리 사이에 섰다. 그는 나무에 기대어 균형을 잡으며 도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상한 모습이었다. 그는 도둑 왕으로서 화려하고 기이한 모자와 흔들리는 발대, 그리고 칼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그 위에 입은 우편부의 밝고 평범한 트위드 옷이 곳곳에 드러나 있었다.

그 순간 올리브빛 피부에 비웃음이 서린 얼굴을 돌린 그는 손을 휘저었다. 신호를 받은 도적들은 어수선하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게릴라식 규율에 따라 자리 잡았다. 그들은 능선을 따라 도로를 점거하는 대신, 나무와 울타리 뒤 도로 옆으로 흩어져 숨어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적을 감시하는 것처럼.

너머에서 나는 소음이 점점 커졌다. 산길이 진동할 만큼 거세졌고, 명령을 내리는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도적들은 몸을 비틀며 뭉쳐 앉았다. 저주와 속삭임이 오갔고, 저녁 공기는 작은 금속성 소음으로 가득 찼다.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소리, 칼집에서 칼을 빼는 소리, 칼집 끝이 바위를 긁는 소리.

그때 도로 위 두 방향에서 나는 소음이 마침내 만나기 시작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말들이 울부짖으며, 남자들이 비명을 질렀다.

"구출이다!" 무스카리가 벌떡 일어나 모자를 휘저으며 외쳤다. "헌병이 그들을 쫓고 있다! 이제 자유를 되찾고, 그걸 위해 싸우자! 강도에게 반역자가 되자고! 자, 경찰에 모든 걸 맡길 순 없다. 그게 너무 현대적이야. 이 악당들의 뒤를 밟자. 헌병이 우리를 구출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헌병을 구출하자고!"

그는 모자를 나무 너머로 던져 버리고 다시 커틀러스를 빼들었다. 그리고 도로가 있는 경사면을 오르기 시작했다. 프랭크 하러게이트는 벌떡 일어나 총을 든 채 달려가 그를 도와주려 했지만, 아버지의 거친 목소리가 그를 강하게 불러세우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아버지는 큰 동요에 빠져 있는 듯했다.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은행장은 목이 메어 소리쳤다. "당신이 간섭하지 말 것을 명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프랭크가 매우 열정적으로 말했다. "이탈리아인 신사가 먼저 길을 열었습니다. 영국인들이 뒤처지는 소문이 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더 나이 많은 남자가 격하게 떨며 말했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운명에 굴복해야 합니다."

브라운 신부는 은행가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는 본능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실제로 손이 닿은 곳은 작은 독약 병이었다. 그의 얼굴에 죽음의 계시를 받은 듯한 밝은 빛이 번졌다.

무스카리는 지원군을 기다리지 않고, 제방을 넘어 도로까지 올라갔다. 그는 도적 왕의 어깨를 힘껏 내려쳤다. 도적 왕은 균형을 잃으며 몸을 흔들었다.

몬타노도 커틀러스를 뽑아 들었다. 무스카리는 말 없이 몬타노의 머리를 향해 베어 올렸다. 몬타노는 어쩔 수 없이 그 칼을 받아 막아야 했다.

두 개의 짧은 칼날이 부딪히며 부딪치는 소리가 났을 때, 도둑의 왕은 고의로 칼끝을 아래로 떨어뜨리며 웃었다.

"무슨 소용이오, 어르신?" 그는 정력적인 이탈리아 속어로 물었다. "이 끔찍한 희극은 곧 끝날 테니까요."

"당신은 무슨 뜻이오?" 숨을 헐떡이며 불을 뿜는 시인이 물었다. "당신의 용기도 당신의 정직함처럼 가짜요?"

"제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전 우편기사 출신의 남자가 온화한 웃음으로 대답했다. "저는 배우입니다. 만약 과거에 진짜 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미 잊어버렸죠. 저는 진짜 강도도 아니고, 진짜 우편기사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가면들의 뭉치일 뿐입니다. 그런 것하고 결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는 소년처럼 신이 난 웃음을 터뜨리며, 도로 위 소규모 교전과는 등진 채로 예전의 다리를 벌린 자세를 취했다.

산벽 아래로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다. 격투의 진전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키 큰 남자들이 말의 주둥이를 앞세워 끈적하게 달라붙은 산적 무리를 밀어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산적들이 침입자들을 죽이기보다는 오히려 괴롭히고 쫓아내는 데 더 열중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 광경은 시인이 도망자이자 살인자들의 최후의 항전으로 그려냈던 어떤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경찰의 진입을 막아서는 시끄러운 도시 군중의 모습에 가까웠다.

그가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찰나, 팔꿈치를 가볍게 건드리는 것을 느꼈다. 돌아보니 기이한 작은 신부가 서 있었다. 큰 모자를 쓴 작은 노아처럼 보였다. 그는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싶어 했다.

"무스카리 씨," 성직자가 말했다. "이 기이한 위기 상황에서는 사적인 감정도 용서받을 만하오. 경찰들이 어차피 돌파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돕는 것보다 더 큰 선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죄송하지 않게 말씀드리려 하오. 무례한 친밀감을 허용해 주시겠소? 그 소녀를 진심으로 아끼는가? 그녀와 결혼해 좋은 남편이 되겠다는 뜻이오."

"네," 시인은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당신을 마음에 두고 있나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equally grave한 답변이었다.

"그럼 저쪽으로 가서 자신을 내세워 보시오." 사제가 말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치시오. 만약 천지와 땅을 가졌다면 그것조차 바치시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소."

"왜요?" 놀란 문필가가 물었다.

"왜냐하면,"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녀의 심판이 곧 올 테니까."

"길에서 올라오는 건 없어요." 무스카리가 반박했다. "구원자 말고는."

"자, 그쪽으로 가시오." 조언자가 말했다. "그녀를 구출할 준비를 하도록."

말이 떨어지자마자, 능선 전체에 울타리가 무너졌다. 도망치려던 도적들이 일제히 뛰쳐나온 것이다. 그들은 패배한 자들이 쫓기듯 덤불과

무성한 풀숲으로 몸을 숨겼다. 그 위로는 큰 삼각모를 쓴 기마 헌병들의 모습이 울타리 틈을 지나며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또 한 번 명령이 떨어졌다. 말에서 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 큰 삼각모를 쓰고 회색 수염을 기른 키 큰 장교가 나타났다. 그는 손에 서류 한 장을 쥐고 있었다. 그는 도적들의 낙원이자 지금의 문이 된 틈새에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은행가가 비명처럼 이를 깨뜨렸다.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목이 메어 나오듯 비쳤다.

"강도당했다! 내가 강도당했다!"

"그건 몇 시간 전 일이잖아요." 아들이 놀라 외쳤다. "당신이 이천 파운드를 털렸을 때였잖아요."

"이천 파운드가 아닙니다." 금융가는 갑작스럽고도 끔찍할 만큼의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작은 병 하나짜리일 뿐이죠."

회색 임페리얼 수염을 기른 경찰관이 푸른 초원 골짜기를 힘차게 건너가고 있었다. 그의 길에 도둑의 왕이 나타나자, 경찰관은 애정 어린 듯하면서도 때리는 듯한 손길로 그의 어깨를 툭 치며, 그를 비틀거리게 할 만큼 강하게 밀쳤다.

"이런 장난을 치면 너도 곤경에 빠질 거야."

다시 보니, 무스카리의 예술가적 눈에는 거대한 도적의 체포라기보다는, 오히려 한심한 광경처럼 보였다.

그는 걸음을 옮겨 하러게이트 일행 앞에 멈춰 섰다.

"사무엘 하러게이트, 나는 법의 이름으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헐과 허더즈필드 은행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위대한 은행가는 묘한 사무적인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더니, 두 사람이 말리기도 전에 몸을 반쯤 돌리고 한 발짝 내딛었다. 그 동작은 그를 외벽 산맥의 가장자리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팔을 힘껏 들어 올렸다. 그가 마차에서 뛰어내렸을 때와 똑같은 자세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아래 작은 초원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천 피트 아래로 추락했고, 계곡 바닥에서는 뼈조각이 된 채로 발견되었다.

이탈리아 경찰관의 분노는 브라운 신부에게 거침없이 토로되었지만, 그 안에는 존경이 섞인 감정도 적지 않게 담겨 있었다.

"마침내 우리를 따돌리고 도망친 그 녀석, 참으로 그답군."

그가 말했다. "말하자면 그는 대단한 강도였지. 이번 수법은 전례가 없을 만큼 완벽해. 그는 회사 돈을 가지고 이탈리아로 달아났고, 심지어 자신이 고용한 가짜 강도들에게 자기를 잡히게까지 했어. 돈이 사라

진 것과 자신이 사라진 이유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변명거리였지."

몸값 요구는 대부분의 경찰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정도였어. 하지만 그는 수년 동안 그와 맞먹는, 아니 그 이상의 일을 계속해 왔지. 그는 가족에게 큰 손실이 될 거야."

무스카리는 불행한 딸을 데리고 떠나갔다. 그녀는 그에게 단단히 매달렸고, 그 후로도 수년간 그랬다. 비극적인 파국 속에서도 무스카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에자 몬타노에게 반쯤 조소 섞인 우정 어린 미소와 손을 건넸다. "다음엔 어디로 가시렵니까?" 그가 어깨 너머로 물었다.

"버밍엄입니다." 배우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대답했다. "제가 미래주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제가 어떤 것을 믿는다면, 저는 정말로 그런 것들을 믿습니다. 변화, 분주함, 그리고 매일 아침의 새로운 것들. 저는 맨체스터, 리버풀, 리즈, 헐, 허더즈필드, 글래스고, 시카고로 갈 것입니다. 즉, 계몽되고, 활기차며, 문명화된 사회로 향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무스카리가 말했다. "'도둑들의 진정한 낙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 히르슈 박사의 결투

모리스 브룬 씨와 아르망 아르마냐크 씨는 햇살이 쏟아지는 샹젤리제 거리를 걸었다. 그들은 활기차면서도 단정하게 걸었다. 둘 다 키는

작고 발걸음은 빠르며 당당했다. 둘 다 검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그 수염이 얼굴에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프랑스 특유의 스타일 때문인지, 진짜 머리카락이 인조처럼 보이는 기묘한 풍조였다.

브룬 씨는 턱 아래에 검은 수염을 삼각형으로 붙이고 있었다. 반면 아르마냐크 씨는 변화를 줬다. 뚜렷한 턱 끝에서 두 개의 수염이 각각 튀어나와 있었다. 둘 다 젊은 남자였다. 둘 다 무신론자였으며, 생각이 고정되어 있었지만 말솜씨는 매우 유창했다. 둘 다 위대한 히르슈 박사의 제자였다. 히르슈 박사는 과학자이자 공론가, 그리고 도덕가였다.

브룬 씨는 프랑스 고전에서 '아뉘(Adieu, 안녕)'라는 흔한 표현을 모두 지워버리고, 사적 공간에서 이를 사용할 경우 약간의 벌금을 물리는 법을 제안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렇게 되면," 그가 말했다. "인류의 귀에 당신의 상상 속 신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아르마냐크 씨는 주로 군국주의에 저항하는 데 특화되어 있었다. 그는 '마르세예즈'의 후렴구를 '시민들, 무기를 들어라(Aux armes, citoyens)'에서 '시민들, 파업장으로 가라(Aux greves, citoyens)'로 바꾸길 원했다. 하지만 그의 반군국주의는 특이하고도 갈리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전 세계의 무장 해제를 논의하러 그를 찾아온 저명하고 매우 부유한 한 영국 퀘이커 교도는, 아르마냐크가 '시작으로 삼아' 병사들이 장교들을 사살해야 한다고 제안했을 때 꽤나 당황했다.

사실 바로 이 점에서 두 사람은 그들의 지도자이자 철학적 아버지인 스승과 가장 크게 달랐다. 히르슈 박사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 교육의 가장 화려한 영광을 누렸지만, 타고난 기질은 달랐다. 그는 온화하고 몽상적이며 자비로웠고, 비록 회의적인 사상을 지녔음에도 초월적인 면모를 잃지 않았다. 결국 그는 프랑스인보다 독일인에 가까웠다. 두 사람이 그를 존경했음에도, 그들의 무의식 속에서는 그가 이렇게 평화로운 방식으로 평화를 호소하는 것에 대해 무언가 불쾌함을 느꼈다.

그러나 유럽 전역에서 그의 당파에게 폴 히르슈는 과학의 성인이었다. 그의 크고 대담한 우주론적 이론들은 그의 검소한 삶과 순결함을, 비록 다소 냉랭하긴 했지만 무결한 도덕성을 과시했다. 그는 다윈의 위치와 톨스토이의 위치가 합쳐진 듯한 지위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나키스트도, 애국심 반대론자도 아니었다. 군비 축소론에 대한 그의 견해는 온건하고 진화적이었으며, 공화국 정부는 다양한 화학적 개선 사항에 대해 그를 상당히 신뢰했다. 그는 최근에는 정부가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 무음 폭발물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의 집은 엘리제 근처의 아름다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거리는 강한 여름 햇살 아래에서도 마치 공원 자체만큼이나 푸른 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밤나무들이 햇살을 깨뜨리며 줄지어 서 있었고, 한

곳에서는 큰 카페가 거리로 나와 그 흐름을 잠시 끊었다. 거의 정반대편에는 위대한 과학자의 집이 있었는데, 흰색과 초록색 블라인드가 특징이었다. 1층 창문 앞에는 초록색으로 칠한 철제 발코니가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관목과 타일로 장식된 작은 안마당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는데, 두 프랑스인은 열띤 대화를 나누며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의사의 오래된 하인 시몬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검은 정장에 안경을 쓰고 회색 머리를 한 데다, 무언가 비밀을 아는 듯한 태도를 지니고 있어, 차라리 의사로 오인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사실 그는 머리만 둥글게 커서 몸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말 그대로 '쪼그라든 무' 같은 모습의 주인인 히르슈 박사보다 훨씬 더 그럴듯한 과학자처럼 보였다.

시몬은 처방전을 다루듯 진지한 표정으로 아르마냐크 씨에게 편지를 건넸다. 아르마냐크 씨는 인종적인 조바심처럼 급하게 편지를 찢어 뜯더니, 다음과 같은 내용을 빠르게 읽어 내려갔다.

말하러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 집에 만나기 싫은 남자가 하나 있어서요. 그는 쇼비니스트(국수주의자) 장교인 뒤보스입니다. 그는 계단에 앉아 있죠. 그는 다른 모든 방에서 가구를 발로 차고 다녔어요. 저는 카페 맞은편 내 서재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카페로 가서 밖 테이블 중 하나에서 기다려주세요. 내가 그를 당신 쪽으로 보내려고 노력할게요. 당신이 그에게

답하고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절대 만나지 않을 거예요.

드레퓌스 사건이 또 하나 생길 것이다.

P. 히르슈

아르마냐크 씨는 브룬 씨를 바라보았다. 브룬 씨는 편지를 받아 읽어 본 뒤 다시 아르마냐크 씨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두 사람은 재빠르게 밤나무 아래 작은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서 그들은 어떤 날씨든, 언제든 마실 수 있는 듯이 보이는 끔찍하게 녹색인 압생트를 두 잔이나 주문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카페는 텅 빈 듯했다. 한쪽 테이블에서는 한 병사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큰 체구의 남자가 작은 시럽을 마시고 있었으며, 사제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앉아 있을 뿐이었다.

모리스 브룬이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당연히 우리는 모든 면에서 주인을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정적이 흘렀다. 아르마냐크가 입을 열었다.

"그가 직접 그 남자를 만나지 않은 데는 훌륭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맞은편 집에서 침입자가 쫓겨났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아치형 입구 아래의 관목들이 흔들리며 갈라졌고, 그 불청객이 대포알처럼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는 작고 기울어진 티롤산 펠트 모자를 쓴 단단한 체격의 남성이었다. 그의 전체적인 모습은 확실히 티롤 특유의 풍모를 풍기고 있었다. 어깨는 넓고 근육질이었으나, 무릎 아래 바지와 니삭스를 입은 다리는 날렵하고 활동적이었다. 얼굴은 견과류처럼 갈색이었고, 눈은 매우 밝고 초조하게 움직이는 갈색 눈이었다. 어두운 머리는 앞머리는 단단히 뒤로 빗어 올렸고, 뒤쪽은 짧게 깎아 네모지고 힘찬 두개골을 드러냈다. 그리고 들소의 뿔처럼 거대한 검은 수염이 있었다. 보통 이런 단단한 머리는 소의 목처럼 두꺼운 목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 남성의 목은 큰 색색의 스카프로 감싸져 귀까지 덮인 채 재킷 안쪽 앞부분으로 떨어졌는데, 마치 장식용 조끼처럼 보였다. 이 스카프는 강렬한 죽은 색감의 짙은 빨강, 낡은 금색, 보라색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아마도 오리엔탈에서 제작된 것이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 남성은 약간 야만적인 분위기를 풍겼으며, 일반적인 프랑스 장교보다는 헝가리의 영주와 더 닮아 보였다. 그러나 그의 프랑스어는 분명히 원어민의 것이었고, 그의 프랑스 애국심은 약간 우스울 정도로 충동적이었다. 그가 아치형 통로에서 밖으로 뛰쳐나온 첫 번째 행동은 거리의 사람들에게 나팔소리처럼 맑고 힘찬 목소리로 “여기에 프랑스인이 있는가?”라고 외치는 것이었다. 마치 그가 메카에서 기독교인들을 부르는 것처럼 말이다.

아르마냐크와 브룬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다. 거리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이미 달리고 있었고, 작지만 점점 더 모여드는 군

중이 형성되고 있었다. 거리 정치에 대한 프랑스인 특유의 직감을 지닌, 검은 수염을 가진 남자는 이미 카페 한쪽 구석으로 달려가 테이블 위에 올라섰다. 그는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밤나무 가지를 움켜쥐고, 카미유 데무를랭이 과거 군중들 사이에 참나무 잎을 뿌리며 외쳤던 것처럼 소리쳤다.

"프랑스인들아!" 그가 외쳤다. "저는 말하지 못합니다! 하느님, 저를 도우소서. 바로 그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더러운 의회 속에서 말하기만 배우고, 침묵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저 반대편 집에 숨어 떨고 있는 그 간첩처럼요. 제가 그의 침실 문을 두드릴 때도 그는 침묵하죠. 지금도 그는 제 목소리가 이 거리 너머로 들리는 것을 알면서도, 자리에 앉아 몸을 떨고 있을 뿐입니다. 오, 그들은 능숙하게 침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치가들이요! 하지만 이제 말하지 못하는 우리가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프로이센인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배신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남자에 의해요. 저는 줄스 뒤보스입니다. 벨포르의 포병 대령이죠. 어제 보즈 산맥에서 독일 간첩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이 종이를 찾았죠.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그 종이를요. 저들은 이를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직접 그 종이를 쓴 남자, 즉 저 집의 남자에게 가져갔습니다. 그 종이는 그의 손에 있습니다. 그의 이니셜로 서명되어 있죠. 이것은 새로운 '무음 화약'의 비밀을 찾는 길잡이입니다. 히르슈가 그것을 발명했고, 히르슈가 이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메모는 독일어로 되어 있었고, 독일인의 주머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남자에

게 전하라, 화약의 공식은 전쟁성 서기 책상 왼쪽 첫 서랍 안 회색 봉투에 적혀 있다. 붉은 잉크로. 그는 조심해야 한다. P.H.'"

그는 기관총처럼 짧은 문장을 연달아 뱉어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미쳤거나, 옳은 자 중 하나였다.

군중의 대다수는 국민당 지지자들이었다. 이미 그들은 위협적인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아르마냐크와 브룬이 이끄는 소수의 분노한 지식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다수 세력을 더 호전적으로 만들었을 뿐이었다.

"만약 그게 군사 기밀이라면," 브룬이 외쳤다. "왜 거리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겁니까?"

"내가 왜 그러는지 말해주마!" 뒤보스가 떠드는 군중 소리를 뚫고 외쳤다. "나는 그에게 정중하고도 단호하게 접근했다. 만약 그에게 변명할 일이 있었다면, 그는 그걸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해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설명을 거부했다. 그리고는 나를 카페에 있는 낯선 두 사람, 즉 하인 격인 두 놈에게로 밀어붙였다. 그는 나를 집에서 쫓아냈지만, 나는 이제 파리 시민들을 등에 업고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갈 것이다!"

저택들의 정면이 들썩일 만큼 큰 함성이 울려 퍼졌다. 돌조각 두 개가 날아와 발코니 위의 창문을 깨뜨렸다. 격분한 대령은 다시 아치형 현관 아래로 몸을 숨겼고, 안에서는 그의 울부짖고 우렁차게 떠드는 목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의 파도는 매순간 더 넓게, 더 거세게 밀려왔다. 그들은 배신자의 집 난간과 계단을 향해 밀고 올라갔다. 이미 그 장소가 바스티유 감옥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 확실해 보였다.

그때 깨진 프랑스식 창문이 열리며 히르슈 박사가 발코니로 나섰다.

순간, 분노는 반쯤 웃음으로 바뀌었다. 그는 그런 광경에서 너무도 우스꽝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의 길고 맨목과 기울어진 어깨는 샴페인 병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그에게서 유일하게 축제다운 점이었다. 그의 코트는 옷걸이에 걸린 듯 몸에서 벗겨져 늘어졌고, 당근색 머리는 길고 초라하게 늘어뜨렸다. 뺨과 턱은 입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짜증 나는 수염으로 가득했다. 그는 매우 창백했고, 파란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는 분노에 질려 있었지만, 말투는 어딘지 모르게 단호하고 격식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그의 세 번째 문장을 말하던 중에도 갑자기 고요해졌다.

"지금 당신들에게 할 말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적들에게, 다른 하나는 친구들에게입니다. 적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바로 이 방 밖에서 난동을 부리는 뒤보스 씨를 제가 직접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맞습니다. 제가 그를 대신해 맞설 두 명의 남자를 세웠다는 사실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를 만나지 않을 것이고, 만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사로서 그

를 마주하는 것은 모든 존엄과 명예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법정에서 제가 명백히 무죄로 밝혀지기 전까지, 이 신사는 다른 한 가지 중재, 즉 신사로서의 중재를 저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 대리인들에게 맡기는 것은 엄격히 말해—"

아르마냐크와 브룬이 모자를 휘저으며 열렬히 환호했다. 심지어 의사의 적들조차 이 뜻밖의 반항에 박수를 보냈다. 잠시 몇 마디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들렸다.

"제 친구 여러분, 저는 본래 순수하게 지적인 무기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진보한 인류는 반드시 그런 무기에만 의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가장 귀중한 진리는 물질과 유전의 근본적인 힘입니다. 제 책은 성공했고, 제 이론은 반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저는 거의 신체적인 편견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리합니다. 클레망소나 데루롤드처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권총의 메아리 같으니까요. 프랑스인들은 영국인이 스포츠맨을 요구하듯 듀엘리스트를 원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이 야만적인 뇌물을 치르고, 나머지 인생은 이성에 돌아가겠습니다."

곧 군중 속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나설 차례를 자처하며 뒤보스 대령에게 도움을 제안했다. 잠시 후, 대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다.

한 명은 커피를 들고 있던 평범한 병사였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대령. 저는 바로 발로뉴 공작입니다."

다른 한 명은 거구의 남자가 있었다. 신부는 처음에 친구인 그에게 말려보려 했지만, 결국 혼자 걸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샤를마뉴 카페 뒤쪽에는 가벼운 저녁 식사가 차려졌다. 유리로 된 지붕도, 금박을 입은 석고 천장도 없었지만, 손님들은 대부분 섬세하고 불규칙한 잎사귀 천장 아래에 있었다. 장식용 나무들이 테이블 사이사이에 빽빽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이곳은 작은 과수원처럼 은은한 어둠과 눈부심을 동시에 선사했다.

중앙 테이블 중 하나에는 아주 통통한 작은 신부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진지한 태도로 흰 물고기 튀김 더미를 향해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일상은 매우 검소했지만, 갑작스럽고 고립된 사치에 대한 특이한 취향이 있었다. 그는 절제된 미식가였다.

그는 접시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접시 주변에는 붉은 후추, 레몬, 갈색 빵과 버터 등이 엄격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키 큰 그림자가 테이블 위로 드리워졌다. 그의 친구 플랑보가 맞은편에 앉은 것이다. 플랑보는 우울해 보였다.

"죄송하지만 이 일은 접어야겠소." 그가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뒤 보스 같은 프랑스 군인 편이고, 히르슈 같은 프랑스 무신론자 반대편이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던 것 같소. 공작과 나는 이 혐의를 조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어 다행이오."

"그럼 그 종이는 위조 문서란 말씀이십니까?" 사제가 물었다.

"그게 바로 묘한 점입니다." 플랑보가 답했다. "글씨는 히르슈의 것과 정확히 똑같고, 그 누구도 거기서 실수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히르슈가 쓴 글이 아닙니다.

만약 그가 프랑스 애국자라면, 이 글이 독일에게 정보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썼을 리 없습니다. 반면 그가 독일 간첩이라면, 이 글이 독일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가 썼을 리 없습니다."

"정보에 오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브라운 신부가 물었다.

"틀렸소." 상대가 대답했다. "그리고 정확히 어디가 틀렸느냐 하면, 히르슈 박사가 옳았어야 할 부분, 즉 그의 비밀 공식이 자신의 관할 부서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에 관해서 말이오. 히르슈 박사와 당국의 허락을 받아, 공작님과 저는 전쟁성에서 히르슈 공식을 보관하는 비밀 서랍을 실제로 점검할 수 있었소. 발명가 자신과 전쟁장관을 제외하면, 그 서랍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우리 둘뿐이오. 전쟁장관은 히르슈 박사가 결투를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그 허락을 내려주셨지. 그런 상황인데, 만약 뒤보스의 폭로가 허무맹랑한 것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지지할 수 없소."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브라운 신부가 물었다.

"맞아요." 친구가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진짜 숨겨진 곳을 모른 채 어설프게 만든 가짜지. 그 쪽지에는 서류가 서기의 책상 오른쪽 찬장 안에 있다고 적혀 있더군. 하지만 실제 비밀 서랍이 있는 찬장은 책상에서 꽤 왼쪽에 있어. 또 회색 봉투 안에 붉은 잉크로 쓴 긴

문서가 들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 문서는 붉은 잉크가 아니라 일반적인 검은 잉크로 쓰였어. 히르슈가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서류에 실수를 했을 리도 없고, 외국 도둑을 도와주려다 잘못된 서랍을 뒤지라고 했을 리도 없어. 이건 명백히 터무니없어. 이쪽은 접고, 카로트 영감에게 사과해야겠어."

브라운 신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는 포크로 작은 흰 물고기 한 마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

"회색 봉투가 왼쪽 찬장에 있었는지, 확실합니까?"

"네, 맞습니다." 플랑보가 대답했다. "회색 봉투, 정확히는 흰색 봉투가 있었죠."

브라운 신부는 작은 은어와 포크를 내려놓고는, 맞은편에 앉은 친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뭐라고?"

그가 달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플랑보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되물었다.

"회색이 아니었소." 사제가 말했다. "플랑보, 당신이 무서워지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까?"

"흰 봉투가 무서워요." 다른 한 사람이 진지하게 말했다. "만약 회색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도대체 왜 회색이 아니었던 거지. 회색이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하지만 흰 봉투라면, 이 모든 일은 검은색이 되어 버려요. 결국 의사는 옛날의 그 타오르는 지옥불 같은 일에 손을 댄 모양이군요."

"하지만 그 편지를 썼을 리가 없습니다!" 플랑보가 외쳤다. "편지 내용은 사소한 사실조차 모두 틀려먹었죠. 히르슈 박사는 무죄든 유죄든, 그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 편지를 쓴 남자는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었소." 신부의 동행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가 그렇게 모든 걸 틀리게 알 수 있으려면, 그 사실들을 모르고서는 불가능했지. 악마처럼 모든 주제에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으려면, 정말로 엄청난 양의 지식이 필요하니까."

"당신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운에 맡겨 말한다면 적어도 일부는 진실을 섞었을 거야." 친구가 단호하게 말했다.

"예를 들어 보자. 누군가가 당신에게 초록색 문과 파란색 차양이 달린 집을 찾아오라고 했다고 해. 앞마당은 있지만 뒷마당은 없고, 개는 있지만 고양이는 없는 집이야. 그리고 커피는 마시지만 차는 마시지 않는 곳이지. 만약 그런 집이 하나도 없다면, 당신은 그 모든 것이 날조된 이야기라고 말할 거야.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 만약 당신이 찾은 집이 문은 파랗고 차양은 초록색이었으며, 앞마당은 없고 뒷마당이 있었으며, 고양이는 흔했지만 개는 곧장 쏘아 죽이는 곳이고, 차는 리터 단위로 마시지만 커피는 금지된 곳이라면? 그때 당신은 당신이 바로 그 집을 찾아냈다고 확신할 거야. 그 남자는 바로 그 집을 알고 있었기에 그토록 정확하게 어긋난 묘사를 할 수 있었을 테니까."

"그게 대체 무슨 뜻이죠?" 맞은편 식탁에서 한 남자가 물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이 히르슈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왼쪽 서랍이 아니라 오른쪽 서랍을 열라고 했고, 검은 잉크 대신 빨간 잉크를 썼다고요. 그 정도라면 말 그대로 위조범의 실수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 말대로 우연히 범한 실수라고요.

하지만 셋은 신비로운 숫자입니다. 셋은 모든 것을 마무리하죠. 이 사건도 여기서 끝이 납니다. 서랍의 방향, 잉크의 색깔, 봉투의 색깔.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우연히 맞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라고는 할 수 없어요. 절대로요."

"그럼 대체 뭐였나? 배신?" 플랑보가 다시 식사를 하며 물었다.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내 생각으로는……. 음, 드레퓌스 사건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증거보다 도덕적 단서를 더 쉽게 파악하는 편입니다. 사람의 눈빛과 목소리, 가족의 모습, 그리고 그가 어떤 주제를 선

택하는지, 피하는지 이런 걸 보거든요. 드레퓌스 사건에서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양측에서 서로에게 씌운 끔찍한 혐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현대적이지는 않지만) 고위층의 인간성도 여전히 첸치나 보르자 가문처럼 잔혹해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제가 당황한 건 양측의 진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당원들은 대체로 솔직하고, 종종 속아 넘어가기도 하죠. 제가 말하려는 건 이 사건의 주역들입니다. 음모가 맞다면 음모가들이죠. 배신자가 맞다면 그 배신자입니다. 진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드레퓌스는 자신이 억울한 사람임을 아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정치가들과 장교들은 그가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잘못한 사람임을 아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이 잘 행동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신에 차서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나도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좋겠네." 친구가 말했다. "그게 늙은 히르슈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신뢰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정보가 거짓이라는 이유로 적에게 정보를 넘기기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시오. 설령 그가 외국인을 속여 자국을 구하고 있다고 믿는다 해도 말입니다. 그 거짓말이 그를 간첩들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소액의 대출을 받게 하며, 점점 더 단단한 올가미로 그를 묶는다면요. 그가 혼란스럽게도 그 모순된 입장을 유지하려면, 외국 간첩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들이 점점 더 추측하게 내버려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양심 중 선한 부분(남아 있는다면)은 여전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적을 돕지 않았소. 내가 말한 것은

왼쪽 서랍이었소.' 하지만 더 비열한 부분은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이 오른쪽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소.' 저는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현대의 문명적인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심리학적으로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플랑보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드레퓌스가 자신이 억울하다고 확신한 이유와, 그를 심판한 판사들이 그가 유죄라고 단정했던 이유를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드레퓌스의 문서가 그의 것이라면, 그 내용은 문자 그대로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드레퓌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테이블이 비워지자 고요함이 그들을 감쌌다. 시간은 이미 늦었으나, 햇살은 여전히 모든 곳에 남아 있었다. 마치 우연히 나무들 사이에 걸려 있는 듯했다. 고요함 속에서 플랑보가 의자를 급히 움직였다. 고독하고 메아리치는 소리가 났다. 그는 팔꿈치를 의자 모서리에 올렸다. "자네," 그가 말했다. 다소 날카롭게, "히르슈가 비겁한 배신자보다 낫지 않다면…"

"그들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브라운 신부가 다정하게 말했다. "전적으로 그들의 탓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능이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와 춤추는 것을 거절하거나, 남자가 투자를 건드리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정도의 문제라고 배워왔을 뿐이죠."

"어쨌든," 플랑보가 재촉하듯 외쳤다. "그는 내 상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 일을 끝까지 해내겠어. 늙은 더부스크는 좀 미쳤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일종의 애국자니까."

브라운 신부는 뱅어를 계속 먹어 치웠다.

그가 그렇게 하는 태도가 너무도 무뚝뚝해서, 플랑보는 거친 검은 눈으로 동료를 다시금 훑어보았다.

"너, 괜찮아?"

플랑보가 물었다.

"더부스크는 그런 점에서는 완벽해. 너는 그를 의심하지 않지?"

"친구여." 작은 신부는 칼과 포크를 내려놓으며 차가운 절망감에 휩싸인 듯 말했다. "저는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요. 비록 내 눈앞에서 펼쳐진 연극이었지만, 그 이야기 전체를 믿을 수 없습니다. 아침부터 내 눈으로 본 모든 광경도 의심스럽습니다.

이 일은 평범한 경찰물과 다릅니다. 한 남자는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는 진실에 가까운 말을 하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두 남자 모두… 음, 어쨌든요. 저는 아무나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나도 아니야." 플랑보가 잔뜩 찌푸린 얼굴로 대답했다. 다른 한 사람은 아무런 저항 없이,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인 듯 생선을 계속 먹고 있었다.

"네가 내놓은 게 '상반된 것들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라는 그 발상뿐이라면, 난 그걸 대단히 영리하다고 불러. 하지만…… 음, 너는 대체 그것을 뭐라고 부를 거야?"

"저는 아주 얇은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제가 즉각 말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얇은 변명이지요. 하지만 그 entire 사건이 가진 기묘한 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거짓말은 마치 학교 아이의 변명 같으니까요. 설은 셋뿐입니다. 더부스크의 것, 히르슈의 것, 그리고 제 공상이지요."

"프랑스 장교가 프랑스 관리의 명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쓴 글일 수도 있고, 프랑스 관리가 독일 장교들을 돕기 위해 쓴 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방금 생각해 낸 것처럼, 프랑스 관리가 독일 장교들을 속이기 위해 쓴 글일 수도 있지요."

"자, 어쨌든 말입니다. 이런 고위 관료나 장교들 사이를 오가는 비밀 문서는 보통 그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암호가 사용되었거나, 적어도 약어가 쓰였을 것입니다. 더구나 과학적이고 엄격하게 전문적인 용어가 가득 차 있었을 것이 분명하지요."

"하지만 이 문서는 마치 한 닢짜리 저속한 소설처럼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보라색 동굴에서 황금 상자를 찾으라'는 식의 말이지요."

"이것은… 마치 처음부터 눈치채도록 의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짧은 체격의 프랑스 군복 차림의 남자가 바람처럼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와, 툭 하고 앉았다.

"경이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발로뉴 공작이 말했다. "방금 우리 대령을 만나 왔소. 그는 곧 나라를 떠나기로 했다고 하더군. 그리고 전장에서 그의 변명을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했소."

"뭐?" 플랑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쳤다. "사과?"

"그렇소." 공작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바로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칼을 빼든 채로."

"그리고 그분께서 나라를 떠나시는 동안, 바로 그분과 제가 그 일을 처리해야 하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오?" 플랑보가 외쳤다. "그가 그 작은 히르슈를 무서워할 리가 없잖소!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그는 이성적인 분노에 가까운 어조로 다시 소리쳤다. "누구도 히르슈를 무서워할 수 없소!"

"이건 분명 음모야!" 발로뉴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유대인과 프리메이슨들의 짓이지. 히르슈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의도야."

브라운 신부의 얼굴은 평범했다. 하지만 묘하게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그 얼굴은 무지할 때나 지혜로울 때나 똑같이 빛났다.

하지만 항상 한순간, 어리석은 가면이 벗겨지고 지혜로운 가면이 자리에 꽉 끼는 순간이 있었다. 친구를 잘 아는 플랑보는 알았다. 친구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것을.

브라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접시에 남은 생선을 다 먹어치울 뿐이었다.

"우리가 아끼는 대령을 마지막으로 본 곳이 어디냐?" 플랑보가 성가신 듯 물었다.

"그분은 엘리제 근처 생루이 호텔에 계세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차를 타고 갔던 곳이에요. 짐을 싸고 계신다니까요."

"그가 아직 거기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플랑보가 식탁을 바라보며 잔뜩 찌푸린 얼굴로 물었다.

"아직은 도망가지 못할 겁니다." 공작이 대답했다. "그가 긴 여행을 위해 짐을 싸고 있거든요."

"아니요." 브라운 신부는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고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주 짧은 여정입니다. 사실은 가장 짧은 여정 중 하나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간다면, 아직 그를 잡을 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택시가 생루이 호텔 모퉁이를 돌 때까지 그에게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내려, 신부는 그들을 이끌고 이미 짙어가는 황혼의 그림자에 잠긴 곁길로 올라갔다.

공작이 조바심을 내며 히르슈가 반역죄를 저질렀는지 물었을 때, 신부는 어느새 정신이 다른 곳에 쏠린 듯 대답했다.

"아니요. 반역죄가 아니라 야망죄죠. 가이우스 카이사르와 같은."

그리고 그는 이어,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말을 덧붙였다.

"그는 아주 고독한 삶을 삽니다.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내야 했으니까요."

"글쎄, 그가 야심이 많다면 이제쯤은 만족할 만하지," 플랑보가 다소 씁쓸하게 말했다. "우리 저주받은 대령이 도망쳤으니, 이제 파리 전체가 그를 환호할 테니까."

"목소리를 좀 낮추시오." 브라운 신부가 목소리를 줄이며 말했다. "저주받은 그 대령이 바로 앞에 있소."

나머지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벽 그림자 속으로 더 깊숙이 숨었다. 앞서 걷는 그들의 도망친 당사자의 튼튼한 실루엣이 황혼빛에 또렷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양손에 가방을 하나씩 들고 허둥지둥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처음 봤을 때와 거의 똑같이 보였다. 다만, 그가 화려했던 등산용 반바지를 평범한 바지로 갈아입은 것뿐이었다. 그는 이미 호텔에서 도망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들이 그를 따라간 골목은 사물의 뒷편에 있는 듯한 곳이었다. 무대 배경의 뒤편처럼 보이는 곳이었다. 한쪽 옆으로는 무채색의 연속된 벽이 늘어섰다. 벽에는 흐릿한 색의 더러운 문들이 간간이 있었다. 모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문에는 특징이 없었다. 다만 지나가는 아이들의 흰 분필 낙서만이 있었다. 벽 너머로는 나무 꼭대기가 보였다. 대부분 우울한 상록수들이었다. 회색과 보라빛 황혼 너머로 긴 테라스 주택들의 뒷모습이 보였다. 파리식 건물들이었다. 실제로는 꽤 가까웠지만, 어딘가 접근할 수 없는 대리석 산맥처럼 보였다. 골목 다른 쪽으로는 높은 금색 난간이 있었다. 어두운 공원의 난간이었다.

플랑보는 주변을 이상한 눈초리로 둘러보았다.

"저기 말이야," 그가 말했다. "이곳에는 왠지 모르게 이상한 점이 하나 있더군."

"이봐!" 공작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저 녀석이 사라졌군. 마치 저주받은 요정처럼 말야!"

"그가 열쇠를 가지고 있죠." 신부님이 설명하셨다. "그는 이 정원 문 중 하나로 들어간 것뿐이에요."

말씀하시는 순간, 그들 앞쪽에서 둔탁한 나무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다.

플랑보는 거의 자신의 얼굴을 막아버린 문 앞에 다가가, 잠시 동안 문 앞에 서서 검은 수염을 격분한 듯이 물어뜯었다. 그러곤 긴 팔을 쭉 뻗으며 원숭이처럼 몸을 솟구쳐 올랐다. 보라빛 하늘을 배경으로 거대

한 그림자가 벽 꼭대기에 섰다. 어두운 나뭇가지처럼 그의 거대한 형상이 어둠 속에 묻혔다.

공작은 사제를 바라보며 말했다. "듀보스의 도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정교하군."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하지만 그는 분명 프랑스에서 도망치는 중일 거야."

"그는 모든 곳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답했다.

발로뉴의 눈이 빛났으나 목소리는 가라앉았다. "자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가 물었다.

"그의 시체는 찾지 못할 겁니다." 다른 한 사람이 대답했다.

벽 위에서 플랑보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세상에!" 그는 프랑스어로 소리쳤다. "이곳이 어디인지 이제 알겠군! 바로 히르슈 영감이 사는 거리의 뒷골목이야. 나는 집 뒷모습을 남자 뒷모습만큼이나 잘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듀보스가 안으로 들어갔다고!" 공작이 엉덩이를 치며 외쳤다. "결국 두 사람은 만나게 되는군!"

갑자기 프랑스인의 생기가 넘치는 듯, 그는 플랑보 곁의 담장 위로 홱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흥분한 나머지 두 다리를 툭툭 치며 그 자리에 앉아 버렸다.

신부 한 분만 아래에 남아 있었다. 그는 온갖 사건이 벌어지는 전경과 등을 돌린 채 담장에 기대어 섰다. 그리고는 안타까운 듯, 저편 공원 울타리와 해질 무렵의 나무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응시하고 있었다.

공작은 비록 호기심에 들떠 있었지만, 귀족으로서의 본능을 잃지 않았다. 그는 집을 정탐하기보다는 그저 그 건물을 응시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플랑보는 달랐다. 그는 도둑의 본능, 그리고 탐정의 본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벽을 타고 올라가, 나뭇가지가 갈라진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높은 어둠 속의 집 뒤쪽에 있는 유일한 불이 켜진 창문 쪽으로 기어올라갈 수 있었다.

창문에는 붉은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지만, 비뚤게 내려져 한쪽으로는 틈이 벌어져 있었다. 가지 끝이 나뭇가지라기엔 너무 가늘고 위태롭게 보였지만, 목숨을 걸고 그 위를 기어오르자 플랑보는 듀보스 대령이 환하게 밝고 호화로운 침실을 거니는 모습을 간신히 볼 수 있었다.

플랑보는 집과 아주 가까웠지만, 벽 옆에 있던 동료들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그것을 낮은 목소리로 되뇌었다.

"그렇군, 결국 그들은 이제 만나게 되겠군!"

"그들은 절대 만나지 못할 겁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히르슈가 말했죠. 이런 일에는 당사자들이 만나서는 안 된다고요. 헨리 제임스의 기묘한 심리 소설을 읽어보셨나요? 우연히도 두 사람이 계속 만나지 못해 결국 서로를 두려워하고, 이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일도 그런 맥락이지만, 더 기이한 경우죠."

"파리에는 그런 병적인 공상에 사로잡힌 자들을 고쳐줄 사람들이 있소." 발로뉴가 원한을 품으며 말했다. "우리가 그들을 사로잡아 싸움을 강요한다면, 그들은 어차피 만나게 될 테니까."

"그들은 심판의 날에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제가 말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결투의 막대를 쥐시고, 성 미카엘이 검을 맞대라는 나팔을 불어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한쪽이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해도, 다른 한쪽은 결코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요."

"저런 신비주의가 대체 무슨 뜻이오?" 발로뉴 공작이 성급하게 외쳤다. "도대체 왜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만나지 못하는 것이오?"

"그들은 서로 정반대입니다." 브라운 신부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로 모순이 됩니다. 말하자면 서로 상쇄되는 거죠."

브라운 신부는 어둑어둑해져 가는 맞은편 숲을 응시하며 서 있었다. 그러나 플랑보가 억눌렀던 탄식을 새자, 발로뉴가 고개를 쏙 돌렸다.

플랑보는 불빛이 비치는 방 안을 엿보고 있었다. 방 안에서는 대령이 두세 발자국 걷더니, 갑자기 코트를 벗어 던지고 있었다.

플랑보의 첫 번째 생각은, 이건 분명히 싸움일 거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그 생각을 접고 다른 추론으로 넘어갔다.

듀보스의 거칠고 사각형 같은 가슴과 어깨는 모두 코트 속에 숨겨진 거대한 패딩이었다. 코트를 벗자, 그는 비교적 날씬한 신사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싸우려는 의기보다는 그저 몸을 씻으려는 평범한 태도로 침실 안을 지나 욕실로 향했다.

그는 세면대 위에 몸을 숙여 손을 씻었다. 그리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뒤, 다시 고개를 들었다. 강한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갈색 피부는 사라졌다. 굵은 검은 수염도 자취를 감췄다. 이제 그는 완전히 면도하고 무척 창백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대령의 흔적은 오직 날카로운 매의 눈동자, 그 갈색 눈빛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벽 근처에서 브라운 신부는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그는 혼자 중얼거리는 듯, 묵묵히 생각에 빠져 있었다.

"플랑보에게 하던 말과 똑같습니다. 이 반대되는 것들은 먹히지 않아요. 제대로 작동하지도, 서로 다투지도 못합니다.

흰색이 검은색 대신이고, 고체가 액체 대신이고, 줄줄이 모든 것이 반대라면…… 뭔가 잘못됐습니다, monsieur. 뭔가 잘못됐죠.

한 사람은 살결이 희고 다른 한 사람은 가무잡잡합니다. 한 사람은 통통하고 다른 한 사람은 마른체격입니다. 한 사람은 힘이 세고 다른 한 사람은 약합니다.

한 사람은 콧수염은 있고 턱수염은 없어 입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콧수염은 없고 턱수염만 있어 턱이 보이지 않죠.

한 사람은 머리를 깎아 두개골이 드러나 있지만, 목을 가리기 위해 스카프를 두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목이 드러나는 낮은 셔츠 칼라를 입지만, 두개골을 가리기 위해 긴 머리를 기릅니다.

모든 것이 너무 깔끔하고 정확합니다, monsieur. 그래서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것들은 결코 싸울 수 없습니다. 한 쪽이 튀어나오면 다른 쪽은 꼭 들어맞아 가라앉죠.

마치 얼굴과 가면처럼, 자물쇠와 열쇠처럼요…"

플랑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방 안의 주인은 등을 돌린 채 거울 앞에 서 있었는데, 이미 얼굴 둘레에 거친 붉은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을 쓰고 있었다. 그 가발은 머리에서는 어지럽게 늘어진 채 턱과 턱선에는 달라붙으면서, 비웃는 듯한 입술만은 드러낸 채였다.

거울에 비친 그 하얀 얼굴은 지옥의 불꽃에 둘러싸여 끔찍하게 웃는 유다의 얼굴처럼 보였다. 잠시 동안 플랑보는 격렬한 적갈색 눈동자가 춤추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이내 그 눈은 파란색 안경으로 가려졌다. 헐렁한 검은 코트를 걸친 채, 그 형체는 집 앞쪽으로 사라졌다.

몇 분 뒤, 거리 너머에서 들려오는 군중의 열렬한 박수 소리가 드디어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히르슈 박사가 다시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을.

네 번째 이야기 — 복도에 선 남자

아델피의 아폴로 극장 옆을 달리는 길고 어두운 복도 양쪽 끝에서, 두 남자가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다. 거리에는 저녁 노을이 진한 빛을 뿌리고 있었으나, 그 빛은 차갑고 고요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기에, 각자 상대방을 검은 실루엣 하나로만 식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먹물 같은 형체만으로도 상대방을 알아봤다. 둘 다 외모가 특이했고, 서로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이 덮인 통로는 한쪽 끝으로 아델피의 가파른 거리 중 하나로 이어졌고, 다른 쪽 끝으로는 석양빛 강을 내려다보는 테라스로 열려 있었다. 통로의 한쪽 벽은 빈 벽이었다.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은 예전에는 성공하지 못한 연극 레스토랑이었지만, 지금은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로의 다른 쪽에는 두 개의 문이 있었는데, 각각 양 끝에 하나씩 있었다. 이 문들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대 출입구가 아니었다. 이들은 아주 특별한 배우들을 위해 쓰이는 특수하고 사적인 무대 출입구였다. 이 경우 그 문을 쓰는 이들은 그날 셰익스피어 공연의 주연 배우들이었다.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친구들을 만나거나 피하기 위해 이런 사적인 출입구를 선호하곤 했다.

문제의 두 남자는 확실히 그런 친구들이었다. 문들을 잘 알고, 문이 열릴 것을 믿고 있던 자들이었다. 둘 다 터널 위쪽 끝에 있는 문으로 다가가는데, 그 태도는 똑같이 차분하고 자신만만했다.

다만 속도는 달랐다. 빨리 걷던 남자는 터널 반대쪽 끝에서 온 사람이었다. 그래서 둘은 거의 동시에 비밀 무대 뒤쪽 출입구에 도착했다.

그들은 예의 바르게 서로 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다가, 한 사람이 문을 두드렸다. 발걸음이 더 날렵하고 인내심이 짧은 쪽이었다.

이 일과 다른 모든 일에서 두 사람은 정반대였지만, 어느 쪽이 열등하다고 할 수 없었다. 사적인 사람으로서 둘 다 외모가 단정하고, 유능하며, 인기 있었다. 공적인 사람으로서도 둘 다 최상위의 지위에 있었다. 하지만 영광부터 잘생긴 얼굴까지, 그들 주변의 모든 것은 서로 다르고 비교할 수 없는 종류였다.

윌슨 세이먼 경은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 타입의 인물이었다. 어떤 정계나 직종의 가장 핵심적인 사교 모임에 깊이 들어갈수록, 윌슨 세이먼 경을 마주칠 기회가 더 많았다. 그는 스물 개의 무지한 위원회 중 유일한 현자였다. 왕립 아카데미 개혁부터 대영제국의 복본위제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주제에서 그랬다. 특히 예술 분야에서 그는 전능했다. 그는 너무도 독보적이어서, 누구나 그가 예술을 취미로 삼은 위대한 귀족인지, 아니면 귀족들에게 발탁된 위대한 예술가인지 명확히 판단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를 단 오분만 만나도, 당신이 사실 평생 동안 그에게 지배받아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의 외모는 '고결하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았다. 그것은 동시에 관습적이면서도 독보적이었다.

패션 잡지라면 그의 높은 실크 모자를 단 하나도 지적할 곳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누구의 모자도 아니었다. 조금 더 높았는지, 그의 실제 키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해주고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살짝 등이 굽었지만 오히려 약해 보이지는 않았다. 머리카락은 은빛 회색이었으나 노쇠해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인 길이보다 조금 길게 기르긴 했지만, 여성스러워 보이지는 않았다. 곱슬머리였지만, 지나치게 꾸며진 듯한 인상은 주지 않았다.

신중하게 다듬은 수염은 그를 더 남성적이고 전사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주었다. 그의 집 벽을 가득 채운 벨라스케스의 어두운 초상화에 등장하는 옛 제독들의 모습과도 같았다.

회색 장갑은 다른 것보다 조금 더 푸른빛을 띠었고, 은 손잡이가 달린 지팡이도 다른 지팡이들보다 조금 더 길었다. 극장이나 식당가를 거닐며 휘두르는 수많은 지팡이와 장갑들 사이에서, 그의 것만이 유독 돋보였다.

다른 남자는 키가 크지 않았다. 그렇다고 작아 보일 정도는 아니었고, 그저 건장하고 잘생겨 보일 뿐이었다. 머리카락도 곱슬거렸지만, 금발이었고 머리를 짧게 깎아 단단하고 굵직한 머리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 머리는 초서가 방앗간 주인을 두고 말했던 것처럼, 문짝을 부술 수 있을 만큼 단단해 보였다. 수염은 군인 특유의 수염이었고, 어깨는 군인의 자세를 하고 있었지만, 눈은 유난히 맑고 날카로운 푸른색이었다. 그런 눈은 군인보다는 선원들에게서 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사각형에 가까웠고, 턱도 사각형이었고, 어깨도 사각형이

었다. 심지어 재킷도 사각형이었다. 당시 유행하던 풍자화에서 맥스 비어보름은 그를 유클리드 기하학 제4권의 정리처럼 표현하기도 했다.

그 역시 공인으로서 이름을 떨쳤지만, 그 성공의 양상은 완전히 달랐다. 커틀러 대장, 홍콩 포위전, 그리고 중국 대륙을 가로지른 대장정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않은 사람은 드물었다. 어디를 가든 그의 소문을 피할 수 없었다. 엽서 한 장을 들추면 거의 대부분 그의 초상이 실려 있었고, 일러스트레이션이 실린 잡지라면 그의 지도나 전투 기록이 빠지지 않았다. 음악당이나 손바퀴 오르간에서 그의 이름을 찬미하는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그의 명성은 아마도 일시적이었을지언정, 다른 이의 그것보다 훨씬 더 넓고 대중적이며 자발적인 것이었다. 수천 호의 영국 가정에서 그는 넬슨 제독처럼 영국을 압도하는 거인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그가 영국에서 행사할 수 있는 실제 권력은 윌슨 세이무어 경보다 훨씬 미미했다.

문을 열어준 이는 나이 든 하인, 혹은 '드레서'라 불리는 조수였다. 그의 무너진 듯한 얼굴과 형편없는 체격, 그리고 검고 낡은 코트와 바지는 그 빛나는 여배우의 분장실 내부와 기묘한 대비를 이뤘다.

분장실은 굴절의 모든 각도에 거울이 맞춰져 채워져 있었다. 마치 거대한 다이아몬드의 수백 가지 면을 보는 듯했다. 비록 우리가 다이아몬드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말이다.

사치스러운 다른 요소들, 몇 송이 꽃, 몇 개의 색색의 쿠션, 몇 조각의 무대 의상도 모든 거울에 의해 증폭되어 아라비안 나이트의 광기 같

은 풍경을 연출했다. 하인이 거울을 밖으로 밀어내거나 벽에 다시 밀어 붙일 때마다, 그것들은 끊임없이 춤추고 자리를 바꾸었다.

두 사람은 꾀죄죄한 드레서을 향해 이름을 불렀다. '파킨슨'이라는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오로라 로미 양'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다. 파킨슨은 그녀가 다른 방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접 가서 알려주겠다고 했다.

두 방문객의 이마에 그늘이 졌다. 그 '다른 방'은 오로라와 함께 공연하는 유명한 배우의 사적인 방이었기 때문이다. 오로라는 그런 여자였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질투도 함께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약 반분 후, 안쪽 문이 열렸다. 그녀가 들어섰다. 사적인 자리라 해도 그녀는 항상 그랬다.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침묵조차 박수갈채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 박수는 충분히 받을 만한 것이었다.

그녀는 파랑과 초록 금속처럼 빛나는, 공작 초록과 공작 파랑 새틴으로 된 다소 기이한 의상을 입고 있었다. 그 옷감은 아이들과 미학자들을 매료시키는 광택을 띠었다. 무겁고 뜨거운 갈색 머리는 그녀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 얼굴은 모든 남성에게 위험한, 마법 같은 얼굴이었다. 특히 젊은 남자들과 흰머리가 섞인 남성들에게 더욱 그랬다.

그녀는 미국의 유명한 배우, 이사도어 브루노와 함께 '한여름 밤의 꿈'을 공연하고 있었다. 그들의 해석은 특히 시적이고 환상적이었다. 예술적 중심은 오베론과 타이타니아, 다시 말해 브루노와 그녀 자신에

게 주어졌다. 몽환적이고 정교한 무대 배경 속에서 신비로운 춤을 추며, 그녀의 녹색 의상은 광택 나는 딱정벌레 날개처럼, 요정 여왕의 잡히지 않는 개성을 표현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해가 밝은 낮 시간, 그녀를 직접 마주한 남자들은 오직 그녀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녀는 두 남자에게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 미소는 밝기 그지없었지만, 동시에 이해하기 어려웠다. 덕분에 수많은 남성들은 그녀에게 다가가려다 적당히 위험한 거리에서 멈춰 섰다.

커틀러가 건네는 꽃다발을 그녀가 받아들였다. 그 꽃은 커틀러의 승전보처럼 열대적인 향기와 비싼 값어치를 자랑했다.

윌슨 세이모어 경은 나중에, 더 담담한 태도로 또 다른 선물을 건넸다. 그는 본성상 열정적으로 보이는 것을 꺼렸고, 관습적인 비틀림을 즐겼기에 꽃처럼 너무 노골적인 것은 주지 않았다.

"이것을 주워봤는데, 꽤 흥미로운 유물입니다." 그가 말했다. "미케네 시대의 고대 그리스 단검이지요. 테세우스와 히폴리타가 살던 시절에나 쓰일 법한 물건입니다."

그는 이어 설명했다. 모든 영웅들의 무기처럼 황동으로 만들었지만, 놀랍게도 날카로워서 여전히 사람을 찌를 수 있을 정도라고.

"사실 저는 이 단검의 잎사귀 모양에 끌렸어요." 세이모어 경이 덧붙였다. "그리스 도자기처럼 완벽하죠. 만약 로미 여사께 흥미가 되거나, 연극에서 어딘가에 쓸모가 있다면, 저는 그녀가--"

안쪽 문이 쾅 하고 열리며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설명을 덧붙이는 세이무어와 비교해도, 이 남자는 커틀러 대장보다 훨씬 더 이질적인 존재였다. 키는 거의 6피트 6인치(약 198센티미터), 연극 무대보다 더 과장된 듯한 근육과 힘줄을 자랑하는 이사도어 브루노는 오베론의 의상인 화려한 표범 가죽과 금빛 갈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야만적인 신처럼 보였다.

그는 무언가 사냥용 창처럼 보이는 것을 짚고 섰다. 극장 안에서는 그 창이 가느다란 은빛 막대기처럼 보였지만, 작고 비교적 좁은 이 방에서는 피크 스태프처럼 평범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위협적으로 보였다. 그의 선명한 검은 눈은 화산처럼 격렬하게 굴렀고, 그의 청동빛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그 순간 높은 광대뼈와 굳게 다문 하얀 이빨이 드러나 있었다. 이 모습은 남부 플랜테이션에서의 그의 기원에 대한 몇몇 미국의 추측을 떠올리게 했다.

"오로라," 그가 시작했다. 수많은 청중을 감동시켰던, 열정의 북소리와 같은 그 깊은 목소리로. "너는--"

그가 망설이며 발걸음을 멈췄다. 문턱 안쪽에 여섯 번째 인물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 인물은 이 장면과 너무도 어울리지 않아, 거의 코믹할 정도였다. 그는 로마 가톨릭 재속 사제 복장을 입은 매우 작은 키의 남자였다. 특히 브루노와 오로라 같은 존재들 앞에서는

방주의 나무로 만든 노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이런 대비를 의식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둔탁한 예의를 갖추며 말했다. “로미 양이 저를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냉철한 관찰자라면, 감정이 극도로 고요한 그 방해 속에서 오히려 정서적 온도가 올라갔음을 눈치챘을 것이다. 전문적인 독신자의 냉담함은, 다른 이들이 마치 연애에 불타는 경쟁자들처럼 그 여자를 둘러싸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 보였다. 마치 서리 낀 코트를 입은 낯선이가 방 안이 화로처럼 뜨겁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녀에게 무관심한 단 한 남자의 존재는, 로마 양으로 하여금 나머지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 반해 있으며, 각기 다소 위험한 방식으로 그 감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더 강하게 느끼게 했다. 배우는 야만인과 방종한 아이의 모든 식욕을 지니고 있었고, 군인은 이성보다 의지를 앞세우는 남자의 단순한 이기심을 드러냈다. 윌슨 경은 옛 쾌락주의자가 취미에 빠져들 때 보이는, 매일 단단히 굳어가는 집중력을 보였고, 심지어 그녀의 성공 이전부터 그녀를 알았던 비굴한 파킨슨조차도, 개가 지닌 말 없는 매혹에 사로잡힌 듯 그녀의 뒤를 눈으로, 발로 쫓아다녔다.

또 다른 기이한 점도 예리한 눈으로라면 눈치챌 수 있었다. 흑색 목재로 만든 노아 같은 그 남자, 즉 예리한 감각을 완전히 잃지 않은 그는 그것을 꽤나 큰 재미로, 하지만 절제된 태도로 관찰했다.

위대한 아우로라는 이성의 시선에 전혀 무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을 동경하는 모든 남자를 쫓아내고 오직 자신에게 그런 감정이 없는 남자, 적어도 그런 의미로는 동경하지 않는 남자와만

남기를 원했다. 그 작은 사제는 그녀가 그 임무를 시작할 때 보여준 단단한 여성적 외교술을 오히려 칭찬하며, 심지어 즐기기도 했다.

아우로라 로움이 재능을 발휘한 것은 아마도 단 한 가지, 즉 인류의 절반, 다른 절반에 대한 이해뿐이었다. 작은 사제는 그녀가 아무도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모든 남자를 내쫓는 정책이 나폴레옹의 전쟁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큰 배우 브루노는 너무 어린애 같아서, 문짝을 세게 닫으며 분노에 찬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쉽게 쫓아낼 수 있었다. 영국 장교 커틀러는 아이디어에는 둔감했지만 행동거지에는 깐깐했다. 그는 모든 암시를 무시하겠지만, 한 부인으로부터의 확실한 지시는 죽기보다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늙은 시모어의 경우는 다르게 대해야 했다. 그는 마지막에 남겨져야 했다. 그를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구 친구로서 그에게 호소하는 것이었고, 정리의 비밀을 그에게 털어놓는 것이었다.

사제는 미스 로움이 선택된 한 행동으로 이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을 보며 진심으로 그녀를 칭찬했다.

그녀는 커틀러 대위 곁으로 다가가 가장 달콤한 어조로 말했다.

"이 꽃들,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니까요. 하지만 하나 빠졌어요. 제 가장 좋아하는 꽃이 말이에요. 모퉁이 가게에 들러서 은방울꽃을 좀 사다 주시겠어요? 그럼 완벽한 꽃다발이 될 거예요."

그녀의 외교술 첫 번째 목표, 즉 격분한 브루노의 퇴장은 순식간에 성취되었다. 브루노는 이미 자신의 창을 지팡이처럼 우아하게 다루며 비참한 파킨슨에게 건넸고, 이제 왕좌 같은 쿠션 의석 중 하나에 앉으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라이벌을 향해 터뜨린 그 공개적인 도전에, 브루노의 오팔색 눈동자에는 노예 특유의 민감한 오만이 타올랐다. 그는 거대한 갈색 주먹을 잠시 꽉 쥐었다가, 문짝을 힘차게 밀어젖히더니 뒤쪽 자신의 방으로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로마 양이 영국 육군을 동원해 보인 실험은 생각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성공하지는 못했다. 커틀러는 확실히 경직된 몸으로 벌떡 일어나 모자도 없이 명령 한 마디에 움직이듯 문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문턱에 서서 그는 갑자기 발을 멈췄다. 거울 하나에 기대어 늘어져 있는 세이무어의 나른하지만 과시적인 우아함이 그를 저지했기 때문이다. 그는 어리둥절해하는 불독처럼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혼란스러워했다.

"이 멍청한 녀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줘야 해." 오로라는 속삭이듯 세이무어에게 말한 뒤, 떠나가는 손님을 재촉하듯 문턱으로 달려나갔다.

세이머는 우아하면서도 무심한 태도로 무언가를 경청하고 있는 듯했다. 그가 들은 것은 여인이 선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리던 목소리였

다. 그러자 여인은 갑자기 방향을 돌려, 테라스 위, 템스 강이 내려다 보이는 쪽 끝으로 웃으며 달려갔다. 그 모습을 본 세이머는 안도하는 기색을 드러냈다.

하지만 세이머의 이마에 다시 그림자가 드리운 지는 불과 몇 초의 일이었다. 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경쟁자가 수없이 많기 마련이었다. 그는 문득 기억해냈다. 통로 반대편 끝에는 브루노의 사적인 방으로 이어지는 입구가 있다는 것을.

그는 품위를 잃지 않았다. 브라운 신부에게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비잔틴 양식 부활에 관해 정중한 말을 건넸다. 그러고는 자연스러운 듯, 스스로 통로의 위쪽 끝으로 걸어 나갔다.

이제 브라운 신부와 파킨슨은 둘이 남게 되었다. 두 사람 모두 쓸데없는 수다를 떨고 싶은 성향이 아니었다.

의상 담당자는 방 안을 돌아다니며 거울을 꺼냈다가 다시 밀어 넣기를 반복했다. 그는 여전히 오베론 왕의 축제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기에, 칙칙한 그의 검은 코트와 바지는 한층 더 처량해 보였다.

새로운 거울의 틀을 꺼낼 때마다, 거기에 브라운 신부의 검은 실루엣이 또 하나 나타났다. 이상하게도 거울 속 공간은 브라운 신부들로 가득 찼다. 공중에서 거꾸로 매달린 천사들처럼, 공중제비를 도는 곡예사들처럼, 혹은 매우 무례한 사람들처럼 모두 등을 돌린 채였다.

브라운 신부는 이토록 많은 목격자들이 있는 줄도 모르는 양, 파킨슨을 따라갔다. 그는 게으른 듯하면서도 세심한 눈빛으로 파킨슨을 쫓

았다. 파킨슨은 자신과 그 이상한 창을 들고 브루노의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제야 브라운 신부는 언제나 그를 즐겁게 하던 추상적인 사색에 잠겼다. 그는 거울의 각도를 계산했다. 각 굴절의 각도를 계산했다. 각 거울이 벽에 꼭 맞게 들어맞기 위한 각도를 계산했다.

그때, 그는 강하지만 숨 막힌 비명을 들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굳은 채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윌슨 세이무어 경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복도에서 저 남자는 누구요?" 그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내 단검은 어디에?"

브라운 신부가 무거운 부츠를 신은 채 몸을 돌리기도 전에, 세이무어는 이미 방 안을 뒤지며 무기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그 무기든 다른 물건이든 찾아낼 틈도 없기 전에, 밖의 보도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커틀러의 네모진 얼굴이 같은 문지방으로 밀고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이상하게도 손에 은방울꽃 한 다발을 쥐고 있었다.

"이건 무슨 일이지?" 그가 외쳤다. "복도 저쪽에 있는 그 괴물은 누구야? 이건 네가 꾸민 장난이야?"

"내 속임수라니!" 창백한 라이벌이 비명처럼 내뱉으며 한 발짝 그를 향해 내딛었다.

모든 일이 일어나던 그 순간, 브라운 신부는 복도 끝으로 나섰다. 그는 복도를 내려다보더니, 곧장 자신이 본 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 말을 듣자 나머지 두 남자는 다투던 일을 멈추고 그를 따라 내달았다. 커틀러가 소리쳤다.

"무슨 짓이오? 당신이 누구요?"

"브라운입니다." 신부는 슬픈 어조로 말했다. 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다가 다시 몸을 일으켰다. "로마 양이 저를 부르셨고, 저는 최대한 빨리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군요."

세 남자는 고개를 숙여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오후의 마지막 빛이 그들 중 적어도 한 사람의 생기를 앗아갔다. 복도 전체가 황금빛 길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의 한가운데, 오로라 로마가 초록과 금색 옷을 입은 채 누워 있었다. 그녀의 죽은 얼굴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옷은 싸움이라도 벌인 듯 찢겨 나갔고, 오른쪽 어깨는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피가 솟아나오는 상처는 다른 쪽에 있었다. 놋쇠로 된 단도가 한 뼘쯤 떨어진 곳에서 평평하게 놓여 있었다. 빛이 반사되어 번뜩이고 있었다.

잠시 동안 공기가 멈춘 듯 고요했다. 그 고요함은 충분히 길어서, 그들은 체링크로스 밖에서 꽃장수 소녀의 웃음소리를 또렷이 들을 수 있었고, 스트랜드에서 벗어난 어느 거리에서 누군가 택시를 부르기 위해 열정적으로 휘파람을 불고 있는 소리까지 들렸다. 그러자 대위가 갑자기 움직였다. 그 움직임은 너무 갑작스러워, 감정의 폭발인지 아니면

연극적인 연기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윌슨 세이모어 경의 목을 잡았다.

시모어는 싸우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은 채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를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가 직접 죽이겠습니다."

대위의 손이 잠시 주춤하더니 떨어졌다.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차가운 솔직함으로 덧붙였다. "그 단도로 할 용기가 없다면, 한 달 동안 술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

"술로는 내 기분이 풀리지 않아." 커틀러가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죽기 전에 이 일로 피를 보고야 말겠어. 당신의 피는 아니지. 하지만 그게 누구의 피일지는 알 것 같아."

커틀러는 다른 이들이 자신의 의도를 깨닫기도 전에 칼을 낚아챘다. 그는 복도 끝쪽 다른 문으로 뛰어가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자물쇠가 달린 채로 말이다. 그리고 브루노의 탈의실로 들어섰다.

그때였다. 노쇠한 파킨슨이 비틀거리며 문밖으로 나와 복도에 누워 있는 시체를 발견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시체 쪽으로 다가가, 흐트러진 표정으로 약한 시선을 던졌다. 그러곤 다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탈의실 안으로 물러나, 비로소 비단 쿠션이 놓인 의자 중 하나에 갑자기 주저앉았다.

브라운 신부는 즉시 그에게로 달려갔다. 커틀러와 거구의 배우가 이미 방 안에서 칼을 두고 싸우며 내지르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신부는 그들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편, 세이무어는 여전히 상식을 잃지 않은 채 복도 끝에서 경찰을 부르려고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두 남자를 거의 원숭이처럼 엉킨 몸에서 떼어냈다. 몇 가지 형식적인 조사를 마친 뒤, 경찰은 격분한 상대방의 고발에 따라 이사이도르 브루노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당대 최고의 국민 영웅이 직접 범인을 손으로 잡았다는 생각은, 기자 기질도 조금은 있는 경찰들에게 분명히 먹혔다. 그들은 커틀러에게 경건한 주의를 기울였고, 그의 손에 난 가벼운 찰과상을 일러주었다. 커틀러가 기울어진 의자나 테이블 너머로 그를 뒤로 밀어낼 때, 브루노는 그에게서 단도를 빼앗아 손목 바로 아래를 다치게 했다. 그 부상은 사실 가벼웠지만, 그가 방에서 나가기 전까지 반야수적인 죄수는 흐르는 피를 일그러지지 않는 미소로 바라보았다.

"이 사람 좀 봐. 식인종 같지 않아?" 순경이 커틀러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커틀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날카롭게 말했다.

"우리는 그…… 그 죽음을……"

그의 목소리는 말끝을 잇지 못하고 끊겨 버렸다.

"두 사람의 죽음." 방 건너편에서 신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그쪽까지 다다랐을 때는 이미 이 가엾은 이는 숨을 거두었소."

그는 화려한 의자에 검은색 옷을 두른 채 웅크리고 앉아 있는 노 파킨슨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파킨슨 역시 죽은 여인에 대해, 나름의 웅변으로 자신의 애도를 표했다.

침묵은 먼저 커틀러에 의해 깨졌다. 그의 눈에는 거친 연민이 스며들어 있었다. "저도 그 사람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가 그녀를 다른 누구보다 더 자주, 그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지켜보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그의 숨결이었고, 그는 이제 마른 풀잎처럼 시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모두 죽었소." 세이무어가 이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길을 내려다보며 그렇게 말했다.

그들은 길 모퉁이에서 브라운 신부와 작별하며, 혹시라도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면 그 점을 사과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비극적인 표정이 서 있었지만, 동시에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기색도 감돌았다.

작은 신부의 머릿속은 늘 기이한 생각들이 오가는 토끼 굴 같았다. 생각들은 너무도 빠르게 튀어 나와, 신부가 그들을 붙잡아 둘 틈이 없었다.

그는 마치 토끼의 하얀 꼬리처럼 사라져 버리는 한 생각을 떠올렸다. 그는 그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는 사실은 확신할 수 있었으나, 그들의 무고함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었다.

"이제 모두 돌아가는 게 좋겠소." 시모어가 무겁게 말했다. "우리는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으니까."

"해치는 데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고 말씀드리면, 제 동기를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브라운 신부는 조용히 물었다.

두 사람은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 흠칫 놀랐다. 커틀러가 날카롭게 물었다.

"누구를 해치려는 거요?"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신부가 대답했다.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러분의 곤란을 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배우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여러분은 스스로 교수대에 오르기 위한 모든 일을 거의 다 해놓은 셈입니다. 그들은 저를 반드시 소환할 것입니다. 저는 선서한 진술에서, 비명이 들린 후 각자가 난리처럼 방으로 뛰어들어 단검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선서한 말의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 둘 중 누구라도 그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로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틀러 대위는 단검으로 자신을 해쳤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쳤다고!" 대위는 경멸하는 듯이 외쳤다. "그저 우스꽝스러운 작은 긁힌 자국일 뿐이야."

"피를 본 것이오." 신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지금 놋쇠 위에 피가 묻어 있다는 건 알겠소. 하지만 그 피가 언제 묻은 것인지, 즉 원래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생긴 것인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시모어가 평소와 사뭇 다른,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복도에 남자가 있는 걸 봤어요."

"알고 있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얼굴을 굳힌 채 말했다. "커틀러 대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 점이 너무도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죠."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도 그 상황을 이해해 답변할 틈도 없이, 브라운 신부는 정중히 실례를 빌리고는 퉁퉁거리는 듯한 걸음으로 낡은 짧은 우산을 짚고 도로 위로 올라갔다.

현대 언론의 운영 방식을 보면, 가장 정직하고 중요한 뉴스는 바로 경찰 보도다. 20세기에는 정치 기사보다 살인 사건 기사가 더 많은 지면을 차지한다는 말이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살인이 정치보다 훨씬 심각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런던과 지방 언론에 퍼진 '브루노 사건'이나 '복도의 수수께끼'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세밀한 보도를 설명하기 어렵다. 당시의 흥분은 그토록 거대했다. 몇 주 동안 언론은 진실을 전하고 있

었다. 기소와 심문 과정의 보도는 끝이 없을 만큼 길고, 참기 힘들 정도로 지루하긴 했지만, 적어도 신뢰할 만했다.

물론 진정한 이유는 인물들의 우연한 일치에 있었다. 피해자는 인기 있는 여배우였고, 피고인은 인기 있는 남배우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애국심 넘치는 시대의 가장 인기 있는 장교에게, 말 그대로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이처럼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언론은 정직함과 정확성이라는 본능에 사로잡혔다. 따라서 이 다소 특이한 사건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브루노의 재판 보도를 통해 기록할 수 있다.

재판은 먼크하우스 판사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그는 유머러스한 판사라는 조롱을 받지만, 사실은 진지한 판사들보다 훨씬 더 진지한 인물이었다. 그의 경박함은 직업적 위엄에 대한 생생한 불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진지해 보이는 판사는 오히려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어 본질적으로 경박했다.

주요 관련자들이 모두 세속적 중요성을 지닌 인물들이었기에, 변호인 측과 기소 측의 균형은 잘 맞춰졌다. 왕실 측 검사는 월터 카우드레이 경이었다. 그는 거구였지만 무게감 있는 변호사였다. 그는 어떻게 영국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인상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저하며 수사학적인 연설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을 변호한 것은 패트릭 버틀러 K.C.였다. 그는 아일랜드인의 성격을 오해한 이들에게, 혹은 아직 그에게 법정에서 심문받아 본 적 없는 이들에게 그저 유희적인 방랑자로 오해받곤 했다.

의학 증언에는 모순이 없었다. 세이무어가 현장에서 소환한 의사와 나중에 시신을 검안한 저명한 외과의사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오로라 로마는 칼이나 단도 같은 날카로운 무기에 찔려 죽었다. 적어도 칼날이 짧은 무기였다. 상처는 심장 바로 위에 있었고, 그녀는 즉사했다. 의사가 처음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가 죽은 지 20분이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브라운 신부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는 죽은 지 3분이 채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어 공식적인 형사 수사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주로 싸움의 흔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싸움의 유일한 단서는 어깨 부분에서 옷감이 찢어진 것이었는데, 이 사실은 가해자가 내린 한 방의 방향과 그 결정적인 성격과는 잘 맞지 않아 보였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설명 없이 그저 제시되자, 중요한 증인 중 첫 번째 사람이 소환되었다.

윌슨 세이무어 경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듯, 증거 증언도 완벽하게 했다. 그는 판사보다 훨씬 더 공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정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미세한 태도를 정확히 전달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총리나 캔터베리 대주교를 보듯 바라봤지만, 그의 역할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사적인 신사의 역할'뿐이었다. 그 명사에 강조를 둔 채로 말이다.

그는 위원회에서 그랬듯, 증언도 상쾌할 정도로 명확했다. 그는 극장에서 미스 로마를 방문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커틀러 대위도 만났다. 잠시 후 피고인이 그들과 합류했고, 피고인은 다시 자신의 분장실

로 돌아갔다. 그러자 로마 가톨릭 신부 한 명이 합류해, 사망한 여인을 찾아달라고 하며 자신의 이름은 브라운이라고 말했다.

미스 로마는 커틀러 대위에게 자신에게 꽃을 더 사오라고 알려주기 위해, 극장 입구 바로 바깥에 있는 복도 입구로 나갔다. 증인은 방 안에 남아 신부와 몇 마디 말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그는 분명히 들었다. 대위를 보낸 사망한 여인이 돌아서서 웃으며, 복도를 따라 다른 쪽 끝으로 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곳이 피고인의 분장실이 있는 곳이었다. 친구들의 급격한 움직임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에서, 그는 복도 끝까지 산책하듯 나가 피고인의 문 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복도에서 어떤 것을 보았는가? 네, 그는 복도에서 어떤 것을 보았다.

카우드레이 경은 인상적인 침묵을 흘렸다. 증인은 고개를 숙인 채, 평소의 차분함과는 달리 유난히 창백해 보였다. 그러자 변호사가 낮고도 묘한 목소리로 물었다. 동정심이 담긴 듯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그 목소리였다.

"선명하게 보셨습니까?"

윌슨 세이무어 경은 감격에 젖어 있었지만, 머릿속의 뛰어난 두뇌는 온전히 가동되고 있었다.

"윤곽은 아주 선명합니다. 하지만 윤곽 안의 세부 사항들은 전혀 선명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보이지도 않죠. 그 복도가 너무 길어서,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대편의 빛을 배경으로 삼아 완전히 검은 실루엣으로 보입니다."

증인은 차분하던 시선을 다시 내리깔더니 덧붙였다.

"그 사실을 처음부터 눈치챘습니다. 커틀러 대위가 그 복도에 처음 들어섰을 때부터 말이죠."

다시 침묵이 흘렀다. 판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무언가를 메모했다.

"글쎄요," 월터 경이 인내심을 가지고 물었다. "그 윤곽선이 어땠습니까? 예를 들어, 살해된 여성의 형상과 비슷했나요?"

"전혀 아닙니다." 시모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 눈에는 어떻게 보였나요?"

"전 키 큰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증인이 대답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펜이나 우산 손잡이, 책, 혹은 부츠, 아니면 그 순간 눈이 머무르고 있던 무엇인가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마치 죄인을 억지로 피하려는 듯이, 그들은 시선을 최대한 멀리 돌리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피고석에 있는 그 남자의 존재감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 존재감은 거대하게 느껴졌다. 눈부시게 키가 큰 브

루노였지만, 사람들이 그에게서 시선을 뗄 때마다 그는 더 키가 크고 더 거대하게 불어나는 듯했다.

코드레이는 장중한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다. 검은 실크 제복과 흰 수염을 고쳐 다지며.

윌슨 경은 증인석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다른 여러 증인들로부터 몇 가지 마지막 정황을 확인한 후였기 때문이다. 그때 변호 측 변호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를 막아섰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버틀러 씨가 말했다. 그는 시골 사람 같은 외모에 붉은 눈썹을 가졌고, 항상 반쯤 잠든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그것이 남자라는 걸 아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시모어의 얼굴에 희미하고 세련된 미소가 스쳤다.

"바지라는 저속한 기준이군요." 그가 말했다. "긴 다리 사이로 햇빛이 새어 들어올 때, 비로소 그것이 남자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버틀러의 졸린 눈이 갑자기 벌어졌다. 마치 조용히 터진 폭발처럼.

"결국!" 그가 천천히 되뇌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여자라고 생각하셨군요?"

시모어는 처음으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실관계로 따지자면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분께서 제 느낌을 묻고 싶다면, 물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존재는

여성도, 남성도 아닌 묘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어딘가 곡선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긴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버틀러 변호사가 말했다. 그는 원하는 것을 얻은 듯 갑자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커틀러 대위는 윌슨 경보다 훨씬 덜 차분하고 설득력 없는 증인이었지만, 그가 증언한 초기 사건들의 내용은 단단히 일치했다. 그는 브루노가 자신의 탈의실로 돌아간 일, 자신에게 은방울꽃 한 다발을 사오라고 명한 일, 복도 상부로 돌아온 일, 복도에서 목격한 것, 시모어를 의심한 일, 그리고 브루노와의 몸싸움까지 상세히 묘사했다.

하지만 그와 시모어가 보았다는 검은 형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형체의 윤곽에 대해 묻자, 그는 자신은 미술 평론가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때 그의 눈에는 시모어를 향한, 다소 노골적인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그 형체가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물으니, 그는 짐승처럼 보였다고 답했다. 이때 그의 얼굴에는 죄수를 향한, 역시 너무도 노골적인 으르렁거림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명백히 슬픔과 진심 어린 분노로 떨고 있었다. 코드레이는 이미 상당히 명확해진 사실들을 확인하는 데서 그를 곧바로 면제시켰다.

변호인 측의 반대 심문 역시 짧았다. 비록 그 특유의 습관대로, 짧게 끝내면서도 마치 오래 걸리는 듯한 인상을 주기는 했지만 말이다.

"당신은 아주 특이한 표현을 썼군요."

그가 나른한 표정으로 커틀러를 바라보며 말했다.

"짐승 같아 보였다고요? 남자나 여자 같지 않다고요? 그 말의 뜻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커틀러는 진지하게 동요하는 기색이었다. "아마도 내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었나 봐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 짐승은 침팬지처럼 큰 혹이 있는 어깨를 가지고 있고, 돼지처럼 뻣뻣한 털이 삐죽삐죽 나온 상태라면--"

버틀러는 호기심 어린 조급함을 중간에 끊었다. "모발이 돼지 털 같았든 아니든, 문제는 그게 여자의 머리카락 같았느냐는 거야."

"여자라니!" 그 군인이 외쳤다. "세상에, 말이 안 돼!"

"마지막 증인도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변호사가 주저 없이 재빠르게 말했다. "그 인물이 연설에서 언급한 그 뱀처럼 구불거리는, 그리고 반쯤 여성적인 곡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성적인 곡선이라곤 전혀 없었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인물은 다른 특징보다는 다소 체격이 굵고 네모진 형상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가 앞으로 몸을 숙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커틀러가 쉰 목소리로, 아주 작게 말했다.

"아니, 아닐 수도 있지요." 버틀러 씨가 말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갑자기 자리에 앉았다.

세 번째 증인으로 소환된 이는 작은 가톨릭 성직자였다. 다른 증인들에 비해 키가 너무 작아, 그의 머리는 증언석 가장자리보다 겨우 살짝 올라올 뿐이었다. 마치 어린아이를 심문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월터 코드레이 경은 어째서인지 브라운 신부가 피고인의 편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악하고 외국인이며, 심지어 피부색도 어두웠기 때문이다. 코드레이 경은 가족의 종교적 배경에서 비롯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브라운 신부가 그 자존심 강한 교황 같은 태도로 어떤 사실을 설명하려 할 때마다, 코드레이 경은 곧장 그를 막았다. 그는 신부에게 예나 아니오로만 답하라고, 그리고 예수회식 수법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말하라고 일갈했다.

브라운 신부가 순진하게도 복도에서 본 남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자, 변호사는 곧바로 선을 그었다. 그는 신부의 추측 따위는 필요 없다고 단호히 거부했다.

"복도에서 검은 형체가 보였다고요. 당신도 그 검은 형체를 봤다면서요. 그렇다면, 그 형체는 도대체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브라운 신부는 책망받는 듯한 기색으로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그는 순명의 본질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모양은 짧고 통통했지만, 머리 위쪽 양옆으로 뿔처럼 위로 굽은 날카로운 검은 돌출물이 두 개 있었죠. 그리고--"

"뿔 달린 악마겠지. 틀림없어." 코드레이가 의기양양한 농담조로 자리에 앉으며 외쳤다. "개신교를 잡아먹으러 온 악마였어."

"아니요." 사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였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정 안 사람들은 비이성적이지만 실재하는, 어떤 괴물 같은 느낌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피고석에 선 인물은 잊어버린 채, 복도에 나타난 형체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세 명의 유능하고 신망 두터운 남자들이 모두 그 형체를 목격했는데, 그들이 묘사한 바는 꿈결 같은 악몽 같았다. 한 사람은 그를 여자라고 했고, 다른 이는 짐승이라고 했으며, 또 다른 이는 악마라고 했다.

판사는 브라운 신부를 똑바로 바라보며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당신은 가장 특이한 증인입니다." 판사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에게서 진실을 말하려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자, 복도에서 본 남자는 누구였소?"

"그건 바로 나 자신이었소."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버틀러 변호사가 특이할 정도로 고요한 자세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매우 평정된 어조로 말했다.

"재판장님, 제가 심문해 보아도 되겠습니까?"

그는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브라운 신부에게 겉보기엔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질문을 던졌다.

"그 단도에 대해 들으셨습니까? 전문가들은 이 범죄가 짧은 칼날로 저질러졌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짧은 칼날이긴 하지요." 브라운 신부가 부엉이처럼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손잡이는 아주 깁니다."

청중은 아직 신부가 실제로 손잡이가 긴 짧은 단도로 살인을 저지른 자신을 목격했다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묘사는 어딘지 모르게 더욱 끔찍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신부는 이미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급히 말을 이어갔다.

"단도가 짧은 칼날을 가진 유일한 무기는 아니라는 뜻이야. 창도 짧은 칼날을 가지고 있지. 만약 극장에서 쓰던 그런 화려한 종류의 창이라면, 단도처럼 강철 끝부분에 걸리는 수가 있어. 가난한 파킨슨이 아내를 죽일 때 썼던 그 창처럼 말이야. 바로 그 아내가 가정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를 부른 직후였지. 그런데 나는 너무 늦게 도착했어. 하나님, 저를 용서하소서! 하지만 그는 회개하며 죽었어. 그는 그저 회개하는 마음에 죽은 거야. 자신이 저지른 일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지."

법정 안의 일반적인 인상은, 그 작은 신부가 쉴 새 없이 말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며 그가 진정으로 법정석에서 미쳐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판사는 여전히 빛나고 단호한 눈으로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

보았다. 그리고 변호 측의 변호사는 흔들림 없이 그의 질문을 계속 이어갔다.

"파킨슨이 그 마임용 창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4야드는 떨어진 곳에서 찔렀어야 했을 겁니다." 버틀러가 말했다. "그렇다면 옷깃이 어깨에서 벗겨지는 등, 몸부림 치던 흔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그는 본래 증인일 뿐인 상대를 마치 전문가라도 되는 듯 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점을 눈치 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불쌍한 부인의 드레스가 찢어졌어요." 증인이 말했다. "드레스가 그녀 바로 뒤로 미끄러져 들어간 판에 걸린 거죠. 그녀는 몸을 빼려고 안간힘을 썼고, 그 순간 파킨슨이 피고인의 방에서 나와 창으로 찔렀습니다."

"패널?" 변호사는 의아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저건 반대쪽에 있는 거울이었어요." 브라운 신부가 설명했다. "제가 탈의실에 있을 때, 그중 일부는 복도로 미끄러져 나가는 구조라는 걸 눈치챘거든요."

또 한 번의, 기이하고도 거대한 정적이 흘렀다. 이번에는 판사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정말로 말하려는 것은, 그 복도를 내려다봤을 때 당신이 본 남자가 거울 속의 당신 자신이라는 뜻이오?"

"네, 재판장님. 제가 하려던 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자의 모양을 물어보더군요. 우리 신부들의 모자는 뿔처럼 모서리가 져 있죠. 그래서 제가--"

판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낡은 눈은 더욱 빛나고 있었다. 그는 특히 또렷한 어조로 물었다.

"정말로, 윌슨 시모어 경이 그 거친, 뭐라고 부르던가, 곡선미가 있고 여자의 머리카락에 남자의 바지를 입은 그 존재를 봤을 때, 그가 본 것이 바로 윌슨 시모어 경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재판장님."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커틀러 선장이 굽은 어깨와 돼지털 같은 털을 한 침팬지를 보고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재판장님."

판사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 자세에는 노골적인 냉소와 숨은 감탄이 섞여 있어, 어느 쪽이 더 강한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두 분 같은 저명한 분들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데, 당신께서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아신다는 말씀이오?" 판사가 물었다.

브라운 신부는 이전보다 더 고통스럽게 눈을 깜빡였다. 그러곤 더듬거리는 말투로 말했다.

"정말입니다, 각하. 제가 그다지 자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 기계의 실수

해가 저물 무렵, 플랑보와 그의 친구인 신부는 템플 가든에 앉아 있었다. 그들 근처에 흐르던 어떤 우연한 기운이, 아니면 그들이 있던 장소가 그들의 대화를 법률 절차의 문제로 이끌었다. 교차 심문에서 허용 범위의 문제에서부터, 그들의 이야기는 고대 로마와 중세의 고문, 프랑스의 예심판사, 그리고 미국의 제3단계 심문으로 흘러갔다.

"저도 얼마 전 그 새로운 심리 측정법에 대해 읽어봤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회자되는 그 방법 말입니다. 손목에 맥박계를 대고 특정 단어를 발음할 때 심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서 판단하는, 그런 거요. 신부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우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브라운 신부가 답했다. "그 생각이 중세 초기의 한 가지 흥미로운 관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살인자가 시체에 닿으면 시체에서 피가 흐른다는 그 아이디어 말입니다."

"정말 그 두 방법이 모두 동등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친구가 물었다.

"저는 둘 다 똑같이 무가치하다고 봅니다." 브라운 신부가 대답했다. "피는 죽은 자의 몸에서도, 살아있는 자의 몸에서도 흐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억 수천만 가지의 이유가 있어 흐르는 거죠. 피가 마

터호른 산을 거슬러 오르기라도 한다면, 그제야 제가 피를 흘려야 할 징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방법," 상대가 말했다. "미국 최고의 과학자들 중 몇몇이 그 타당성을 보증한 바 있소."

"과학자라면서 감성주의자라니!" 브라운 신부가 탄식했다. "그렇다면 미국 과학자들은 얼마나 더 감성적일까?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해서 무언가를 증명하려니? 그건 오직 양키만 할 짓이다. 여자가 붉게 얼굴을 붉히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는 남자보다 더 감성적이지 않겠는가? 그것은 불멸의 하비가 발견한 혈액 순환에 기반한 시험이다. 그리고 그건 정말로 형편없는 시험이지."

"하지만 확실히," 플랑보가 고집하며 말했다. "그것은 분명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지팡이가 똑바로 서 있으면 오히려 단점이 하나 있죠." 다른 한 사람이 답했다.

"무슨 말인가?"

"지팡이 반대편 끝은 항상 정반대 방향을 가리킨다는 거야. 중요한 건 지팡이를 어느 쪽 끝으로 잡느냐에 달렸지. 내가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론 그걸 믿지 않게 됐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환멸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사건은 거의 스무 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브라운 신부는 시카고의 한 교도소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죄수들의 보좌 신부로 일하고 있었다. 그곳의 아일랜드인들은 죄를 짓는 재주와 회개하는 열정 모두에서 남다른 능력을 보여, 신부를 꽤나 바쁘게 만들었다.

교도소장 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은 그레이우드 어셔라는 전직 형사였다. 그는 창백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북부 출신의 철학자였다. 매우 딱딱한 표정에 가끔 이상하고 사과하는 듯한 찡그림을 섞어 내는 것이 그의 특징이었다.

어셔는 약간 우월한 시선으로 브라운 신부를 좋아했다. 브라운 신부 역시 어셔를 좋아했지만, 어셔의 이론만큼은 진심으로 싫어했다. 그 이론은 매우 복잡했지만, 그는 그것을 매우 단순하게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사제를 불러냈다. 사제는 평소대로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 사이를 비집고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관료는 서류 더미 속에서 신문 기사 일부를 꺼내 사제에게 건넸다. 사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것을 읽었다. 그것은 아마도 가장 도드라진 미국 사회지 중 하나에서 발췌한 것이었을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사회에서 가장 빛나는 홀아비가 또다시 기이한 저녁 식사 이벤트를 연다. 독자들은 '유모차 퍼레이드 저녁 식사'를 기억할 것이다. 필그림스 연못에 있는 그의 궁전 같은 집에서 라스트트릭 토드가 주최한 그 행사에서는, 여러 명망 있는 데뷔탕트들이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기이한 현상을 일으켰다.

그보다 한 해 전, 라스트트릭이 열었던 '인간 식인종 돌진 점심 식사'도 똑같이 우아했지만, 더 다양하고 포용적인 사회적 시각을 보여줬다. 그 자리에서는 사탕을 사람의 팔과 다리 모양으로 빚어 돌렸고, 한 명도 아닌 여러 명 '활발한 정신 체조 선수'들이 파트너를 먹겠다고 소리쳤다는 소문이 돌았다.

오늘 밤을 빛낼 재담은 아직 토드 씨의 신비로운 두뇌 속에 숨어 있거나, 우리 도시 가장 활기찬 지도자들의 보석으로 장식된 가슴 속에 잠겨 있다. 하지만 사회적 계층의 반대편에 있는 단순한 예절과 풍습을 풍자한 패러디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는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호스트인 토드가 영국 출신의 진정한 귀족, 포클로이 경을 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클로이 경은 유명한 여행가로, 최근 영국 숲에서 내려왔다.

포클로이 경의 여행은 그의 고대 영지 작위가 부활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젊은 시절 공화국에 있었고, 유행은 그의 귀국에 대한 교묘한 이유를 속삭인다. 에타 토드 씨는 깊은 영혼을 지닌 뉴요커로, 거의 12억 달러의 수입을 가진 인물이다.

"음, 그거 흥미롭습니까?" 어셔가 물었다.

"글쎄, 말이 잘 나오지 않군요." 브라운 신부가 대답했다. "지금 당장 제게 그 어떤 것보다 더 흥미 없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려 해도, 도무지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화국의 정의로운 분노가 마침내 그런 글을 쓰는 기자들을 전기의자로 처형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흥미를 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 어셔 씨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신문 조각을 건넸다. "그건 흥미롭지 않습니까?"

단락의 제목은 "간수 살해. 죄수 탈출"이었다. 내용은 이랬다.

"오늘 새벽 동트기 직전, 이 주 시쿼의 감옥 수용소에서 '도와주세요'라는 비명이 들렸다. 당국이 그 소리가 난 방향으로 급히 달려가자, 북쪽 성벽 꼭대기를 순찰하던 간수의 시체가 발견됐다. 북쪽 성벽은 가장 가파르고 오르기 어려운 곳이라, 항상 경계병 한 명만 배치해도 충분하다고 여겨졌다.

불행히도 그 간수는 높은 성벽에서 내동댕이쳐졌고, 몽둥이로 두드린 듯 머리가 깨져 죽었다. 그의 총도 사라졌다.

추가 조사를 통해 한 구치소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오스카 리안이라는 이름을 대는, 좀처럼 말수가 없고 흉흉한 기질의 남자가 수감되어 있었다. 그는 비교적 가벼운 폭행 혐의로 임시로 구금된 자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검은 과거를 가진 위험한 인물'로 여겼다.

마침내 해가 완전히 뜨고 살육의 현장이 선명해지자, 시체 위의 벽에 피로 물든 손가락으로 쓴 듯한 단편적인 문구가 발견됐다.

‘이건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는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나 다른 어떤 이에게도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는요. 그 총알은 필그림 연못을 위해 남겨두겠습니다—O.R.’

무장한 경계병이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벽을 공격해 넘으려면 지옥 같은 배신이나, 혹은 끔찍하고 놀라운 신체적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글쎄요, 문체만은 어느 정도 나아졌군요.” 신부는 경쾌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위해 뭘 해드릴 수 있을지 도무지 모르겠소. 다리가 짧은 제가 그런 운동신경의 살인자를 쫓아 이 주를 누비면, 참으로 초라한 꼴이 될 테니까요.”

“누구든 그를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쿼에 있는 수용소는 여기서 서른 마일이나 떨어져 있소. 그 사이 땅은 거칠고 엉켜 있어 험난하고, 그가 반드시 갈 만한 그 너머 땅은 초원으로 이어지는 무인지대나 다름없소. 그는 어딘가 구덩이에 숨었거나,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그가 구덩이에 빠져 있지도 않았소.” 교도소장이 말했다. “나무에 올라가 있지도 않고.”

“어떻게 아신 거요?” 브라운 신부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그와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어셔가 물었다.

브라운 신부는 순진한 눈망울을 동그랗게 뜨며 외쳤다. “그가 여기 있다니요?” “도대체 어떻게 당신네들이 그를 붙잡은 거지?”

“내가 직접 그를 붙잡았지.” 미국인이 느릿느릿 일어나, 불앞에서 길쭉한 다리를 쭉 펴며 말했다. “지팡이 끝의 갈고리로 그를 낚아챘어. 너무 놀라지 말게. 정말로 그랬단 말야.”

“이곳의 쓸쓸한 마을 밖 시골길을 가끔 산책하곤 하지. 오늘 저녁 일찍, 양쪽으로 짙은 수풀과 회색빛으로 밭갈이된 들판이 펼쳐진 가파른 길을 올라가고 있었단다. 초승달이 떠서 도로 위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

“그 빛을 보고, 들판을 가로질러 도로 쪽으로 달려오는 한 남자를 보았어. 그는 몸을 구부린 채, 1마일 경주하듯 빠른 속보로 달리고 있었지.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두꺼운 검은 수풀에 부딪혔을 때 그는 마치 거미줄을 뚫고 지나가듯 가볍게 통과했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강한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꺾이는 소리가 총검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났지. 그는 돌로 만든 사람처럼 단단했던 거야.”

“그가 달을 배경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나타나는 순간, 나는 갈고리 지팡이를 그의 발목에 던졌어. 그는 넘어졌고, 나는 휘파람을 길게 불었지. 그러자 우리 동료들이 달려와 그를 붙잡았단 말야.”

“그가 마일 달리기 선수로 활동하는 인기 운동선수였더라면, 좀 난감했을 텐데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가 아니었습니다." 어셔가 차갑게 말했다. "우리는 곧 그가 누구인지 알아냈지만, 달빛이 그에게 첫 번쩍 비치는 순간 이미 나는 짐작했습니다."

"당신은 그날 아침 신문에 실린 기사가 '죄수가 탈주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탈출자가 범인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훨씬 더 확실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총독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단순해서 강조할 가치도 없다고 치자. 즉, 세련된 운동선수들이 경작지를 가로지르거나 가시덤불 울타리에 얼굴을 박고 눈이라도 긁어낼 리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웅크린 개처럼 몸을 말아 가며 달리는 법도 없다.

꽤나 훈련된 눈이라면 더 결정적인 세부 사항들을 포착할 수 있었다. 그 남자는 거칠고 헐벗은 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거칠고 헐벗은 것이 아니었다. 옷이 맞지 않아 전혀 우스꽝스러울 정도였다. 심지어 달이 뜨는 배경을 따라 검은 실루엣으로 보였을 때, 머리를 파묻고 있던 코트 칼라 때문에 그는 마치 꼽추처럼 보였다. 길고 헐렁한 소매는 그가 손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때 나는 그 남자가 어딘가에서 죄인복을 벗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공범자의 옷으로 갈아입었을 것이라고 즉시 짐작했다.

두 번째로, 그가 달리고 있는 방향에는 꽤 강한 역풍이 불고 있었다. 따라서 머리카락이 매우 짧지 않았다면,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의 자국이 눈에 띄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경작지 너머에 필그림 연못(Pilgrim's Pond)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너도 기억하겠지) 그 죄인은 그곳을 노리고 총알을 아껴두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지팡이를 힘껏 던졌다.

"빠른 추리로 빛나는 명쾌한 결론이군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하지만 그에게 총이 있었나요?"

어셔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자, 신부는 사과하는 어조로 덧붙였다.

"총알이 없으면 반쪽짜리도 못 된다고 들었습니다."

"총은 없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매우 자연스러운 사고나 계획의 변경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옷을 바꾼 것과 같은 심리가 총을 버리게 만든 것일 테니까요. 그는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의 옷을 뒤로 남겨둔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하군요." 사제가 말했다.

"그건 추측할 가치도 없소." 어셔가 다른 서류들을 뒤적이며 말했다. "이미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거든."

성직자 친구가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어떻게요?"

그레이우드 애셔는 신문을 내려놓고, 다시 두 장의 기사 발췌문을 들어 올렸다.

"자, 당신이 그렇게 완고하다면,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 두 기사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순례자의 연못'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죠. 아시다시피 그곳은 백만장자 아이턴 토드의 저택입니다. 또한 그분이 특이한 인물이라는 것도 아시죠. 발판 삼아 올라간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우리의 죽은 자아를 더 높은 것으로 이끄는 것이죠." 동료가 동의했다. "네, 알아요. 석유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어셔가 말했다. "이 기이한 사건에서 '마지막 트릭' 토드는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는 다시 난로 앞에서 몸을 펴고, 자신의 특유한 풍요롭고도 환하게 설명하는 어조로 대화를 이어갔다.

일단 겉보기에는 이 일에 별다른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전과자가 총을 들고 필그림 연못으로 향하는 것도, 오히려 이상할 게 없다.

우리 국민들은 영국인처럼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용서하지 않는다. 영국인들은 병원이나 경마에 돈을 퍼부으면 부자라도 용서하곤 하지.

라스트트릭 토드는 자신의 뛰어난 재능으로 자신의 입지를 굳혔다. 그러나 그가 그 재능을 발휘해 피해를 입힌 사람들 중에는, 총으로 그 재능을 되갚아주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토드는 자신이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누군가에게, 혹은 쫓겨난 노동자나 파산시킨 회사의 직원에게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토드는 정신적 재능이 풍부하고 공적인 품격도 높은 인물이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관계는 상당히 긴장되어 있다.

"만약 이 라이언이 토드를 죽이기 위해 필그림스 연못으로 향했다면, 사건 전체는 그렇게 보일 것이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작은 발견 하나가 내 안의 형사 기질을 깨웠다.

죄수를 안전하게 확보한 후, 나는 다시 지팡이를 들고 시골길을 몇 번 꺾이며 걸었다. 그 길은 토드의 사유지 중 한쪽 입구로 이어졌다. 그곳은 장소의 이름이 된 연못이나 호수에 가장 가까운 곳이었다.

그때는 약 두 시간 전, 지금으로 치면 일곱 시쯤이었다. 달빛은 더 선명했고, 회색빛의 끈적하고 반쯤 액체 같은 호숫가 위에 긴 흰 빛줄기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곳은 옛 조상들이 마녀를 걸어 들어가게 해 가라앉을 때까지 했다는 신비로운 연못이었다. 정확한 전설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내가 말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 것이다. 토드의 집 북쪽, 황야 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두 그루의 기괴하게 주름진 나무가 있다. 그 나무들은 너무 음산해서, 제대로 된 나뭇잎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균류처럼 보인다.

나는 안개 낀 연못을 응시하며 서 있었다. 그러다 집 쪽에서 연못으로 향하는 사람의 희미한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고 어두워 사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고, 세부 사항에 이르러서는

더더욱이었다. 게다가 나의 시선은 훨씬 가까운 무언가에 의해 강하게 사로잡혔다.

나는 거대한 저택의 한쪽 날개에서 불과 이백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울타리 뒤에 몸을 숨겼다. 다행히 울타리에는 조심스러운 눈으로 훔쳐보기 좋게 일부가 뚫려 있었다. 왼쪽 날개의 어두운 덩어리 속에서 문이 열렸고, 밝게 조명된 내부와 대비되는 검은 실루엣의 인물이 나타났다. 그 인물은 몸을 숙이고 밤바람을 향해 무언가를 훔쳐보고 있었다.

그는 뒤따라 문을 닫았고, 손에 등불을 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등불은 불완전한 빛을 비추어 입은 옷과 인물의 형체를 드러냈다. 그것은 분명히 여자의 형체였다. 낡은 망토로 몸을 감싸고 있어 정체를 숨기려 했던 것이다. 금으로 장식된 방들을 나서고 있는 사람치고는, 낡은 옷과 그 은밀한 행위가 매우 기이해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굽은 정원 길을 따라 걸어와, 내게서 오십 야드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르렀다. 그러다 잠시 잔디 테라스에 서서, 머리 위로 들어 올린 타오르는 등불을 신호를 보내듯 세 번 앞뒤로 흔들었다.

등불을 두 번째로 흔들 때, 빛의 깜빡임이 그녀의 얼굴을 잠시 비췄다. 나는 그 얼굴을 알았다. 그녀는 비정상적으로 창백했고, 머리는 빌린 평범한 여성용 스카프로 감싸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그 여자가 백만장자의 딸, 에타 토드라는 것을.

그녀는 똑같이 은밀하게 제자리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문이 다시 닫혔다. 나는 담장을 넘어서 그녀를 따라가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다. 모험으로 나를 유혹했던 그 탐정 열정은 그리 품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중요한 자리에서 나는 이미 모든 승리를 내 손에 쥐고 있다는 것도.

그때 밤을 가르는 새로운 소리가 들렸다. 집 모퉁이 너머, 위층의 창문이 열렸다. 나는 그곳을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또렷하고도 끔찍할 만큼 선명한 목소리가 어두운 정원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폴콘로이 경이 어디 있느냐? 집 안 모든 방을 뒤졌는데 그가 보이지 않는다!"

그 목소리를 분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나는 정치적 연설이나 이사회 회의에서 수없이 들어본 목소리였다. 바로 아이턴 토드 자신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아래층 창문이나 계단으로 내려가 있었다. 그들은 위를 향해 외쳤다. 폴콘로이 경은 한 시간 전에 피그림 연못 쪽으로 산책 갔다며, 그 후로는 행방을 알 수 없다고.

그러자 토드가 "맙소사, 살인이다!"이라고 외쳤다. 그리고 창문을 거칠게 닫았다. 이어 그는 안쪽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시 한 번 현명한 목적을 되찾았다. 곧 이어질 대대적인 수색에서 벗어나야 했다. 나는 여덟 시가 되기 전에 이곳으로 돌아왔다.

지금부터, 흥미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그 사교계 기사 단락을 다시금 떠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그 죄수가 총알을 토드를 노리고 아껴둔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폴콘로이 경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일을 해치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을 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연못의 기이한 지질학적 환경이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에 시체를 던지면, 몸은 두꺼운 진흙 속으로 가라앉아 거의 알 수 없는 깊이까지 묻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머리를 짧게 깎은 그 친구는 토드가 아니라 폴콘로이를 죽이러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제가 이미 지적했듯, 미국에서는 토드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새로 상륙한 영국 귀족을 죽일 이유는 미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바로 그 분홍색 문서에 적혀 있는 이유, 즉 그 귀족이 백만장자의 딸에게 구애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옷이 몸에 맞지 않지만, 그 짧게 깎은 머리의 친구는 분명히 애정을 품은 구애자일 것입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는 어색하고, 심지어 우스꽝스럽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영국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캔터베리 대주교의 딸이 해노버 스퀘어 성 조지 교회에서 가석방 중인 거리

청소부와 결혼한다는 말처럼 들릴 테니까요. 당신은 우리 나라 특이한 시민들이 가진 상승과 야망의 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녁 의상을 입고 권위 있는 태도를 지닌, 외모가 준수한 회색 머리 남자를 봅니다. 그는 국가의 기둥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아버지가 있었으리라 상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비교적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가 빈민가, 혹은(아마도) 감옥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국민 특유의 활력과 상승세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들 중 다수는 최근, 심지어 노년에 이르러서야 성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토드의 딸이 열여덟 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하층 사회의 추종자를 두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등불 사건을 볼 때, 그녀는 오히려 그 추종자에게 매달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렇다면, 등불을 들고 있던 손이 총을 들고 있던 손과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경감님, 큰 소문을 낼 것입니다."

"그럼요," 사제가 인내심 있게 말했다. "그 다음엔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신은 분명 놀라실 겁니다." 그레이우드 어셔가 말했다. "이런 일에서 과학의 진보를 당신이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저에게 상당한 재량이 주어집니다. 때로는 그 이상으로, 좀 더 과감하게 행동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때가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심리 측정기'를 시험해 볼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엔, 그 기계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렇다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죠."

"이번 사건에서는 그랬습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죠." 어셔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옷이 맞지 않는 남자를 편안한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단어를 적기만 했죠. 기계는 그의 맥박 변화만을 기록했고, 저는 그의 태도만 관찰했습니다."

"요령은 간단합니다. 범행과 관련된 단어를, 전혀 다른 주제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단어 목록 속에 섞어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왜가리', '독수리', '부엉이'를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매'를 적었을 때 그는 격렬하게 동요했죠. 그리고 단어 끝에 'r'을 쓰기 시작하자, 그 기계가 거의 뛰었습니다."

"이 공화국에서 새로 도착한 영국인 '폴콘로이'의 이름을 듣고 놀랄 만한 이유가 있는 이는 누구일까요? 그를 쏜 사람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믿을 만한 기계의 증거가, 증인들의 수다스러운 말보다 낫지 않습니까?"

"항상 잊고 계십니다." 동료가 말했다. "신뢰할 만한 기계도 결국은 신뢰할 수 없는 기계에 의해 작동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무슨 말씀이세요?" 형사가 물었다.

"제가 말하려는 건 '사람'입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제가 아는 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기계요."

"무례하게 말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도 제가 당신을 지칭할 때 '사람'이라는 표현이 불쾌하거나 부정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태도를 관찰했다고 말했지만, 정말로 제대로 관찰했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당신은 그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고 했지만, 당신이 자연스럽게 행동했다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가 당신의 태도를 관찰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크게 흥분했었는지 누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맥박에 어떤 기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말이 됩니까!" 미국인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오이처럼 차분했습니다."

"죄인들 중에도 오이처럼 차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거의 당신만큼이나요."

"글쎄, 이쪽은 아니었어." 어셔가 서류들을 흩뜨리며 말했다. "아, 당신 때문에 내가 지치잖아!"

"죄송합니다." 다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단지 합리적인 가능성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 태도만 보고도 자신을 죽일 그 단어가 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면, 당신 역시 그의 태도만 보고도 그 단어가 떨어지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누군가를 처형하기 전에 말보다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어셔가 테이블을 힘껏 내리치며 일어났다. 그 모습은 분노에 찬 승리의 기색이 역력했다.

"바로 그걸 당신에게 주려는 겁니다." 그가 외쳤다. "일단 기계부터 시험해 본 거예요.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그 일을 검증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기계, 신부님,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진정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정리하자면, 저는 과학적 실험 결과 외에는 별다른 단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사실 아무런 혐의도 없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 그의 옷은 맞지 않았지만, 그가 속한 것으로 보이는 하층민의 옷차림보다는 오히려 나았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흙탕물을 헤치고 논밭을 누비며, 먼지투성이 수풀을 뚫고 나온 흔적의 얼룩들 아래에서는, 그 남자는 비교적 깨끗했습니다.

물론 이는 그가 막 감옥을 탈출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제가 아는, 비교적 양심적인 가난한 이들이 지니는 절박한 정숙함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그들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고 위엄을 유지하듯, 그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숨겨진 큰 원한을 안고 있듯, 그도 깊은 불만을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을 모른다고 주장했으며, 의미 없는 곤경에서 자신을 구해줄 합리적인 조치가 있을 때까지 침울한 인내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한때 노동 분쟁에서 자신을 도와준 변호사를 전화

로 부르려 했으며, 이는 무고한 사람이 마땅히 취할 행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를 향한 모든 혐의는, 그의 맥박 변화를 가리킨 눈금판 위의 그 작은 바늘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무했습니다."

"그때, 신부님, 그 기계가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옳았습니다. 제가 그를 데리고 사적인 방에서 나와, 다양한 사람들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던 현관으로 나왔을 때, 저는 그가 이미 무언가 자백과 비슷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명확히 하기로 마음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저를 향해 돌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 알고 싶다면--'"

그 순간, 긴 벤치에 앉아 있던 가난한 여성 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비명처럼 높은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다. 평생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악마처럼 또렷하고도 생생한 비명이었다.

그녀의 야윈 손가락은 마치 완두콩총으로 완두콩을 하나씩 쏘아 올리듯, 그를 정확히 짚어냈다. 비록 그 단어는 단순한 비명일 뿐이었지만, 각 음절은 시계가 시각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또렷하게 들렸다.

"'드러거 데이비스!' 그녀가 외쳤다. '그들이 드러거 데이비스를 잡았어!'"

"비참한 여성들, 대부분 도둑이나 매춘부들이었지. 그중 스무 명이 입을 벌린 채 기쁨과 증오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어.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더라도, 그의 얼굴에 일순간 스쳐 지나간 충격만으로도 소위 '오스카 라이언'이라 불리던 자가 자신의 본명을 들었음을 알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생각보다 무지하지 않아. 놀라울지도 모르지만, '드러거 데이비스'는 우리 경찰을 오랫동안 속여온 그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범죄자 중 한 명이었지.

그는 감호원 사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살인을 저질렀음이 분명해.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죄로 완전히 처벌받지 못했어. 이상하게도, 그가 자주 잡혀들어 가벼운(혹은 더 비열한) 범죄로 처벌받던 방식과 똑같은 수법으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이야. 그는 여전히 어느 정도는 외모가 단정하고 교양 있어 보이는 야수였지. 그는 주로 바텐더나 점원들을 데리고 다니며 그들의 돈을 갈취하곤 했어. 하지만 때로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기도 했어. 담배나 초콜릿에 마약을 섞어 먹인 여자들이 발견되었고, 그들의 모든 재산이 사라져 있었지.

그러다 한 건의 사건에서 여자가 시체로 발견되었지만, 사전 계획성이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았어. 더 중요한 것은,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는 점이지. 그가 이번에는 빌리는 대신 돈을 빌려주는 역할로 변장해 어딘가에 다시 나타났다는 소문도 들렸어. 하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유혹할 수 있는 가난한 과부들에게는 여전히 같은 비참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지.

자, 이것이 바로 그 무고한 남자와 그의 무고한 이력이라네. 그 이후로 네 명의 범죄자와 세 명의 감호원이 그를 지목하고 이 이야기를 확인했어. 이제 내 그 작은 기계에 대해 뭐라고 하겠나? 기계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나? 아니면, 그 여자와 내가 그를 무너뜨렸다고 말하고 싶나?"

"당신이 그에게 해준 일에 대해 말하자면," 브라운 신부가 일어나서 흐느적거리며 몸을 풀며 말했다. "당신은 그를 전기의자에서 구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 오래되고 모호한 독살 사건으로 드러거 데이비스를 처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호원을 살해한 죄수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그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데이비스 씨는 그 범죄에 대해 무죄입니다."

"무슨 뜻이오?" 다른 쪽에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왜 그 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시오?"

"세상에나!" 작은 남자가 드물게 열을 올리며 외쳤다. "그건 그가 다른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도대체 여러분은 무슨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가 한 자루 주머니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의 인색한 사람이 화요일에는 낭비벽이 된다고 말하듯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남자가 수주, 수개월에 걸쳐 가난한 여성들을 현혹해 작은 돈을 뜯어냈다고 말합니다. 최선일 때는 약을, 최악일 때는 독을 사용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가장 비열한 사채업자로 나타나, 똑같은 인내심과 평온한 태도로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을 속였다고 합니다. 그렇다 칩시다. 논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인정

합시다. 그렇다면 그가 하지 않은 일을 말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총을 든 남자를 향해 뾰족한 장벽을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했다고 벽에 직접 글씨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정당방위였다고 변명할 시간을 끌지도 않았습니다. 불쌍한 간수과는 원한이 없었다고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총을 들고 가던 부자의 집을 지목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의 피에 자신의 이니셜을 적지도 않았습니다. 성자여, 선과 악에서 그의 성격 전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저와 조금도 닮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나쁜 버릇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양 생각하게 만듭니다."

놀란 미국인은 이미 항변할 말을 입 밖으로 내밀려 했다. 그때 그의 사적인 공간이자 업무용 방 문이, 그가 전혀 익숙하지 않은 무례하고 거친 소리로 두드려지고 흔들렸다.

문이 벌컥 열렸다.

그레이우드 어셔는 방금 전, 브라운 신부가 정신이 나갔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다다르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다음 순간, 그는 자신이 정신이 나갔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의 사적인 공간으로 한 남자가 덩달아 날아들듯 들어왔다. 그는 가장 더러운 헝겊 조각들을 걸친 채였다. 머리에는 기름진 납작모자가 비스듬히 쓰여 있었고, 한쪽 눈에서 밀려 올라온 허름한 초록색 눈가리개가 있었다. 두 눈은 호랑이처럼 사나운 빛을 내고 있었다.

얼굴의 나머지 부분은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엉킨 수염과 콧수염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그 사이로 코가 간신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게다가 더러운 붉은 스카프나 손수건으로 얼굴을 더 묻어둔 상태였다.

어셔 씨는 주에서 가장 거친 형편들을 대부분 봐왔다고 자부해 왔다. 하지만 그는 이런 원숭이를 보지 못했다. 심지어 허수아비처럼 차려입은 원숭이를 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평온하고 과학적인 생애 동안, 이런 남자가 먼저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여기 보시오, 어셔 씨." 빨간 손수건을 두른 남자가 외쳤다. "나도 지쳤소. 내 앞에서 숨바꼭질 같은 짓은 하지 마. 속을 수 없소. 내 손님들을 놓아주게. 그러면 그 장난감 시계도 멈추게 하겠소. 그를 단 한 순간이라도 붙잡아 두면, 당신도 좋은 꼴은 보지 못하게 될 거요. 내가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아님을 알겠소."

명망 높은 어셔는 그 우렁찬 괴성을 경악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모든 감정은 경악 앞에 마르고 말았다. 눈이 겪은 충격이 너무 커서 귀는 거의 기능을 잃은 상태였다.

마침내 그는 거친 손으로 종을 울렸다. 종소리는 아직 강렬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순간, 브라운 신부의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또렷하게 들려왔다.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말이 좀 꼬일 것 같아서요. 이 분을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어딘가 아는 얼굴 같아요. 당신은 그분을 잘 아시죠. 정말 잘 알면서도, 동시에 잘 모르고 계신 거죠. 당연한 말이지만요.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코스모스라는 게 깨진 게 틀림없어." 어셔가 말하더니, 둥근 사무용 의자에 털썩 쓰러졌다.

"자, 들어봐." 낯선 남자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 목소리는 비교적 차분하고 이성적이었지만, 그럼에도 울려 퍼져 오히려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당신을 안으로 들이지 않겠소. 나는 원하오--"

"도대체 너는 누구냐?" 어셔가 갑자기 몸을 쭉 펴며 외쳤다.

"그 신사분 이름이 토드인 것 같습니다." 신부가 말했다.

그가 분홍색 신문 조각을 들어 올렸다.

"당신은 아마도 사교계 신문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모양이군요." 그가 단조로운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우리 도시의 가장 화려한 지도자들의 보석으로 장식된 가슴 속에 잠겨 있거나, 혹은 사회의 다른 끝단에서 벌어지는 풍습과 관습의 재미있는 패러디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갔다.

"오늘 밤 필그림스 연못에서 큰 빈민 저녁 식사가 열렸고, 그 중 한 손님이 사라졌습니다. 아이튼 토드 씨는 훌륭한 호스트로, 심지어 분장 의상을 벗지도 않은 채로 그를 쫓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남자를 말씀하시나요?"

"저는 바로 그분, 밭을 가로질러 달아나는 모습을 보셨던, 옷이 어색하게 맞지 않는 그 남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찾아 가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총을 든 죄수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샴페인을 그대로 두고 급히 도망쳤으니, 이제 다시 그 샴페인으로 돌아가고 싶어 안달일 겁니다."

"당신은 진지한 말씀이십니까?" 공무원은 입을 열었다.

"이보세요, 어셔 씨." 브라운 신부가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은 그 기계가 실수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계, 즉 그 기계를 작동시키는 쪽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당신은 헐벗은 남자가 '팔콘로이 경'이라는 이름에 움찔한 것이, 바로 팔콘로이 경의 살인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팔콘로이 경의 살인자가 아니라, 팔콘로이 경 그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인가?" 어셔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외쳤다.

"자신의 처지와 최근의 당황스러움이 귀족다운 품격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깨달았지." 신부가 대답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름을 감

추려 했어. 하지만 곧 그 이름을 당신에게 말하려던 참이었지, 그때"라고 신부는 자신의 부츠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한 여인이 그에게 다른 이름을 붙여주었거든."

"당신은 정말 미친 게 아니라면, '팔콘로이 경이 드러거 데이비스였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레이우드 어셔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신부는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도무지 읽을 수 없는, 해독할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건 제가 뭐라 할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나머지는 모두 당신에게 맡기죠. 당신의 분홍색 신문에는 그의 작위가 최근 부활했다고 나와 있더군요. 하지만 그런 서류는 매우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또 그가 젊어서 미국에 있었다고도 적혀 있지만, 이야기 전체가 너무 기이해 보입니다. 데이비스와 팔콘로이 둘 다 꽤나 비겁한 자들이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 하나로 개를 처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드럽고 사색적인 어조로 이어갔다. "저는 생각하건대, 당신 미국인들은 너무 겸손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영국 귀족을 이상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만큼 귀족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조차 이상화인 셈이죠. 당신은 저녁 의상을 입은 잘생긴 영국인을 봅니다. 그는 상원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계실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 민족의 활기찬 기개와 상승세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귀족들 중에는 최근 들어 그 지위에 오른 이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만해!" 그레이우드 어셔가 외쳤다. 그는 상대방의 얼굴에 스민 아이러니한 빛을 견디지 못해, 가느다란 손을 비틀었다.

"이 미치광이한테 붙들려 있지 마!" 토드가 잔인하게 소리쳤다. "나를 친구에게 데려가."

다음 날 아침, 브라운 신부는 또다시 그 겸손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손에는 분홍색 신문을 한 장 더 들고 있었다.

"사교계 신문은 좀 소홀히 보시는 것 같군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 기사 정도는 관심 있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어셔가 신문의 헤드라인을 읽었다. '마지막 유희에서 이탈한 방랑객들: 필그림 연못 근처의 유쾌한 사건'.

본문은 이어졌다. "어제 밤 윌킨슨 모터 차고 밖에서 웃음거리가 된 사건이 발생했다. 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찰관은 말썽꾸러기들의 지적을 받아, 매우 당당하게 고급 판하르 자동차의 운전석으로 올라타는 한 남자에게 주의가 쏠리게 되었다. 그 남자는 형무소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는 누더기 같은 숄로 몸을 감싼 한 소녀와 함께였다. 경찰이 간섭하자, 그 젊은 여성은 숄을 뒤로 젖혔다. 그러자 모두 그 여자가 백만장자 토드의 딸임을 알아봤다. 그녀는 방금 연못에서 열린 '빈민가의 기이한 밤' 파티에 참석하고 온 참이었다. 그곳의 주요 손님들은 모두 그녀와 비슷한 차림새였다. 그녀와 형무소 복장을 입은 그 남자는 관례적인 '기쁨의 드라이브'를 떠나던 참이었다."

어셔는 분홍색 신문 조각 아래에서 나중에 나온 신문 조각을 발견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백만장자의 딸이 죄수와 함께 놀라운 탈출을 감행하다. 그녀는 기이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현재 안전함—”

그린우드 어셔가 고개를 들어 올려도, 브라운 신부는 이미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여섯 번째 이야기 — 가이사의 머리

브롬프턴이나 켄싱턴 어딘가에는 끝이 없어 보이는 높은 집들이 늘어서 있는 거리가 있다. 부유하지만 비어 있는 공간이 많은 그곳은 마치 무덤의 단처럼 보인다. 어두운 현관문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피라미드 측면만큼이나 가파른 듯해, 미라가 문을 열까 봐 문을 두드리기조차 망설여진다. 하지만 회색 외관보다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그 끝없이 이어지는 길이요, 변함없는 연속성이다. 그 거리를 걷는 순례자는 끝이나 모퉁이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아주 작지만 순례자에게는 큰 환호를 불러일으키는 예외 말이다.

두 개의 큰 저택 사이에는 마구간 같은 공간이 있다. 거리와 비교하면 문틈처럼 좁지만, 부유한 사람들이 하인들을 위해 허용하던 작은 맥주집이나 식당이 모퉁이에 자리할 만큼의 공간이다. 그 작은 공간은 더러움 속에서도 기운차고, 작음 속에서도 자유롭고 요정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회색 돌 거인들 아래에서 그것은 불 밝힌 난쟁이의 집처럼 보인다.

특정한 가을 저녁, 마치 동화 속처럼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던 시간이었다. 그 때를 지나가던 사람은 창문 너머로 손이 붉은 반쯤 가려진 커튼을 젖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커튼 위에는 큰 흰색 글씨가 적혀 있어, 가게 내부를 거리에서 반쯤 가리고 있었다. 그리고 커튼 너머로 내다본 얼굴은, 순진해 보이는 요정 같았다.

사실 그 얼굴은 브라운이라는 평범한 인간 이름을 가진 사람의 것이었다. 그는 에식스주 코블홀의 전직 사제였으며, 지금은 런던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의 친구인 플랑보가 그와 마주 앉아 있었다. 플랑보는 반공식적인 조사관으로, 근처에서 해결한 사건에 대한 마지막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두 사람은 창가 쪽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사제가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거리에서 지나가는 낯선 사람이 창문을 지나가자, 커튼이 다시 원래 자리로 떨어지도록 기다렸다.

그리고 그의 동그란 눈이 머리 위의 커튼에 적힌 큰 흰색 글씨로 굴러갔다. 그러고는 옆 테이블로 시선을 옮겼다. 그곳에는 맥주와 치즈를 앞에 둔 막노동자 한 명과, 빨간 머리에 우유 한 잔을 든 젊은 소녀 한 명이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사제는 친구가 포켓북을 치우는 것을 보고는, 부드럽게 말했다.

"십 분만 시간이 있으시면, 가짜 코를 낀 그 남자를 따라가 주시겠소?"

플랑보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붉은 머리의 소녀도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놀람을 넘어선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가늘고 헐거운 갈색 자루천 옷을 간단하게 입고 있었지만, 분명히 귀부인이었다. 더 자세히 보니, 오히려 불필요할 정도로 고압적인 태도를 지닌 귀부인이었다.

"가짜 코를 한 남자!" 플랑보가 되풀이했다. "그가 누구란 말인가?"

"전혀 모릅니다." 브라운 신부가 대답했다. "당신이 알아내길 바랍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그는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는 어깨 너머로 엄지손가락을 툭 치며, 평범하기 그지없는 제 특유의 제스처를 취했다. "아직 가로등 세 개도 지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방향만 알고 싶습니다."

플랑보는 잠시 동안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재미가 섞여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왜소한 여관의 작은 문을 통해 거대한 몸을 비틀어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황혼 속으로 사라졌다.

브라운 신부는 주머니에서 작은 책을 꺼내 차분히 읽기 시작했다. 그는 빨간 머리의 여인이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 맞은편에 앉았다는 사실에 전혀 눈치를 챈 기색이 없었다. 마침내 여인이 몸을 기울이며 낮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어떻게 그것이 거짓임을 아셨나요?"

그는 다소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눈꺼풀은 상당한 당황스러움 속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러자 그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다시 주점 유리창 앞의 하얀 글씨들로 향했다. 젊은 여자도 그의 시선을 따라가 그곳을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저 순수한 혼란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었다.

"아니요." 브라운 신부가 그녀의 생각을 읽어낸 듯 말했다. "시편에 나오는 '셀라'가 아닙니다. 방금 멍하니 있다가 저도 그렇게 읽었거든요. 여기에는 '알레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요?" 눈이 휘둥그레진 젊은 여자가 물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든 상관없잖아요."

생각에 잠긴 그의 시선은 소녀의 가벼운 캔버스 소매로 향했다. 손목 둘레에는 아주 미세한 실의 문양이 둘러져 있었다. 그 문양은 평범한 여자의 작업복과 구별되게 해 주었고, 예술을 공부하는 귀부인의 작업복처럼 보이게 했다.

그는 이 사실에서 많은 생각의 거름을 찾은 듯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매우 느리고 주저했다.

"보시다시피, 마담," 그가 말했다. "밖에서 보기에 그 곳은--글쎄요, 완전히 점잖은 곳이지만--당신 같은 귀부인들은--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선택에 의해 그런 곳으로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래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우유를 마시러 들어가지 않는 불쌍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당신은 참으로 특이한 분이시군요." 젊은 여인이 말했다. "도대체 그 모든 것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일은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아주 부드럽게 대답했다. "단지,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제 도움을 요청할 때,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지식을 갖추기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그는 몽환적인 독백을 이어갔다.

"당신이 제자들을 만나러 왔거나, 가난한 친구들을 찾아온 것이라면, 당신은 안방으로 들어갔을 거야.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왔다면, 분명히 정중하게 보이는 이 집주인에게 말을 걸었을 거야. 게다가 당신은 그렇게 아파 보이지는 않아. 다만 불행해 보일 뿐이지."

"이 거리는 꺾이는 길 하나 없이 길게 이어진 유일한 길이고, 양쪽 집들은 모두 닫혀 있어. 그래서 나는 당신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고 피해서 들어왔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었어. 이 돌밭 같은 황량한 곳에서 이 여관만이 유일한 피난처였으니까."

"그때 지나가던 유일한 남자를 흘끗 본 것은, 낯선 사람으로서의 예의는 넘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 남자가 나쁜 유형처럼 보이고, 당신이 좋은 유형처럼 보였거든. 그래서 그가 당신을 괴롭히면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뿐이야. 그게 다야."

“내 친구는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이런 길을 따라 쫓아가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을 거야. 나도 그가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럼 왜 그를 밖으로 보냈습니까?” 그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더 뜨거운 호기심을 드러내며 외쳤다. 그녀는 붉은빛 피부와 로마식 코를 가진, 마리 앙투아네트와 같은 당당하고 격정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말을 걸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 그를 붉은 얼굴로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분노의 붉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과 입꼬리에서 유머가 샘솟았다. 그녀는 거의 엄숙한 어조로 대답했다.

"만약 당신이 내 대화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면, 아마도 내 질문에 답해 줄 거야."

잠시 후 그녀는 덧붙였다.

"나는 당신에게 왜 그 남자의 코가 가짜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소."

“이런 날씨엔 왁스가 조금만 닿아도 자국처럼 얼룩이 지기 마련이죠.” 브라운 신부는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코가 너무 휘었잖아요." 빨간 머리의 소녀가 반박했다.

신부도 미소를 지었다. "그 코가 단순한 멋부림으로 낄 만한 코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제 생각에는, 진짜 코가 훨씬 더 예쁘기 때문에 그 코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녀가 재차 물었다.

"동요가 뭐였지?" 브라운 신부는 멍하니 중얼거렸다. "'구부러진 사람이 있었네. 그는 구부러진 길을 한 마일이나 걸었지……'라고 했잖아. 그 사람은 아마도 코를 따라간 것 같군. 아주 구부러진 길을."

"뭐, 그가 뭘 했다는 거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의 속내를 털끝만큼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당신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용히 서 있었다. 주먹을 꽉 쥐고, 마치 곧장 자리를 뜨려는 사람처럼 말이다. 그러자 그녀의 손이 천천히 풀렸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당신은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더 수수께끼 같은 사람입니다." 그녀가 절박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수수께끼 속에, 어쩌면 마음이라는 것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중심이 없는 미로다. 바로 그 때문에 무신론은 단지 악몽에 불과한 것이다."

"모든 것을 말씀드릴게요," 붉은 머리의 소녀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왜 이 말을 하는지는 제외하고요. 그리고 저도 그 이유를 모르니까요."

그녀는 수선 자국이 보이는 식탁보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무엇이 속물근성이 아니고 무엇이 속물근성인지 모두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우리 가문이 오래되고 선량한 집안이라고 말한 것은, 그 이야기가 꼭 필요한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게 가장 큰 위험은 오빠의 오만한 태도와 'noblesse oblige(귀족의 의무)' 같은 관념에서 옵니다."

"제 이름은 크리스타벨 카스터즈입니다. 아버지는 아마도 들어보셨을 카스터즈 대령이죠. 그는 유명한 '카스터즈 로마 동전 컬렉션'을 모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버지가 마치 로마 동전 그 자체와 매우 닮았다는 것뿐입니다. 그는 외모도 단정했고, 진품이었으며, 가치 있었고, 금속 같았으며, 시대에 뒤처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장(紋章)보다 동전 컬렉션을 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이상을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의 특이한 성격은 유언장에서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한 아들이자 제 오빠인 길스와 사이가 틀어졌고, 작은 용돈만 주며 호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유언을 통해 카스터즈 컬렉션과,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용돈을 제 오빠 아더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더의 충성과 정직함, 그리고 케임브리지에서 수학 및 경제학 분야에서 이미 얻은 명성을 인정하는 보상이자, 그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거의 모든 큰 재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그것을 경멸의 의미로 남겼다고 확신합니다."

"아서라는 사람이 이 일에 불평할 만도 하죠. 하지만 아서는 제 아버지의 재림이나 다름없습니다. 젊었을 때 아버지와 몇 가지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컬렉션을 물려받은 순간 그는 마치 신전에 헌신한 이교도 사제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로마 동전을 카스터스 가문의 명예와 동일시했고, 그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완고하고 우상 숭배적인 태도로 대했습니다. 로마 돈은 로마의 미덕으로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셈이죠. 그는 자신을 위한 즐거움을 일절 누리지 않았습니다. 사치도 부리지 않았고, 오직 컬렉션을 위해 살았죠.

간혹 간단한 식사 차림조차 귀찮아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낡은 갈색 가운을 걸친 채, 다른 누구도 만질 수 없는 끈으로 동여맨 갈색 종이 봉지들을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로프와 태슬이 달린 그 가운과,

창백하고 야위며 세련된 그의 얼굴이 어우러지자, 그는 마치 옛날 금욕주의 수도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끔 단호히 유행을 따르는 신사의 차림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런던의 경매장이나 상점에 가서 카스터스 컬렉션을 보충할 때뿐이었습니다."

"자, 젊은이들을 조금이라도 알아본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해 기분이 아주 가라앉았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분이란, 고대 로마인들도 제 나름대로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찾아오는 것이다. 나는 형 아서와 다르다. 나는 즐거움을 즐기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좋아한다. 나는 다른 쪽 가족, 즉 모계 쪽에서 붉은 머리와 함께 많은 낭만과 허영을 물려받았다. 가일스도 마찬가지였다. 동전들의 분위기가 그에게 변명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그가 정말로 잘못을 저질렀고 감옥에 갈 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는 나보다 더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이야기의 어리석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일곱 살의 반항기 많은 소녀가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 단조로움을 깨뜨릴 만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신다면, 당신처럼 총명한 분이라면 금방 짐작가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끔찍한 일들에 정신이 아득해져서, 제 감정을 제대로 읽어내기도 힘듭니다. 지금 이 감정이 가벼운 구애인지, 아니면 찢어진 마음의 고통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우리는 남웨일즈의 작은 해수욕장에 살고 있었습니다. 몇 집 건너에 은퇴한 선장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저보다 다섯 살쯤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가일스가 식민지로 떠나기 전부터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 이야기와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있으므로, 그의 이름이 필립 호커였다고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새우를 잡으러 다녔고,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는 분명히 자신이 사랑한다고 말했고, 저는 분명히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에게 바다에 그을린 곱슬머리와 매처럼 날카로운 얼굴을 가졌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야기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흥미로운 우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여름 오후였다. 필립과 함께 모래사장에서 새우잡이를 하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나는 앞쪽 거실에서 조금 조바심을 내며 기다리고 있었다. 집 뒤쪽에 있는 자신의 어두운 서고와 박물관으로, 방금 사온 동전 봉지들을 하나둘씩 옮기던 아서의 모습을 지켜보며 말이다.

마침내 그가 무거운 문을 닫고 들어서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재빨리 새우잡이 그물과 태모 샹터를 챙겨 막 밖으로 빠져나가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문득 창가 긴 벤치 위에 빛나고 있는 동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아서가 깜빡하고 남겨둔 것이었다.

그것은 청동 동전이었다. 로마식 콧날의 정확한 곡선과, 길고 근육질인 목의 각도가 어우러져 동전 속 카이사르의 얼굴은 필립 호커의 초상화처럼 생생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가일스가 필립에게 자신과 닮은 동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준 일이 떠올랐다. 필립은 그 동전을 갖고 싶다고 했었다.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 것 같았다. 머릿속이 어지러워지는 기이하고 어리석은 생각들이 밀려왔다. 요정들의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 동전을 몰래 가져가 필립에게 건네면, 마치 거친 결혼 반지처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유대가 될 것 같았다. 그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깨닫는 끔찍한 공포가 깊고 넓은 구덩이처럼 나를 삼키려 했다. 무엇보다도 아서가 나를 어떻게 볼지 생각하면, 뜨거운 쇠를 만진 듯 견딜 수 없었다. 카스터스 가문의 도둑! 카스터스 가문의 보물을 훔친 도둑!

그런 일을 저지르면, 아서는 나를 마녀처럼 불태워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광적인 잔혹함을 생각할수록, 나는 그의 칙칙하고 구식인 고고학자적인 집착에 대한 옛 증오가 다시 타올랐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를 부르는 젊음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커져만 갔다.

밖에는 강한 햇살과 바람이 불고 있었다. 정원의 노란 금작화나 가시금작화 한 송이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세상의 모든 황야에서 나를 부르는 살아 움직이는 금빛 자연을 생각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먼지투성이가 되어가는, 형의 차갑고 둔한 동전들을 생각했다.

마침내 자연과 카스터스 컬렉션이 맞서게 되었다.

"자연은 카스터스 가문보다 훨씬 오래됐다. 해안가로 내려가던 길, 주먹에 동전을 꽉 쥐고 달리는 동안, 내 뒤에는 카스터스 가문의 혈통뿐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가 얹힌 것 같은 무거움을 느꼈다. 귀가 울리는 것은 은빛 사자 한 마리의 포효만이 아니었다. 카이사르의 독수리들이 모두 날개를 치며 비명을 지르며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내 마음은 아이의 연처럼 점점 더 높이 떠올랐다. 느슨하고 마른 모래 언덕을 넘어, 평평하고 축축한 모래사장에 다다랐을 때였다. 필립은 이미 바다 쪽으로 백 야드가량 떨어진 얕은 물속에 서서 발목까지 잠겨 있었다.

새빨간 석양이 펼쳐졌다. 반 마일 동안 발목 높이도 안 차오르는 넓은 조수간만의 땅은 마치 루비 빛 불꽃으로 이루어진 호수 같았다. 나는 신발과 양말을 벗어 던지고, 그가 서 있는 곳까지 물속을 헤쳐 들어갔다. 그곳은 마른 땅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다.

그제야 돌아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리는 물과 젖은 모래로 둘러싸인 고독한 원 안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카이사르의 머리를 건넸다."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모래 언덕 너머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다는 기이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곧이어 나는 그 생각이 지나친 과잉 반응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먼 곳의 그는 그저 어두운 점에 불과했고, 나는 그가 고개를 약간

기울인 채 꼼짝도 없이 서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 간신히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그가 나를 보고 있다는 논리적 증거는 전혀 없었다. 그는 배를 보고 있었을 수도 있고, 일몰을, 혹은 바다갈매기를 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우리 사이에 어지러이 떠돌던 다른 사람들 중 한 명을 바라보고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놀람의 근원은 예언적이었다. 내가 그를 응시하는 사이, 그는 넓은 젖은 모래밭을 가로질러 우리를 향해 곧장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점점 더 가까워지자, 나는 그가 수염을 기른 어두운 피부의 남자에다 짙은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머리에 낡은 검은 탑모자를 쓰고 발에는 단단한 검은 부츠를 신은 채, 비록 옷은 초라했지만 품위는 갖춘 차림이었다.

그는 주저하는 기색 없이 곧장 바다로 들어섰다. 그리고 날아가는 총알처럼 흔들림 없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나 침묵하며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무너뜨릴 때, 내게 닥친 그 기괴함과 기적 같은 느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절벽에서 곧장 걸어내려간 듯, 공중을 걸어가면서도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하늘로 날아오른 집이나, 사람의 머리가 몸통에서 떨어진 듯한 기이함이었다.

그는 단지 부츠만 적실 뿐이었지만,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는 악마처럼 보였다. 만약 그가 물가에서 한순간이라도 망설였더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마치 바다 따위는 눈치채지 못한 채, 오직 나만을 바라보는 듯했다. 필립은 몇 야드 떨어진 곳에서 등을 돌리고 그물에 손을 대고 있었다.

그 낯선 이는 계속 다가와, 물이 무릎 중간까지 차오를 때까지 내게서 두 야드 거리까지 접근했다. 그러곤 그는 또렷하게 음조를 맞추며, 다소 점잔 빼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다른 곳에서, 좀 다른 표지가 새겨진 동전을 내어주신다면 불편하시겠습니까?"

그에게서 뚜렷하게 비정상적인 점은 하나를 제외하면 없었다. 그가 쓴 선글라스는 완전히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파란색 유리를 썼을 뿐이었다. 그 안의 눈도 불안하게 굴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단호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검은 수염은 길거나 흐트러진 것이 아니었다. 다만 수염이 뺨뼈 바로 아래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다소 털이 많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피부색은 창백하거나 청자색이 아니라, 오히려 맑고 젊어 보였다. 하지만 그 덕분에 얼굴이 분홍빛과 흰빛이 섞인 밀랍 인형처럼 보였다. 그 묘한 인형 같은 표정이, 나는 알 수 없지만, 오히려 공포를 더 깊게 만들었다.

내가 단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이한 점은 그의 코였다. 모양은 대체로 좋았지만, 코끝이 살짝 옆으로 휘어져 있었다. 마치 코가 아직 연했을 때, 장난감 망치로 한쪽을 툭 치고 만 것처럼 보였다. 이는 거의 기

형이라고 할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어떤 살아 있는 악몽을 느꼈다. 해질녘 붉게 물든 물가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피처럼 붉은 바다에서 으르렁거리며 올라온 지옥의 바다 괴물 같았다.

왜 코에 닿는 그 작은 변화가 내 상상력을 그렇게도 뒤흔들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자신의 코를 손가락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가 방금 그 코를 움직인 것처럼 보였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는 여전히 그 기이하고 도덕적으론 우월한 듯한 어조로 이어갔다. '그것이 제가 그 가족과 연락해야 하는 필요성을 없앨 수 있다면.'"

그때야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청동 조각을 훔친 것을 빌미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까지 나를 괴롭히던 초자연적인 두려움과 의심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하나뿐인 현실적인 의문만 남았다.

그는 어떻게 내가 훔쳤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나는 그 물건을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즉흥적으로 훔쳤다. 나는 분명히 혼자였다. 필립을 만나러 이렇게 나설 때는 항상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썼기 때문이다. 거리에서 내가 뒤를 따라오는 사람도 없었다. 만약 누군가 뒤를 쫓았다 해도, 내 주먹에 꼭 쥐인 동전을 엑스레이로 비출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모래 언덕에 서 있는 남자가 필립에게 건넨 물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동화 속 화살꾼이 파리의 한쪽 눈을 쏘아 맞힐 수 있다는 말과 다를 바 없었다.

"필립, 내가 간신히 외쳤다.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봐.'"

필립이 마침내 그물을 고치던 중 고개를 드는 순간, 그의 얼굴은 약간 붉어졌다. 화가 난 듯하거나 부끄러운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허리를 굽히는 힘듦 때문일 수도 있고, 붉게 물든 저녁 빛 때문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내 주변을 맴돌던 또 다른 병적인 망상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는 그 남자에게 거친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이곳에서 나가."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손짓하며, 더 이상 그 남자에게 신경 쓰지 않은 채 해변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모래언덕 뿌리 사이로 뻗어 나온 방파석 돌담 위에 올랐다. 그리고는 집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다. 아마도 그 남자가 우리처럼 젊고 익숙하지 않아서, 해초로 미끄럽고 거친 돌 위를 걷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괴롭히는 자는 그가 말하듯 발걸음도 가볍고 우아했다. 그는 여전히 우리를 뒤따랐다.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기며, 말도 조심스럽게 골랐다.

내가 모래언덕 정상에 올랐을 때, 그의 날카롭고도 혐오스러운 목소리가 내 어깨 너머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마침내 필립

의 인내심이 한계까지 달했다. 필립은 평소에는 그리 두드러지지 않던 인내심이 마침내 터져 나온 것이다.

그가 갑자기 돌아서며 말했다. "돌아가. 지금 너와 이야기할 수 없어."

그 남자가 망설이며 입을 열려 하자, 필립은 그의 입을 강하게 후려쳤다. 그 한 방에 그 남자는 가장 높은 모래언덕 정상에서 바닥으로 날아갔다. 나는 그가 아래에서 모래투성이가 된 채 기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 일은 어쩐지 나를 위로해 주었다. 비록 내 위태로움을 더 키울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필립은 자신의 업적에 대해 평소 보이던 기쁨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어딘지 우울해 보였다. 내가 그에게 제대로 물어보기 전에, 그는 자신의 대문에서 나를 작별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한 말을 남겼다.

그는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내가 동전을 컬렉션에 다시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은 당분간 그것을 간직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리고 갑자기, 그리고 전혀 관련 없는 말을 덧붙였다. "길스가 호주에서 돌아왔다는 거 알아?"

여관 문이 열리자, 거대한 형체를 지닌 형사 플랑보의 그림자가 식탁 위로 길게 늘어졌다. 브라운 신부는 특유의 가냘프면서도 설득력 있는 어조로 그에게 이 여인을 소개했다. 그런 사건들을 다뤄본 자신의

경험과 동정심을 언급하며 말이다. 신부도 모르게, 소녀는 곧 두 명의 청중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플랑보는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는 틈을 타, 신부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신부는 다소 놀란 표정으로 그 쪽지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었다.

"와가-와가행 택시, 푸트니 마페킹 가 379번지."

소녀는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나는 머리가 어지러울 대로 어지러운 채, 가파른 언덕을 따라 내 집으로 올라갔다. 문턱에 닿았을 때까지도 정신은 좀처럼 맑아지지 않았다. 그곳에서 나는 우유 통 하나와, 코가 휘어진 남자를 발견했다.

우유 통을 보니 하인들은 모두 집을 비운 상태였다. 물론, 갈색 로브를 걸친 채 멍하니 서성이는 아서 형제는, 골똘한 상념에 잠겨 있어 종소리도 듣지 못했고 대답도 하지 않을 터였다.

집안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오직 형제뿐이었지만, 그의 도움은 곧 나의 파멸을 의미했다.

절박한 마음에 나는 두 실링 동전을 그 불쾌한 남자의 손에 쥐여주며, 며칠 후 다시 오라고 말했다. 그때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 두겠노라고.

그는 삐진 듯이 떠났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수줍은 태도였다. 아마도 그가 떨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뒤돌아선 그의 등에 번진 모래 별자리가 길 아래로 멀어져 가는 모습을 묘한 복수심에 젖어 바라보았다. 그는 여섯 집쯤 떨어진 곳에서 골목을 돌아 사라졌다.

"그때 나는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와 차를 끓여 마시며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다. 거실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기 직전, 마지막 빛이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너무 정신이 팔려 있고 몽롱해서 잔디밭이나 꽃병, 꽃밭에 집중할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그 충격을 더 선명하게 느꼈다. 그것을 너무 천천히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쫓아낸 그 남자, 혹은 괴물이 정원 한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우리는 어둠 속의 창백한 유령 이야기에 익숙하다. 하지만 그것은 그런 어떤 것보다도 더 끔찍했다. 그가 긴 저녁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따뜻한 햇살 속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지도 않았다. 대신 이발사 가게의 가짜 머리 모형처럼 왁스 같은 광채가 돌고 있었다. 그는 내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려,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튤립과 키가 크고 화려하며, 거의 온실 꽃처럼 보이는 그 꽃들 사이에 그가 서 있는 모습은 정말 끔찍했다. 마치 우리 정원 한가운데에 동상 대신 왁스 인형을 세워둔 것처럼 보였다.

그가 내 움직임을 창문 너머로 본 순간,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뒷문으로 뛰쳐나갔다. 문은 열려 있었고, 그는 분명 그 문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바다로 뛰어들 때의 도발적인 태도와는 사뭇 다른, 그의 이런 또다시 나타난 겁쟁이 같은 태도는 나를 묘하게 안도하게 했다. 아마도 내가 아는 것보다 그가 아서와 마주치는 것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나는 결국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혼자 저녁을 먹었다. 아서가 박물관을 재배열 중일 때는 그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의 끈이 조금 풀리자, 내 마음은 필립에게로 날아갔고, 아마도 거기에 흩어졌을 것이다.

어쨌든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커튼은 걷혀 있었지만, 밤이 완전히 내려앉아 창문은 검은 슬레이트처럼 어두워졌다. 유리의 바깥쪽에 달팽이 같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더 자세히 응시하자, 그것은 달팽이보다는 유리창에 눌린 사람의 엄지손가락처럼 보였다. 엄지손가락이 가지는 특유의 말린 모양이었다.

두려움과 용기가 동시에 되살아났다. 나는 창문 쪽으로 돌진했다가, 아서를 제외한 그 누구든 들었을 법한 질식할 듯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것은 엄지가 아니었다. 달팽이도 아니었다. 그것은 유리에 짓눌린 구부정한 코끝이었다. 압력으로 인해 하얗게 질려 보였다. 그 너머로 응시하던 얼굴과 눈동자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다가, 이내 유령처럼 회색빛으로 변했다. 나는 어찌어찌 창문을 닫고, 방으로 뛰어 올라가 문을 잠그었다. 그러나 지나가던 순간,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검은 창문에도 달팽이와 같은 무언가가 붙어 있다는 것을.

결국 아서에게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만약 그 무언가가 고양이처럼 집 주변을 기어 다니고 있다면, 단순한 협박보다 더 나쁜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 내 형제는 나를 쫓아내고 영원히 저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신사였기에, 그 자리에서 나를 변호해 줄 것이다. 십 분 동안 고민한 끝에, 나는 내려가 문을 두드린 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형님의 의자는 비어 있었고, 그는 분명히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그런데 코가 휘어진 남자가 형님의 귀가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건방지게 모자를 쓴 채, 형님의 램프 아래에서 형님의 책 한 권을 읽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고, 무언가에 몰두해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코끝만은 얼굴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부분처럼 보였다. 코가 코끼리 코처럼 좌우로 살랑거리는 듯했다. 그가 나를 쫓고 지켜볼 때만 해도 나는 그를 충분히 독이 든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있는 줄도 모른 채 그가 저렇게 무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 일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가진 모든 돈을 건넸습니다. 지폐도 많았죠. 비록 그 돈은 제 것이었지만, 제가 만져도 되는 돈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끝내 떠났습니다. 길고 딱딱한 말로 혐오스럽지만 정중한 유감을 남기며 말이죠. 저는 모든 면에서 파산한 기분이 들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날 밤, 순수한 우연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서는 평소처럼 갑자기 런던으로 장사를 떠났다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환한 표정이었죠. 가족의 컬렉션에 또 하나의 빛을 더할 보물을 거의 손에 넣은 듯했습니다. 그는 너무도 빛나서, 저는 작은 보석을 훔친 사실을 고백할 용기를 거의 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압도적인 계획들로 다른 모든 화제를 압도했습니다.

그 거래가 언제든 무산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는, 즉시 짐을 싸서 자신과 함께 풀럼의 숙소로 올라가자고 고집했습니다. 그곳은 문제의 골동품 가게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밤중 중반쯤에 적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필립에게서도 도망친 것이었죠.

제 형은 남켄싱턴 박물관에 자주 갔습니다. 저는 어찌어찌 두 번째 삶을 살아가고자, 미술 학교에서 몇 수업을 듣기 위해 돈을 내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그 수업에서 돌아오다가, 긴 직선 거리로 걸어오는 생생한 '황폐함의 가증스러운 것'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이 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할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저의 형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이 형벌은 정당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터질 듯이 고민되는 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말입니다. 제가 기적으로 벌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필립과 저 말고

누가 바다 한가운데서 제가 그에게 작은 동전을 건넸는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이상한 문제군요." 플랑보가 인정했다.

"답변만큼은 특별하지도 않소." 브라운 신부가 다소 우울한 어조로 말했다. "캐어스타스 양, 한 시간 반 뒤에 풀럼의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때 계실 수 있겠소?"

소녀는 그를 바라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장갑을 끼었다.

"네, 가겠습니다."

그녀가 짧게 대답하자, 그녀는 거의 즉각적으로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형사와 신부는 풀럼의 저택에 다다를 무렵까지도 그 일을 두고 수군거렸다. 그곳은 카스타이어스 가문의 임시 거처로 쓰이긴 했지만, 기이할 정도로 초라한 빌라였다.

"물론, 피상적으로 곰곰이 따져 보면 말이죠." 플랑보가 말했다. "그동안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던 그 호주인 형제를 먼저 떠올릴 테니까요. 갑자기 돌아왔고, 더러운 공범자들을 거느릴 만한 남자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형제가 어떻게 이 일에 관여할 수 있는지, 어떤 논리로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그래?" 동료가 인내심을 가지고 물었다.

플랑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소녀의 연인도 함께 끼어들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훨씬 더 악랄한 악당이 되겠죠. 호커가 동전을 원한다는 사실을 그 호주 녀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커가 그 동전을 실제로 손에 넣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호커가 해변 너머로 그 호주인이나 그의 대리인에게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제는 존경 어린 어조로 동의했다.

"다른 것도 눈치채셨습니까?" 플랑보가 재촉하듯 물었다. "이 호커는 연인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도, 바로 때리지 않는다. 대신 부드러운 모래 언덕으로 가서야 싸움을 건다. 그곳이라면 가짜 싸움이라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암벽과 파도 사이에서 싸웠다면, 그는 자신의 동맹자에게 해를 입혔을지도 모른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자. 이 비밀은 소수 사람만이 알고 있지만, 적어도 세 사람은 관여하고 있어. 자살을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필요하지. 살인이라면 두 사람. 하지만 협박을 위해서는 적어도 세 사람이 필요해."

"왜요?" 신부는 부드럽게 물었다.

"당연하지," 친구가 외쳤다. "드러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드러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적어도 드러나는 것을 끔찍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신부는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문을 열었다.

"논리의 한 단계를 놓치고 계십니다. 아이디어로써는 세 사람이 필요하지만, 실제 실행자로써는 두 사람만으로도 충분하죠."

"무슨 뜻이오?" 다른 쪽에서 물었다.

"왜 협박꾼이 자신의 피해자를 그 자신으로 위협하지 못하겠습니까?" 브라운 신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아내가 남편의 술집 출입을 숨기게끔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 완강한 금주주의자가 되었다고 해 봅시다. 그리고는 다른 필체로 협박 편지를 써서 남편을 아내에게 고발하겠다고 위협한다면요. 그게 먹히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도박을 금지한 뒤, 훌륭한 분장을 하고 아들을 따라가서 자신의 가짜 엄격함을 내세워 아들을 협박한다면요. 그러니 만약-- 하지만 여기가 우리 목적지입니다, 친구."

"세상에!" 플랑보가 외쳤다. "당신은 그걸……"

한 남자가 활발한 걸음으로 집의 계단을 내려왔다. 그의 머리모양은 황금빛 등불 아래에서 로마 동전과 닮았다는 것이 분명한 모습이었다. "캐어스타스 양은 당신들이 올 때까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으셨어요." 호커는 예의 없이 말했다.

"글쎄요," 브라운 신부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분께서 당신 곁에서 밖에서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요? 당신께서 이미 다 알아차리셨을 테니까요."

"네," 젊은이가 낮게 말했다. "모래사장에서 짐작했어. 이제 알았지. 그래서 그가 부드럽게 쓰러지도록 둔 거야."

플랑보는 소녀에게서 열쇠를, 호커에게서 동전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그는 친구와 함께 빈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바깥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는 단 한 명의 인간만이 있었다. 브라운 신부가 여관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본 그 남자는, 마치 포위된 짐승처럼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는 변함없는 모습이었다. 다만 검은 코트를 벗고 갈색 가운을 걸친 것 말고는.

"이 동전을 원래 주인께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정중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코가 큰 남자에게 동전을 건넸다.

플랑보의 눈이 동그래졌다. "이 남자가 동전 수집가라도 한 건가?" 그가 물었다.

"이 분은 아서 카스터스 씨입니다." 신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좀 특이한 종류의 동전 수집가예요."

그 남자의 얼굴이 기이할 정도로 새파랗게 질렸다. 굽은 코가 마치 별개의, 코믹한 존재라도 된 듯 얼굴에서 돋보였다. 그럼에도 그는 절망적인 위엄을 담아 입을 열었다.

"보시겠습니다. 제가 집안의 기질을 조금도 잃지 않았음을."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고, 문을 세게 닫았다.

"저자를 막으시오!" 브라운 신부가 외치며 의자를 넘어지며 뛰어올랐다. 몇 번이나 몸부림친 끝에 플랑보가 간신히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플랑보는 죽은 듯한 침묵 속에서 방을 가로질러 달려가 의사와 경찰을 전화로 요청했다.

빈 약병이 바닥에 놓여 있었다. 테이블 너머, 갈색 드레싱 가운을 입은 남자의 시체가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터지고 갈라진 갈색 종이 포장지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 포장지들에서는 고대 로마 동전이 아니라, 매우 현대적인 영국 동전들이 쏟아져 나왔다.

신부는 카이사르의 청동 두상을 들어 올렸다.

"이것, 바로 카스타스 컬렉션의 유일한 유물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말을 이었다.

"그 악독한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은 잔인하기 그지없었소. 그리고 당신은 그가 그것을 조금은 원망했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는 자신이 가진 로마의 돈, 즉 가짜 돈을 증오했고, 자신에게서 박탈당한 진짜 돈에 더 끌리게 되었소. 그는 컬렉션을 조각조각 팔아치우는 데 그치지 않았소. 더 나아가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길로, 심지어는 정체를 숨긴 채 자신의 가족을 협박하는 길까지 추락했소.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형을 협박했소. 형이 저지른 잊혀진 작은 죄를 빌미로 말이오. 그것이 그가 퍼트니의 와가 와가로 택시를 타고 갔던 이유요. 그는 누이동생도 협박했소. 오직 그 자신만이 눈치챌 수 있었던 도둑질을 빌미로 말이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그가 사구에서 떠났을 때, 그녀가 초자연적인 직감을 느꼈던 이유이기도 하소. 멀리서 본 사람의 형체와 걸음걸이는, 가까이서 본 단정하게 꾸민 얼굴보다 오히려 누군가를 더 잘 떠올리게 마련이오."

또 한 번 침묵이 흘렀다.

"그래," 형사가 투덜거렸다. "그렇게 위대한 동전 수집가라니, 결국은 천박한 구두쇠에 불과했군."

"그렇게 큰 차이인가요?" 브라운 신부가 똑같은 기이하면서도 너그러운 어조로 물었다. "구두쇠가 저지르는 잘못과 수집가가 저지르는 잘못이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잘못일까? 오직 '너는 자신을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계명 외에는…… 하지만 우리는 가서 그 젊은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봐야겠군."

"제 생각엔," 플랑보가 말했다.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마도 아주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일곱 번째 이야기 — 자줏빛 가발

「데일리 리포머」의 부지런한 편집자 에드워드 너트 씨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읽고 교정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서는 힘찬 손놀림을 하는 젊은 여성이 타자기를 치고 있었고, 그 소리는 경쾌한 리듬을 타고 있었다.

그는 살이 좀 찐 금발의 남자로,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다. 그의 동작은 단호했고, 입매는 굳게 다물렸으며, 목소리에는 더 이상 논할 여지가 없다는 듯한 끝맺음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동그랗고 다소 갓난아이 같은 푸른 눈빛은 어지럽고 심지어 애틋한 빛을 띠고 있어, 그 단호한 태도와는 정반대의 인상을 주었다.

실제로 그의 표정은 결코 오해의 소지가 없었다. 많은 권위 있는 언론인들처럼, 그에게 가장 흔히 찾아오는 감정은 지속적인 공포였다.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두려움, 광고주 이탈에 대한 두려움, 오타에 대한 두려움, 해고에 대한 두려움.

그의 삶은 끊임없는 타협의 연속이었다. 신문 소유주이자 그를 고용한 사장은 노쇠한 비누 제조업자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세 가지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반면, 그는 신문을 훌륭하게 운영할 수 있는 유능한 직원들을 모아두었다. 그중 일부는 재능 있고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이었고, 더구나 (그것은 더 큰 문제였지만) 신문의 정치 노선에 진심으로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다.

그 앞에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빠르고 단호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편지를 뜯기 직전,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대신 그는 교정쇄 한 장을 들어 올렸다. 파란 눈으로 그것을 훑어내려가며, 파란 연필로 단어를 고쳤다. '간음(adultery)'을 '부적절함(impropriety)'으로, '유대인(Jew)'을 '외국인(Alien)'으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종을 울려 보냈다. 교정쇄는 곧장 위층으로 날아갔다.

그는 더 진지한 눈빛으로, 더 저명한 기고자로부터 온 편지를 뜯어들었다. 그 편지에는 데본셔의 소인이 찍혀 있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너트에게,

당신이 '유령'과 '귀족'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는 걸 보니, 엑스모어의 에이어 가문의 그 기이한 사건에 대해 한 번 써보는 건 어떨까? 현지 노부인들은 이를 '에이어의 악귀의 귀'라 부르더라.

당신도 알다시피, 이 가문의 수장은 엑스무어 공작이다. 그는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진정으로 구시대적인 토리 귀족 중 한 명이다. 묵직하고 단단한, 그러니까 우리가 골치를 썩이기에 딱 좋은 구식 폭군이지.

나름대로 골치 아픈 이야기를 파고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은 분명 큰 소동을 일으킬 거야.

물론 저는 제임스 1세에 관한 옛 전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아무것도 믿지 않죠. 신문 기사조차 믿지 않는군요.

그 전설은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영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프랜시스 하워드라는 마녀의 고양이에게 오버버리를 독살당한 일, 그리고 왕이 살인자들을 용서하도록 강요한 그 묘한 공포 말입니다. 그 사건에는 수많은 마술적 요소들이 얽혀 있었죠.

전설에 따르면, 한 하인이 자물쇠 구멍을 통해 왕과 카 사이의 대화를 엿듣고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인의 귀는 그 끔찍한 비밀을 듣자마자 마법처럼 기형적으로 커졌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막대한 토지와 금전을 받고 공작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 요정 모양의 귀는 여전히 그 가문에 되풀이되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물론 당신은 흑마술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믿는다 해도, 그것을 기사거리로 쓸 수는 없겠죠. 만약 사무실에서 기적이 발생한다 해도, 이제 많은 주교들이 무신론자가 된 마당에 당신은 그것을 숨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엑스무어와 그 가문에게 무언가 기이한 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만, 매우 비정상적이죠.

어쨌든 그 '귀'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징이거나, 환상이거나, 질병이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말입니다.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제임스 1세 시대가 막 시작된 직후, 왕당파들은 초대 엑스무어 경의 귀를 가리기 위해 머리를 길게 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물론 상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이 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귀족 계급을 무조건 공격할 때, 그들의 샴페인과 다이아몬드에만 집중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부러워하기 마련이지만, 귀족 계급이 귀족 자신들까지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것이다.

나는 몇몇 거대한 저택들이 지니고 있는 그 지루하고, 비인간적이며, 도저히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악마적인 냄새와 분위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연재 기고안을 제안한다.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에이어 가문의 귀만큼 좋은 시작점은 없을 것이다. 이번 주 안으로 나는 그 사건의 진상을 너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원한 당신의 친구, 프랜시스 핀

너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자신의 왼쪽 부츠를 응시했다. 그러곤 강하고 큰, 하지만 전혀 생기가 없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 목소리의 모든 음절이 똑같이 들렸다.

"바로우 양, 핀 씨에게 편지를 써 주세요."

핀에게,

이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오후 우편으로 원고가 도착하면 됩니다.

그럼 이만, E. 너트

그는 그 정교한 편지를 마치 한 단어인 양 한 번에 뱉어냈다. 바로우 양도 그 편지를 마치 한 단어인 양 빠르게 받아 적었다. 그러자 그는 또 다른 교정쇄와 파란색 연필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초자연적인'이라는 단어를 '기이한'으로, '총격하다'라는 표현을 '억누르다'라는 표현으로 고쳤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에 빠져 지내던 너트 씨는, 이어지는 토요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같은 책상 앞에 앉아, 같은 타자원을 지시하며, 같은 푸른색 연필을 들고 핀 씨의 폭로 기사 첫 회분을 손보고 있었다.

서두는 왕족들의 악한 비밀과 지상 고위층의 절망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가득했다. 글은 격정적으로 쓰였지만, 영어 문장은 훌륭했다. 다만 편집장은 평소처럼 이를 소제목으로 나누는 일은 남에게 맡겼다. 그 소제목들은 훨씬 자극적이었다. '귀족 부인과 독약', '기이한 귀', '독수리의 둥지인 에이어 가문' 등등. 백 가지가 넘는 재치 있는 변주가 이어졌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핀 씨의 첫 번째 편지에서 보강된 '귀'에 대한 전설이었다. 그 뒤를 이어 그의 이후 발견들의 핵심 내용이 다음과 같이 실렸다.

기자들 특유의 습관이라곤, 사건의 결말을 앞세워 헤드라인 삼는 짓이다. '존스 경 사망'이라는 소리를, 존스 경이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에게 퍼뜨리는 것이 언론의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금 이 기자의 생각은 다르다. 이런 관행은 다른 언론 풍습들과 마찬가지로 나쁜 저널리즘이다. 일일 개혁일보는 이런 점에서 더 나은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그는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이다. 당사자들의 실제 이름을 사용하며, 대부분의 당사자는 그의 증언이 맞다는 것을 곧바로 확인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헤드라인, 즉 선정적인 선언문들은 마지막에 실릴 것이다.

데본셔의 사이다를 연상시키는 길로 이어지는 듯한, 사적인 데본셔 과수원을 지나는 공중 도보를 걷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 길이 예고하던 바로 그런 장소를 마주쳤다.

그것은 길고 낮은 여관이었다. 사실은 오두막 한 채와 두 개의 창고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붕은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라났을 듯한, 갈색과 회색이 섞인 짚으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문 밖에는 '푸른 용(Blue Dragon)'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 간판 아래에는 예전 영국 여관 대부분 앞에 서 있던 긴 목재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금주주의자들과 맥주 양조업자들이 힘을 합쳐 자유를 파괴하기 전까지, 그곳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 테이블에는 세 명의 신사가 앉아 있었다. 마치 백 년 전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이었다.

이제 그들을 더 잘 알게 되었으니, 그 인상들을 분리해 내는 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바로 그때는, 그 세 사람이 아주 단단한 유령처럼 보였다.

세 사람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세 차원 모두에서 더 컸고, 테이블 한가운데에 앉아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키가 크고 살찐 남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을 입었다. 얼굴은 붉게 충혈된 듯했으며, 마치 뇌출혈이 올 듯한 인상이었다. 하지만 이마는 상당히 벗겨져 있었고, 눈에는 번민이 서려 있었다.

그를 다시, 더 자세히 바라보았다. 고대적인 느낌을 주었던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의 흰 사제용 넥타이가 고풍스러운 스타일이었고, 이마를 가로지르는 주름이 그런 인상을 주었을 뿐이다.

테이블 오른쪽 끝자락에 앉은 남자에 대해서는 더더욱 감을 잡기 어려웠다. 솔직히 그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평범한 사내였다. 둥글고 갈색 머리에, 둥글고 뭉툭한 들창코가 특징이었다. 하지만 그가 입은 것은 더 단단하게 재단된 검은 성직자복이었다.

그가 고대 사람과 연결되어 보인 이유를 나는 알지 못했다. 그가 테이블 위에 넓적하고 곡선적인 모자를 내려놓은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로마 가톨릭 신부였다.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있던 세 번째 남자가 나머지 사람들보다 이 일에 더 깊게 관여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신체적으로도 야위었고, 옷

차림은 더 무심했다. 그의 늘씬한 팔다리는 매우 타이트한 회색 소매와 바지에 감싸인 듯, 아니 오히려 쥐어짜인 듯했다. 그는 길고 창백하며 부리부리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목도리와 칼라가 그의 턱을 꽉 조이고 있어 그의 표정이 한층 더 우울해 보였다. 그의 머리카락은 본래 짙은 갈색이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흐릿한 적갈색을 띠고 있었다. 노란 얼굴과 어울려 붉기보다는 보라색으로 보였다. 이 눈에 띄지 않지만 특이한 색상은 그의 머리카락이 지나칠 정도로 건강하고 곱슬거렸으며, 풍성하게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졌다.

하지만 모든 분석을 끝내고 나니, 나에게 첫 번째로 낡고 정통적인 인상을 심어준 것은 단순히 키가 크고 구식인 와인 잔 몇 개와 레몬 한두 개, 그리고 두 개의 긴 처치워든 파이프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내가 찾아온 그 옛날 방식의 용무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단단하게 다져진 기자였다. 그리고 이곳은 분명 공공의 여관이었다. 그래서 나는 긴 식탁에 자리를 잡고 사이더를 주문할 때, 그리 많은 뻔뻔함을 끌어낼 필요가 없었다.

검은 옷을 입은 큰 키의 남자는 매우 학식 있어 보였다. 특히 지역의 고대 유적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다. 반면, 작은 키의 검은 옷 남자는 말을 적게 했지만, 그 폭넓은 교양은 오히려 나를 더 놀라게 했다.

우리는 아주 잘 어울렸다. 하지만 세 번째 남자, 즉 타이트한 바지를 입은 노신사는 다소 거만하고 냉담해 보였다. 내가 엑스무어 공작과 그의 혈통 이야기를 꺼냈을 때, 비로소 그의 태도가 달라졌다.

주제가 다른 두 사람에게 약간의 당혹감을 안겨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세 번째 남자의 침묵을 가장 효과적으로 깨뜨렸다. 그는 절제된 어조로, 그리고 매우 교양 있는 신사의 억양으로 말하며, 길고 뾰족한 처브워든 파이프를 가끔씩 피웠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평생 들어본 가장 끔찍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들려주었다. 한때 에이어 가문의 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교수형에 처했다는 이야기, 또 다른 사람은 아내를 수레 꽁무니에 묶어 마을을 돌아다니며 채찍질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이들이 가득한 교회에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 등등.

사실 일부 이야기들은 공공의 앞에 내놓기에는 부적절하다. '스칼렛 수녀들'의 이야기라든가, 끔찍하기 그지없는 '반점 있는 개'의 일화, 혹은 채석장에서 벌어진 일을 들자면 그렇다.

그는 키가 크고 가느다란 잔에 담긴 와인을 한 모금 들이키며 앉아 있었다. 얇고 우아한 입술에서, 그 모든 경건치 못한 일들의 붉은 줄기가 오히려 단정한 투로 들려졌다.

그 맞은편의 큰 키의 남자는 무언가 그걸 막으려 애쓰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노신사를 꽤나 존경하고 있었기에, 너무 갑작스럽게 그런 행동을 하기는 꺼려하는 눈치였다. 반면,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있는 작은 신부는 그런 어색함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을 똑바로 응시하며, 몹시 괴로워하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했다 — 그럴 만도 했다.

"당신은 엑스무어 혈통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 같군요." 내가 이야기꾼에게 말했다.

그가 나를 잠시 바라보았다. 입술은 여전히 단정하게 다물고 있었지만, 하얗게 질리고 굳어갔다. 그러더니 그는 차분히 긴 담배 파이프와 잔을 테이블 위에서 부수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모습은 완벽한 신사의 풍모를 띠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악마 같은 성냄이 서려 있었다.

"이 분들이 제게 그걸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래된 에이어 가문의 저주가 이 땅에 무겁게 내려앉았다는 것.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다는 것.

"나만큼 그 저주에 시달린 이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곤,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발꿈치로 짓뭉갰다. 이어 반짝이는 사과나무들 사이로 드리운 푸른 황혼빛 속을 힘차게 걸어나갔다.

"저 노신사는 참으로 기이한 분이시군." 내가 옆에 있던 두 사람에게 말했다. "엑스무어 가문이 그분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아나? 그분이 누구인지도 궁금하군."

검은 옷을 입은 그 큰 남자는 당황한 황소처럼 광기 어린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처음에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듯했다.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시오?”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러자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작은 신부가 여전히 식탁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저 사람이 엑스무어 공작이오.”

그가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잇기 전에, 나는 정신을 차릴 새도 없었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여기 계신 분은 공작의 사서인 멀 박사이오. 제 이름은 브라운입니다."

“하지만,” 내가 더듬거렸다. “그가 그 공작이라면, 왜 모든 옛 공작들을 저토록 저주하는 겁니까?”

“정말 저주라도 받았다고 믿는 모양이오.” 브라운 신부가 대답했다. 그러더니 문맥에서 살짝 벗어난 말을 덧붙였다. “그래서 가발을 쓰는 거지.”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는 데 몇 초가 걸렸다.

“저 ‘신기한 귀’에 대한 그 우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물론 그 이야기는 들었지만, 분명히 훨씬 단순한 사실에서 비롯된 미신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때로는 그런 절단 사건들의 과장된 버전이

아니었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16세기에는 범죄자들의 귀를 잘라내기도 했으니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작은 남자가 생각에 잠긴 듯이 말했다. "하지만 가족 중에 특정 기형이 자주 나타나는 것은 자연 법칙이나 상식적인 과학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귀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크다든가 하는 것처럼요."

덩치 큰 사서는 큼직한 붉은 손으로 큼직한 벗어진 이마를 감쌌다. 마치 자신의 의무를 깊이 생각하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아니요." 그가 신음하듯 말했다. "당신은 결국 그 남자에게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제가 그를 변호할 이유도, 심지어 그를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는 저에게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폭군이었죠. 그가 여기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그가 그 단어의 가장 나쁜 의미에서 '위대한 경'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한 남자를 마일이나 떨어진 곳까지 부른 다음, 단 한 야드 떨어진 곳에서 종을 울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다른 남자를 삼 마일이나 떨어진 곳까지 부르고, 그 남자가 다시 세 야드 떨어진 곳에서 성냥갑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는 지팡이를 들어 올릴 하인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오페라글라스를 들고 있을 하인도 필요하죠."

"하지만 옷을 빗겨줄 하인까지는 없었지." 신부가 묘하게도 건조한 어조로 말을 끊었다. "하인이 있다면 그의 가발도 빗겨주었을 테니까."

사서(司書)가 그를 돌아보며 내 존재를 잊은 듯했다. 그는 크게 감동한 듯했고, 나는 그가 술기운도 약간 오른 것 같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브라운 신부." 그가 말했다. "하지만 맞습니다. 그는 세상 전체가 자신을 위해 모든 일을 해 주게 놔둡니다. 다만 옷 입히는 일만큼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가 마치 사막 같은 고독 속에서, 글자 그대로 혼자서 해내려 하지요. 그의 옷방 문 근처에 서 있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분, 참 괜찮은 노신사시네요." 내가 말했다.

"아니오," 멀 박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그에게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여러분, 공작은 지금 내뱉은 저주에 대한 쓴맛을 진정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수치심과 공포로, 그 보라색 가발 아래에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사람의 아들들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가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단순히 자연적인 기형, 예를 들어 범죄자의 신체 절단형나 유전적인 얼굴 불균형과 같은 것이 아님을 압니다. 저는 그것이 그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어떤 남자가 저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증언했는데, 그 장면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에서는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강한 한 남자가 비밀에 맞서려 했지만, 결국 두려움에 떨며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내가 입을 열려던 순간, 멀은 내 존재를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의 손이 만든 동굴 같은 공간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부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작님을 팔아먹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난한 공작님을 옹호하기 위한 일입니다. 공작님이 거의 모든 재산을 잃어갈 뻔했던 적, 들어보셨습니까?"

신부는 고개를 저었다. 사서(司書)는 그제야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같은 자리였던 전임자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전임자는 자신을 후원하고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사서는 그 스승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눈치였다.

이야기는 어느 지점까지 가면 아주 흔한 수법이었다. 명문가의 몰락,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가문 변호사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의 변호사는 한 가지 재주가 있었다. 표현이 적절하다면, '성실하게 속이는' 능력이랄까.

그는 맡겨진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다. 대신 공작의 나태함을 틈타 가문을 재정적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그렇게 되면 가문은 결국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되니까.

변호사의 이름은 아이작 그린이었다. 하지만 공작은 그를 엘리샤라고 불렀다. 그가 서른도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탈모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매우 빠르게 성공했지만, 시작은 매우 더러운 곳이었다. 그는 먼저 '나크', 즉 고발자나 정보원으로 일했고, 그 다음에는 금전 대여업을 했다. 그러나 에이어 가문의 법률 고문으로서 그는

기술적으로 정직하게 행동하며 최종 타격을 가할 준비를 했다. 그 타격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노년 사서였던 그는 작은 변호사가 큰 토지 소유자에게 그들 사이에 소유권을 반으로 나누자는 제안을 할 때, 그의 안정적인 미소와 함께 전등갓과 데캔터의 모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일수는 결코 간과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공작은 죽은 침묵 속에서 그 남자의 탈모된 머리에 데캔터를 갑자기 부수었기 때문이다. 그날 과수원에서 그가 유리잔을 부수던 것처럼 갑자기. 그 데캔터는 두개골에 붉은 삼각형 흉터를 남겼고, 변호사의 눈은 변했지만 그의 미소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런 남자들답게, 그는 주먹을 휘둘렀다.

"그래, 다행이야." 그가 말했다. "이제 내가 전체 재산을 가져갈 수 있거든. 법이 그걸 나에게 줄 테니까."

엑스무어는 재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법정이 그걸 당신에게 내려줄 겁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그건 저에게 최후의 심판의 나팔소리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걸 받아들이려 한다면, 저는 가발을 벗어 던질 겁니다."

"하, 불쌍하게도 깃털이 다 빠진 닭처럼 생겼군요. 누구나 당신의 맨 머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리를 본 자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멀은 그것이 엄숙한 사실이라고 단언합니다. 변호사는 잠시 공중으로 주먹을 쥐어 흔들고는 그대로 방을 뛰쳐나와 다시는 그 시골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엑스무어는 지주이자 지방 법관으로서보다 마법사로서 더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멀 박사는 다소 과장되고 연극적인 제스처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의 말투에는 적어도 편파적인 열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이 이야기가 모두 한낮 옛날 자랑꾼과 수군수군거리는 노인의 과장된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밝혀낸 사실의 절반을 여기서 끝내기 전에, 멀 박사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 그의 진술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증거를 기록해 두어야겠다.

첫째, 마을의 한 옛 약사로부터 들은 말이다. 그는 어느 날 밤, 이마에 세모난 상처를 입은 남자가 찾아와 반창고를 붙여 달라고 했다고 했다. 그 남자는 대머리였고, 야회복을 입었으며, 그린(Green)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둘째, 법적 기록과 옛 신문 기사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엑스무어 공작을 상대로 그린이라는 인물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했고, 적어도 소송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데일리 리포머의 너트 씨는 원고지 위에 아주 어색한 글들을 큼직하게 적었다. 이어 옆구리에는 신비로운 표식들을 남겼다. 그리고 똑같이 크고 단조로운 어조로 미스 밸로를 불렀다.

"핀 씨에게 보낼 편지를 받아써요."

핀에게,

네가 보내준 원고는 괜찮아. 다만 제목을 조금 다듬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우리 독자들은 이야기 속에 로마 가톨릭 신부가 등장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

교외 독자들을 늘 염두에 둬야 해.

그리하여 나는 그를 가톨릭 신부에서 '브라운 씨'로 바꾸었다. 영매술을 믿는 사람으로 설정한 거야.

귀하의,

E. 너트.

이틀 후쯤, 활달하고 식견이 깊은 편집자는 파란 눈을 더욱 동그랗게 부릅뜨며 핀 씨가 쓴 상류 사회의 미스터리 이야기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솔직히 말해,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 대중에게 훨씬 더 실감 나는 충격을 줄 것이다. 겸손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지금 쓰는 이 글은 유럽 전역은 물론, 미국과 식민지 전체에서 읽힐 것이라고 자신한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작은 나무 테이블, 그리고 이 사과나무 숲에서 내가 떠나기 전에 모두 들었던 것이다.

전부 작은 신부 브라운 덕분입니다. 그는 경이로운 분이에요.

큰 키의 사서는 긴 수군거림에 부끄러웠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비한 주인이 사라진 폭풍우를 걱정했는지, 테이블을 떠나 나갔습니다. 어쨌든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공작 뒤를 따라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레몬 한 개를 주워 들고는, 묘한 쾌감을 안고 그 레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레몬 색깔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그가 말했다. "그런데 공작의 가발에서 딱 한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바로 색깔이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내가 말했다.

"그가 귀를 가리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미다스 왕처럼 말이야." 신부는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게 경쾌한 단순함으로 말을 이었다. "머리카락으로 가리는 게 황동 판이나 가죽 덮개로 가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정말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싶다면, 왜 그것이 머리카락처럼 보이지 않게 하지 않는 걸까? 세상에 저런 색깔의 머리카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숲을 뚫고 들어오

는 석양 구름처럼 보인다. 만약 그가 정말로 그 가족의 저주를 부끄러워한다면, 왜 더 잘 숨기지 않는 걸까? 내가 말해줄까?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자랑할 가발치고는 추하고, 이야기 역시 추잡하군."

"자네가 그런 일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해 보게." 그 특이한 작은 남자가 대답했다. "네가 다른 이들보다 더 위선적이거나 병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하지만 어렴풋이라도 진정한 고대의 가문 저주가 가진 어떤 우아함을 느끼지 않는가? 만약 글래미스의 공포를 안고 있는 가문의 후계자가 너를 친구라고 부른다면, 부끄러울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자랑스럽지 않을까? 바이런 가문이 자신들의 악행에 관한 이야기를 오직 너에게만 털어놓았다면 어떨까? 만약 그들의 머리가 우리처럼 약했다면, 귀족들이 자신들의 슬픔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지는 말게."

"진짜로!" 내가 외쳤다. "그 말, 정말 맞네. 내 외가 집안에도 밴시가 있었거든. 생각해보니, 그 밴시가 수많은 추운 밤에 나를 위로해 주었어."

"그리고 생각해 보시오." 그가 계속 말했다. "당신이 그의 조상을 언급하자마자, 그의 가는 입술에서 뿜어져 나온 피와 독의 흐름을 말이오. 그는 왜 낯선 이를 그 지옥 같은 방을 구경시켜 주지? 그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말이오. 그는 가발을 숨기지 않소. 피를 숨기지 않소. 가족의 저주를 숨기지 않소. 가족의 죄악을 숨기지 않오. 하지만--"

작은 남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다. 그는 손을 날카롭게 쥐어 쥐었고, 그의 눈은 깨어난 부엉이처럼 순식간에 동그랗고 빛나졌다. 그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서 작은 폭발처럼 갑작스러웠다.

"하지만," 그가 마무리하며 말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몸단장을 숨기고 있단다."

그때였다. 내 상상에 불을 지핀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순간이었다.

숲속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빛이 비치는 가운데, 공중을 걷듯 발걸음도 없이 공작이 다시 나타났다. 해 질 녘 하늘을 물들인 듯한 붉은 머리카락이 그의 옆모습을 수놓고 있었다. 그는 사서와 함께 집 모퉁이를 돌아 나타나고 있었다.

브라운 신부는 귀에 들릴 거리도 되기 전, 태연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도대체 왜 그는 보라색 가발에 관한 비밀을 숨기는 걸까?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종류의 비밀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작이 모퉁이를 돌아 다시 식탁 머리맡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는 태연한 위엄을 잃지 않았다. 사서(司書)의 당황스러운 모습은 그를 뒷발로 어정쩡하게 서 있게 만들었다. 그 사서는 마치 큰 곰처럼 뒷발로 서서 어딘지 어색하게 서 있었다. 공작은 신부에게 매우 진지하게 말을 걸었다.

"브라운 신부." 공작이 말했다. "멀 박사가 당신에게 어떤 청을 하러 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조상의 종교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과, 우리가 이전에 만나던 시절을 위해, 저는 당신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듣고 싶으시겠지요?"

그 신사의 품격이 느껴지는 순간, 나는 저절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반면 기자다운 기질이 드러나는 순간에는 발이 땅에 박힌 듯 꼼짝도 못했다. 그런 마비 상태가 풀리기 전, 신부는 잠시 멈추어 서는 제스처를 취했다.

"각하께서 제 진정한 청원을 허락해 주시거나, 여전히 조언할 권리가 있다고 여겨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나라 곳곳에서 저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제 신앙과 양떼에 속한 이들조차도, 제가 끊어내기를 간청하는 그 마법에 의해 상상력이 병들고 말았습니다. 만약 가능했다면, 데번셔 전체 사람들을 이곳에 모아 각하께서 그 마법을 푸시는 모습을 보여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거죠?" 공작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당신이 가발을 벗는 모습을 보려는 것입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공작의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그는 청원자에게 유리알처럼 흐릿한 눈빛으로 응시했다. 그 표정은 내가 인간 얼굴에서 본 적이 없는 가장 끔찍한 것이었다.

나에게 도서관 사서의 굵은 다리가 그 아래에서 물결치듯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마치 연못 속 줄기의 그림자처럼.

그리고 나는 문득, 우리 주변을 둘러싼 나무들이 새 대신 악마로 조용히 채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이한 상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너를 봐주겠다." 공작은 비인간적인 연민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거절한다. 내가 혼자 짊어져야 할 그 끔찍한 짐의 단서 하나라도 건넸다면, 너는 내 발치에 주저앉아 비명 지르며 더 이상 알지 않겠다고 빌었을 것이다. 나는 그 단서조차 아끼겠다. 너는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에 적힌 글자의 첫 글자조차 읽지 못하게 하겠다."

"저는 알 수 없는 신을 압니다." 작은 사제의 목소리에는 무의식적으로 담긴 위엄이 서 있었다. 그 확신은 거대한 화강암 탑처럼 단단했다.

"저는 그의 이름을 압니다. 사탄이죠. 참된 신은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거했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계속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신비로움만으로 지배받는 사람들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불의의 신비입니다. 악마가 어떤 것을 바라보기에 너무 두렵다고 한다면, 그걸 바라보십시오. 듣기에 너무 끔찍하다고

한다면, 그걸 들으십시오. 어떤 진리가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견디십시오."

그는 간곡히 청했다.

"공작 각하, 이 악몽을 이제 이 테이블에서 끝내 주십시오."

"내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공작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과 당신이 믿는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모든 것이 단번에 시들고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은 죽기 직전,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공허를 단 한 순간 알게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해악 사이에 서기를,"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가발을 벗으시오."

나는 격분한 나머지 책상 위에 몸을 기댄 채 떨고 있었다. 그 놀라운 대결을 듣는 사이,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각하, 속임수를 벗기겠습니다. 가발을 벗으시거나, 제가 벗기겠습니다."

"물론 나는 폭행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그 행동을 했다는 사실만은 정말 다행이야."

그가 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거절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에게 덤벼들었다.

세상 모든 악마가 그를 도와준 듯, 그는 세 번의 긴 순간 동안 나를 붙잡고 버텼다. 하지만 나는 그의 머리를 억지로 꺾었고, 결국 그의 털모자가 벗겨져 떨어졌다.

모자가 떨어지는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멀의 비명이 나를 깨웠다. 그 순간 멀도 공작 곁에 서 있었다. 우리는 머리를 숙여 가발 없는 공작의 벗은 머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때 사서가 외치며 침묵을 깼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 남자에게 숨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으니까요."

"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가 숨기려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지."

신부는 곧장 그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귀를 힐끔 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장난기 섞일 정도로 진지한 표정으로 그 사람의 대머리 이마를 응시했다. 그리고 오래전 치유되었지만 여전히 식별할 수 있는 세모 흉터를 가리켰다.

"그린 씨라고 생각해요," 그가 정중하게 말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군요."

자,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이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점을 독자들에게 말씀드리려 한다. 페르시아의 동화처럼 거칠고 화려해 보일 이 변신극

은, 나의 기술적 침입을 제외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엄격하게 합법적이었고 헌법적이었다.

이상한 흉터와 평범한 귀를 가진 이 남자는 사기꾼이 아니다. 그는 한쪽으로는 다른 사람의 가발을 쓰고 다른 사람의 귀를 주장하지만, 결코 다른 사람의 작위를 훔친 것이 아니다. 그는 정말로 유일한 엑스무어 공작이다.

일어난 일은 이렇다. 구(舊) 공작은 실제로 귀의 약간의 기형이 있었고, 그것은 어느 정도 유전적이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병적으로 집착했고, 그린을 데칸터로 치는 격렬한 장면(당연히 실제로 일어난 일)에서 그것을 일종의 저주처럼 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그 분쟁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끝났다. 그린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여 영지를 얻었고, 쫓겨난 귀족은 자살하여 후사 없이 사망했다. 적절한 기간이 흐른 후, 아름다운 영국 정부는 소멸된 것으로 여겨졌던 엑스무어 작위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관례대로, 그 영지를 얻은 가장 중요한 인물, 즉 재산을 차지한 사람에게 작위를 하사했다.

이 남자는 옛 봉건 시대의 허황된 설들을 이용했다. 그의 속물근성이 짙은 영혼 속에서는, 오히려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수천 명의 가난한 영국 사람들은 고대의 운명과 악한 별들의 관을 쓴 신비로운 우두머리 앞에서는 떨었지만, 실은 열두 해 전만 해도 작은 소송쟁이이자 전당포 주인이었던 부랑아 앞에서는 떨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것이 지금의 우리 귀족 계급, 그리고 용감한 남자들이 올 때까지는 계속될 우리 귀족 계급에 대한 진정한 비판의 사례라고 생각한다.

너트 씨는 원고를 내려놓고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운 어조로 외쳤다.

"바로우 양, 핀 씨에게 편지를 적어 주시오."

핀, 너 미쳤나? 이 건 건드릴 수 없어. 나는 뱀파이어라든가, 나쁜 옛날 시절, 그리고 미신과 손잡고 있는 귀족들을 원했지. 독자들은 그런 걸 좋아해. 하지만 엑스무어 사람들은 이걸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우리 측 인사들이 뭐라고 할지, 정말 궁금하군! 사이먼 경은 엑스무어 공작의 절친한 친구 중 한 명이야. 브래드퍼드에서 우리 당 후보로 서 있는 아이어 가문의 사촌까지 망치게 될 거야. 게다가 '비누 거품'이라 불리는 그 노인은 작년에 작위를 받지 못해 이미 속상해하고 있었어. 만약 내가 이런 미친 짓으로 그가 작위를 놓치게 만든다면, 그는 전보로 나를 해고할 거야. 더피는 어떡하지? 그는 '노르만의 발굽'이라는 주제로 아주 쟁쟁한 기사들을 써내고 있어. 그런데 그 남자가 단지 변호사라면, 노르만족에 대해 어떻게 글을 쓸 수 있겠나? 제발 이성적으로 행동해.

너의, E. 너트

바로우 양이 경쾌하게 타자기를 두드리는 사이, 그는 복사본을 말아 쥐고 쓰레기통에 던졌다. 하지만 그전에 그는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

로 '하나님(God)'이라는 단어를 '상황(circumstances)'으로 바꿔 적었다.

여덟 번째 이야기 — 펜드래건가의 몰락

브라운 신부에게는 모험할 기운이 전혀 없었다. 그는 최근 과로로 병을 얻었고, 회복기에 접어들자 친구 플랑보가 세실 팬쇼 경과 함께 그를 작은 요트 크루즈에 데려갔다. 세실 팬쇼 경은 젊은 콘월의 지주이자 콘월 해안 경관에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브라운은 아직 약했고, 배를 타는 것도 그리 잘하지 못했다. 그는 불평하거나 무너지는 타입이 아니었지만, 그의 기운은 인내와 예의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른 두 사람이 거친 보라색 노을이나 거친 화산성 절벽을 칭찬할 때, 그는 그들과 동의했다. 플랑보가 용 모양의 바위를 가리켰을 때, 그는 그것을 보고 그것이 정말 용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팬쇼가 더 흥분하여 멀린과 닮은 바위를 가리켰을 때, 그는 그것을 보고 동의했다. 플랑보가 이 구불구불한 강의 바위 문이 요정의 문이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는 "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사소한 것을 한결같이 무덤덤한 몰입으로 들었다. 그는 해안이 신중한 선원들 외에는 모두 죽음이라고 들었다. 또한 그는 배의 고양이가 잠들어 있다고 들었다. 그는 팬쇼가 그의 시가 홀더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들었다. 또한 그는 도선사가 "두 눈이 밝으면, 배는 무사하고, 한 눈이 깜빡이면 배가 가라앉는다"는 예언을 내렸다. 그는 플랑보가 팬쇼에게 이는 도선사가 두 눈을 부릅뜨고 기민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들었다. 그리고 그는 팬쇼가 플랑보에게 이상하게도 이것이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들이 두 개의 해안등을 보고, 하나는 가

까이 있고 다른 하나는 멀리 있을 때, 정확히 나란히 있을 때, 그들은 올바른 물길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하나의 등이 다른 등 뒤에 숨겨져 있을 때, 그들은 암초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팬쇼가 그의 나라가 이런 이상한 전설과 관용구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로맨스의 본고장이었다. 그는 심지어 이 콘월의 일부를 데본셔와 비교하며 엘리자베스 시대의 항해술의 영광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이 후미와 작은 섬들 사이에는, 드레이크조차 사실상 육지내기로 보일 만한 선장들이 있었다. 그는 플랑보가 웃으며 "서쪽을 향해!"라는 모험적인 제목이 데본셔 사람들이 콘월에서 살고 싶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팬쇼가 바보 같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콘월의 선장들은 영웅이었고, 그들은 여전히 영웅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장소 근처에 은퇴한 노장 제독이 있었고, 그는 스릴 넘치는 항해로 상처 입었고, 그는 젊은 시절에 세계 지도에 마지막으로 더해진 여덟 개의 태평양 섬 무리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세실 팬쇼는 외모적으로 그런 원시적이지만 즐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타입이었다. 그는 매우 젊은 남자로, 금발이고, 얼굴이 붉으며, 열정적인 프로필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소년 같은 용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거의 소녀 같은 섬세한 색조와 유형을 가지고 있었다. 플랑보의 큰 어깨, 검은 눈썹, 검은 총사풍의 거들먹거리는 태도는 큰 대비를 이뤘다.

브라운 신부는 이런 사소한 일들을 모두 보고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피곤한 남자가 기차 바퀴 소리를 듣는 것처럼, 혹은 병자가 벽지 무늬를 바라보는 것처럼 지나갔다. 회복기에 기분이 어떻게 요동치는지

아무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 하지만 브라운 신부의 우울증은 바다에 대한 낯섦에서 비롯된 바가 컸다. 강 입구가 병목처럼 좁아지고, 물결은 잔잔해지며, 공기는 따뜻하고 흙내음이 진해지자 그는 깨어난 아기처럼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들은 해가 진 직후의 시기에 도달해 있었다. 이때는 공기와 물은 밝게 빛나지만, 땅과 그 위에 자라는 모든 것은 비교해 볼 때 거의 검은색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특별한 저녁에는 뭔가 이례적인 것이 있었다. 연기가 낀 유리 슬라이드가 자연과 우리 사이에서 슬쩍 밀려난 듯한 드문 대기였다. 그래서 어두운 색조차 흐린 날의 밝은 색보다 더 화려해 보였다.

발에 짓밟힌 강둑의 흙과 연못의 진흙 얼룩은 칙칙해 보이지 않고, 빛나는 옴버색으로 빛났다. 바람에 흔들리는 어두운 숲은 평소처럼 거리의 깊이에 의한 흐릿한 푸른색이 아니라, 마치 생생한 보라색 꽃송이가 바람에 흩날리는 덩어리처럼 보였다.

이 마법 같은 선명함과 색채의 강렬함은 브라운 신부의 서서히 깨어나는 감각을 자극했다. 지형의 형태 자체가 지닌 로맨틱하고 비밀스러운 무언가가 그것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강물은 여전히 넓고 깊었다. 그들처럼 작은 유람선이라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깊었다. 하지만 주변의 곡선은 강이 양옆으로 좁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숲은 다리를 놓으려는 듯 끊어지고 날렵한 시도를 하고 있는 듯했다. 마치 배가 계곡의 낭만에서 골짜기의 낭만으로, 그리고 마침내 터널이라는 최고의 낭만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풍경 외에는 브라운 신부의 상상을 자극할 것이 많지 않았다. 그는 인간을 거의 보지 못했다. 다만 숲에서 베어 온 장작과 버들가지를 지고 강둑을 따라 걸어가는 집시 몇몇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 이질적이지는 않지만 외진 곳에서는 여전히 드문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맨머리의 검은 머리 여성이 자신의 카누를 저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브라운 신부가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면, 그는 강이 다음으로 굽이치는 순간 그것을 잊었을 것이다. 그곳에는 특이한 사물이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물이 갈라지며 넓어졌다. 물고기 모양에 나무가 우거진 작은 섬이 어두운 쐐기처럼 물살을 갈랐다. 배가 빠르게 나아갈 때, 그 섬은 마치 배처럼 그들 쪽으로 헤엄쳐 오는 듯했다. 선체가 높은 배,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굴뚝이 높은 배였다.

가장 가까운 끝부분에는 낯선 건물이 우뚝 서 있었다. 그들이 기억하거나 어떤 용도와 연결 지을 수 있는 어떤 것과도 달랐다. 특별히 높지는 않았지만, 너비에 비해 너무 높아 타워라 불러야 마땅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온통 나무로 지어져 있었다. 게다가 그 나무 사용이 매우 고르지 않고 기이했다.

좋은 숙성 참나무 판자와 들보가 있는가 하면, 갓 베어낸 생나무도 있었다. 하얀 소나무도 있었고, 타르로 검게 칠한 비슷한 나무가 훨씬 더 많았다. 이 검은 들보들은 사선으로, 혹은 여러 각도로 비스듬히 배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기이하고도 수수께끼 같은 인상을 주었다.

창문은 하나나 두 개 있었는데, 구식이지만 더 정교한 스타일로 색을 입히고 납땜을 한 듯했다.

여행자들은 그 건물을 바라보며 특이한 감정을 느꼈다. 무언가가 다른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것임을 확신할 때 느끼는 그 역설적인 감정이었다.

브라운 신부는 당혹스러워할 때조차, 그 당혹감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는 남달리 영리했다. 그는 이상한 점이라곤 부조화로운 재질로 잘려 나간 특정한 형태에 있는 듯하다고 생각했다. 마치 양철로 만든 모자나, 체크무늬 천으로 재단된 프록 코트를 본 것처럼 말이다. 그는 이런 식으로 색이 다른 목재들이 배열된 곳을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었지만, 결코 이런 건축적인 규모로는 보지 못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어두운 나무들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통해 그는 필요한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웃음을 터뜨렸다. 나뭇잎 사이로 틈이 보이자, 잠시 동안 영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대부분이 '올드 런던'이나 '셰익스피어의 영국' 같은 쇼에서 모방해서 보는, 검은 목재로 마감된 오래된 목조 가옥이 나타났다.

신부가 볼 수 있었던 시간은 짧았지만, 그 집이 아무리 고풍스럽더라도 안락하고 잘 관리된 시골 저택이었으며, 앞마당에는 꽃밭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집은 버려진 폐기물들로 만든 듯한 탑의 얼룩지고 어수선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도대체 이게 뭐야?" 플랑보가 여전히 탑을 응시하며 말했다.

팬쇼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승자처럼 말했다.

"아하! 당신, 이런 곳을 본 적이 없겠군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거예요. 이제 콘월 뱃사람들의 실상을 보시죠. 제가 과장했는지 아닌지."

이곳은 올드 펜드래곤의 소유다. 우리는 그를 '제독'이라 부른다. 비록 그는 계급을 받기 전에 은퇴했지만.

데본 주민들에게 레이리와 호킨스의 정신은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이다. 하지만 펜드래곤 가문에게는 살아 있는 사실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무덤에서 일어나, 금으로 장식된 배를 타고 이 강을 거슬러 올라온다고 상상해 보라. 그녀는 여왕이 익숙하게 여겼던 바로那样的 집안에서, 방구석마다, 창문마다, 벽의 판자마다, 식탁의 접시 하나하나까지 그대로인 곳에서 제독의 환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여왕과 함께 저녁을 먹었던 것처럼, 작은 배들로 미지의 땅을 찾아야 한다고 여전히 격렬하게 말하는 영국 선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원에는 그녀가 르네상스적 안목으로 보기에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될 거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주택 양식은 나름대로 매력이 있지만, 탑을 달아내는 것은 그 본성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짓이오."

"하지만 그 부분이 가장 로맨틱하고 엘리자베스 시대다운 요소예요." 팬쇼가 답했다. "이 탑은 스페인 전쟁 당시 펜드래곤 가문이 지었습니다. 비록 다른 이유로 보수가 필요하고 심지어 재건해야 할 상황이지만, 늘 옛 방식을 고수하며 다시 지어왔죠."

이야기에 따르면, 피터 펜드래곤 경의 부인이 이 자리에 이 높이로 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꼭대기에서 보면 강 입구로 들어가는 선박이 돌아가는 코너가 딱 보인다는 거죠. 그녀는 남편이 스페인령 아메리카 해역에서 귀항할 때, 가장 먼저 그의 배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다시 지었다는 말씀은, 대체 무슨 뜻이오?" 브라운 신부가 물었다.

"아, 그것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 하나 더 있소." 젊은 영주가 맛깔나게 말했다. "정말 당신은 기이한 이야기들의 땅에 발을 들인 셈이오. 여기에는 아서 왕도, 머린도, 그보다 먼저 온 요정들도 있었소. 전설에 따르면, 피터 펜드래곤 경은 해적의 결점과 선원의 미덕을 모두 지녔다고 할까, 세 명의 스페인 귀족들을 정중한 포로로 대하며 엘리자베스 궁궐로 호송하던 중이었소.

그런데 그는 화가 많고 호랑이 같은 성품의 소유자였소. 어느 스페인인과의 격렬한 말다툼 끝에, 그는 그를 목을 조르다 우연히든 고의였든 바다에 던져 버렸소. 첫 번째 스페인인의 형이었던 두 번째 스페인인은 즉시 검을 빼 들어 펜드래곤에게 달려들었고, 짧은 듯하지만 격렬한 결투가 벌어졌소. 단 몇 분 만에 두 사람은 각각 세 번씩 부상을 입

었지. 펜드래곤은 다른 한 명의 몸을 자신의 칼날로 관통했고, 두 번째 스페인인은 그제야 처리된 셈이 되었소.

다행히도 그 배는 이미 강 입구로 들어와 있어 비교적 얕은 수심 근처에 있었소. 세 번째 스페인인은 배 옆구리를 타고 뛰어내려 해안을 향해 헤엄쳤고, 곧 waist까지 물에 잠길 만큼 가까워졌소. 그는 다시 배를 향해 돌아서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어 올렸소. 마치 악한 도시에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예언자처럼 말이지. 그는 날카롭고 끔찍한 목소리로 펜드래곤에게 외쳤소. 자신은 아직 살아있다고, 살아갈 것이라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리고 펜드래곤 가문은 세대를 거듭할 때마다 자신이나 자신의 후손을 보지 못하되, 매우 확실한 징표로 자신과 자신의 복수가 살아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는 파도 아래로 잠수했고, 이후 그의 머리카락 한 올도 다시는 보이지 않았소. 익사했거나, 물속에서 너무 오래 헤엄쳐서였거나."

"저기, 카누를 탄 그 소녀가 또 있네요." 플랑보가 아무 관련 없는 말을 꺼냈다. 외모가 뛰어난 젊은 여성은 그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상한 탑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아."

정말로, 검은 머리의 젊은 여인은 자신의 카누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그 낯선 섬 곁으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타원형에 올리브빛을 띤 얼굴에 강한 호기심에 차서, 낯선 탑을 향해 진지하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여자애들 따위야 걱정 마라." 팬쇼가 성급하게 말했다. "세상에는 여자애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펜드래곤 타워처럼 특별한 건 많지 않지. 스페인인의 저주가 남긴 뒤안길에는 수많은 미신과 스캔들이 따라다녔을 거야. 당신이라면 아마도, 이 콘월 가문에 무슨 사고가 나면 시골 사람들의 미신적인 믿음으로 인해 그 저주와 연결 지어 말할 거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정말로 이 타워는 두세 번이나 불탔어. 이 집안은 운이 좋은 집이라 부를 수 없지. 내가 기억하기로는 제독의 가까운 친족 두 명 이상이 난파로 목숨을 잃었으니까. 그리고 하나 정도는, 내가 아는 한, 피터 경이 스페인인을 바다에 던져 넣었던 곳과 거의 같은 자리에서 죽었어."

"정말 아깝다!" 플랑보가 탄식했다. "그녀가 떠나려 한다."

"당신의 친구인 제독은 언제 그 집안을 이야기해 주셨소?" 브라운 신부가 물었다.

카누 안의 소녀는 노를 저어 멀리 떠나갔다. 그녀는 이미 섬 옆에 정박해 있던 요트, 즉 팬쇼가 불러온 그 배에 관심을 보일 기색이 전혀 없었다.

"몇 해 전 일이오. 그는 이제 몇 년째 바다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예전만큼이나 바다를 사랑하고 있소. 가족 간의 약속이라도 있는 모양이오. 어쨌든, 여기가 선착장이지. 올라가서 그 늙은이를 만나자고."

그들은 섬으로 따라 들어갔다. 탑 바로 아래였다. 브라운 신부는 그저 마른 땅을 밟았기 때문이든, 아니면 강 반대편에 있는 무언가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든, 아니면 둘 다였든, 갑자기 활기를 띠었다. 그는 몇 초 동안 그쪽을 유심히 응시했다.

그들은 두 개의 얇고 회색빛 울타리 사이에 있는 나무 길로 들어섰다. 이런 울타리는 종종 공원이나 정원을 둘러싸곤 한다. 어두운 나무들이 울타리 위를 넘나들며 흔들렸다. 마치 거인의 관 위에 올려진 검은색과 보라색 깃털 같았다.

뒤에 남겨둔 탑은 한층 더 기이해 보였다. 보통 이런 입구에는 두 개의 탑이 양옆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탑은 한쪽으로 기울어 보였다. 이 점이 없었더라면, 이 길은 어떤 신사의 땅에 들어가는 입구처럼 평범해 보였을 것이다. 길은 너무 많이 굽어 있어서 집은 이제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어딘가 이 섬의 어떤 숲이 실제로 가질 수 있는 크기보다 훨씬 큰 공원으로 보였다.

브라운 신부는 피로 때문에 아마도 조금 환상적인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거의 이 곳이 악몽에서처럼 커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들의 행진은 신비로운 단조로움만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팬쇼가 갑자기 멈추고, 회색 울타리 너머로 삐져나온 무언가를 가리켰다. 처음에는 어떤 짐승의 갇힌 뿔처럼 보였다. 더 가까이 관찰해보니, 그것은 희미하게 빛나는 약간 휘어진 금속 날이었다.

프랑스인답게 군복무를 했던 플랑보가 그 물건에 몸을 굽혔다. 그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사브르군! 내가 아는 종류야. 무겁고 휜 형태지만, 기병용보다는 짧지. 포병들이 예전에 쓰던 거였어. 그리고—”

말하는 사이, 칼날이 스스로 갈라진 틈을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더 무겁고 거친 내리찍기로 다시 내려왔다. 쩍쩍 갈라지는 울타리가 바닥까지 두 동강 나는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다시 칼날이 빠져나왔다. 조금 더 앞쪽으로, 울타리 위를 번뜩이며 지나갔다. 그리고 첫 내리찍기로 절반까지 다시 갈랐다. 잠시 몸을 비틀며 스스로를 빼내려 했다. 어둠 속에서 저주 섞인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 내리찍기로 바닥까지 완전히 잘랐다.

그때 악마 같은 기운이 담긴 발차기가 가해졌다. 풀려난 얇은 나무판이 통로 쪽으로 날아갔다. 울타리에는 어두운 잡목 숲이 내다보이는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렸다.

팬쇼는 어둠 속에 있는 구멍을 들여다보며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친애하는 제독님! 도대체 산책하실 때마다 새로운 정문을 뚫어두는 게 관례입니까?"

어둠 속에서 그 목소리가 다시 한 번 욕설을 내뱉더니, 이내 경쾌한 웃음으로 바뀌었다.

"아니, 이 울타리는 어쩔 수 없이 없애야 해. 이 식물이랑 식물들이 다 망가져 버렸거든. 여기 있는 나 말고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현관문도 조금 더 깎아야겠어. 그리고 나서 나와서 너를 맞이해야지."

그는 역시나 다시 한 번 무기를 들어 올렸다. 두 번 휘둘러 또 다른 비슷한 울타리 조각을 찍어 내고, 전체적으로 약 열네 피트 너비의 구멍을 뚫었다. 그리고 그 더 넓은 숲의 문턱을 지나, 그는 저녁 빛속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검날에는 회색 나무 조각이 하나 붙어 있었다.

그는 잠시 동안 팬쇼가 말한 옛 해적 제독의 전설을 온전히 구현해 보였다. 비록 나중에 보면 그 디테일들은 우연의 일치로 해체되는 듯했지만 말이다.

예를 들어 그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모자 앞쪽 챙은 하늘을 향해 쭉 젖혀져 있었고, 양쪽 끝은 귀보다 더 낮게 내려져 있었다. 그래서 모자는 그의 이마 위에 고대 넬슨 제독이 쓰던 삼각모처럼 초승달 모양으로 서 있었다.

그는 단추에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짙은 파란색 재킷을 입었다. 하지만 그것과 흰 린넨 바지를 함께 입은 조합이 묘하게도 선원 같은 인상을 풍겼다. 그는 키가 크고 몸이 헐렁해 보였으며, 걸음걸이에는

특유의 당당함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선원들의 구르는 듯한 보행은 아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 느낌을 자아냈다.

그는 손에 짧은 칼날을 쥐고 있었다. 해군용 칼과 닮았지만, 크기가 두 배는 되어 보였다. 모자 받침대 아래로 드러난 그의 독수리 같은 얼굴은 간절해 보였다. 그 이유는 그가 수염을 면도했을 뿐만 아니라 눈썹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마치 얼굴의 털이 수많은 요소들을 뚫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모두 빠져나간 듯했다.

그의 눈은 돌출되어 날카로웠다. 그의 피부색은 묘하게도 매혹적이었는데, 부분적으로 열대적인 느낌을 주었다. 그것은 마치 피의 오렌지를 연상시켰다. 즉, 붉고 혈기 왕성하면서도 노란기가 섞여 있었는데, 그 노란기는 전혀 병적인 것이 아니라 헤스페리데스의 금사과처럼 빛나 보였다.

브라운 신부는 자신이 태양의 나라들에 관한 모든 로맨스를 이토록 잘 표현한 인물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팬쇼가 두 친구를 주인에게 소개하자, 그는 다시금 울타리가 무너진 것을 비웃으며, 신성모독적인 욕설을 퍼부은 듯한 그의 격분한 태도를 조롱하는 어조로 돌아갔다.

제독은 처음에는 그것을 필요하지만 성가신 정원 작업의 일환으로 여기며 가볍게 넘겼다. 그러나 이내 그의 웃음소리에는 진정한 에너지의 울림이 돌아왔고, 그는 인내심과 유쾌함이 섞인 어조로 외쳤다.

"아마 나는 좀 과잉 반응하는지도 몰라. 아무튼 무언가를 부수는 데서 묘한 쾌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야. 너도 만약 네 유일한 즐거움이 새로운 '식인종 섬'을 찾아 떠도는 항해뿐이라면, 시골 연못 한가운데 있는 이런 진흙투성이의 작은 암석 정원에 묶여 있어야 할 때 같은 기분을 느낄 거야."

그가 말을 이었다.

"내가 이 칼날보다 절반도 날카롭지 않은 낡은 커틀러스로, 길이가 1마일 1/2에 달하는 녹색의 유독한 정글을 베어냈던 일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 뒤에 또 생각해보라. 가족 성경에 적힌 어떤 끔찍한 계약 때문에, 나는 여기서 멈춰서 이 장작을 찍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면, 나는--"

그는 다시 무거운 강철을 들어 올렸다. 이번에는 단번에 나무 벽을 위아래로 통째로 부러뜨렸다.

"그런 기분이 들긴 하죠."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고는 칼을 거칠게 들어 길 옆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던져 버렸다. "이제 집으로 올라갑시다. 당신도 저녁이라도 드셔야죠."

집 앞 잔디밭은 반원형으로 넓게 펼쳐져 있었다. 그곳에는 세 개의 원형 화단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하나는 붉은 튤립, 또 다른 하나는 노란 튤립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 번째 화단에는 하얀빛이 돌고 왁스처럼 윤기 나는 꽃들이 피어 있었다. 방문객들은 이 꽃들을 본 적이 없어, 이국적인 꽃이라고 짐작했다.

무겁고 털이 많으며 다소 불쾌한 표정의 정원사가 무거운 호스 코일을 걸어두고 있었다. 해가 지며 어스름해지던 하늘은 집 모서리 주변에 남아, 멀리 있는 화단들의 색을 간간이 비추었다. 집 한쪽에는 나무가 없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은 강을 향해 열려 있었다. 그 공간에는 큰 황동 망원경이 기울어져 있는 높은 삼각대가 서 있었다.

현관 계단 바로 바깥에는 작은 녹색 정원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 방금 차를 마셨던 자국처럼 보였다. 현관 입구 양쪽에는 남태평양의 우상이라고 하는, 눈 구멍이 뚫린 반쯤 형체를 잃은 돌덩어리 두 개가 있었다. 현관 문틀 위에는 갈색 오크 나무 보가 가로질러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는 거의 야만적인 느낌의 어수선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성직자는 갑자기 탁자 위로 뛰어올랐다. 식탁 위에 서서 그는 안경 너머로 천연덕스럽게 참나무의 장식 조각들을 들여다보았다. 펜드래건 제독은 매우 놀란 표정이었지만, 크게 짜증내지는 않았다. 반면 팬쇼는 자신의 작은 받침대 위에 선, 마치 공연을 하는 피그미처럼 보이는 그 모습에 너무 재미를 느껴 웃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브라운 신부는 그 웃음이나 놀람 같은 것을 눈치챌 리 없었다.

그는 세 개의 새겨진 문양을 응시하고 있었다. 비록 마모되어 흐릿했지만, 그 문양들은 여전히 그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듯했다.

첫 번째 문양은 탑이나 다른 건물의 윤곽선으로 보였다. 그 위에는 곱슬거리는 끝을 가진 리본 같은 장식이 씌워져 있었다.

두 번째는 더 선명했다. 아래로 장식용 파도가 흐르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갤리선이었다. 하지만 중간에는 기묘한 갈라진 바위가 가로막고 있었다. 이는 나무의 결함일 수도, 혹은 물이 들어오는 것을 관습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었다.

세 번째는 인간 상반신을 나타내고 있었다. 끝부분은 파도처럼 물결친 선으로 마무리되었다. 얼굴은 문질러져 윤곽조차 찾아볼 수 없었고, 두 팔은 공중으로 딱딱하게 뻗어 있었다.

"글쎄," 브라운 신부가 눈을 깜빡이며 중얼거렸다. "여기 스페인인의 전설이 꽤 명확하게 드러나 있군. 바다에서 팔을 벌려 저주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그 두 가지 저주—난파한 배와 불타오르는 펜드래건 탑."

펜드래건은 존경할 만한 웃음을 띠며 고개를 저었다.

"그게 그거 말고 다른 무엇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말했다.

"그런 반쯤 인간 같은 형상, 반쯤 사자이거나 반쯤 사슴인 그런 형상이 문장학에서 얼마나 흔한지 아십니까? 그 배를 가로지르는 선은 아마도 '세로로 나눈 문양' 중 하나일 겁니다. 아마도 톱니 모양으로 잘려 있는 그런 거죠. 뭐라 부르던가요?"

그리고 그는 계속했다.

"세 번째 것은 문장학적으로 그리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불꽃이 아니라 월계수로 장식된 탑으로 보는 게 더 문장학적으로 어울립니다. 실제로 보아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옛 전설과 정확히 일치하다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플랑보가 말했다.

"아, 그렇다고요." 회의적인 여행자가 말했다. "하지만 옛 전설이 옛 그림에서 얼마나 많이 꾸며졌는지 당신은 모르시네요. 게다가 그 전설이 유일한 것도 아닙니다. 팬쇼, 여기 계신 분은 이런 일을 좋아하시니 다른 버전의 이야기, 그리고 훨씬 더 끔찍한 이야기들도 있다고 알려주실 겁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불행한 조상이 스페인인을 둘로 잘랐다고 합니다. 그건 이 예쁜 그림에도 잘 맞죠. 또 다른 이야기는 우리 가문이 뱀으로 가득 찬 탑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그 작은 구불거리는 것들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론은 배의 굽은 선을 관습화된 번개로 봅니다. 하지만 그 이론만 진지하게 따져보면, 이런 불행한 우연들이 실제로 얼마나 미미한지 알 수 있습니다."

"왜, 무슨 말씀이세요?" 팬쇼가 물었다.

"그런 일이 있다니요." 호주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희 집안에서 제가 아는 우리 집안의 난파 사고 두세 건에는, 번개나 천둥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브라운 신부가 외치며 작은 탁자에서 뛰어내렸다.

그들은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다. 그 침묵 속에서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팬쇼가 의심스러운, 어쩌면 실망한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럼, 그 탑이 불타오른다는 소문은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제독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저도 일부 증거는 꽤 그럴싸하다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숲길을 걷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근처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군요. 또 내륙의 높은 지대에서 양을 치는 사람도 펜드래건 타워 위에 불꽃이 맴도는 것을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축축하고 진흙투성이인 섬이 불이 날 만한 곳이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기 불이 나나요?" 브라운 신부가 갑자기 부드럽게 물었다. 그는 강 왼쪽 기슭에 있는 숲을 가리켰다. 그들은 모두 깜짝 놀라 정신이 한참 동안 어지러웠다. 특히 상상력이 풍부한 팬쇼는 더더욱 정신을 차리는 데 시간이 걸렸다. 저녁 노을 끝자락으로 푸른 연기가 길게, 가느다랗게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펜드래곤은 다시 한번 비웃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집시들이요!" 그가 말했다. "그들이 이곳에 대략 일주일 동안 머물고 있었죠. 선생님들, 저녁 드실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듯 몸을 돌렸다.

하지만 팬쇼의 고전적 미신은 아직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말했다. “하지만, 제독님, 섬 근처에서 들리는 그 쉭쉭거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불과 흡사한 소리예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카누일 뿐이야.” 제독이 웃으며 앞장서며 말했다. “실제로 보이는 그대로일 뿐이지.”

말이 떨어지자마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날씬한 집사가 문간에 나타났다. 그는 매우 검은 머리에, 매우 길고 노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렸다.

식당은 배의 선실처럼 바다 냄새가 물씬 났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선장보다는 현대적인 선장의 것이었다. 벽난로 위 트로피에는 낡은 커틀러스 세 자루가 걸려 있었고, 바다 위에 트리톤과 작은 배들이 점점이 떠 있는 갈색 16세기 지도 한 장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얀 판넬 벽보다는 이색적인 남미 조류 표본, 태평양의 기이한 조개 껍데기, 그리고 원주민들이 적을 죽이거나 요리하는 데 썼을 법한 기괴한 모양의 여러 도구들이 더 돋보였다. 이색적인 색채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정점에 달했다. 집사를 제외하면, 제독의 유일한 하인은 두 명의 흑인이었는데, 이들은 노란색의 꼭 맞는 제복을 입고 있었다. 사제로서 자신의 인상을 분석하는 습관대로 그는 이 두 발 달린 존재들의 노란색과 작은 단정하게 잘린 코트 끝자락이 ‘카나리아’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단어는 남쪽 여행을 연상시키는 말장난과 연결되었다. 저녁 식사 끝에 그들은 노란 옷

과 검은 얼굴을 방 밖으로 가져가고, 하인의 검은 옷과 노란 얼굴만 남겼다.

"이렇게 가볍게 여기시다니 조금 아쉽군요." 팬쇼가 주인에게 말했다. "사실은 제가 이 친구들을 데려온 이유가, 이들이 이런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당신을 도와드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가족의 전설을 믿지 않으시는 건가요?"

"전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펜드래곤이 밝은 눈으로 붉은 열대 새를 올려다보며 경쾌하게 대답했다. "전 과학자입니다."

플랑보의 예상과 달리, 완전히 정신이 든 듯 보였던 신부는 그 산만한 이야기를 이어받아, 주인과 자연사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놀라울 만큼 많은 지식을 쏟아내며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디저트가 나오고, 와인병이 테이블 위에 놓이며, 마지막 하인도 자취를 감출 때까지 그 대화는 계속됐다.

그제야 신부는 톤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펜드래건 제독, 실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호기심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제게는 방향을 얻고 귀하께는 편의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 짐작이 틀렸습니까? 이 오래된 이야기들을 집사 앞에서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제독은 눈썹 위를 밀어 올리고 외쳤다.

"그래, 어디서 그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그 녀석이 싫어. 하지만 가족 하인을 해고할 변명은 없지."

"팬쇼라면, 아마 자신의 피가 저 흑발의 스페인 풍 남자를 보고 반발한다고 할 거야. 요술 같은 이야기로 말이야."

플랑보가 거친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세상에!" 그가 외쳤다. "그 소녀도 그랬단 말이야!"

"오늘 밤, 내 조카가 무사히 배에서 돌아오면 이 모든 일이 끝났으면 좋겠소." 제독이 말을 이었다.

"내 표정을 보고 놀랐군. 설명을 해줘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내 아버지는 두 아들을 두셨지. 나는 독신으로 지냈고, 형은 결혼해 아들을 낳았어. 그 아이는 우리 집안 남자들처럼 해군이 됐고, 결국 가문의 본산을 물려받게 돼.

아버지는 묘한 분이셨어. 팬쇼의 미신과 나의 회의주의가 어딘지 모르게 뒤섞여 있었지. 그 두 기질이 늘 아버지 안에서 싸우고 있었어. 내가 첫 항해를 마친 뒤, 아버지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 저주가 진실인지 헛소문인지, 마침내 결정할 방법을 찾겠다는 거였지.

만약 펜드래건 가문 남자들이 아무렇게나 바다에 나간다면, 자연 재해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야. 하지만 가문의 상속 순서를 엄격히 지켜,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바다에 보내면 어떨까? 그러면 가족 전체를 따라다니는 특별한 운명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 생각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버지와 꽤나 격렬하게 다퉜지. 나는 야심 많은 사람이었고, 상속 순서상 내 조카 다음으로 마지막까지 바다에 나가지 않을 사람이었거든."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도……" 사제가 매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바다에서 돌아가셨군요."

"맞아요." 제독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인류의 거짓된 신화가 쌓인, 잔인한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두 배 모두 난파되었죠. 대서양에서 나와 이 해안을 거슬러 오던 아버지는 이 콘월의 바위들로 떠밀려 왔습니다. 동생의 배는 태즈메이니아에서 귀항하던 중, 어디에 가라앉았는지 아무도 모르게 침몰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죠. 저는 이것을 완전히 자연스러운 불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펜드래곤 가문 사람들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재난은 항해사들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건 이 초자연적 공포의 숲에 불을 지폈습니다. 사람들은 사방에서 타오르는 탑을 보았죠. 그래서 저는 윌터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약혼한 소녀가 오늘 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지연되는 바람에 그녀가 놀랄까 봐, 제가 전보를 보내 그녀에게 제게서 연락이 올 때까지 오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그는 오늘 밤 어느 때고 거의 반드시 도착할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연기 속으로 사라질 테니까요—담배 연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와인을 한 병 깨는 순간, 그 오래된 거짓말도 함께 깨질 겁니다."

"매우 훌륭한 와인입니다." 브라운 신부가 진지하게 잔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형편없는 술꾼이지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가 말하면서도 식탁보에 와인 한 방울이 튀었다.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제독 바로 뒤의 정원 창문 너머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창문 너머에는 한 여인의 얼굴이 보였다. 남국 특유의 어두운 피부와 눈, 머리카락. 그녀는 젊었지만, 그 얼굴은 비극이 새겨진 가면처럼 보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사제는 다시 다정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제독님,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될까요? 오늘 밤만이라도, 저 당신의 탑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제 친구들도 함께 가고 싶어 한다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덧붙였다.

"제 직업상,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악귀 쫓는 사람'이거든요."

펜드래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창가 앞을 서성였다. 방금 그 얼굴이 사라진 창문 쪽으로, 그리고 다시 돌아서며 빠르게 걸었다.

"말해 두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울려 퍼졌다.

"이 일에 대해 내가 아는 건 하나뿐이야. 나를 무신론자라 불러도 좋아. 나는 무신론자야."

그가 몸을 돌렸다. 브라운 신부를 향해, 놀라울 정도로 집중된 표정으로 그를 응시했다.

"이 일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일 뿐이야. 저주 같은 건 전혀 없어."

브라운 신부가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아름다운 여름 별채에서 자는 것도 문제없겠군요."

"그 생각은 완전히 터무니없소." 제독이 의자 등을 두드리며 대답했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브라운 신부가 가장 동정적인 어조로 말했다. "포도주를 쏟은 일도 포함해서요. 하지만 불타는 탑에 관해서는, 당신이 시도하는 것만큼이나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펜드래건 제독은 일어났을 때처럼 갑자기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다시 입을 열 때는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이 그 일을 감행한다면, 그 결과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 악마 같은 일들이 계속되는 마당에, 정신을 차리고 있으려면 무신론자가 되는 게 더 나을 것 아닙니까?"

세 시간쯤 지나도 팬쇼, 플랑보, 그리고 신부는 여전히 어두운 정원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자 다른 두 사람은 비로소 깨달았다. 브라운 신부가 탑이나 집 어느 쪽에서도 잠자리에 들 생각이 없다는 것을.

"정말 잔디를 매야 할 것 같아요." 그가 몽롱한 목소리로 말했다. "삽이나 비슷한 도구를 구할 수만 있다면 제가 직접 손볼 텐데."

그들은 그를 따라가며 웃고 반쯤 말렸지만, 그는 극도로 진지하게 대답했다. 짜증 날 정도로 짧은 설교를 하듯, 그는 그들에게 설명하며 말했다. 남을 돕는 작은 일은 언제나 찾을 수 있다고.

그는 스푸드(감자 캐는 도구)를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는 가지를 엮어 만든 오래된 빗자루를 발견했고, 그것으로 풀밭에 떨어진 낙엽을 힘차게 쓸기 시작했다.

"언제나 해야 할 작은 일들이 있는 법이지." 그는 어리석을 정도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지 허버트가 이렇게 말했잖아. '콘월의 제독 정원을 주님 법도에 따라 쓸면, 그 행위 자체가 아름답게 빛난다'고. 자, 이제." 그는 갑자기 빗자루를 던져버리며 말했다. "꽃에 물을 주러 가자."

그들은 같은 복잡한 감정을 안고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큰 정원의 호스를 길게 풀기 시작했다.

"노란 튤립보다 빨간 튤립이 먼저 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가 말했다. 어딘가 쓸쓸하면서도 세심한 태도였다.

"조금 마른 것 같지 않아?"

그는 기구에 달린 작은 수도꼭지를 돌렸다. 물줄기가 곧장, 단단한 강철 막대처럼 뿜어져 나왔다.

"조심하세요, 샘슨!" 플랑보가 외쳤다. "자, 튤립 머리를 잘라냈네요."

브라운 신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잘려 나간 식물을 내려다보았다.

"제 치료법이 좀 위험한 편인 건 사실입니다." 그가 머리를 긁적이며 인정했다. "그런데 그 모종삽을 못 찾은 게 좀 아쉽네요. 그 삽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보셨어야 합니다!"

"도구에 대해 말씀하시네요. 플랑보, 당신 늘 지니고 다니던 그 검지 팡이는요?"

"그렇습니다."

"그럼 세실 경은 여기 울타리 옆에 제독이 버린 그 검을 쓰면 되겠네요. 세상에, 모든 것이 유난히 회색으로 보이네요."

"강에서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어." 멍하니 바라보던 플랑보가 말했다.

그가 말을 맺자마자, 털북숭이 정원사의 거대한 몸집이 잘 파여 단을 이룬 잔디밭의 높은 언덕 위에 나타났다. 그는 갈퀴를 휘두르며 끔찍하게 우렁찬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 외쳤다.

"호스, 그 호스를 내려놓으시오. 호스를 내려놓고 가서 당신의--"

"전 정말 손이 너무 둔해서요." 신부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포도주 잔을 엎지른 적도 있거든요."

그는 호스를 쥔 채, 정원사 쪽으로 애매하게 반쯤 몸을 돌리며 사과하는 시늉을 했다.

그러나 호스에서 뿜어져 나온 차가운 물줄기가 정원사의 얼굴을 강타했다. 대포알이 명중하는 듯한 굉음과 함께였다.

정원사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 미끄러져, 신발이 공중으로 치켜올라갈 만큼 거칠게 쓰러졌다.

"정말 끔찍한 일이군요!" 브라운 신부가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저, 사람을 치고 말았어요!"

그는 잠시 동안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서 있었다. 무언가를 응시하거나 귀를 기울이는 듯한 자세였다. 그리고는 호스를 끌며 탑 쪽으로

총총걸음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탑은 아주 가까웠지만, 그 윤곽은 묘하게 흐릿하게 보였다.

"당신네 강 안개," 그가 말했다. "이상한 냄새가 나."

"주님의 이름으로, 맞아요." 팬쇼가 창백한 얼굴로 외쳤다. "하지만 당신이 말하려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제독의 과학적 예측 중 하나가 오늘 밤 실현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결국 연기로 끝날 겁니다."

말을 하는 순간, 장미빛의 빛이 거대한 장미가 피어나듯 번져 나왔다. 하지만 그 빛은 악마의 웃음소리처럼 바스락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동반하고 있었다.

"세상에, 이게 뭐란 말인가?" 세실 팬쇼 경이 비명을 질렀다.

"불타는 탑의 상징입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하며 호스에서 뿜어져 나온 물을 붉게 타오르는 부분 한복판으로 쏟아부었다.

"우리 잠자리에 들지 않아서 다행이야!" 팬쇼가 외쳤다. "불이 집까지 번지지는 않겠지?"

"기억나시겠지만," 신부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것이 지나갈 수 있었을 나무 울타리는 이미 잘려 나갔습니다."

플랑보가 친구를 향해 전기가 통한 듯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팬쇼는 그저 멍하니 이렇게 말했다.

"어쨌든, 아무도 죽지는 않을 테니까."

"이 탑은 좀 특이한 구석이 있군."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사람을 죽이려 들면, 항상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을 죽이니까."

그 순간, 수염이 흩날리는 거구의 정원사가 하늘을 배경으로 초록 언덕 위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다른 이들을 부르며 손을 휘저었지만, 이제 그가 들고 있는 것은 갈퀴가 아닌 커틀러스(단검)였다.

그 뒤로 두 명의 흑인이 따라왔다. 그들은 트로피로 가져온 낡은 굽은 칼을 들고 있었다. 피처럼 붉게 타오르는 불빛 아래, 그들의 검은 얼굴과 누런 형체는 고문 도구를 든 악마처럼 보였다.

그들 뒤의 흐릿한 정원에서 멀리서 무언가 짧은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를 들은 신부의 얼굴에 놀랄 만큼 끔찍한 변화가 일었다.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처음에는 퍼지던 불꽃이, 은빛 창처럼 길게 뻗은 물줄기에 쪼이면서 오히려 조금씩 수축해 가는 것을 그는 단 한 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는 호스의 노즐에 손가락을 대고 물줄기의 방향을 정확히 유지하는 데만 집중했다. 다른 일은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들리는 소리와 시야의 끝부분으로만, 섬뜩할 정도로 신나는 사건들이 섬의 정원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할 뿐이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두 가지 짧은 지시를 내렸다.

"저 자들을 어쨌든 쓰러뜨려 묶어라. 누구든 상관없다. 그 장작 더미 근처에 밧줄이 있다. 내 예쁜 호스를 가져가려 하거든."

또 다른 지시는 이랬다.

"기회가 닿는 대로 강가에서 뱃놀이를 하는 그 소녀에게 외쳐라. 그녀가 집시들과 함께 강둑에 있잖아. 저들이 물통을 건너편으로 가져와 강에서 물을 채울 수 있는지 물어봐라."

그리고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가 물주던 새로운 붉은 꽃을, 그가 예전 붉은 튤립을 무자비하게 물을 때처럼 무자비하게 다시 물주기 시작했다.

그는 신비한 불꽃을 둘러싼 적들과 아군 사이의 기이한 싸움을 뒤로 한 채,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플랑보가 거대한 정원사와 충돌할 때, 섬이 흔들릴 듯했다. 그는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며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상상했을 뿐이다. 거대한 낙하음이 들렸고, 그가 첫 번째 흑인 남자에게 돌진할 때 친구의 승리의 숨소리가 들렸다. 플랑보와 팬쇼가 두 흑인을 제압하는 동안 그들의 비명도 함께 들려왔다.

플랑보의 엄청난 힘은 싸움의 불리함을 상쇄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네 번째 남자가 아직 집 근처를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그림자이자 목소리일 뿐이었다.

또한 노저리는 물결이 깨지는 소리, 소녀가 명령하는 목소리, 이에 답하며 가까워지는 집시들의 목소리, 그리고 가득 찬 물줄기에 비어 있는 양동이가 빠지는 '푹' 하는 소리와 물이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마지막으로 불꽃 주변에서 많은 발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최근에 다시 커졌던 붉은 균열이 다시금 조금씩 줄어든다는 점이었다.

그때, 그가 고개를 돌릴 뻔한 비명이 들려왔다. 플랑보와 팬쇼는 이제 일부 집시들의 지원을 받아 집 근처의 그 수수께끼의 남자를 쫓고 있었다. 그리고 정원 반대쪽에서 프랑스인의 공포와 경악에 찬 비명이 들려왔다.

그 비명은 인간의 목소리라 부르기 어려운 울부짖음으로 메아리쳤다. 그 존재는 그들의 포위망을 뚫고 정원을 따라 달아났다. 적어도 세 번은 그 존재가 섬 전체를 돌았다. 그 모습은 미친 사람의 추격전처럼 끔찍했다. 쫓기는 자의 비명과 쫓는 자들의 밧줄이 모두 공포를 자아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것이 묘하게도 정원에서의 아이들의 추격 게임을 연상시켰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사방에서 포위망이 좁아지는 것을 발견한 그 그림자는 높은 강둑 중 하나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어둡고 거센 강물 속으로 첨벙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군요." 고통으로 싸늘해진 목소리로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지금쯤 그는 바위들이 있는 곳까지 밀려갔을

겁니다. 그곳은 그가 수많은 다른 이들을 보낸 곳이기도 하지요. 그는 가족 전설이 가진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 그런 비유 같은 말 말고요." 플랑보가 성급하게 외쳤다. "한 음절짜리 쉬운 말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없나요?"

"네," 브라운 신부가 호스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두 눈이 빛나면 괜찮고, 한 눈이 깜빡이면 가라앉는다'는 말이지."

불길은 파이프와 양동이의 물을 맞으며 점점 좁아졌다. 불은 질식한 자처럼 더 크게 허공을 찌르는 소리와 함께 쉰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브라운 신부는 그 불길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는 말을 계속했다.

"지금이 아침이기만 하다면, 이 젊은 여자에게 망원경으로 강 입구와 강을 살펴봐 달라고 해볼까 생각했소. 그녀라면 흥미를 끌 만한 것을 보았을지도 모르지. 배의 표지나 월터 펜드래건 씨의 귀항 모습, 그리고 어쩌면 반인(半人)의 표지까지도. 비록 그자가 지금은 무사하겠지만, 강을 건너 육지로 올라왔을 가능성이 크거든. 그는 다른 난파사건에서 겨우 벗어났소. 만약 그 여자가 노장군의 전보를 의심하고 그를 지켜보기 위해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그 위기를 모면하지 못했을 거요."

"노장군에 대해서는 말하지 맙시다. 다른 어떤 것도요. 그저 이 말만 하면 충분하오. 이 탑이 피치와 수지 나무로 되어 있어 정말로 불이 났

을 때, 수평선 위의 그 불빛이 항상 해안 등대의 빛과 쌍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오."

"그렇습니다, 플랑보가 말했다. "바로 그 방식으로 아버지와 형제가 죽음을 맞았죠. 전설 속의 사악한 삼촌은 결국 자신의 재산을 거의 손에 넣으려 했으니까요."

브라운 신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요트 선실의 담배갑을 둘러싼 모두가 무사히 모일 때까지 그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제외하고는 다시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진화한 불길을 확인했다. 그러고는 머물기를 거절했다. 강둑을 따라 발걸음 소리가 요란하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젊은 펜드래건이 열렬한 군중들의 호위를 받으며 오고 있었다. 만약 브라운 신부가 로맨스다운 호기심을 품고 있었다면, 배에서 온 남자와 카누에서 온 소녀의 합동 감사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피로는 다시 그를 덮쳤다. 플랑보가 갑자기 바지 위에 시꺼먼 재를 떨어뜨렸다고 말했을 때, 그는 비로소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그건 시가 재가 아니에요." 그가 지친 듯 말했다. "불꽃에서 나온 거죠. 하지만 당신들은 모두 시가를 피우다 보니 그걸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제가 지도에 대해 처음 의심을 품게 된 순간이었죠."

"펜드래건의 태평양 제도 지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팬쇼가 물었다.

"태평양 제도 지도라고 생각하셨죠?" 브라운 신부가 답했다. "화석과 산호 조각, 깃털 하나를 함께 넣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이 표본이라고 믿는다. 리본과 인공 꽃을 곁들인 깃털은 여자의 모자에 달린 장식이라고 여긴다. 잉크병과 책, 그리고 쌓아 올린 편지지를 곁들인 깃털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깃펜'이라고 단정 지을 만큼 친숙한 물건이다. 당신은 열대 새와 조개껍데기 사이에서 그 지도를 보았고, 태평양 제도 지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이 강을 그린 지도였다."

"그게 어떻게 아시죠?" 팬쇼가 물었다.

"용 같다고 생각했던 바위랑, 멀린 같다고 생각했던 바위랑, 그리고……"

"들어오면서 꽤 많은 걸 눈치채셨나 보군요." 팬쇼가 말했다. "우리는 신부가 딴생각에 잠겨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배멀미가 들었어요." 브라운 신부는 담담하게 말했다. "정말 기분이 최악이었죠. 하지만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눈앞의 것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자 그는 눈을 감았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걸 눈치챘을까요?" 플랑보가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브라운 신부는 이미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홉 -- 징의 신

초겨울의 한낮은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낮빛은 황금빛이라기보다 은빛에 가깝고, 은빛이라기보다 주석빛에 가까웠다. 백 개의 삭막한 사무실과 하품 나오는 거실에서는 이미 지루하기 그지없었지만, 에식스 평야 해안가 끝자락에서는 그 지루함이 더할 나위 없이 깊었다. 그곳의 단조로움은 인간적이지 않았다. 아주 드문 간격으로 서 있는 가로등이 나무보다 더 야생 같았고, 나무는 가로등보다 더 추해 보였기 때문이다.

가벼운 눈이 내렸다가 반쯤 녹아 몇 줄기 얼어붙은 자국을 남겼다. 서리가 내린 자국 때문에 납빛에 가까워 보였다. 새로 내린 눈은 없었다. 다만 해안선 가장자리를 따라 오래된 눈띠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눈띠는 창백한 거품띠와 평행선을 그리며 이어졌다.

보랏빛이 선명할 정도로 짙은 바다의 선은 마치 얼어붙은 손가락의 혈관처럼 고요하게 굳어 있었다. 앞뒤로 수 마일씩 이어진 해안선에는 숨을 쉬는 생명체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오직 두 명의 도보객만이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을 뿐이었다. 비록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훨씬 길고 걸음도 훨씬 컸지만, 그들은 모두 분주하게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휴가라기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장소이자 시기였지만, 브라운 신부에게는 휴가가 드물었다. 그는 가능한 때를 놓치지 않고 쉬어야 했다. 그리고 가능하면 늘 옛 친구인 플랑보와 함께 보내기를 선호했다. 전과자이면서 전직 형사였던 플랑보였다.

신부는 오래전 사목했던 코홀 마을을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그는 해안을 따라 북동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한두 마일 더 걸어가자, 해안가에는 비로소 정연한 제방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치 행렬을 이루듯 다져진 보도였다. 형편없이 드물고 어지럽게 서 있던 불쾌한 가로등은 조금 덜 드물어지고 더 장식적이 되었지만, 여전히 똑같이 추했다.

그로부터 반 마일쯤 더 나아가자, 브라운 신부는 이상한 꽃밭에 마주했다. 꽃은 피지 않았지만 화분만 무리 지어 놓은, 작은 미로 같은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평평하고 차분한 색조의 낮은 식물들이 가득했다. 정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타일로 깔린 포장마당처럼 보였다. 그 사이로 곱게 말린 나뭇가지처럼 구불거리는 산책로가 얽혀 있었고, 등받이가 곱게 감긴 의자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다.

신부는 코끝으로 낯익은, 그러나 특별히 마음에 들지 않는 해안 도시의 분위기를 맡았다. 그리고 바다를 따라 늘어선 보도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그는 모든 의심을 불식시킬 단서를 발견했다. 회색 안개 너머로, 휴양지의 큰 음악당이 우뚝 서 있었다. 다리가 여섯 개 달린 거대한 버섯처럼.

"아무래도," 브라운 신부가 외투 깃을 세우고 두꺼운 울 스카프를 목에 더 단단히 동여매며 말했다. "우리가 곧 유흥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플랑보가 답했다. "요즘은 사람들이 좀처럼 즐겨 찾지 않는 위락지인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런 곳을 살려보려 애쓰지만, 브라이튼이나 오래된 곳들 외에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아마 시우드일 겁니다. 폴리 경이 시도한 곳이지요. 성탄절에는 시칠리아 가수들을 불러들였고, 큰 글러브 경기 하나를 여기서 열 계획이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썩은 장소를 바다에 던져버려야 할 겁니다. 잃어버린 기차차량만큼이나 황량하니까요."

그들은 큰 밴드 스탠드 아래로 들어섰다. 신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것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인 새처럼, 묘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목적에 맞게 지어진 관습적인 구조물이었다. 다소 천박한 느낌의 평평한 돔이나 천막 형태였다. 금박이 여기저기 칠해졌고, 여섯 기의 가는 목재 기둥 위에 올려져 있었다. 기둥은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다. 전체 구조물은 해안 산책로보다 약 5피트 정도 높은, 드럼통 같은 원형 목조 플랫폼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눈송이와 금박의 조화에는 기이한 점이 있었다. 금박은 인공적인 냄새를 풍겼고, 눈은 자연스러웠다. 그 대비가 플랑보와 그의 친구 모두를 사로잡았다. 두 사람은 그 느낌이 무엇인지 정확히 붙잡을 수는 없었지만, 예술적이면서도 낯선 무언가가 그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알았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이건 일본식이야. 마치 환상적인 일본 판화 같지. 산 위의 눈은 설탕처럼 하얗고, 탑의 금장은 생강과자 위의 금박처럼 빛나. 정말 작은 이교도 신전처럼 보여."

"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 신상을 좀 살펴볼까요."

그는 예상치 못한 민첩함으로 높은 단상 위로 뛰어 올랐다.

"아, 좋습니다." 플랑보가 웃으며 말했다. 다음 순간, 그 기묘한 단상 위에 그의 키 큰 몸매가 또렷이 모습을 드러냈다.

키의 차이는 미미했지만, 그 작은 높이 차이가 평평한 땅 위에서는 시야를 한층 더 넓게 열어주었다. 육지 쪽을 보면, 작은 겨울 정원은 흐릿한 회색의 수풀 속으로 사라져 갔다. 그 너머 멀리 외로운 농가의 긴 낮은 창고들이 보였고, 그 너머에는 이스트 앵글리아의 긴 평야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바다 쪽으로 눈을 돌리면, 돛배 하나, 생명체의 흔적 하나 없었으며, 몇 마리 갈매기만이 날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들은 마치 마지막 눈송이처럼 보였고, 날아다니기보다는 공중에 떠 있는 듯했다.

플랑보가 뒤에서 들려온 외침에 급히 돌아섰다. 그 소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은 곳에서, 그의 머리가 아니라 발뒤꿈치를 향해 들려오는 듯했다. 그는 즉시 손을 뻗었지만, 눈앞의 광경을 보고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브라운 신부가 서 있던 플랫폼 바닥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불쌍한 작은 신부는 무너진 나무 틈새로 추락해 산책로

높이까지 내려앉았다. 그는 키가 딱 그 정도여서, 고개만 홀룩 빠져나와 있었다. 깨진 나무 조각 사이로 드러난 그의 얼굴은, 성 요한 세례자의 머리가 쟁반 위에 올려진 것처럼 보였다.

그의 표정은 당황한 기색으로 가득했다. 아마도 성 요한 세례자의 얼굴도 비슷한 표정이었을 것이다.

잠시 후, 그는 살짝 웃음을 터뜨렸다.

"이 나무는 썩었나 보다." 플랑보가 말했다. "이상한 건, 나무가 나를 버텨주면서 정작 당신이 약한 곳으로 빠졌다는 거야. 내가 도와줄까?"

작은 사제는 썩었다는 그 나무의 모서리와 귀퉁이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묘한 근심이 서려 있었다.

"어서 가자고!" 플랑보가 재촉했다. 그는 여전히 큰 갈색 손을 뻗은 채였다. "당신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소?"

신부는 부러진 나무 조각을 손가락과 엄지 사이로 꼭 쥐고 있었다. 그는 곧장 답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밖으로 나가려 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는 말끝을 맺자마자 나무 바닥 아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 동작이 너무 갑작스러워 그의 큰 곡선형 성직자 모자가 벗겨져 나무 판자 위에 그대로 놓여졌다. 모자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플랑보는 다시 한 번 육지와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눈에 들어온 것은 겨울 바다와 눈뿐이었다. 겨울 바다의 차가운 물결은 눈처럼 차갑고, 눈 덮인 평원은 바다처럼 고요했다.

그 뒤에서 발버둥 치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사제는 떨어질 때보다 더 빠르게 구멍에서 기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결의에 찬 표정이었다. 아마도 눈의 반사광 때문이었을까. 평소보다 조금 창백해 보였다.

"그래?" 키가 큰 친구가 물었다. "사원의 신을 찾았나?"

"아닙니다." 브라운 신부가 대답했다. "저는 때때로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희생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이오?" 플랑보가 놀라 부르짖었다.

브라운 신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마에 주름을 잡힌 채 그는 풍경을 응시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것을 가리켰다. "저기 있는 그 집이 뭐지?" 그가 물었다.

플랑보는 그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처음 보는 것이었다. 농가보다 더 가까운 곳, 하지만 대부분 나무들의 가장자리 뒤에 가려진 건물의 모서리가 보였다. 그 건물은 크지 않았고, 해안선에서 꽤 떨어

져 서 있었다. 하지만 건물에 빛나는 장식이 눈에 띄었다. 그 장식은 밴드 스탠드, 작은 정원, 그리고 구부러진 등받이가 있는 철제 의자들과 같은 휴양지 장식 계획의 일부처럼 보였다.

브라운 신부는 밴드스탠드에서 뛰어내렸고, 친구도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가자, 양옆의 나무들이 비켜서며 한 곳의 풍경이 드러났다. 그곳은 리조트에 흔히 있는, 다소 번지르르한 호텔이었다. 조용한 바 팔러보다는, 사교적인 살롱 바에 더 가까운 곳이었다.

호텔 정면은 거의 금박을 입힌 석고와 무늬 유리로 덮여 있었다. 회색빛 바다 풍경과 마녀처럼 흐릿한 나무들 사이에서, 그 호텔은 허술한 장난감 같은 느낌을 풍겼다. 그 멜랑콜리한 모습은 마치 유령처럼 기이했다. 두 사람은 어렴풋이, 만약 이런 여관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내준다면, 그것은 팬터마임 소품 같은 판지 햄과 빈 머그잔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들의 확신은 완전히 옳지 않았다.

그들이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정면의 뷔페가 닫혀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물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정원 한가운데에 장식용으로 놓여 있던, 등받이가 구불구불한 철제 벤치와 비슷한 것이었다. 다만 그것은 훨씬 길어서, 건물의 정면 전체에 거의 다 닿을 정도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아마도 방문객들이 그곳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둔 것일 테다. 하지만 이런 날씨에 누군가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철제 좌석 끝자락 바로 앞에는 작은 원형 식당용 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샤블리 와인 한 병과 아몬드와 건포도가 담긴 접시가 얹혀 있었다. 탁자 뒤쪽, 좌석 위에는 맨머리의 다크헤어 젊은이가 앉아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놀라울 만큼 움직임 없이 고요했다.

그들은 네 야드까지 다가갔을 때, 그가 마치 왁스 인형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 줄 알았다. 하지만 세 야드까지 다가가자 그는 마치 장난감 상자에서 튀어나온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겸손하지만 품위 있는 어조로 말했다.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신사 여러분? 지금은 직원이 없습니다만, 간단한 것이라면 제가 직접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소." 플랑보가 말했다. "그럼 이 집 주인이 당신인가?"

"네." 어두운 남자가 다시 고요한 태도로 돌아서며 말했다. "내 웨이터들은 모두 이탈리아인이라서요. 만약 그가 정말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자신의 동포가 흑인을 이기는 모습을 보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볼리와 니거 네드의 대결이 결국 열린다는 거 아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주인장의 환대에 폐를 심하게 끼칠 수는 없겠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하지만 제 친구는 한 잔의 셰리라도 얻

어 마시며 추위를 녹이고 라틴 챔피언의 승리를 기원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 점이 분명하다고 확신합니다."

플랑보는 왜 세리를 청했는지 영문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거절하지 않았다. 그저 다정하게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셰리요, 선생님. 물론이지요." 주인이 자신의 여관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직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셔터가 내려진, 불도 켜지지 않은 그의 여관의 검은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아,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플랑보가 입을 열자, 남자는 그를 안심시키려 고개를 돌렸다.

"열쇠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 들어갈 수 있죠."

"그건 제가 뜻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을 시작했다.

그때, 거주하지 않는 호텔의 지하에서 우렁찬 인간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목소리는 어떤 외국 이름을 크게, 그러나 또렷이 들리지 않게 외쳤다. 호텔 주인은 플랑보가 요구한 샤리 포도주보다 더 급하게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즉각적인 증거가 증명하듯, 호텔 주인은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오직 문자 그대로의 진실만 말했을 뿐이다.

하지만 플랑보와 브라운 신부는 종종 고백했다. 그들의 수많은(종종 터무니없는) 모험 중에서도, 고요하고 텅 빈 여관에서 갑자기 울려 퍼진 그 오거의 목소리만큼 그들의 피를 식게 만든 적은 없었다고.

"제 요리사요!" 주인이 급히 대답했다. "제 요리사를 깜빡했군요. 곧 출발할 겁니다. 샤리 드릴까요, 신부님?"

문턱 너머로 거대한 흰색 덩어리가 나타났다. 흰 모자에 흰 앞치마를 두른, 요리사다운 차림새였으나, 검은 얼굴이 불필요할 정도로 강조되어 있었다. 플랑보는 흑인들이 훌륭한 요리사가 된다는 말을 종종 들어왔다. 그러나 색채와 계급의 대비가 어딘지 그의 놀라움을 더했다. 호텔 주인이 요리사의 부름에 응하고, 정작 요리사는 주인의 부름에는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생각했다. 수석 요리사들은 본디 오만하기로 소문나 있잖은가. 게다가 주인은 쉐리를 가져다주며 돌아왔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정말 의아한 건,"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이렇게 큰 싸움이 벌어지려 하는데, 해변에 사람이 이렇게 적다는 거야. 여기에서 수 마일 떨어진 곳까지 사람 하나 만나지 못했어."

호텔 주인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들은 이 도시 반대편에서 옵니다. 여기에서 세 마일 떨어진 역 쪽으로요. 그들은 그저 스포츠를 즐기는

것일 뿐, 밤새 묵으러 호텔에 들르는 것뿐입니다. 결국, 해변에서 햇볕을 쬐기에는 날씨가 그리 좋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좌석 위에도요." 플랑보가 작은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다.

"경계를 늦출 수 없소." 얼굴이 움직이지 않는 남자가 말했다. 그는 조용하고 단정한 외모의 남자로, 피부는 다소 누렇게 쉰 편이었다. 그의 어두운 옷차림에는 특별한 개성이 없었지만, 검은 넥타이를 목깃처럼 높게 매고 금색 핀으로 고정했다는 점은 유별났다. 그 핀에는 기괴한 형상의 장식이 달려 있었다. 그의 얼굴에도 눈에 띄는 특징은 없었지만, 한쪽 눈을 다른 쪽보다 더 좁게 뜨는 습관만이 있었다. 이는 아마도 신경성 버릇일 뿐이었겠지만, 다른 쪽 눈이 더 크거나, 혹은 인공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인상을 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호스트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당신의 행군 중, 단 한 명의 남자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의외로 말이지만, 여기 바로 근처예요. 바로 그 음악당 옆이죠."

플랑보는 긴 철제 의자에 앉아 셰리를 마시던 중이었다. 그는 잔을 내려놓은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친구를 향해 경악한 눈빛으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흥미롭군." 다크헤어 남자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그 사람이 어땠지?"

"그때는 좀 어두웠어요." 브라운 신부가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말했듯이, 호텔 주인이 정확히 진실만 말했다는 점은 입증될 수 있다. 그가 요리사가 곧 출발할 것이라고 한 말은 글자 그대로 지켜졌다. 그들이 말을 나눌 때, 요리사는 장갑을 끼며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문틈으로 잠깐 모습을 드러냈던 하얗고 검은 것이 뒤섞인 어수선한 형상과는 사뭇 달랐다. 그는 단추와 버클을 눈이 터질 듯이 조여 매고, 가장 화려하게 차려입었다. 넓은 검은 머리 위로 키가 큰 검은 모자를 비스듬히 눌러썼다. 프랑스의 풍자가가 '거울 여덟 장'에 비유한 그런 종류의 모자였다. 그러나 어쩐지 그 검은 남자는 그 검은 모자와 닮아 있었다. 그 역시 검은색이었지만, 윤기 나는 피부는 여덟 각도 이상으로 빛을 반사해냈다. 흰색 스패츠와 조끼 안쪽에 입은 흰색 슬립을 입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단추 구멍에 꽂힌 붉은 꽃은 마치 갑자기 그곳에서 자라난 것처럼 날카롭게 서 있었다. 한 손에는 지팡이를, 다른 한 손에는 시가를 든 그의 자세에는 특유의 태도가 서려 있었다. 인종 편견을 논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그 태도, 즉 무고하면서도 당당한, 케이크 워크 같은 것.

"때로는," 플랑보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이 그들을 린치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지옥의 소산이라면 어떤 것이든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흑인이 노골적으로 노란 장갑을 끼며, 회색빛의 서리 낀 풍경 속 기묘한 뮤직홀 배우처럼 활기차게 물가로 걸어가는 것을 뒤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남자를 아주 세밀하게 묘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국의 금융가 초상화에 나오는 것처럼, 곱슬곱슬한 턱수염과 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었죠. 색은 어둡거나 염색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긴 보라색 스카프를 감고 있었는데, 그가 걸을 때마다 바람에 휘날리며 사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스카프는 목덜미에 고정되어 있었는데,보육사들이 아이들의 목도리를 안전핀으로 고정하는 방식과 비슷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신부가 평온한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것은 안전핀이 아니었습니다."

긴 철제 벤치에 앉아 있는 남자도 고요히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다시 평온에 잠겼다. 플랑보는 확신했다. 그 남자의 한쪽 눈이 원래부터 다른 쪽보다 컸다는 것을. 두 눈은 모두 크게 떠 있었고, 그가 바라볼수록 왼쪽 눈이 더 커지는 것 같았다.

"그것은 매우 긴 금색 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원숭이나 그런 동물의 조각이 새겨져 있었죠." 신부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그 핀을 끼우는 방식이 좀 특이했습니다. 그는 핀네즈 안경을 쓰고 있었고, 넓은 검은색——"

그 움직이지 않는 남자는 여전히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두 명의 다른 사람에게서 온 것처럼 달랐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눈 깜짝할 새 움직임을 보였다.

브라운 신부는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죽을 수도 있었다. 플랑보에게는 무기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큼직한 갈색 손은 긴 철제 벤치 끝부분을 쥐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갑자기 형태를 바꾸더니, 그는 거대한 물체 전체를 머리 위로 힘껏 들어 올렸다. 마치 처형인이 내리찍으려 하는 도끼처럼. 그가 그것을 수직으로 들어 올렸을 때, 그 높이만으로도 마치 그가 별들을 향해 오를 수 있는 긴 사다리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평으로 비추는 저녁 햇살 아래 드리운 긴 그림자는, 에펠탑을 휘두르는 거인처럼 보였다. 바로 그 그림자의 충격이, 철제 물체가 부딪히는 소리의 충격보다 먼저, 낯선 사람을 움찔하게 만들어 피하게 했고, 그는 자신의 여관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떨어뜨렸던 납작하고 빛나는 단검을, 떨어진 그대로의 자리에 남겨둔 채였다.

"당장 여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플랑보가 외치며 거대한 의자를 해안가 너머로 힘껏 던졌다. 그는 작은 사제의 팔꿈치를 잡은 채, 황량한 뒷마당이 길게 이어지는 회색 골목길을 그를 몰아세우듯 달렸다. 그 끝에는 닫힌 뒷문이 있었다. 플랑보는 잠시 동안 격렬한 침묵 속에서 그 문 위에 몸을 숙였다. 그러고는 말했다. "문이 잠겨 있군요."

말을 하는 도중, 장식용 가문비나무 한 그루에서 검은 깃털 한 장이 떨어져 그의 모자 챙을 스쳤다. 그 작은 충격은 그가 방금 전에 들었던 멀리서 터지는 폭발음보다 더 그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다시 멀리서 폭발음이 들려왔다. 그가 열려고 애쓰던 문이, 그 안에 박힌 총알의 충격으로 덜컹 흔들렸다. 플랑보의 어깨가 다시 팽팽해지며 그의 자세가 갑자기 달라졌다.

세 개의 경첩과 자물쇠가 동시에 터져 나갔다. 그는 거대한 정원 문을 들고 빈 길 뒤로 뛰쳐나갔다. 마치 삼손이 가자의 성문을 들어 옮긴 것처럼.

그는 정원 문짝을 집어 던지며 정원 담장을 넘었다. 그 순간, 세 번째 총성이 그의 발뒤꿈치 뒤에서 눈과 흙을 날리며 날아왔다. 그는 거리낌 없이 작은 신부를 집어 어깨에 업고, 긴 다리가 데려갈 수 있는 한 빠르게 시우우드 쪽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가 작은 동료를 내려놓은 곳은 그곳에서 거의 두 마일쯤 더 나아간 곳이었다. 안키세스의 고전적인 모델에 비유하더라도 그 탈출은 그리 위엄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브라운 신부의 얼굴에는 활짝 웃음이 번져 있었다.

플랑보가 잠시 참지 못한 듯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위험할 것 없는, 도시 가장자리의 평범한 거리를 걸으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글쎄, 플랑보가 말했다. '이 모든 게 무슨 뜻인지 나는 모르겠소.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본 이상, 당신이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한 남자를 결코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건 확신할 수 있소.'"

"어떤 의미에서는 맞닥뜨렸죠," 브라운 신부가 손가락을 깨물며 다소 긴장한 듯 말했다. "진짜로요. 하지만 밴드스탠드 아래라 너무 어둡

게 보여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묘사한 게 그리 정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의 코안경이 부서져 있었고, 긴 금색 핀이 보라색 스카프가 아니라 그의 심장을 관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유리 눈의 남자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었겠지요." 다른 한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이 일에 조금만 관련되어 있기를 바랐습니다." 브라운 신부의 목소리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내가 한 행동이 잘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충동에 사로잡혀 행동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일이 뿌리가 깊고 어둡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들은 몇 거리를 더 걸으며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푸른 황혼빛 속에서 노란 가로등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분명히 도시의 더 중심부로 향하고 있었다. 벽면에는 '니저 네드'와 '말볼리'의 글러브 파이트를 알리는 다채로운 포스터들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글쎄요," 플랑보가 말했다. "나는 범죄자 시절에도 결코 누구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황량한 곳에서 누군가 살인을 저지른다면, 거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자연이 버려둔 쓰레기통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것은, 원래는 축제와 기쁨을 위해 지어졌으나 지금은 외로움과 허무함만 남긴 곳들이죠. 그런 광경의 고독과 아이러니가, 어떤 병적인 남자로 하여금 경쟁자를 죽여야 한다고 느끼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이었다. “한때 영광스러운 서리(Surrey)의 언덕을 거닐었던 적이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가시금작화와 종달새 생각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거대한 원형의 땅 한복판에 다다랐습니다. 그 위로는 거대하고도 소리 없는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죠. 로마의 원형 극장처럼 거대하면서도, 새 편지함처럼 텅 비어 있는 좌석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늘 위를 한 마리 새가 날아갔습니다. 그곳은 엡솜(Epsom)의 그랜드 스탠드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곳에서 다시는 아무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엡솜을 언급하시다니 참 묘하군요.” 신부가 말했다.

“서턴의 미스터리 사건 기억나십니까? 두 명의 용의자, 아마도 아이스크림 장수들이었죠,가 서턴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심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결국 그들은 석방되었지만요. 그 일대 들판에서 한 남자가 목이 졸려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달랐습니다. 제 친구인 아일랜드 경찰관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시체는 엡솜 대경기장 바로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만 아래쪽 출입문 중 하나가 안쪽으로 열려 있어, 그 문 뒤쪽에 숨겨져 있을 뿐이었죠.

“정말 이상하군요.” 플랑보가 동의했다. “하지만 그건 제 생각과도 일치합니다. 이런 오락거리 장소는 계절이 벗어나면 정말 외롭기 마련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 남자가 그곳에서 살해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그가……" 브라운 신부가 말을 시작하곤 멈췄다.

"살해당한 게 확실치 않다는 말씀이오?" 동료가 물었다.

"살해당한 시기가 계절과 맞지 않는다고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신부는 담담하게 말했다.

"플랑보, 이 고립감이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현명한 살인자가 항상 외로운 장소를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은 거의 혼자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혼자일수록, 더 쉽게 눈에 띕니다."

"아니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가 파빌리온이군요. 아니면 궁전이라 부르는지, 뭐라 부르든."

그들은 환하게 빛나는 작은 광장 한복판으로 나왔다. 광장의 중심 건물은 금박으로 치장해 눈이 부실 지경이었고, 포스터들로 도배된 외관은 사치스럽기까지 했다. 건물 양쪽에는 말볼리와 니저 네드의 거대한 사진이 나란히 서 있었다.

"아!" 플랑보가 크게 놀라 외쳤다. 신부가 넓은 계단을 똑바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는. "권투가 신부의 최신 취미라니요. 그 경기를 보러 가시는 겁니까?"

"싸움은 없을 겁니다." 브라운 신부가 답했다.

그들은 앞방과 안방을 빠르게 지나쳤다. 이어 격투장이자 복싱 링인 홀을 통과했다. 여기에는 수많은 좌석과 박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줄

로 둘러싸여 쿠션 처리도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신부는 뒤를 돌아보지도, 잠시 멈춰 서지도 않았다.

그가 멈춘 곳은 '위원회'라고 적힌 문 밖의 책상 앞에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서기를 향해 폴리 경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

안내원은 그분이 매우 바쁘다고 말했다. 싸움이 곧 시작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브라운 신부는 끈기 있게 되풀이하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덕분에 관료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다소 당황한 플랑보는 한 남자가 방을 나가는 다른 사람에게 여전히 지시를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네, 알겠지? 네 번째 이후로는 밧줄에 조심해라."

그리고는 플랑보를 향해 물었다.

"그래서, 뭘 원한다는 거야?"

폴리 경은 신사였다. 하지만 우리 종족 중 드물게 남아 있는 이들처럼, 그는 늘 걱정으로 가득 찼다. 특히 돈에 대한 걱정이 컸다. 그의 머리는 회색과 창백한 금발이 반반씩 섞여 있었고, 열병에 걸린 듯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코는 높고 가늘었지만 서리 내린 듯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말씀이 하나뿐입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어떤 사람이 죽는 것을 막으러 왔습니다."

폴리 경은 의자에서 갑자기 튀어 오르며 외쳤다. 마치 용수철이 그를 밖으로 밀어낸 듯했다.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소!"

"당신과 당신의 위원회, 신부들, 그리고 청원서들이라니! 예전에는 장갑도 끼지 않고 싸우던 시절에 신부들이 없었소?"

"이제는 정해진 장갑을 끼고 싸우니, 링 안의 두 선수가 죽을 가능성은 단 한 조각도 남아 있지 않소."

"나는 두 권투 선수 중 어느 쪽도 뜻한 게 아니에요." 작은 신부가 말했다.

"어머, 어머!" 귀족이 서늘한 유머 섞인 어조로 말했다. "누가 죽게 될까? 심판?"

"누가 죽을지 저는 모릅니다." 브라운 신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만약 안다면, 당신의 즐거움을 망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도망치도록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결투나 권투 같은 싸움에 무슨 잘못이 있는 줄을 결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싸움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건 없소?" 열에 들뜬 눈빛으로 그 신사가 비웃듯 물었다. "그리고 그것을 보러 온 이천 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오?"

"저는요, 그들이 그걸 본 뒤에도 천구백구십구 명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폴리 경이 플랑보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친구가 미쳤소?"

"전혀 그렇지 않소."

"그리고 여기 좀 봐." 폴리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안절부절못하는 듯했다. "상황이 그보다 더 나빠. 말볼리를 지지하기 위해 이탈리아인 무리가 몰려왔거든. 어딘지 모를 땅에서 온, 까무잡잡하고 사나운 놈들이야. 지중해 연안의 종족들이 어떤 놈들인지는 너도 알잖아. 내가 중단한다고 소문을 내면, 말볼리가 코르시카 부족들을 이끌고 여기로 돌격해 올 거야."

"각하, 이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사제가 말했다. "종을 누르십시오. 메시지를 전하시고, 말볼리가 답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귀족이 탁자 위의 종을 이상할 정도로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울렸다. 곧 문턱에 나타난 서기에게 그는 말했다.

"곧 청중들에게 중요한 발표를 해야 하오. 그사이, 두 선수가 경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전해주시오."

서기는 몇 초 동안이나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마치 악마를 마주한 듯했다. 그리고는 이내 모습을 감추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폴리 경이 갑자기 물었다. "누구에게 상의한 겁니까?"

"저는 밴드스탠드를 참고했어요." 브라운 신부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저는 책도 참고했습니다. 런던의 노점상에서 산 책이었죠. 아주 저렴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고 단단한 가죽 표지의 책을 꺼냈다. 플랑보가 어깨 너머로 내다보니, 그것은 오래된 여행기를 담은 책인 듯했다. 참고하기 위해 한 페이지가 접혀 있었다.

"'부두 신앙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는—'" 브라운 신부가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각하가 물었다.

"'부두가 자메이카 자체를 벗어나 널리 조직되는 형태는,'" 독자가 다시금 되뇌었다. 거의 만족스러운 어조였다. "'그 형태는 '원숭이'라 불리거나 '꽹과리의 신'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이 신은 두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지역에서, 특히 백인처럼 보이는 혼혈인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부두는 대부분의 다른 악마 숭배나 인간 제사와 다릅니다. 제단 위에서 공식적으로 피를 바치는 대신, 군중들 사이에서 암살과 같은 형태로 피를 흘린다는 점이죠. 성소의 문이 열리고 원숭이 신이 모습을 드러낼 때, 꽹과리는 귀를 찢을 듯한 굉음을 울립니다. 거의 모든 신도들이 신에게 경탄의 시선을 고정하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방 문이 툭 하고 열리며, 세련된 풍모의 흑인 남자가 문설주에 걸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눈동자를 굴리며, 실크 모자를 여전히 당당하게 이마 위에 눌러쓴 채였다.

"후!" 그가 원숭이 같은 이를 드러내며 외쳤다. "이게 뭐란 말이냐? 후! 후! 너는 유색인종 신사의 상을 훔쳤어. 이미 그의 것이었던 상을! 그리고 너는 그저 그 하찮은 백인 이탈리아 쓰레기를 구원했다고 생각하나?"

"문제는 단지 미뤄질 뿐입니다." 귀족이 조용히 말했다. "잠시 후, 곧장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니거 네드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제 이름은 풀리입니다." 다른 한 사람이 당당하게 대답했다. "조직 비서입니다. 지금 당장 이 방에서 나가주십시오."

"저 자는 누구냐?" 어두운 챔피언이 신부를 비웃으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제 이름은 브라운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지금 당장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이 당신에게 좋을 겁니다."

그 복서 선수는 몇 초 동안 날카롭게 노려보더니, 플랑보와 다른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하며 문을 거칠게 닫고 밖으로 나갔다.

"브라운 신부가 먼지투성이 머리를 쓸어 올리며 물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를 어떻게 생각하나? 정말 아름다운 이탈리아인 얼굴이지."

"자, 보십시오." 풀리 경이 말했다. "당신의 그 말만 믿고 저는 꽤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경." 브라운 신부가 대답했다. "말씀드리는 데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는 작은 가죽 책을 외투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이 책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방금 당당하게 나간 그 흑인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유럽인의 두뇌를 지녔으면서도 야만인의 본능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는 동료 야만인들이 행하던 단순하고 상식적인 살인을,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암살 비밀결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가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은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더구나 제가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 역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작은 남자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누군가를 죽이려 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과 둘만 있게 되는 게 최선일까요?"

풀리 경은 작은 성직자를 바라보며 눈빛에서 서리처럼 차가운 빛이 다시 스며들었다. 그는 단 한 마디만 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면, 나는 그걸 권해야겠군."

브라운 신부는 훨씬 더 많은 경험을 쌓은 살인자처럼 고개를 저었다.

"플랑보도 그렇게 말했지." 그가 한숨을 쉬며 답했다. "하지만 생각해 봐. 사람은 외로울수록 자신이 혼자라는 확신이 덜 서게 마련이야. 그건 주변에 텅 빈 공간이 있다는 뜻이고, 그 텅 빈 공간이야말로 그를 눈에 띄게 만드는 요소잖아."

"너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한 명의 쟁기질하는 농부를 본 적이 없나? 혹은 골짜기에서 올라오는 한 명의 목동을 본 적이 없나? 절벽을 따라 걷다가 모래사장을 걷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없나?"

"그가 게를 잡았을 때, 너는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나? 만약 그가 채권자였다면 너는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겠는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나 나 같은 지적인 살인자라면, 아무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려는 그 계획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거야."

"그렇다면 다른 계획은 무엇인가?"

"단 하나의 방법뿐입니다." 신부가 말했다.

"모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지요. 엡섬의 큰 관중석 근처에서 한 남자가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관중석이 비어 있을 때는 누구나 그 장면을 목격했을 겁니다. 수풀 아래에 숨어 있던 거지든, 언덕 사이를 지나던 자동차 운전자든 말입니다. 하지만 관중석이 가득 차고, 경기장 전체가 함성으로 가득 찼을 때는 아무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인기마가 일등으로 들어오는 순간, 혹은 그렇지 않은 순간 말입니다.

목도리를 꼬는 동작, 혹은 누군가를 문 뒤로 밀어 넣는 행동은 순식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순간'이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물론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신부는 다시 플랑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밴드스탠드 아래에서 죽은 그 불쌍한 사내도 마찬가집니다. 그는 우연이 아닌 구멍을 통해 떨어뜨려졌습니다. 공연의 가장 극적인 순간, 즉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의 활이 최고조에 달하거나, 위대한 성악가의 목소리가 절정에 이를 때 말이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아웃을 안기는 일격이 가해졌을 때 말입니다. 그것은 유일한 공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작은 요령이 바로 '니거 네드'가 옛날 종의 신(God of Gongs)에게서 배워온 수법입니다."

"그런데 말인데, 말볼리--" 풀리가 입을 열었다.

"말볼리는 관계가 없소. 아마 그와 함께 이탈리아인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상냥한 친구들은 이탈리아인이 아니오. 그들은 옥토룬이고 아

프리카 반혈들이며, 다양한 색조를 지니고 있죠. 하지만 우리 영국인들은 그들이 어둡고 더럽기만 하면 모든 외국인을 똑같이 여기는 경향이 있소."

그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또 하나, 영어권 사람들은 제가 믿는 종교에서 피어나는 도덕적 품성과, 부두(Voodoo)에서 피어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여기는 것 같아서 두렵소."

봄의 열기가 세이우드에 맹렬하게 들이닥쳤다. 해안가에는 기아 구호 물자와 목욕용 의자가 어지럽게 널렸고, 유랑 설교자들과 흑인 분장 공연단이 활보했다. 두 친구가 그곳을 다시 찾았을 때면 이미 제법 시간이 흘렀고, 낯선 비밀 결사에 대한 추격의 물결이 가라앉은 지 오래였다.

그들의 목적에 대한 비밀은 거의 모든 곳에서 그들과 함께 사라졌다. 호텔 남자는 해초처럼 바다 위에서 떠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그의 오른쪽 눈은 평화롭게 감겨 있었지만, 왼쪽 눈은 크게 떠 있어 달빛 아래서 유리구슬처럼 빛났다. 니거 네드는 1~2마일 떨어진 곳에서 따라잡혔고, 주먹을 쥐고 경찰관 세 명을 살해했다. 남은 경찰관은 놀랐다—아니, 다쳤다. 흑인 남자는 도망쳤다.

하지만 이 사건만으로도 영국 전국 신문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한두 달 동안 대영 제국의 주요 관심사는 '양면적' 흑인 남자가 영국의 어떤 항구로도 탈출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그의 외모와 어느 정도 닮

은 사람들은 극심한 심문을 받았다. 배에 오르기 전에는 얼굴을 철저히 닦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마치 모든 백인의 피부가 분장용 기름 화장으로 만든 가면이기라도 한 것처럼. 영국 내 모든 흑인은 특별 규제의 대상이 되어 자기 신고를 해야 했으며, 출항하는 배들은 바실리스크(전설의 괴물)를 싣는 것만큼이나 흑인을 태우지 않았다.

사람들은 야만적인 비밀 결사의 힘이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고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플랑보와 브라운 신부가 4월, 산책로의 난간에 기대어 서 있을 때쯤이면, 잉글랜드에서 '흑인 남자'가 스코틀랜드에서 한때 의미하던 것과 거의 같은 공포를 자아내고 있었다.

"그는 아직 영국에 있을 겁니다." 플랑보가 말했다. "심지어 아주 철저하게 숨어 있을 테고요. 만약 얼굴만 하얗게 칠했다면, 그는 항구에서 이미 잡혔을 테니까요."

"보십시오, 그는 정말로 영리한 분이십니다." 브라운 신부가 사과하는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그가 얼굴을 하얗게 칠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도, 그는 대체 뭘 할 거야?"

"그는 자신의 얼굴을 까맣게 칠했을 겁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플랑보는 난간을 기대고 움직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내 친구!"

브라운 신부도 난간에 기대어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잠시 동안 그는 한 손가락을 움직여, 모래사장에서 노래하는, 검댕으로 얼굴을 칠한 흑인 분장 가수들을 가리켰다.

열 번째 이야기 — 크레이 대령의 샐러드

브라운 신부는 하얀 기이한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걷히던 때 미사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런 아침에는 빛이라는 요소조차도 신비롭고 낯선 무언가로 느껴지곤 했다. 안개 속으로 흩어진 나무들의 윤곽이 점점 또렷해졌다. 마치 회색 분필로 대강 그렸다가, 다시 숯으로 뚜렷하게 다시 그린 듯한 느낌이었다.

더 멀리 떨어진 곳에는 교외의 끝자락을 따라 집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곽이 점점 선명해지자, 그는 우연히 아는 지인이 사는 집들을 여러 채 알아볼 수 있었다. 집주인의 이름도 알고 있는 집들이 더 많았다. 하지만 모든 창문과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런 시간에 일어났을 리 없는 사람들이었고, 더구나 그런 용무로 밖을 나설 리가 없었다.

그가 발코니와 넓은 장식이 화려한 정원을 가진 한 호화로운 저택의 그림자 밑을 지나갈 때,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권총이나 카빈총, 혹은 그 밖의 가벼운 화기가 발사되는 소리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가장 당황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다. 첫 번째 큰 소리가 나자마자, 그 뒤로 더 작고 희미한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세어보니 대략 여섯 번이었다.

그는 이것이 반향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반향이 원래 소리와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이 다른 어떤 것과도 닮지 않았다고 느꼈다. 가장 가까운 비유를 들자면, 소다수 사이펀이 내는 소리, 동물이 내는 수많은 소리 중 하나, 그리고 웃음을 억누르려 애쓰는 사람이 내는 소리 정도였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크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

브라운 신부는 두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첫째는 행동의 사람이었고, 그에게 겸손은 산수유꽃 같았으며, 정시는 시계만큼이나 정확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의무의 원을 돌며, 결코 그것을 바꾸려 꿈꾸지 않았다.

둘째는 사색의 사람이었고, 그는 더 단순하지만 더 강인했다. 그의 생각은 쉽게 멈출 수 없었으며, 언제나(그 단어가 가진 유일한 지적인 의미에서) 자유로웠다. 그는 무의식 중이더라도, 묻혀야 할 모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가능한 한 많은 질문에 답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이는 그의 숨결이나 혈액 순환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의무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경우, 두 가지 태도는 적절하게 시험받게 되었다.

그는 황혼 속에서 다시 걷기를 시작하려 했다. 자신에게는 무관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이상한 소리가 무엇을 의미할지에 대한 스무 가지 이론을 본능적으로 풀고 다시 꼬아댔다.

그때 회색 하늘의 선이 은빛으로 밝아졌고, 넓어지는 빛 속에서 그는 자신이 앤글로-인도인 퍼트넘 소령의 집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소령에게는 자신과 같은 교파인 몰타 출신 요리사가 있다는 것도 기억났다.

또한 총성이 때때로 심각한 일이며, 신부가 legitimately(정당하게) 관여해야 할 결과를 동반한다는 것도 떠올랐다.

그는 발을 돌려 정문으로 향하며 정원의 문으로 들어섰다.

집 한쪽 중간쯤에는 아주 낮은 창고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다. 나중에 그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은 큰 쓰레기통이었다. 그 쓰레기통 모퉁이 너머로 한 인물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안개 속의 흐릿한 그림자에 불과했지만, 허리를 굽히고 주변을 살피는 듯했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오자, 형체는 확실히 드러났다. 그 형체는 유난히 단단해 보였다. 퍼트넘 소령은 탈모가 심하고 목이 굵은 남자로, 키는 작고 몸은 매우 넓적했다. 그의 얼굴은 동양의 기후와 서양의 사치를 오래도록 함께 누려온 결과인지, 다소 충혈된 기색이 돌았다.

하지만 그 얼굴은 나쁜 기색이 없었다. 분명히 당황하고 호기심에 찬 표정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순진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머리 뒤쪽에 큰 야자수 모자를 뒤집어쓰고 있었다. 그 모자는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는, 오히려 성자의 후광을 연상시켰다.

그 외에는, 그는 붉은색과 노란색 줄무늬가 선명한 잠옷만 입고 있었다. 그 잠옷은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지만, 선선

한 아침에는 입기에 꽤나 추웠을 것이다. 그는 분명히 집을 급히 나간 모양이었다. 신부는 그가 아무런 예의도 없이 곧장 외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았다.

"저 소리를 들었소?"

"네," 브라운 신부가 답했다. "혹시 이상한 일이라도 생겼을까 봐, 한번 들러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소."

소령은 그 사람을 유별나게도, 그러나 친절한 구스베리 빛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 소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소리 같기도 했어요. 아니면 뭔지……." 다른 한 사람이 망설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메아리가 울렸어요."

소령은 여전히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튀어나올 듯이 경계하는 표정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힘차게 열리며, 희미하게 걷히던 안개 위로 가스등 빛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파자마 차림의 또 한 명의 인물이 정원으로 뛰어내렸다.

그 인물은 훨씬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다. 운동선수처럼 날렵한 몸매였다. 파자마 역시 열대풍이었지만, 색감은 비교적 단정했다. 흰 바탕에 연한 레몬색 줄무늬가 들어간 것이었다.

남자의 얼굴은 피로에 그슬린 듯했다. 하지만 잘생긴 얼굴이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그을린 피부였다. 콧날이 높고 눈이 움푹 패어 있었다. 검은 머리와 훨씬 옅은 수염의 조화에서 오는, 묘한 기이함이 그의 얼굴에 감돌고 있었다.

브라운 신부는 이 모든 디테일을 여유 있게 흡수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본 것은 단 한 가지였다.

그 남자의 손에 쥔 권총이었다.

"크레이!" 소령이 그를 응시하며 외쳤다. "그 총성을 쏜 게 당신인가?"

"네, 그랬습니다." 검은 머리의 신사가 격하게 반박했다. "당신도 내 자리라면 똑같이 했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사탄들에게 온갖 곳에서 쫓기고 거의--"

소령은 서둘러 끼어들었다. "이분은 제 친구인 브라운 신부입니다." 그러고는 브라운에게 말했다. "로열 아티러리(왕립포병대)의 크레이 대령을 만나보셨나요?"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신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당신은…… 무언가를 맞혔습니까?"

"그런 것 같소." 크레이가 진지하게 답했다.

"그가——" 퍼트넘 소령이 낮게 물었다. "그가 쓰러졌는가, 비명을 질렀는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는가?"

크레이 대령은 주인을 향해 기이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그가 정확히 뭘 했는지 말해 드리죠."

대령이 말했다.

"그는 재채기를 했어요."

브라운 신부의 손이 반쯤 머리 쪽으로 올라갔다. 누군가의 이름을 문득 떠올릴 때 하던 그 제스처였다. 이제야 그는 그 소리가 탄산수도, 개 짖는 소리도 아님을 알아차렸다.

"그래." 멍하니 서 있던 소령이 툭 내뱉었다. "군용 권총이 재채기할 거리가 되는 물건이라는 말은 여태 들어본 적이 없는걸."

"저도 아닙니다." 브라운 신부가 옅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그에게 포격을 가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감기라도 심하게 걸렸을 테니까."

그는 잠시 당혹스러운 침묵에 잠겼다. 그러고는 물었다.

"도둑이었습니까?"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퍼트넘 소령이 다소 날카롭게 말하며 앞장서서 집 안으로 들어섰다.

아침 시간대라면 흔히 목격되는 역설이 방 안에는 존재했다. 밖의 하늘보다 방 안이 더 밝게 느껴지는 현상이었다. 소령이 현관 복도에 있는 유일한 가스불을 꺼버린 뒤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브라운 신부는 식탁이 축제 같은 상차림으로 차려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냅킨은 링에 말려 있고, 접시 옆에는 여섯 가지나 되는 불필요해 보이는 모양의 와인 잔이 놓여 있었다.

그 시각에 전날 밤 잔치 자리가 남아 있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일찍, 갓 차린 듯한 상을 마주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가 현관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퍼트넘 소령이 그를 지나쳐 지나갔다. 그는 식탁을 감싸고 있는 긴 식탁보 위를 격분한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헐떡이며 말을 꺼냈다. "은제품이 다 사라졌어!" 그는 숨을 헐떡였다. "생선 칼과 포크가 없어졌어. 오래된 크루엣 스탠드도 없어졌어. 심지어 오래된 은 크림 주전자까지도 없어졌어. 이제, 브라운 신부, 내가 강도범이 맞는지당신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됐어."

"그건 그저 눈속임일 뿐입니다." 크레이가 완고하게 말했다. "왜 사람들이 이 집을 박해하는지, 왜--" 나는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소령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마치 아픈 아이를 달래듯 독특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리고 말했다. "도둑놈이었어. 분명히 도둑놈이야."

"감기에 걸린 강도라니,"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렇다면 근처에서 그를 찾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소령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추적할 수 없을 만큼 멀리 갔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총을 든 초조한 남자가 다시 정원의 문 쪽으로 몸을 돌리자, 그는 쉰 목소리로 속삭이듯 덧붙였다.

"경찰을 부르진 않을 겁니다. 제 친구가 총알을 좀 남용해서 법과 마찰을 빚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는 매우 야생적인 곳에서 살아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는 가끔 헛것을 보기도 합니다."

"일전에 당신에게 들은 말로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가 어떤 인도 비밀 결사가 자신을 쫓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퍼트넘 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어깨를 으쓱였다.

"저쪽 밖으로 따라나가는 게 좋겠소."

그가 말했다.

"이제 더는 재채기라도 당하고 싶지 않거든."

두 사람은 아침 햇살이 비치는 밖으로 나왔다. 해빛이 살짝 섞인 아침 공기는 아직 선선했지만, 눈앞에 크레이 대령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몸을 거의 반으로 접다시피 굽혀, 자갈과 잔디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소령은 자연스럽게 크레이 대령 쪽으로 다가가려 했다. 반면 신부는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집의 다음 모퉁이를 돌아, 먼지통에서 한 두 발짝 떨어진 곳에 이르렀다.

브라운 신부는 그 처참한 사물을 1분 반쯤 응시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다가와 뚜껑을 들어 올리고, 머리를 안으로 깊숙이 넣었다. 뚜껑을 들어 올리자 먼지와 누렇게 변한 더러운 먼지들이 공중으로 흩날렸다. 하지만 브라운 신부는 자신의 모습이 어찌 되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외모에는 무심했다.

그는 잠시 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다. 마치 어떤 신비로운 기도를 올리는 듯했다. 그러더니 다시 밖으로 나왔다. 머리카락에는 재가 살짝 묻어 있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서 그 자리를 떠났다.

셰프와 미식가가 속한 그룹의 세 번째 인물도 브라운 신부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바로 오드리 왓슨, 대위의 피후견인이자 가정부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을 보면 앞치마를 두르고 소매를 걷어붙인 단호한 태도에서, 피후견인이라기보다는 가정부의 면모가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당신에게 마땅한 벌이야." 그녀가 말했다. "내가 그 낡은 양념통을 두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잖아."

"저는 그쪽이 더 좋습니다." 퍼트넘은 온화하게 말했다. "저도 좀 구식이라서요. 그리고 물건들이 한곳에 모여 있으니까요."

"그렇게 함께 사라진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그녀가 되받아 말했다.

"자, 도둑질 따위 신경 쓰지 않겠다면, 나도 점심은 신경 쓰지 않겠소.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식초 같은 걸 마을에서 사 올 수도 없고, 당신 같은 인도인 신사들은 뜨거운 음식 없이는 만찬을 즐기지 못하잖소.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이 올리버 사촌에게 날 음악 예배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지 말걸 그랬소. 예배는 12시 반까지 끝나지 않는데, 대령은 그때까지 떠날 일이 있소. 당신들 남자들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거요."

"물론이지, 내 사랑." 대위는 그녀를 매우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마르코가 모든 소스를 갖추고 있거든. 그리고 우리, 생각보다 훨씬 척박한 곳에서도 제법 잘 먹어왔어. 네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오드리, 너도 한번은 대접을 받아야 해.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음악도 듣고 싶어 한다는 건 내가 잘 알고 있어."

"저는 교회에 가고 싶어요." 그녀는 다소 엄격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녀는 언제까지나 아름다울 그런 미인들 중 하나였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일시적인 분위기나 색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 구조와 특징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이는 아직 중년에 이르지 않았고, 적갈색 머리는 티치아노의 화풍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녀의 입가와 눈가에는 어떤 표정이 어려 있었다. 그것은 바람이 그리스 신전의 모서리를 깎아내리듯, 슬픔이 그녀의 얼굴을 서서히 앗아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사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하고 있던 사소한 가정 내 문제는 비극이라기보다는 코믹했다. 브라운 신부는 대화의 흐름으로 미루어 보았다. 크레이라는 다른 미식가는 정오 식사보다 일찍 떠나야 했지만, 주최자 퍼트넘은 오랜 친구와의 마지막 만찬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아침 예배를 드리는 오드리와 다른 진지한 사람들에게는 양보하고, 오전 시간 동안 특별히 준비한 조식을 따로 차려 먹기로 한 것이었다.

그녀는 오드리만의 친척이자 오랜 친구인 올리버 오만 박사의 동행을 얻어 그곳으로 향했다. 오만 박사는 다소 냉소적인 성향의 과학자였지만, 음악에는 열정적이었다. 음악이라도 듣기 위해라면 교회에 가는 일쯤은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었다.

이 모든 상황은 미스 왓슨의 얼굴에 드리운 비극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였다. 브라운 신부는 반쯤 의식하지 못한 본능에 따라, 다시 초원을 헤매며 무언가를 캐고 있는 그 미친 듯한 사람 곁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가 옆으로 다가가자, 빗질도 하지 않은 검은 머리가 갑자기 들렸다. 마치 브라운 신부가 여태 곁에 머무는 것에 다소 놀란 듯했다. 그리고 실제로, 브라운 신부는 자신에게만 잘 알려진 이유들로 인해, 예의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심지어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허용되는 것보다 더 오래 머물렀다.

"그래!" 크레이가 사나운 눈빛으로 외쳤다. "너희 다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주장은 이미 살펴봤소." 작은 남자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쪽이오."

"무슨 소리요?" 크레이가 거칠게 쏘아붙였다.

"진정한 광인들은 자신의 병적인 사고를 항상 조장합니다. 결코 그것에 맞서 싸우지 않죠. 하지만 당신은 도둑의 흔적을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비록 그 흔적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맞서고 있는 거죠. 당신은 어떤 광인도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체 뭐라는 거죠?"

"당신은 스스로 틀렸다는 게 증명되기를 바라는 거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크레이는 마지막 말을 마치자마자 벌떡 일어나거나, 아니면 비틀거리며 일어서 있었다. 그는 초조한 눈빛으로 성직자를 바라보았다.

"젠장, 그건 참말이로구나!" 그가 외쳤다. "여기서 그 놈은 은붙이만 노렸다고들 하더군.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가 나를 괴롭혔지."

그는 어수선한 검은 머리를 뒤로 젖히며 오드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 방향을 볼 필요도 없었다.

"오늘 그녀는 내가 가엾고 무해한 집도둑을 쏜 게 너무 잔인했다고, 또 내가 가엾고 무해한 토착민들에게 악마처럼 군다고 나를 질책했지. 하지만 나도 한때는 성미가 좋은 사람이었어. 퍼트넘만큼이나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다.

"자, 들어보게. 나는 너를 처음 봐. 하지만 이 사건의 전말을 네가 판단해 주길 바란다. 올드 퍼트넘과 나는 같은 부대에서 함께 지냈지. 아프가니스탄 국경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나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빨리 지휘권을 얻었어. 하지만 우리 둘 다 잠시 건강이 나빠져 고향으로 돌아왔지.

거기서 나는 오드리와 약혼했어.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함께 귀국했지.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 정말 기묘한 일들이야. 그 결과로 퍼트넘은 우리 관계를 끊으려 하고, 심지어 오드리도 애매하게 끌고만 가. 그리고 나는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도 잘 알고 있어. 너도 마찬가지겠지."

"자, 이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도 도시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저는 퍼트넘에게 트리치노폴리 시가 담배를 살 수 있는 곳을 물었습니다. 그는 제 숙소 맞은편에 작은 가게가 있다고 알려주었죠. 나중에 보니 그는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맞은편'이라는 말은 한 채의 단정한 집이 다섯 여섯 채의 누추한 집들 앞에 서 있을 때는 매우 위험한 표현입니다. 저는 아마도 그 문을 잘못 골랐겠죠.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만 겨우 열렸습니다. 제가 뒤로 물러서려

했을 때, 제 뒤에 있던 문이 다시 닫히며 수없이 많은 자물쇠가 맞물리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할 수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이어지는 복도를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계단을 만나고, 다시 동양식 철공예로 정교하게 만든 잠금장치가 있는 막다른 문을 만났습니다. 저는 손으로 더듬으며 그 잠금장치를 느슨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열 수 있었습니다. 다시 어둠 속으로 나왔지만, 아래쪽의 수많은 작은 등불들이 푸르스름한 황혼빛을 만들어냈습니다. 등불들은 거대하고 빈 건물의 발끝이나 가장자리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앞에는 산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나온 거대한 돌 플랫폼 위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것이 우상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 우상이 등을 돌리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반쯤 인간이라기보다, 짐승에 가까워 보였다. 작고 뚱뚱한 머리를 보고도 그랬지만, 등 뒤로 말려 올라와 거대한 돌등에 새겨진 상징을 혐오스러운 큰 손가락처럼 가리키는 꼬리 같은 사지가 더 그랬다.

어스런 빛속에서 나는 공포에 떨며 그 상형문자를 읽어내려 가고 있었다. 그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내 뒤에 있던 사원 벽에서 문이 소리 없이 열렸고, 한 남자가 나왔다. 얼굴은 갈색이었고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구리 피부와 상아 이빨로 새겨진 미소가 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서 가장 혐오스러웠던 것은, 그가 유럽식 복장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나는 아마도 베일로 얼굴을 가린 사제나, 벌거벗은 파키르(수행승)를 상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남자는 악마의 기운이 온 땅을 뒤덮고 있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했다.

"만약 당신이 원숭이의 발을 보았더라면," 그가 별다른 서두 없이, 차분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너그러웠을 거요. 당신은 고문당하다 죽었을 뿐이죠. 만약 원숭이의 얼굴을 보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관용을 베풀었을 거요. 당신은 고문당하며 살아남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원숭이의 꼬리를 보았소. 그러니 우리는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바로 '석방'이죠."

그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내가 몸부림치며 애썼던 정교한 철제 잠금장치가 저절로 풀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이어진 복도 저편에서, 내가 지나왔던 곳의 무거운 현관문이 스스로 빗장을 풀며 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자비를 구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가야 합니다." 미소 띤 남자의 말이다. "앞으로 당신의 머리카락 한 올도 칼처럼 당신을 죽일 것이며, 숨결 하나도 뱀처럼 당신을 물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무기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며, 수많은 죽음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벽 뒤로 사라지자, 나는 거리로 나섰다.

크레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 브라운 신부는 거리낌 없이 잔디밭에 앉더니 데이지 꽃들을 하나둘 따기 시작했다.

그때 군인이 계속 말했다.

"퍼트남은 물론, 그 특유의 명쾌한 상식 때문에 제 모든 우려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일부터 그는 제 정신 상태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자, 이제 지난날 일어난 세 가지 일을 가장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옳은지 당신이 판단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일은 정글 가장자리에 있는 인도의 한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주받은 사원이나 마을, 혹은 그 풍습이 전해지는 부족들과는 수백 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었죠.

나는 검은 자정, 즉 한밤중에 눈을 떴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누워 있었는데, 목덜미에 실이나 머리카락 한 가닥이 살랑이는 듯한 미세한 간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 실이 내 목을 스치는 것을 피하듯 몸을 뒤로 빼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원에서 들었던 그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불을 밝히고 거울을 찾아 목을 살펴보니, 목에 남은 자국은 피로 흘린 선이었습니다.

두 번째 일은 함께 귀국하는 길에 포트사이드의 한 여관에서 일어났다. 그곳은 선술집과 기이한 물건을 파는 가게가 뒤섞인 곳이었다. 원

숭이 숭배와 관련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그곳에 그 신의 상이나 부적 같은 것이 숨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어쨌든 그 저주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어둠 속에서 깨어났다. 그것은 독사가 물어뜯는 듯한 숨결, 그보다 더 차갑거나 문자 그대로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각이었다. 존재한다는 것은 소멸의 고통 그 자체였다. 나는 벽에 머리를 부딪쳤고, 결국 창문에 부딪쳤다. 그리고 아래 정원으로 뛰어내리기보다는 떨어졌다.

퍼트남, 그 불쌍한 친구는 다른 때의 긁힌 자국을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새벽녘 풀밭에서 의식을 잃은 나를 발견한 사실만큼은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다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의 정신 상태만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세 번째 사건은 말타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곳의 요새에 머물고 있었죠. 우연히도 우리의 침실 창문은 열린 바다를 내려다보았는데, 바다의 물결은 거의 창틀까지 밀려올랐습니다. 다만 창문 너머로는 바다처럼 하얗고 평평한 외벽 하나만 남아 있을 뿐이었죠.

나는 다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밖은 어두운 밤이 아니었습니다. 창가로 걸어가니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휑한 흉벽 위의 새 한 마리도, 지평선 너머로는 돛대 하나도 선명하게 보일 만큼 선명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공중을 떠다니며 빙글빙글 도는 어떤 막대기나 나뭇가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균형을 잡은 채 공중을 날아와, 내가 막 일어났던 베개 옆의 등불을 순식간에 부수며 창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동방 부족들이 사용하는 기묘한 모양의 전투용 곤봉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람의 손에서 날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손에 쥐고 있던 데이지 꽃고리를 내던졌다. 그는 애틋한 눈빛을 머금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퍼트남 소령께서 동양의 골동품이나 우상, 무기 같은 것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그중에서 단서를 얻을 만한 것이 있을까 해서요."

"많이 있기는 하지요. 하지만 아쉽게도 별 쓸모가 없을 것 같군요." 크레이가 대답했다. "하지만 어쨌든 그의 서재로 오시지요."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왓슨 양는 교회에 가기 위해 장갑을 매고 있었다. 아래층에서는 퍼트남의 목소리가 여전히 요리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다.

소령의 서재이자 골동품이 가득한 방에서는, 그들은 뜻밖의 세 번째 인물을 마주쳤다. 그 남자는 실크 모자를 쓰고 외출 준비를 마친 차림새였다. 그는 담뱃대 테이블 위에 펼쳐진 책을 무언가 죄인처럼 급히 내려다보던 참이었다.

크레이는 오만 박사로 소개하며 예의를 갖추려 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서려 있었다. 브라운 신부는 두 남자가 라이벌 관

계라는 것을 직감했다. 오드레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말이다.

사실 신부도 그 편견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만 박사는 정말로 단정하게 차려입은 신사였다. 얼굴 생김새도 준수했지만, 아시아인일 만큼 피부가 어두웠다.

하지만 브라운 신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뾰족한 수염에 왁스를 바르고, 장갑 낀 작은 손으로 말을 하며, 완벽하게 조절된 목소리로 대화하는 자들조차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크레이는 오만의 어두운 장갑을 낀 손에 들려 있는 작은 기도책을 보고는 유독 짜증스러운 기색을 드러냈다.

"그런 게 당신의 취미였나요?"

그가 묻는 말투는 다소 무례할 정도였다.

오만은 부드럽게 웃었지만 기분 상한 기색 없이 말했다. "맞아요, 이 책은 더 그렇죠." 그는 떨어뜨렸던 큰 책 위에 손을 얹었다. "약과 비슷한 것들을 다루는 사전이니까요. 하지만 이토록 큰 책을 교회에 가져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가 큰 책을 덮자, 다시금 아주 미세한 서두름과 당황스러운 기색이 그의 얼굴에 스쳤다.

"이런 창들과 같은 것들은 모두 인도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신부는 주제를 바꾸고 싶어 하는 듯 말했다.

"어디서든요." 의사가 대답했다. "퍼트남은 베테랑 군인입니다. 멕시코나 오스트레일리아, 심지어 식인종 섬들까지도 다녀왔죠. 제가 알기로는요."

"그가 요리의 비결을 캐니발 섬에서 배웠길 바라는군." 브라운 신부가 말하며 벽에 걸린 찌개 냄비들과 기이한 주방 도구들을 훑어보았다.

그때, 그들의 대화의 핵심인 그 유쾌한 인물이 웃음 띤 바닷가재 같은 얼굴을 내밀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자, 크레이 씨, 어서 오세요." 그가 외쳤다. "점심 메뉴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고 싶은 이들을 위해 종소리가 울리고 있군요."

크레이는 옷을 갈아입으려 재빨리 계단 위층으로 올라갔다. 오만 박사와 왓슨 양, 그리고 다른 교회 신자들 몇몇은 진지한 표정으로 거리를 따라 걸어 나갔다.

하지만 브라운 신부는 의사가 두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저택을 뚫어지게 살폈다는 것을 눈치챘다. 심지어 의사는 거리 모퉁이까지 되돌아가서 다시 한 번 저택을 응시했다.

신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쓰레기통에 있었을 리가 없어.” 그는 중얼거렸다. “저런 옷차림으로는 더더욱 아니야. 아니면 오늘 아침 일찍 갔던 걸까?”

브라운 신부는 남의 감정에 대해선 기압계만큼이나 민감했지만, 오늘따라 그는 코뿔소만큼이나 둔감해 보였다. 영국-인도 출신 친구들의 점심 식사 자리에 머무는 것이 어떤 사회적 규범이나 암묵적 예의에 부합하는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재미있지만 전혀 필요 없는 수다를 쏟아내며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더 의아했던 이유는, 그가 점심 식사에 별 관심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다른 두 사람 앞에는 정교하게 조리된 커리 요리와 그에 어울리는 와인이 차례로 내려졌다. 하지만 브라운 신부는 오직 자신의 단식일임을 반복해서 말하며, 빵 한 조각을 씹고 찬물을 한 모금 마신 뒤에는 그대로 내버려두었다. 그럼에도 그의 수다만은 넘쳐흘렀다.

“내가 당신을 위해 뭘 해줄까?” 그가 외쳤다. “샐러드를 만들어 드리마. 내가 먹을 수는 없지만, 천사가 만든 것처럼 정성껏 섞어 주겠소. 당신 쪽에 상추도 있잖소.”

“불행히도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입니다.” 유쾌한 소령가 대답했다. “겨자, 식초, 기름 같은 것들은 모두 크루셋과 함께 절도범에게 가져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다소 모호하게 답했다. "제가 항상 두려워했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샐러드 용기를 들고 다닙니다. 저는 샐러드를 너무 좋아하니까요."

두 남자는 깜짝 놀랐다. 그가 조끼 주머니에서 후추통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도둑이 겨자까지 원했던 이유가 궁금하군." 그는 다른 주머니에서 겨자통을 꺼내며 말을 이었다. "겨자 반창고를 만들려는 게 분명해. 그리고 식초도 필요하겠지." 그는 식초 병을 꺼내 보였다. "식초와 갈색 종이, 내가 뭔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군. 그리고 기름은…… 내가 왼쪽 주머니에 넣은 것 같은데."

그의 수다스러운 말문이 순간 막혔다. 눈을 들어 보니,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햇살이 내리쬐는 잔디밭 위에 오만 박사가 서서, 차분히 방 안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크레이가 이미 말을 끊고 끼어들었다.

"당신은 놀라운 인물입니다." 그가 응시하며 말했다. "만약 설교가 당신의 예의만큼이나 재미있다면, 저는 당신의 설교를 들으러 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변했고, 그는 의자에 기대어 몸을 뒤로 젖혔다.

"글쎄요, 크루에트 받침에도 설교가 담겨 있답니다." 브라운 신부는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겨자씨만 한 믿음이나, 기름으로 부어주는 자

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식초라니요. 해가 어두워졌을 때, 그 홀로 남았던 병사가 잊힐 수 있겠습니까."

크레이 대령가 몸을 약간 앞으로 내밀며 식탁보를 꽉 쥐었다.

브라운 신부는 샐러드를 만들고 있던 참이었다. 그는 겨자를 숟가락 두 스푼 떠서 옆에 놓인 물잔에 부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낯설고도 크고 갑작스러운 목소리로 외쳤다.

"그것을 마셔!"

정원 속에 서 있던 의사가 그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뛰어오더니 창문을 힘껏 열어젖히며 소리쳤다. "무슨 일인가? 그가 중독이라도 당했는가?"

"거의 그럴 뻔했죠." 브라운 신부가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구토제가 순식간에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크레이는 데크 의자에 누워 숨을 헐떡였지만, 살아 있었다.

퍼트남 소령가 벌떡 일어났다. 보라빛 얼굴이 온통 얼룩져 있었다.

"범죄다!" 그가 쉰 목소리로 외쳤다. "경찰을 부르겠다!"

신부는 그가 못에 걸린 야자 잎 모자를 잡아채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정원 문이 쾅 닫혔다.

그는 크레이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너무 많이 말하지는 않겠소. 하지만 당신이 알고 싶은 것은 알려주겠소. 당신에게 내려진 저주는 없소. '원숭이 신전'은 단순한 우연이거나, 그 속임수의 일부였을 뿐이오. 그 속임수를 부린 이는 백인이었소.

깃털처럼 가벼운 터치로만 피를 보게 만드는 무기는 단 하나뿐이오. 백인이 쥐고 있는 면도날이 바로 그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지만 압도적인 독을 일반 방 가득 퍼뜨리는 방법도 단 하나뿐이오. 가스를 틀어놓는 것. 백인이 저지르는 범죄죠.

그리고 창문 밖으로 던져지면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어 바로 옆 창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곤봉도 단 한 종류뿐이오. 바로 호주산 부메랑이지요. 소령의 서재에서 몇 개쯤 볼 수 있을 거요."

그는 밖으로 나가 잠시 의사에게 말을 건넸다. 그다음 순간, 오드리 왓슨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 크레이의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두 사람이 서로 무엇을 나눴는지 들을 수 없었다. 다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의사와 신부는 천천히 정원 문 쪽으로 걸어갔다.

"소령도 그녀를 사랑했겠지."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덧붙였다. "의사님, 정말 너그러우셨어요. 훌륭한 일을 하셨군요. 하지만 어떻게 의심하게 되셨나요?"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오먼이 말했다. "하지만 그 일이 교회에 있는 내내 마음을 졸이게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모든 것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러 온 거죠."

책상 위의 책은 독약에 관한 서적이었습니다. 책은 특정 인도산 독약에 관한 장에서 열려 있었습니다. 그 장에는 치명적이고 추적하기 어렵지만, 가장 흔한 구토제를 쓰면 쉽게 해독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 내용을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크루에트 스탠드에 구토제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냈지."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맞아요. 범인은 그 크루에트를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제가 다른 은제품들과 함께 그것을 발견했죠. 강도 사건을 위장하기 위한 속임수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후추 통을 한번 보세요. 작은 구멍이 하나 보이죠? 바로 그곳에 크레이의 총알이 명중했어. 총알이 후추 통을 흔들면서 후추가 날아갔고, 범인은 그 자극에 재채기를 하게 된 거지."

침묵이 흘렀다. 오먼 박사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소령이 경찰을 찾는 데 시간이 꽤 걸리군."

"아니면, 소령을 찾는 경찰 쪽인가요?" 사제가 물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11. 존 불노아의 기이한 범죄

캘훈 키드 씨는 매우 젊은 신사였지만, 얼굴은 매우 늙어 보였다. 그 얼굴은 자신의 열정으로 인해 마치 마른 듯 말라 있었다. 파란빛이 도는 검은 머리와 검은 나비 넥타이가 그 얼굴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미국 일간지 '웨스턴 선(Western Sun)'의 영국 특사였다. 이 신문은 유머러스하게 '떠오르는 석양(Rising Sunset)'이라고도 불렸다. 이는 키드 씨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알려진 한 유명한 언론인의 선언을 빗댄 것이었다. 그는 "만약 미국 시민들이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해가 서쪽에서 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좀 더 온화한 전통의 관점에서 미국 언론을 조소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분적으로 변명하게 만드는 어떤 역설을 잊고 있다. 미국의 언론은 영어권 언론이 이미 지나쳐 버린 판토마임식 저속함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진지한 정신적 문제들에 대해 진정한 열정을 보여준다. 그러한 열정은 영국 신문들이 무지하거나, 오히려 무능력한 부분이다.

'선'지는 가장 엄숙한 사안들을 가장 희극적인 방식으로 다루었다. 윌리엄 제임스도 그곳에 등장했고, '지친 윌리(Weary Willie)'도 있었다. 실용주의자들은 긴 초상화 행렬에서 권투 선수들과 번갈아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존 불노이스라는, 매우 눈에 띄지 않는 옥스퍼드 학자가 『자연철학 계간지』라는 읽기 힘든 잡지에 다윈 진화론의 이른바

허점들을 지적하는 연재 기사를 기고했을 때, 영국의 신문들은 그 사실을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비록 불노이스의 이론, 즉 우주는 비교적 정지해 있다가 가끔 변화의 격변을 겪는다는 그 이론이 옥스퍼드에서 어느 정도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고, '대격변설(Catastrophism)'이라는 이름까지 얻기도 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미국의 신문들은 이 도전을 하나의 대사건으로 여겼다. 『선(Sun)』지는 불노이스 씨의 그림자를 자신의 지면 전체에 거대하게 드리웠다. 앞서 언급된 역설대로, 그 기사들의 내용은 가치 있는 정보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헤드라인은 마치 문맹자가 쓴 것처럼 어설프게 붙여졌다.

"다윈, 흙을 씹다; 비평가 불노이스, 그를 격퇴했다고 말하다" 혹은 "대격변을 유지하라, 사상가 불노이스가 말하노라"

이런 헤드라인들이 달렸다. 그리고 서부 『선』지의 칼훈 키드 씨는 옥스퍼드 외곽의 작은 집으로 내려가야 했다. 그곳에서 '사상가' 불노이스는 자신이 그런 칭호를 얻었다는 사실조차 행복하게 모른 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운명적인 철학자는 어딘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인터뷰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저녁 아홉 시를 약속 시간으로 정했다. 여름 해 질 녘의 마지막 빛이 커머와 낮은 숲이 우거진 언덕에 달라붙어 있었다. 낭만적인 미국인 기자는 길이 헷갈렸고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도 많았다. 그는 진정한 중세의 고향 여관인 '챔피언 암스'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정보를 얻기로 했다.

바 파르러에서 키드는 종을 울렸다. 하지만 답장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방에 있는 사람은 키드 말고도 한 명뿐이었다. 가냘픈 얼굴에 붉은 머리를 단단하게 자른 사내였다. 헐렁하고 말타기하기 좋은 듯한 옷차림이었다. 그는 몹시 싸구려 위스키를 마시면서도, 아주 좋은 시가 한 개를 피우고 있었다. 위스키는 물론 '챔피언 암스' 여관에서 파는 그들만의 명품이었다. 반면 시가는 아마 런던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었을 것이다.

그의 냉소적인 태도는 방 안의 젊은 미국인과 사뭇 달랐다. 미국인은 꼼꼼하고 건조한 분위기였지만, 이 사내는 게으름 피우는 듯했다. 그러나 그가 연필을 쥐고 열린 노트를 펴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날카롭게 빛나는 파란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키드에게 그는 분명 기자임을 직감하게 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키드가 자국의 예의 바름을 담아 물었다. "불노이스 씨가 살고 있는 회색 오두막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곳에 계신다고 하더군요."

"도로에서 몇 야드쯤 더 내려가면 있습니다." 빨간머리 남자가 시가를 치우며 말했다. "나도 곧 그 길을 지나가야 하지만,Pendragon Park로 가서 구경이나 하려 합니다."

"펜드래곤 공원이 뭐죠?" 칼훈 키드가 물었다.

“클로드 챔피언 경의 저택이요. 당신도 그곳으로 내려오셨나요?” 다른 기자가 고개를 들고 물었다. “당신도 기자군요.”

“저는 불노이스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키드가 말했다.

“불노이스 부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 집에 계실 것 같지는 않군요.” 그는 다소 불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대격변설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놀란 미국인이 물었다.

“저는 참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테니까요.” 동료가 우울한 어조로 대답했다. “저는 더러운 일을 하는 놈입니다. 그걸 숨기지도 않죠.”

그가 바닥에 침을 뱉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그는 귀족 가문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기자는 그를 더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쇠약해 보였지만, 아직 풀려나지 않은 거대한 열망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영리했고, 예민했다. 그의 옷은 거칠었고,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었지만, 그는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 중 하나에 좋은 인장을 끼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대화 중에 드러났는데, 제임스 달로이였다. 그는 파산한 아일랜드 지주의 아들이었고, 그가 진심으로 경멸하는 '스마트 소사이어티'라는 분홍색 신문에 얽매여 있었다. 그는 기자이자, 조금은 불쾌한 정탐꾼 같은 역할로 그 신문에 붙어 있었다.

슬프게도 '스마트 소사이어티'는 다윈에 관한 불노이스에 대해 '웨스턴 선'의 머리와 마음이 자랑할 만큼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달로이가 내려온 것은, 현재 그레이 코티지와 펜드래곤 파크 사이를 맴돌고 있는 스캔들의 향기를 맡기 위해서였다. 그 스캔들은 결국 이혼 법원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웨스턴 선의 독자들에게 클로드 챔피언 경은 불노이스 씨만큼이나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교황이나 더비 우승마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친분이 있다는 생각은 키드에게 똑같이 부조화롭게 느껴졌을 것이다.

키드는 클로드 챔피언 경에 대해 들었다. 그리고 그에게 대해 썼다.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까지 했다. 키드는 그를 '영국 상류층 가운데 가장 빛나고 부유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소개했다. 세계 일주를 하는 요트 경주에서 이름을 날린 대 스포츠맨이기도 했다. 히말라야에 대해 책을 쓴 위대한 여행가이기도 했다. 놀라운 토리 민주주의로 유권자들을 매혹시킨 정치가이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기에 몰두한 예술 애호가였다.

클로드 챔피언 경은 미국인의 시선 밖에서는 꽤나 장엄한 인물이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문화적 관심과 쉬지 않는 홍보 활동에는 르네상스 공작의 기질이 서려 있었다. 그는 단순한 아마추어가 아니었다. 열정적인 아마추어였다. 그 안에는 '딜레탕트'라는 단어가 함축하는 호고가적인 경박함이 전혀 없었다.

보라빛 검은색 이탈리아 눈동자를 지닌, 그 결점 하나 없는 매의 얼굴형. 이 얼굴은 '스마트 소사이어티'와 '웨스턴 선'을 위해 수없이 셔터에 담겼다. 보는 이마다 그를 야망이라는 불길, 아니 질병에 갉아먹힌 사내로 인식하게 했다.

키드는 서 클로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사실,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키드의 가장 터무니없는 상상조차, 이처럼 눈부신 귀족이 '재앙론'의 새로 발견된 창시자와 연결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서 클로드 챔피언과 존 불노이가 친밀한 친구 사이일 것이라고는 더더욱 추측하지 못했다.

하지만 달로이의 진술에 따르면, 그것이 바로 사실이었다. 두 사람은 학교와 대학 시절부터 단짝처럼 사귀었다. 비록 사회적 운명은 극명하게 갈렸지만 말이다. 챔피언은 거대한 토지 소유자이자 거의 백만장자에 가까웠지만, 불노이는 가난한 학자였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명의 학자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불노이의 오두막은 펜드래곤 파크의 정문 바로 바깥에 자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친구로 지낼 수 있을지는 이미 어둡고 불쾌한 의문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한두 해 전쯤, 불노이스는 아름답고 성공적인 여배우와 결혼했다. 그는 자신의 수줍고 무거운 스타일로 그녀를 깊이 사랑했다. 그 부부의 가정이 챔피언의 집과 가까웠기에, 그 경박한 유명인사는 고통스럽고 다소 비열한 흥분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할 기회를 얻었다.

클로드 경은 대중을 호소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연마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불륜 관계에서도 똑같이 과시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 미친 듯한 즐거움을 느꼈다. 펜드래건 저택의 하인들은 불노이스 부인에게 꽃다발을 끊임없이 전달했고, 마차와 자동차는 그녀를 태우기 위해 오두막 앞에 끊임없이 정차했다. 남작은 토너먼트에서 사랑과 미의 여왕처럼 불노이스 부인을 자랑스럽게 데리고 다녔고, 그에 따라 무도회와 가면무도회는 그의 영지를 끊임없이 채웠다.

바로 그날 밤은 키드 씨가 '재앙론'을 설명하기로 표시한 날이었지만, 클로드 챔피언 경에게는 야외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공연하기로 표시한 날이었다. 그는 로미오 역을 맡았고, 줄리엣 역은 굳이 이름을 댈 필요도 없는 이가 맡았다.

"이대로는 추락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붉은머리 청년이 일어나 몸을 풀며 말했다. "불노이스 영감은 이미 처리됐을 수도 있고, 아직 멀쩡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멀쩡하다면, 그는 엄청나게 뚱뚱하다. 말하자면 입체적으로 볼륨이 있다는 뜻이지. 하지만 나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는 뛰어난 지성을 가진 남자입니다." 칼훈 키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달로이가 대답했다. "하지만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그토록 망가진 바보는 아닐 거야. 너는 이제 떠나는 게 좋겠어? 나도 곧 따라갈 테니까."

칼훈 키드는 밀크 소다를 다 마시고는 재빨리 길을 나서 그레이 코티지 쪽으로 향했다. 그는 냉소적인 정보를 건네준 상대를 위스키와 담배 곁에 남겨둔 채였다.

하늘의 마지막 빛은 이미 지워졌다. 하늘은 슬레이트처럼 어두운 녹색 회색빛을 띠었고, 여기저기 별들이 반짝였다. 하지만 하늘의 왼쪽은 조금 더 밝아 달이 떠오르려 함을 예고하고 있었다.

회색 오두막은 마치 높은 가시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요새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공원 솔숲과 목책 바로 아래에 붙어 있어, 키드는 처음에 이를 공원 관리인 숙소로 착각했다. 그러나 좁은 나무 문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고, 시계를 보아 '생각하는 이'와의 약속 시간이 막 시작되었음을 알자, 그는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정원 울타리 너머로 보니, 집은 겉보기보다 훨씬 크고 호화스러웠다. 처음 보기엔 소박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문지기 숙소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개집과 벌통이 외부에 놓여 있어, 마치 옛 영국 시골 생활의 상징처럼 보였다. 풍성한 배나무 숲 뒤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고, 개집에서 나온 개는 경건해 보였으며 짖기를 꺼렸다. 문을 연 평범한, 나이 지긋한 하인은 간결하면서도 위엄 있는 태도로 응대했다.

"불노이스 씨가 사죄를 전하라고 하셨지만, 갑자기 외출하셔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제가 약속이 있었거든요." 인터뷰어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펜드래곤 파크로 가셨습니다, 나리." 하인이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말하며 문 닫기를 시작했다.

키드가 살짝 놀랐다.

"그는 부인, 아니 다른 손님들과 함께 갔습니까?" 그가 다소 모호하게 물었다.

"아니요, 나리." 남자가 짧게 잘라 말했다. "그분은 머물러 있다가, 혼자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세게 닫았다. 하지만 그 태도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미국인은 짜증이 났다. 그는 이 모든 사람을 재촉하며 일하는 습관을 가르쳐 주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꼈다. 그는 늙은 개와, 선사시대 유물 같은 셔츠 앞판을 단 회색빛 수염의 무거운 얼굴을 한 늙은 집사, 그리고 졸린 달,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산만한 노철학자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싶었다.

"저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그의 아내가 가진 가장 순수한 헌신까지 잃을 자격이 충분하다." 칼훈 키드 씨가 말했다. "하지만 아마 그는 소동을 일으키러 간 걸세. 만약 그렇다면, 웨스턴 선(Western Sun)에서 온 한 사내가 현장에 도착했을 거야."

그는 열린 정문 옆으로 코너를 돌아, 펜드래곤 공원의 안쪽 정원을 향해 급격하게 뻗어 있는 긴 흑송 숲길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나무들은 검은색 관에 꽂힌 깃털처럼 검고 질서 정연했다. 하늘에는 아직 몇몇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연을 직접적으로 느끼기보다 문학적 관조로 바라보는 성향이 강한 남자였다. '래븐우드(Ravenswood)'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여러 번 스쳐 지나갔다. 이는 흑송 숲의 까마귀 같은 색 때문이기도 했지만, 스콧의 위대한 비극이 묘사하는 그 설명할 수 없는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었다. 18세기에 죽어간 무언가의 냄새, 축축한 정원들과 깨진 항아리들, 이제 결코 바로잡히지 않을 불의들의 냄새. 그것은 기이하게도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더욱 치유할 수 없는 슬픔을 풍기고 있었다.

그는 비극적 위선이 깔린 기이하고 검은 길을 올라가며 두 번이나 발걸음을 멈췄다. 앞쪽에서 발소리가 나는 것 같아 깜짝 놀랐기 때문이다. 앞쪽에는 소나무가 빽빽하게 서 있는 어두운 벽 두 개와, 그 위로 뾰족하게 보이는 별빛 가득한 하늘만 보일 뿐이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환청을 들었거나, 자신의 굽신거리는 발소리만 반향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속 걸어갈수록, 남은 이성의 조각들조차 다른 누군가의 발이 이 길에 실제로 있다고 결론 내리도록 그를 밀어붙였다.

그는 흐릿하게 유령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빠르게 적절한 유령의 형상을 떠올릴 수 있는지 스스로 놀랐다. 피에로의 하얀 얼굴처럼 창백하지만, 검은 얼룩으로 뒤덮인 그런 유령이었다.

어두운 파란 하늘의 삼각형 꼭짓점이 점점 더 밝고 파랗게 물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것이 거대한 집과 정원의 불빛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단지 공기가 점점 더

강렬해지고, 그 슬픔 속에 더 많은 폭력과 비밀이 스며들고 있다는 느낌만 들었다.

그는 단어를 찾다가 망설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재앙주의적(Catastrophism)인 것."

소나무가 더 늘어났고, 길도 그에게서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순간, 그는 마법 같은 기운에 발이 묶인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꿈속으로 들어간 것 같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번만큼은 그가 확신했다. 자신이 책 속으로 들어왔다고.

우리는 부조화로운 것들에 익숙하다. 어울리지 않는 소음에도 귀가 마비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잠들게 하는 선율과도 같다. 하지만 딱 맞는 한 가지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완벽하고도 날카로운 화음의 통증을 겪듯 깜짝 놀라 깨어난다.

그곳에서라면, 잊혀진 이야기 속 한 장면처럼 일어날 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검은 소나무 숲 너머로 달빛 속에 번쩍이며 칼집을 벗은 검 한 자루가 날아왔다. 그 고대 공원에서 수많은 부당한 결투를 치렀을 법한, 가늘고 빛나는 라피어였다.

검은 그의 앞쪽 길바닥에 떨어졌다. 커다란 바늘처럼 빛나며 그곳에 멈춰 섰다. 그는 토끼처럼 달려가 몸을 굽혀 검을 살펴봤다.

가까이서 보니 검은 다소 과시적인 인상을 줬다. 손잡이와 칼날 받침에 박힌 커다란 붉은 보석들은 다소 의심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칼날 위에 맺힌 다른 붉은 물방울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눈부신 물체가 날아온 방향을 황급히 둘러보았다. 소나무와 전나무로 어두운 숲을 이루던 벽면이, 그 지점에서 직각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 하나에 의해 끊겨 있었다. 그는 그 길로 방향을 돌렸다.

그러자 눈앞에 긴 건물이 한눈에 들어왔다. 건물 앞에는 호수와 분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풍경을 보지 않았다. 더 흥미로운 것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위쪽, 계단식 정원의 가파른 초록 언덕 모퉁이에는 옛 풍경 조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그림 같은 경치가 있었다. 거대한 두더지 굴처럼 보이는 작은 둥근 언덕이나 돔 모양의 초지였다. 그 위에는 세 겹의 장미 울타리가 동심원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가장 높은 중앙에는 해시계가 놓여 있었다.

키드는 해시계의 바늘이 하늘을 배경으로 짙게 선명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상어의 등지느러미처럼 말이다. 그 쓸모없는 시계 위에 애써 달라붙은 달빛도 보였다. 하지만 그는 한순간의 황홀함 속에서, 그것에게 또 다른 무언가가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바로 한 남자의 형상이었다.

그는 그 모습을 단 한순간만 보았을 뿐이었다. 의상은 기이하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목부터 발끝까지 붉은색에 금빛이 번쩍이는 타이

트한 의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빛이 한 번 스치는 순간, 그는 그 사람이 누군지 단번에 알아챘다.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린 하얀 얼굴. 수염을 깎아 깨끗했고, 로마인 같은 코를 가진 바이런처럼 비현실적으로 젊어 보였다. 이미 회색빛이 돌기 시작한 검은 곱슬머리. 그는 클로드 챔피언 경의 수많은 공개 초상화를 본 적이 있었다.

야릇한 붉은 형체가 해시계 옆에서 잠시 비틀거렸다. 다음 순간, 그는 가파른 비탈을 굴러떨어졌고, 미국인의 발치에 누워 한 팔을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팔에 달린 화려하고 부자연스러운 금 장신구는 키드에게 로미오와 줄리엣을 떠올리게 했다. 물론 그 타이트한 붉은색 의상은 연극의 일부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남자가 굴러떨어진 비탈을 따라 길게 흐른 붉은 얼룩은 연극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는 몸통을 칼에 꿰뚫린 것이었다.

칼훈 키드가 비명을 지르고 또 지른다. 다시 한번 그는 유령의 발소리라도 듣는 듯했고, 이미 곁에 서 있는 또 다른 인물을 발견해 깜짝 놀랐다. 그 인물은 알 만한 얼굴이었지만, 오히려 그를 더 공포에 떨게 했다. 달로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방탕한 청년은 묘할 정도로 조용했다. 불누아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달로이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듯한 불길한 기색을 풍겼다. 달빛은 모든 것을 색 바래게 만들었고, 달로이의 붉은 머리카락과 대비된 창백한 얼굴은 하얗기보다 오히려 누렇게 질린 듯했다.

이런 기괴한 인상주의적 감정은 키드가 부당하게도, 이유 없이, 심지어 잔인하게까지 외친 변명일 뿐이다. "너, 이 악마야, 이 일을 저질렀느냐?"

제임스 달로이는 불쾌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쓰러진 몸이 다시 움직였다. 팔을 어렴풋이 저어, 검이 떨어졌던 곳을 가리켰다. 그리고 신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제야 그 몸은 말을 할 수 있었다.

"불누아…… 불누아, 내가 말하네…… 불누아가 그랬어…… 나를 질투해서…… 그는 나를 질투했지, 그는, 그는……"

키드는 귀를 기울이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겨우 그 말들을 알아들었다.

"불누아…… 내 칼로…… 그가 던졌어……"

다시 한 번, 힘을 잃은 손이 검을 향해 떨리며 흔들렸다. 그러곤 툭, 딱딱하게 떨어지며 굳어버렸다. 키드(Kidd)의 깊은 곳에서, 그들 민족의 진지함 속에 숨어 있는 신비한 소금 같은, 그 날카롭고 쓴웃음이 다시 피어올랐다.

"여기요." 그는 날카롭고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의사를 부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도 있군요, 아마." 달로이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는 어조로 말했다. "이 챔피언들은 모두 가톨릭 신자들이야."

미국인 기자는 시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맥박을 짚어보고, 시체의 머리를 일으켜 세웠다. 마지막까지 소생을 시도했다. 하지만 다른 기자가 다시 나타났을 때였다. 그 뒤로는 의사와 신부가 따랐다. 그는 이미 두 사람이 늦었다고 단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당신도 이미 늦으셨습니까?" 의사가 물었다. 그는 단단하고 번듯해 보이는 체격에 관습적인 수염과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지만, 눈빛은 생동감 넘쳤다. 그의 시선은 키드를 의심스럽게 훑어보았다.

"한 가지 의미로는," 태양신문 대표가 느릿하게 말했다. "나는 그 남자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중요한 무언가를 듣기에는 제때 도착한 것 같습니다. 저는 죽은 자가 자신의 살인자를 고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는 누구였습니까?" 의사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불누아," 칼훈 키드가 낮게 부르며 부드럽게 휘파람을 불었다.

의사는 붉게 달아오른 이마를 드러내며 우울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배경에 서 있던 키 작은 사제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불누아 씨가 오늘 밤 펜드래건 파크에 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 말인가." 양키가 굳은 얼굴로 말했다. "저희가 영국에 몇 가지 사실을 알려줄 수도 있겠소. 그렇소, 존 불누아는 오늘 밤 내내 머물 계획이었소. 저와 아주 좋은 약속을 잡았거든. 그런데 존 불누아가 마음을 바꿨지. 그는 집을 갑자기 혼자 떠났고, 한 시간쯤 전에 이 망할 공원으로 왔소. 그의 하인이 그렇게 말했소. 우리는 경찰이 '단서'라고 부르는 것을 쥐고 있소. 그들한테 연락했소?"

"네, 그렇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아직 다른 누구도 놀라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불누아 부인이 알고 있나요?" 제임스 달로이가 물었다. 키드는 또 다시 이성의 이치에 맞지 않는 충동을 느꼈다. 비웃듯 일그러진 그 입을 때려주고 싶은 욕망이었다.

"그녀에게 아직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사가 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오고 있군요."

작은 신부는 메인 길로 나가 다시 돌아왔다. 손에는 떨어뜨린 검이 들려 있었다. 그 검이 그의 통통하고 평범한 몸매에 매달려 있으니, 마치 극장에서 쓰는 소품처럼 어이없게 크게 보였다. 그의 모습은 성직자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도 평범했다.

"경찰이 오기 직전인데," 그가 사과하는 말투로 말했다. "불 좀 가진 분 없나요?"

양키 기자가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냈다. 신부는 그 빛을 칼날의 중간 부분에 비추었다. 그는 깜빡이며 신중하게 칼날을 살폈다. 그후 칼끝이나 손잡이는 보지도 않은 채, 그는 긴 무기를 의사에게 건넸다.

"여기서는 제가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짧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러자 그는 어두운 길을 따라 집 쪽으로 걸어갔다. 손은 뒤로 깍지 낀 채, 큰 머리는 생각에 잠겨 숙인 채로.

무리의 나머지는 더 급한 걸음으로 수위실 정문 쪽으로 향했다. 문지기 옆에서 경감과 두 순경이 무언가 상의하는 모습이 이미 보였다.

하지만 작은 신부는 오히려 걸음을 더디게 떼었다. 소나무로 짠 어두운 복도를 지나 마침내 집 계단 위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조용히 다가오는 이에게도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그곳으로 다가오는 존재는, 아름다운 귀부인의 유령을 갈망하던 칼훈 키드조차 만족시킬 만한 기품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르네상스 양식의 은빛 새틴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금발은 길고 빛나는 두 가닥으로 늘어졌고, 그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다. 마치 고대 그리스 조각가들이 상아와 금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녀는 인간이라기보다 조각상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매우 밝게 빛났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브라운 신부님?" 그녀가 물었다.

"불누아 부인?" 그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러고는 그녀를 바라보더니 곧바로 말했다. "클로드 경에 대해 알고 계시는군요."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어떻게 아시오?" 그녀가 단호하게 물었다.

그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다. "당신 남편을 보셨나요?"

"남편이 집에 있어요. 이 일과 남편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여자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묘할 정도로 강렬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더 말씀드릴까요?" 그녀는 다소 두려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저는 그가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신도 마찬가진 거죠?" 브라운 신부는 그녀를 오랫동안 진지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더욱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브라운 신부님," 부인이 말했다.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존 씨의 유죄를 단정짓는 것과 달리, 왜 당신은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거리낌 없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제가 저에 대한 소문과 불리한 정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솔직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이마에 손을 쓱 문질렀다.

"두 가지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가 말했다. "적어도 하나는 아주 사소하고, 다른 하나는 아주 모호하죠. 하지만 어쨌든 그 사실들은 불누아 씨가 범인이라는 설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는 별들을 향해 빈둥거리는 둥근 얼굴을 들어 올렸다. 그는 멍하니 말을 이었다.

"먼저 모호한 아이디어부터 살펴보자. 나는 모호한 아이디어에 상당한 중요성을 둔다. '증거가 되지 않는' 것들이야말로 나를 확신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나는 도덕적 불가능성이 모든 불가능 중 가장 큰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당신의 남편을 그리 깊게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그의 이 범죄는, 나에게 있어선 매우 도덕적으로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진다. 불누아가 그렇게 악해질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누구나 원하는 만큼 악해질 수 있다. 우리는 도덕적 의지를 조절할 수 있지만, 본능적인 취향이나 행동 방식을 바꾸기는 보통 어렵다.

불누아가 살인을 저지를 수는 있겠지만, 이번 같은 살인은 저지르지 못할 것이다. 그는 낭만적인 칼집에서 로미오의 칼을 뽑아 들지도, 해시계를 제단 삼아 적을 베어 죽이지도, 시체를 장미들 사이에 남겨두지도, 칼을 소나무들 사이로 던져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 불루아스가 누군가를 죽인다면, 그는 조용하고 무겁게, 다른 의심스러운 일들—포트 와인 열 잔을 마시거나, 방탕한 그리스 시인을 읽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하듯 처리했을 것이다. 아니, 낭만적인 배경은 불누아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챔피언에게 더 어울리는 일이다."

"아!" 그녀가 말하며,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사소한 단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브라운이 말했다. "그 검에는 지문이 남아 있었소. 유리나 강철처럼 광택 있는 표면 위에 남긴 지문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거든. 그 지문도 바로 그런 광택 나는 표면에 있었소. 검날의 중간쯤에 묻어 있었지."

"누구의 지문인지는 알 길이 없소. 하지만 왜 누군가 검의 중간쯤을 잡았겠소? 그 검이 꽤 길기는 했지만, 적을 찌를 때는 길이가 오히려 유리한 점이 있죠. 대부분의 적에게는 말이지. 단 한 명의 적을 제외하고는."

"하나는 빼고요." 그녀가 되뇌었다.

"칼보다 단도로 죽이기 쉬운 적이 단 한 명 있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알아요," 여자가 말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오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신부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내가 맞습니까? 클로드 경이 자살을 한 것입니까?"

"네." 그녀는 대리석처럼 굳은 얼굴로 말했다. "내가 직접 그걸 봤어요."

"그가 당신을 사랑해서 죽었다는 말인가요?"

그녀의 얼굴에 놀라운 표정이 스쳤다. 동정이나 겸손, 혹은 후회 같은, 동료가 예상했던 어떤 감정도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힘차고 단호해졌다.

"그가 저를 조금이라도 사랑했다고는 믿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제 남편을 미워했어요."

"왜요?" 다른 한 사람이 물으며, 하늘을 바라보던 둥근 얼굴을 여인에게로 돌렸다.

"그는 내 남편을 미워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브라운 신부가 인내심 있게 물었다.

"왜냐하면 제 남편은 그를 싫어하지 않으셨거든요."

브라운 신부는 고개만 끄덕일 뿐, 여전히 무언가를 경청하는 듯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소설 속이든 현실 속이든 대부분의 형사들과 한

가지 작은 점에서 달랐다. 바로, 이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척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불노아 부인이 다시 다가왔다. 그 얼굴에는 변함없는 확신에 찬 열기가 서려 있었다.

"제 남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클로드 챔피언 경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망 있고 성공한 사람이었을 뿐이죠. 제 남편은 명성도 성공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연한 진실입니다. 그는 그런 것을 꿈꿔본 적조차 없습니다. 그는 시가를 피우듯, 생각으로 유명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는 놀라울 정도로 멍청한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까지도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학교 시절과 똑같이 챔피언을 좋아했고, 마치 식탁 위에서 펼쳐지는 마술처럼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챔피언을 부러워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챔피언은 부러움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 욕구 때문에 미쳐 자살하고 말았죠."

"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이제 조금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아, 보시지 못하시나요?" 그녀가 외쳤다. "전체 구도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 장소도 그걸 위해 설계됐죠."

챔피언은 존을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작은 집에 살게 했어요. 종속된 사람처럼 느끼게 하려는 의도였죠. 존이 실패자라고 느끼게 만들려고

요. 하지만 존은 결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런 일에 대해, 마치 정신이 다른 곳에 있는 사자처럼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죠.

챔피언은 존이 가장 초라한 시간을 보내거나 가장 소박한 식사를 할 때면, 하룬 알라시드의 방문처럼 눈부신 선물이나 발표, 혹은 원정을 들고 나타나곤 했어요. 존은 그런 제안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지 않고, 마치 게으른 소년이 다른 소년과 동의하거나 반대하듯이, 한쪽 눈은 다른 곳에 둔 채 너그럽게 수락하거나 거절하곤 했죠.

다섯 해가 지나도 존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클로드 챔피언 경은 편집광이 되어 버렸죠.

"하만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왕이 자신을 얼마나 높여주었는지, 그 모든 일을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문에 앉아 있는 유대인 모르드개를 보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위기가 닥친 건, 제가 존에게 자신의 추측들을 정리해 잡지에 보내도 된다고 설득했을 때였습니다. 그의 글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특히 미국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느 신문은 그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죠. 거의 매일 인터뷰를 받던 챔피언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경쟁자에게 이런 사소한 성공이 돌아간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의 악의가 마침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저의 사랑과 명예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은 그 뒤부터였습니다. 이 지방 전체가 떠들던 그 미친 듯한 집착이 바로 그겁니다. 왜 제가 그

런 끔찍한 접근을 허용했는지 궁금하시겠죠. 대답은 간단합니다. 남편에게 설명하지 않고는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몸이 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남편에게 그 사실을 설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에게 '챔피언이 당신의 아내를 훔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말해도, 그는 그것이 약간 저속한 농담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것이 농담이 아닌 다른 무엇일 수 있다는 생각은, 그의 거대한 두개골에는 결코 들어설 틈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 존이 우리가 연극을 하는 것을 보러 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발하려던 순간, 그는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책과 시가가 있으니 말입니다. 이 사실을 클로드 경에게 알렸고, 그것이 그에게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편벽된 그의 마음은 절망만 보았죠. 그는 악마처럼 울부짖으며 '불누아가 나를 죽이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질투로 인해 질투를 낳으려다 죽어, 정원에 누워 있습니다. 반면 존은 식당에 앉아 책을 읽고 있군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자 작은 신부가 입을 열었다.

"불누아 부인, 당신의 생생한 증언에는 단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남편이 식당에 앉아 책을 읽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미국 기자가 당신 집을 방문했다고 했죠. 그리고 집사도 불누아 씨가 결국 펜드래건 파크로 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말에 그녀의 눈이 빛나듯 커졌다. 혼란이나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리둥절함에 가까워 보였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외쳤다. "모든 하인들은 연극 구경을 나갔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집에는 집사가 없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깜짝 놀라, 이상하게도 팽이처럼 반바퀴 돌았다.

"뭐, 뭐라고?"

그는 마치 갑자기 생기를 얻은 듯 외쳤다.

"봐요,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집으로 가면 남편분께 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쯤 하인들은 돌아왔을 거예요." 그녀는 의아한 듯 말했다.

"그렇지, 그렇지!" 신부는 힘차게 되받아 말하며, 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재빠르게 걸어 올랐다. 그는 문턱에서 한 번 몸을 돌려 말했다.

"저 미국 놈을 잡아야 해. 안 그러면 '존 불노아의 범죄'가 온 공화국에 큰 글자로 떠돌게 될 테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불누아 부인이 말했다. "그분은 괜찮아하실 거예요. 저는 그분이 미국이 정말로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봐요."

브라운 신부가 벌집과 나른한 개가 있는 집에 도착했을 때, 키가 작고 깔끔한 하녀가 그를 식탁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불누아는 어둑한 램프 아래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묘사한 그대로였다. 그의 팔걸이 옆에는 포트 와인 병과 잔이 놓여 있었다. 신부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신부는 그의 시가에 부러지지 않고 길게 붙어 있는 재를 알아챘다.

브라운 신부는 적어도 그는 이곳에 삼십 분은 앉아 있었으리라 생각했다. 사실 그는 식탁 위를 치운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일어나실 필요 없습니다, 불누아 씨." 사제는 평범하면서도 친절한 어조로 말했다. "잠시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요. 혹시 과학 연구 중이신 건 아닌지 걱정스럽군요."

"아니요," 불노아는 말했다. "'피투성이 엄지'를 읽고 있었소."

그는 눈썹을 찌푸리지도, 미소 짓지도 않았다. 방문객은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깊고 단단한 무관심을 느꼈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위대함'이라 불렀던 바로 그 감정이었다. 그는 피투성이의 노란색 스릴러 소설을 내려놓았지만, 그 책이 가진 부조화감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고, 따라서 유머러스하게 논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존 불노아는 키가 크고 움직임이 느린 사내였다. 그의 머리는 거대했고, 회색 머리와 대머리가 섞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둔중하고 거구였다. 그는 형편없고 매우 구식인 저녁용 정장을 입고 있었다. 셔츠 앞판은 좁고 삼각형으로 열려 있었다. 그는 그날 저녁, 아내가 줄리엣 역을 맡은 연극을 보러 가겠다는 본래의 목적으로 그 옷을 입었다.

"'피투성이 엄지' 사건이나 그 밖의 다른 큰 사건들 때문에 당신을 오래 붙잡아두지는 않겠소." 브라운 신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 밤 당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여쭤보러 온 것뿐이오."

불누아는 그를 단호히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넓은 이마 위로 붉은 기운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처음 겪는 당혹감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보였다.

"사실 이상한 사건이었죠." 브라운 신부가 낮은 목소리로 동의했다. "아마 당신에게는 살인보다 더 낯선 일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죄들은 때로 큰 죄보다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당신의 그 죄는 매주 여섯 번이나 사교계의 안주인들이 저지르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죄가 이름 없는 흉악한 죄처럼 혀에 달라붙어 쉽게 뱉어지지 않는다고 느끼는군요."

"그건 사람을 이렇게 바보 같은 기분이 들게 하죠." 철학자가 천천히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때로는 '바보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것'과 '실제로 바보가 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도 있거든요."

"저는 제 자신을 잘 분석하지 못합니다." 불누아가 이어 말했다. "하지만 그 의자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반쯤 쉬는 날의 소년처럼 행복했습니다. 그것은 안위요, 영원함…… 전할 수가 없군요. 시가 가까이 있었고, 성냥도 손이 닿는 곳에 있었죠. '엄지'가 네 차례 더

등장할 차례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긴, 죽음 같은 일 분 동안 그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육체적으로, 근육 하나까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치 세계를 들어 올리는 사람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밖에 나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관을 열자, 입을 벌려 무언가 하려는 작은 남자가 서 있었고, 노트를 펼쳐 무언가를 기록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잊고 있던 미국인 기자가 생각났습니다. 그의 머리는 한가운데로 가르마를 탔고, 정말이지 살인이라는 것이……"

"알겠습니다. 저도 그를 봤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재앙론자가 담담하게 이어 말했다. "저는 증언 위증만 저질렀을 뿐입니다. 저는 펜드래건 공원을 찾아가 그의 얼굴을 보고 문을 닫았다고 말했죠. 그것이 제 죄입니다, 브라운 신부님. 그리고 그 죄에 대해 어떤 보속을 받으라고 하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벌칙은 주지 않겠습니다." 신부님은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띠며 무거운 모자와 우산을 챙기며 말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곳에 찾아와, 그러지 않았다면 당신의 작은 잘못에 뒤따랐을 작은 벌칙을 면제해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운 좋게도 면제받은 작은 벌칙은 대체 무엇입니까?" 불노아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형벌은 교수형이죠."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12. 브라운 신부의 동화

히를발트슈타인. 그림처럼 아름다운 도시이자 공국이었다. 이 곳은 독일 제국에 속해 있던 수많은 장난감 왕국 중 하나였다. 프로이센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최근의 일이었다. 플랑보와 브라운 신부가 그 아름다운 여름날, 공원의 정자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날로부터 고작 50년 전의 일이었다.

그곳에서는 살아생전 기억할 만한 일들 중 전쟁과 야만적인 정의가 적지 않게 있었다. 곧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그저 바라보기만 해서는, 독일의 가장 매력적인 측면인 그 어린아이다움의 인상을 떨쳐낼 수 없었다. 작은 판토마임처럼 사랑스러운 가부장적 군주정들이 그곳에는 존재했다. 그곳의 왕들은 마치 부엌의 요리사처럼 친근해 보였다.

수많은 초소마다 서 있던 독일 군인들은 기묘하게도 독일제 장난감처럼 보였다. 햇살에 빛나는 성의 깔끔한 성벽은 더욱 금박이 입혀진 생강빵처럼 보였다. 날씨가 너무도 화창했기 때문이다. 하늘은 포츠담이 요구할 만큼이나 프로이센 특유의 푸른색이었고, 그것은 마치 한 실링짜리 물감 상자에서 아이들이 뽑아낸 풍부하고 빛나는 색채와도 같았다. 회색 줄무늬를 가진 나무들조차도 젊어 보였다. 가지 끝에 달린

뾰족한 새싹은 아직 분홍빛을 띠고 있었고, 짙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평범한 외모와 실용적인 일상으로 무장한 브라운 신부였지만, 그 안에는 어딘지 모르게 낭만적인 기질이 숨어 있었다. 다만 그는 많은 아이들처럼 그 환상들을 혼자 간직할 뿐,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다.

활기차고 밝은 빛이 넘치는 그런 날, 그리고 문장(紋章)이 장식된 고즈넉한 마을의 분위기 속에서, 그는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마치 어린 동생처럼, 플랑보가 걸을 때마다 던져놓곤 하던 그 위엄 있는 지팡이 검을 보며 아이같은 즐거움을 느꼈다. 지금 그 지팡이 검은 키 큰 뮌헨 맥주 잔 곁에 똑바로 서 있었다.

심지어 그는 잠결 같은 무책임한 기분 탓인지, 자신이 들고 있던 낡은 우산의 투박하고 굵직한 손잡이를 바라보며, 옛날 컬러 장난감 책에 나왔던 오거(식인귀)의 몽둥이를 연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소설 형식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적이 없었다. 오직 다음에 이어질 이 이야기 말고는.

"이런 곳에서 진짜 모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말했다. "만약 내가 그 길로 들어선다면 말이에요. 이곳은 모험의 완벽한 배경이죠. 하지만 저는 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곳의 모험은 끔찍한 실제 검보다는 판지로 만든 장난감 검으로 싸우는 게 더 많을 것 같다는 거요."

"당신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친구가 말했다. "이곳에서는 칼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칼 없이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한 일도 있습니다."

"왜, 무슨 말씀이세요?" 브라운 신부가 물었다.

"왜냐고요?" 다른 한 사람이 대답했다. "저는 이것이 유럽에서 총기 없이 사람이 쏘아 맞은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활과 화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브라운이 의아한 듯 물었다.

"뇌에 총알 한 발을 박는다는 뜻이죠." 플랑보가 대답했다. "이곳의 작고한 공작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시나요? 스무 해 전, 경찰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였으니까요. 물론 기억하시겠지만, 이 땅은 비스마르크가 제국 통합을 꾀하던 아주 초기 단계에 무력으로 병합되었습니다. 물론 무력이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제국(이라고 자칭하던 그 세력)은 제국의 이익을 위해 그로스엔마르크의 오토 공작을 이곳의 통치자로 파견했습니다. 우리도 저쪽 복도에 걸린 초상화를 봤죠. 머리카락이나 눈썹이 있었다면, 그리고 독수리처럼 주름투성이 피부가 아니었다면 꽤 잘생긴 노신사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잠시 후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실력과 성공을 거둔 군인이었지만, 이 작은 땅을 다스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아른홀트 형제들에게 여러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스윈번이 시를 바쳤던, 세 명의 게릴라 애국자들 말이죠. 기억하시죠?"

흰담비 털을 두른 늑대들, 관을 쓴 까마귀들과 왕들— 이 모든 것은 쥐처럼 많지만, 그러나 셋은 이것들을 견디어 내리라.

그런 식의 일이었지. 다만, 세 형제 중 한 명인 파울이 비열하긴 했지만 단호하게 더 이상 그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다면, 그 점령이 성공했을지는 결코 장담할 수 없다. 그는 반란의 모든 비밀을 폭로함으로써 그 반란을 무너뜨렸고, 그 대가로 오토 공작의 시종장직을 얻어 최종적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그 후, 스윈번 씨의 영웅들 중 유일한 진정한 영웅인 루드비그는 도시 함락 과정에서 검을 든 채 전사했다. 나머지 셋째 형제 하인리히는 배신자는 아니었지만, 활동적인 두 형제에 비해 늘 소극적이고 심지어 소심한 편이었다. 그는 은거지 같은 곳으로 물러나, 거의 퀘이커교도 같은 기독교적 평온함으로 개종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이 가진 거의 모든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만 사람들과 마주쳤다.

최근까지도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가끔 주변을 배회하는 검은 망토를 두른 노인이었으니, 시력이 거의 없는 데다 머리카락은 매우 거칠게 흰색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온화했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친구는 다소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기에 오신 적이 있었다니, 저는 몰랐습니다." 친구가 말했다. "아마 그 일에 대해선 저보다

더 잘 아시나 봅니다. 어쨌든, 그것이 아른홀드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예, 그 드라마에 관여했던 모든 남자들 중에서도요."

"당신은 그 공작도 훨씬 전에 죽었다고 말하는 거요?"

"죽었다." 플랑보가 되뇌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다."

이 점은 알아둬야 한다. 생의 말년에 그는 특유의 신경질적인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폭군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었다. 그는 성 주변에 상시 경비를 몇 배로 늘렸다. 어느덧 마을의 집보다 감시초소가 더 많아 보일 정도였다. 의심스러운 자들은 가차 없이 사살당했다.

그는 거대한 미궁 같은 방들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방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다. 그 방 안에는 또 다른 중앙의 선실이나 찬장 같은 것을 세웠다. 금고나 전함처럼 강철로 안을 댄 것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 방 바닥 아래에 땅속의 비밀 공간이 있다고 말한다. 그곳은 그 사람 하나를 겨우 넣을 수 있을 만큼 작았다. 죽음의 무덤을 피하려는 그의 불안이, 결국 그와 비슷한 곳으로 스스로를 내몰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더 나아갔다. 반란이 진압된 이후부터 민중은 무장을 해제당했다고 여겨졌지만, 오토는 정부들이 드물게 고집을 부리듯, 절대적이고 문자 그대로의 무장 해제를 요구했다.

그것은 매우 잘 조직된 관리들에 의해, 작고 익숙한 지역 안에서 놀라울 정도로 철저하고 엄격하게 실행되었다. 인간의 힘과 과학이 어떤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면, 오토 공작은 히를발트슈타인성에 장난감 권총 하나조차 들여오는 자가 없음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인간이 그런 일을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브라운 신부는 여전히 머리 위의 나뭇가지에 피어오르는 붉은 새싹을 바라보며 말했다. "단지 정의와 내포의 어려움 때문이죠.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가장 온화한 가정용품으로도 살인이 자행되곤 합니다. 차주전자로, 아마도 차덮개로도요. 반면에, 만약 고대 브리튼인에게 권총을 보여준다면, 그가 그것이 무기임을 알 리는 없습니다. 물론 총알이 자신에게 박힌 뒤에는요. 어쩌면 총기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새로운 화기가 도입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골무처럼 보였을 수도 있죠. 그 총알은 특별히 이례적인 것이었을까요?"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네." 플랑보가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정보는 단편적이고, 모두 옛 친구 그림에게서 들은 이야기일 뿐이야. 그는 독일 정보부에서 매우 유능한 형사였지. 그가 나를 체포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내가 그를 체포했어. 그 후로 우리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 그는 공작 오토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총알에 대해서는 그에게 묻는 것을 깜빡했어. 그림의 증언에 따르면, 일어난 일은 이렇다."

그는 잠시 멈추고 어두운 라거 맥주를 한 모금에 거의 다 비웠다. 그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문제의 그 저녁, 공작은 외부 방들 중 한 곳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었다. 그는 실제로 만나고 싶어 하는 몇몇 손님들을 접견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손님들은 지질학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이 근처 바위들에서 금이 공급된다는 오래된 설을 조사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그 설에 따르면, 이 작은 도시 국가가 오랜 세월 동안 신용을 유지해 왔으며, 더 큰 군대의 끊임없는 폭격 속에서도 이웃 국가들과 교섭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가장 엄격한 조사로도 그 설이--

"장난감 권총을 발견해 낼 수 있었을 테죠." 브라운 신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배신한 그 형제는요? 그가 공작에게 알려줄 만한 것이 없었을까요?"

"그는 항상 자신이 모른다고 단언했습니다." 플랑보가 대답했다. "이것이 형제들이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유일한 비밀이라는 것이었다. 그 주장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다. 죽어가는 루트비히 대공이 하인리히를 바라보며 파울을 가리키고 '너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군……'라고 남긴 단편적인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곧 말을 잇지 못하게 되었다.

어쨌든 파리와 베를린에서 온 저명한 지질학자들과 광물학자 대표단이 참석했다. 그들은 가장 화려하고 적절한 복장을 갖췄다. 과학자들만큼 자신의 훈장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없다. 왕립학회 야회(soirée)에 참석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모임은 훌륭했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차임벌린, 즉 궁정 시종장이 발견했다. 그는 검은 눈썹에 진지한 눈매, 그리고 그 아래로 의미 없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초상화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차임벌린은 그곳에 있는 것이 모두 있지만 정작 공작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바깥 접견실을 모두 수색했다. 그러곤 공작의 광기 어린 공포증 발작을 기억하며 가장 안쪽 방으로 급히 달려갔다. 그곳도 비어 있었다. 하지만 방 한가운데 세워진 강철의 둥근 탑이나 선실 같은 구조물을 열려면 시간이 걸렸다.

문이 열리자 그곳 역시 비어 있었다. 그는 땅에 뚫린 구멍을 들여다보러 갔다. 그 구멍은 더 깊어 보였고, 묘지처럼 느껴졌다. 물론 이것이 그의 설명일 뿐이다.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 바깥 긴 복도와 방들에서 비명과 소동이 터져 나왔다.

먼저 군중의 지평선 너머, 성곽을 훨씬 뛰어넘는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의 먼 굉음과 진동이 들려왔다.

다음은 말 없는 비명 같은 소란이었다. 너무 가까워서 놀라울 정도였고, 크기가 커서 각 단어가 서로를 짓눌러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리고는 더욱 선명하고도 끔찍한 말들이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한 남자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그런 소식일수록 짧고 간결하게 전하듯, 소식을 전했다.

오토 공작은 성 뒤 숲 어둠이 짙게 내려앉는 황혼, 이슬에 젖은 땅에 누워 있었다. 팔을 벌린 채 얼굴을 하늘, 그러니까 달을 향해 들어 올린 채였다. 부서진 관자놀이와 턱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지만, 살아 움직이는 것은 그 피뿐이었다. 그는 접대를 위해 입었던 흰색과 노란색의 정장 차림이었다. 다만 허리띠나 스카프는 풀려 옆에 구겨져 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가 들어 올려지기 전,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죽었든 살았든, 그는 수수께끼 그 자체였다. 언제나 젖은 숲속 깊은 곳, 무장하지도 않은 채 혼자 숨어 지내던 자였으니까.

"누가 그의 시체를 발견했나요?" 브라운 신부가 물었다.

"황실과 연고가 있는 헤드비히라는 이름의 소녀였지. 성은 뭐라 그랬나, 어쨌든 그런 이름이었어." 친구가 대답했다. "그녀는 숲속에서 들꽃을 따고 나왔던 참이었다고."

"그녀가 꽃을 좀 땄나요?" 사제가 위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그의 시선은 가지들이 만들어낸 그늘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네," 플랑보가 대답했다. "그때 차임벌린, 혹은 그림 영감 같은 사람이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 여자가 봄 꽃을 들고 피투성이가 된 그 무너진 자리 위에 몸을 굽힌 모습을 보고는,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야기했죠. 하지만 핵심은,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그는 이미 죽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소식은 성으로 전해져야 했고, 그로 인해 일

어난 공황은 한 군주가 몰락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당혹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방문자들, 특히 광산 전문가들과 많은 중요한 프로이센 관리들은 극도의 불안과 흥분 속에 있었습니다. 곧 그 보물을 찾는 계획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드러났죠. 전문가들과 관리들은 거액의 상금이나 국제적인 이득을 약속받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공작의 비밀 거처와 강력한 군사적 보호가 민중의 두려움 때문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에 대한 사적인 조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꽃대들이 길었나요?" 브라운 신부가 물었다.

플랑보가 그를 응시했다.

"당신 정말 이상한 분이시군요!"

"그게 바로 그림 영감이 했던 말이에요. 그는 그중에서 가장 끔찍한 부분이 꽃들이었다 생각했죠. 피와 총알보다 더 끔찍하다고요. 꽃들이 너무 짧아서, 꽃머리 바로 아래에서 잘려나갔다는 거요."

"물론이지요." 사제가 말했다. "성인 여성이 진정으로 꽃을 꺾을 때는 줄기를 충분히 남깁니다. 만약 아이처럼 꽃머리만 뽑아냈다면, 그것은 마치--"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래?" 다른 한 사람이 물었다.

"글쎄, 그녀가 긴장해서 그것들을 낚아챈 것 같아. 그곳에 있다가—글쎄, 그곳에 도착한 후에—있다는 변명을 만들기 위해."

"무슨 말인지 알겠소." 플랑보가 다소 우울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그 추측이나 다른 모든 의심은 한 가지 점에서 무너져 내리지요. 바로 무기의 부재 때문이오. 당신 말대로라면, 그는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도 살해당할 수 있었소. 그의 군용 장식띠로조차도요. 하지만 우리가 설명해야 할 것은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총에 맞았느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우리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소."

"그 소녀는 가장 잔인할 정도로 철저히 수색당했소. 진실은, 그녀가 약간 의심스러웠다는 점이지. 악명 높은 늙은 시종장 폴 아른홀트의 조카이자 피후견인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매우 낭만적이었고, 가족 내부의 구식 혁명적 열정에 동조한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소. 아무리 낭만적이라고 해도, 총이나 권총 없이 사람의 턱이나 뇌로 큰 총알을 쏘아 넣는 상상은 할 수 없소. 그런데 총은 없었소. 총알 두 발이 날아왔지만, 총은 없었단 말이지. 친구여, 이 점을 당신에게 맡기겠소."

"총알이 두 발이나 맞았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작은 사제가 물었다.

"머리에는 총알 한 개만 박혔습니다." 동료가 말했다. "하지만 허리띠에도 또 다른 총구멍이 있었죠."

브라운 신부의 매끄러운 이마가 갑자기 일그러졌다. "다른 총알은 찾았습니까?" 그가 물었다.

플랑보가 살짝 놀랐다. "기억나지 않는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브라운 신부가 점점 더 심하게 찌푸리며 말했다. 평소와는 달리 호기심이 한껏 고조된 모습이었다. "무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시만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보겠습니다."

"좋소." 플랑보가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맥주 잔을 비웠다.

가벼운 바람이 싹을 틔운 나무들을 흔들었다. 하늘로 하얗고 분홍빛 구름조각들이 밀려올랐다. 그 구름들은 하늘을 더 파랗게 보이게 했고, 온갖 색이 어우러진 풍경을 한층 더 정겹게 만들었다. 마치 천상의 육아원 창문으로 돌아가는 작은 천사들처럼 보였다.

가장 오래된 성의 탑, 용의 탑은 맥주 잔처럼 기괴하면서도 정겹게 우뚝 서 있었다. 다만 그 탑 너머로만, 그 남자가 시체가 되어 누워 있던 숲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다.

"그 헤드비히가 결국 어떻게 됐소?" 신부가 마침내 물었다.

"그분은 슈바르츠 장군과 결혼했습니다." 플랑보가 말했다. "장군의 이력, 들어보셨을 겁니다. 꽤나 로맨틱하죠. 사도바와 그라벨로트에서의 활약 이전부터 이미 두각을 나타냈으니까요. 사실 그는 병사 출신으로 승진한 경우인데, 이는 독일의 가장 작은 군대에서조차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브라운 신부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사병에서 진급한 자라!" 그가 외치며 입술을 오므려 휘파람을 불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세상에, 참으로 기이한 이야기다! 사람을 죽이는

방식도 유별나고. 하지만 아마도 그 외엔 방법이 없었을 테지. 하지만 그토록 인내심 있게 쌓아 올린 증오라니…….”

“무슨 뜻이오?” 다른 한 사람이 물었다. “그들이 그 남자를 어떻게 죽였다는 말이오?”

“그들은 허리띠로 그를 죽였소.” 브라운 신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플랑보가 반박하자, 그는 다시금 말했다. “네, 총알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소. 어쩌면 나는 그가 허리띠를 얻어서 죽었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소. 그것이 질병을 얻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소.”

“당신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겠지요,” 플랑보가 말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총알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전에 말했듯이, 그는 목 졸려 죽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총에 맞았습니다. 누구에 의해? 무엇에 의해?”

“그는 자신의 명령으로 총을 맞았습니다.” 사제가 말했다.

“그가 자살을 했다는 뜻이야?”

“그가 자발적으로 원해서라니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대답했다. “내가 말한 것은, 그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어쨌든, 당신의 추측은 무엇입니까?”

브라운 신부가 웃었다. “전 그냥 휴가 나온 거예요. 특별한 가설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이 곳이 동화 같은 느낌을 줘서요. 원하시면 동화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분홍빛 구름들이 마치 사탕처럼 보일 만큼 달콤한 빛을 띠며, 금으로 도색된 진저브레드 성의 첨탑 꼭대기를 장식하듯 떠올랐다. 새싹을 틔운 나무들의 분홍빛 아기 손가락들처럼 보이는 가지들은 그 구름들을 향해 뻗고 늘어지며 닿으려 했다. 하늘의 푸른빛은 저녁의 선명한 보라빛으로 물들어가던 찰나, 브라운 신부가 갑자기 다시 입을 열었다.

비가 내리던 음울한 밤이었다. 나무가지에서는 아직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고, 이슬은 이미 맺히기 시작했다. 그즈음 그로스엔마르크의 오토 공작이 성의 옆문으로 급히 나와 숲속으로 빠르게 걸어들어갔다. 수많은 경병들 중 한 명이 그에게 경례를 했지만, 그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특별히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회색빛으로 물들고 빗물에 윤기가 도는 큰 나무들이 그를 늪지처럼 삼켜버렸을 때, 그는 안도했다. 그는 고의적으로 성의 가장 적게 찾는 쪽을 선택했지만, 그래도 그가 원하는 만큼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주제넘거나 외교적인 추적을 받을 가능성은 없었다. 그의 출구가 갑작스러운 충동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남겨둔 모든 정장 차림의 외교관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그들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큰 열정은 죽음에 대한 고귀한 공포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금에 대한 기묘한 욕망을 품고 있었다. 바로 이 금에 관한 전설 때문에

그는 그로센마르크를 떠나 하일리발덴슈타인을 침략했다. 오직 이 금을 위해서만 그는 배신자를 사들였고 영웅을 학살했다. 이 금을 위해서만 그는 거짓 시종장을 장기간에 걸쳐 심문하고 재차 추궁했다. 그 결과, 자신의 무지에 관해서는 그 이단자가 정말로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금을 위해서 그는 다소 망설이면서도 돈을 지불했고 더 큰 금액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 돈을 주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금을 위해서 그는 비 오는 밤도둑처럼 자신의 궁전을 빠져나왔다. 그는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저렴하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의 목적지는 성 아래로 내려다보는 능선을 따라 늘어선 기둥 같은 바위들 사이를 지나는, 길고 구불거리는 등산로 끝자락에 있었다. 그곳에 수도자가 사는 오두막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시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굴 하나쯤 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세 번째 형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과 단절된 채 숨어 지내고 있었다.

오토 왕자는 생각했다. 그에게 금을 넘겨주지 않을 명백한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그 금이 어디에 있는지 수년 동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금욕주의 신조가 그로 하여금 재산이나 쾌락과 단절되기 훨씬 전부터, 그 금을 찾아나서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인 적이 없었다.

물론 그는 과거의 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적을 두지 않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공언하고 있었다. 그의 신념을 건드려 보거나, 그의 원칙에 호소해 본다면, 그에게서 돈의 비밀을 빼내는 정도는 어렵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토는 군사전략으로 자신을 둘러싼 안전망에도 불구하고, 결코 겁쟁이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그의 탐욕은 두려움보다 훨씬 강했다. 그리고 두려울 이유도 별로 없었다.

오토는 공국 전체에 사적인 무기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렇다면 그가 수년 동안 허브와 두 명의 노령 하인, 그리고 단 한 명의 인간 목소리조차 듣지 못한 채 살았던, 언덕 위의 그 퀘이커교도 수도자의 오두막에는 무기가 더더욱 없을 것이었다.

오토는 아래로 내려다보며, 차갑고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앞에는 등불이 밝힌 도시의 네모난 미로가 펼쳐져 있었다. 시야가 닿는 곳 끝까지 그의 친구들이 쥔 소총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반면 그의 적들을 위한 화약은 단 한 줌도 없었다.

소총들은 등산로 근처까지 너무 가까이 밀집해 있어, 오토가 비명을 지르기만 하면 군인들이 언덕을 향해 돌진해 올 것이었다. 게다가 숲과 능선은 정해진 간격으로 순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숲속 깊은 곳, 강 너머로 멀리 떨어진 곳에는 소총들이 너무 멀어서 적들이 우회로를 통해 도시로 숨어들 수 없는 상태였다. 궁전 서쪽 문과 동쪽 문, 북쪽 문과 남쪽 문, 그리고 그들을 잇는 네 개의 정면 전체에도 소총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는 안전했다.

그가 능선을 넘어 올라섰을 때, 오랜 적의 보금자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한눈에 들어왔다. 그는 세 면이 절벽으로 끊어진 작은 암반 위에

서 있었다. 뒤로는 푸른 가시나무가 덮인 검은 동굴이 있었으나, 천장이 너무 낮아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앞으로는 절벽이 떨어지는 곳과 안개 낀 계곡의 광활한 풍경이 펼쳐졌다.

작은 암반 위에는 낡은 청동 독서대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거대한 독일어 성경이 무거운 듯 올려져 있었다. 높은 지대의 공기에 부식된 탓인지, 청동이나 구리로 된 독서대는 푸른 녹슬기 시작해 있었다. 오토는 즉시 생각했다. '비록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제는 녹이 슬어 버렸겠지.'

달이 떠오르며 능선 뒤로 죽은 듯한 새벽빛이 번졌다. 비는 이미 그쳤다.

독서대 뒤편, 계곡을 내려다보며 한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검은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그 가운은 주변 절벽처럼 곧게 늘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하얀 머리카락과 약한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듯했다. 그는 분명히 매일 읽는 성경 구절을 읽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종교적 의식의 일부였다. "그들은 그들의 말에 의지하느니라…"

"신부님," 하일리발덴슈타인 왕자가 평소와는 달리 매우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말씀을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전차를 의지하느니라,' 노인은 힘없이 계속했다. '그러나 우리는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믿으리니…'"

마지막 말은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아졌다. 그는 경건하게 책을 덮었다. 시력이 거의 없는 그는 더듬거리며 손길을 뻗어 독서대를 잡았다.

순간, 낮은 천장의 동굴 같던 곳에서 그의 하인 두 명이 슬그머니 빠져나와 그를 받쳐 들었다. 그들은 주인과 마찬가지로 칙칙한 검은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머리카락에는 서리처럼 핀 은빛이 없었고, 얼굴의 날카로운 정제미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크로아티아나 마자르인 농부들이었다. 넓고 둔탁한 얼굴에 눈은 자주 깜빡거렸다.

처음으로 왕자는 불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용기와 외교적 감각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희는 아마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끔찍한 대포 사격 때, 당신의 가엾은 형제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후로요."

"형제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계곡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다. 잠시 후, 그는 오토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처진 듯한 섬세한 얼굴과 눈썹 위로 서리처럼 드리운 하얀 머리. 그는 덧붙였다. "보시죠, 저도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자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거의 화해의 태도를 취하며 말했다. "제가 단지 거대한 다툼의 유령처럼 당신을 쫓아온 것이 아님을요. 그 일에서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는 이제 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당신이 항상 옳았다는 점이죠. 당신의 가문이 취한 정책이 어찌 되었든, 단 한 순간도 당신을 움직인 것이 단순히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런 오해…

검은 가운을 입은 노인은 지금까지도 눈물이 고인 듯한 푸른 눈으로 그를 응시해 왔다. 그의 얼굴에는 약한 지혜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금'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그는 마치 무언가를 제지하듯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얼굴을 산 쪽으로 돌렸다.

"그가 금에 대해 말했지," 그가 말했다. "그는 금지된 일들에 대해 말했어. 그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라."

오토는 프로이센적 기질과 전통이 낳은 나쁜 버릇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성공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본질적인 자질로 여기는 태도였다. 그는 자신과 같은 자들이 영영 정복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정복하는 민족들은 영영 정복당하는 자들이라고 믿었다.

그 결과 그는 놀람이라는 감정에 익숙하지 않았다. 다음 순간의 움직임에 대비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 움직임은 그를 놀라게 하고 몸을 굳게 만들었다.

그는 은자에게 답하려 입술을 벌렸다. 하지만 그 입은 갑자기 막혔다. 목소리는 질식했다. 강한 부드러운 천 조각이 그의 머리에 혈대 압박대처럼 단단히 감겨진 것이다.

그가 비로소 그 일이 두 명의 헝가리 하인들이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사십 초가 걸렸다. 그들이 자신의 군용 스카프로 그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그제야 알았다.

노인은 다시금 허약한 기색으로 거대한 놋쇠 받침의 성경으로 다가갔다. 그는 끔찍할 만큼의 인내심으로 페이지를 넘겨 나갔다. 결국 성

야고보의 서간문에 다다랐을 때, 그는 읽기 시작했다.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그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왕자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고개를 돌렸고, 자신이 올라왔던 산길을 재빨리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가 목과 턱을 조이고 있는 끈을 떼어내려 마음을 먹기 전까지, 그는 이미 궁전의 정원 쪽으로 절반쯤 도달해 있었다. 그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그 매듭을 묶은 자들은 한 가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바로, 손이 앞에 있을 때와 뒤에 있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의 다리는 산에서 영양처럼 뛰어오를 수 있을 만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팔은 어떤 제스처를 취하거나 신호를 보내는 데에도 자유로웠다. 그러나 그는 입을 열 수 없었다. 그에게 말 못하는 악마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성을 둘러싼 숲에 거의 다다랐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말없이 서 있는 이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며 또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그는 다시 한 번 아래로 내려다보았다. 등불이 밝힌 도시의 밝고 네모난 미로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미소 짓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자신에게서 들었던 말들을 반복하며, 살의가 서린 아이러니를 느꼈다.

시야가 닿는 곳까지 그의 친구들의 소총이 늘어서 있었다. 그들 중 누구든 그가 보초의 수하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를 즉사시킬 것이다.

소총이 너무 가까워 숲과 능선을 정해진 간격으로 순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침까지 숲에 숨어 있는 것은 무의미했다.

동시에 소총은 너무 멀리 배치되어 있어, 적이 우회로를 통해 마을로 숨어들 수 없었다. 따라서 먼 길을 돌아 도시로 돌아가는 것도 헛된 시도였다.

그가 비명을 지르면 그의 병사들은 언덕을 향해 달려올 것이었다.

하지만 그에게서 비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달이 은빛을 더해 오르고 있었다. 성을 둘러싼 소나무들의 검은 줄기 사이로, 밤하늘은 밝은 남색의 띠를 그리며 드러났다. 그는 전에 본 적 없는, 넓고 깃털 같은 꽃들이 달빛에 비춰 빛나면서도 색이 바랜 채로 보였다. 그것들은 마치 나무 뿌리 주변을 기어 다니는 듯 군집을 이루며, 묘하게도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냈다.

그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부자연스러운 억압감 때문에 갑자기 이성이 흔들렸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숲속에서 그는 무엇인가 헤아릴 수 없이 독일적인 것, 즉 동화를 느꼈다. 그는 반쯤은 의식하고 있었다.

자신이 괴물의 성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자신이 바로 그 괴물임을 잊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께 집안의 오래된 공원에 곰이 사는지 물었던 기억이 났다. 그는 마법에 대한 방패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꽃을 꺾으려 몸을 숙였다. 줄기는 예상보다 단단했고, 살짝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끊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꽃을 스카프에 넣으려 했다.

그때 멀리서 "누구냐?"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그제야 그는 스카프가 평소와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다 말았다. 두 번째 수하 외침이 이어졌다. 그리고 총성이 날카롭게 울려 퍼지더니, 곧이어 명중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로스엔마르크의 오토는 요정나무들 사이에 아주 평온하게 누워 있었다. 이제 그는 금으로도, 강철로도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었다. 달빛의 은빛 연필이 그의 제복에 새겨진 복잡한 문양과 이마의 주름을 여기저기 따라 그릴 뿐이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경비대의 엄격한 명령에 따라 사격을 가한 파수병은 당연히 사냥감을 찾아 앞으로 나아갔다. 그 병사의 이름은 슈바르츠였다. 그는 직업적으로 꽤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제복을 입은 대머리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자신의 군용 스카프로 만든 가면처럼 단단히 감겨 있어, 달빛에 차갑게 빛나는 두 개의 빈 눈동자만이

보일 뿐이었다. 총알은 입을 막은 재갈을 뚫고 턱에 박혔다. 그래서 스카프에는 총알 구멍이 하나 있었지만, 총격은 단 한 번뿐이었다. 당연히,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젊은 슈바르츠는 그 기묘한 비단 가면을 벗어던지고 잔디 위에 던져 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죽인 자가 누구인지 보게 되었다.

다음 단계에 대해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그 작은 숲속에서, 비록 그 계기가 끔찍했더라도, 결국 동화 같은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원받은 군인과 나중에 결혼한 헤드비히라는 이름의 젊은 여자가, 그 군인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그 사건을 목격하게 되어 친밀감이 그 밤에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아마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헤드비히가 영웅이었으며, 영웅이 된 남성과 결혼할 자격이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대담하면서도 현명한 선택을 했다. 그녀는 파수꾼이 자신의 근무지로 돌아가도록 설득했다. 그곳에는 그와 재앙을 연결할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부를 수 있는 오십 명의 파수꾼 중 가장 충성스럽고 질서 정연한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녀는 시체 곁에 남아 경보를 울렸다. 그녀에게도 재앙과 연결될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총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가질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브라운 신부가 상쾌한 기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

"어디 가?" 친구가 물었다.

"아른홀트, 동족을 배신한 그 참사장의 초상화를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신부가 대답했다. "궁금한 것은, 한 번의 배신자가 두 번의 배신을 저지르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덜 배신자인 걸까 하는 점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초상화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흰 머리에 검은 눈썹을 가진 노인의 초상이었다. 그의 입가에는 분홍빛으로 칠한 듯한 미소가 맺혀 있었다. 그 미소는 눈빛의 검은 경고와 정반대였다.

G. K. 체스터턴의 『브라운 신부의 지혜』 끝